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박 부 자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인과 연결어미 '-길래'에 대한 연구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법 활용 교재 제안과 실제를 중심으로-

2022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이 지 선

# 인과 연결어미 '-길래'에 대한 연구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법 활용 교재 제안과 실제를 중심으로-

박부자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이 지 선

# 인 준 서

이지선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10월

심사위원장 김일환 (인)

심 사 위 원 장미경 (인)

심 사 위 원 이영조 (인)

심 사 위 원 이혜경 (인)

심 사 위 원 박부자 (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논문개요

한국어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수많은 인과 연결어미가 존재한다. 모국어 화자는 그중에서 상황에 적합한 인과 연결어미를 쉽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학습자들은 이에 대해 먼저 학습을 통한 습득이 이루어져야만 상황에 어울리는 인과 연결어미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인과 연결어미 중에서도 특히 '-길래'는 필자가 16년 넘게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오면서 교수하기 어렵다고 느낀 문법 항목 중의 하나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문장에서의 의미에 따라 통사적 제약이 달라지는 데다가 제약이 변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를 학습자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이유는 '-길래'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교육 자료가 많이 부족한 실정 때문이었다. 이것이 '-길래'가 교수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에 해당한다. 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교사의 이와 같은 문제가 교수를 받는 학습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즉 앞서 지적한 대로 외국인 학습자들이 '-길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통한 습득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길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습자가 '-길래'의 사용에 오류를 일으키거나 오류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그 사용을 회피하는 경우가 일어나게 된다. 이는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 학습자에게 제시할 '-길래'의 교육 자료를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를 위해 1장에서 먼저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을 제시하고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본고의 연구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하면서 관련 연구 대상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2장과 3장에 걸쳐 '-길래'의 의미

와 통사적 특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가장 타당한 의미와 정확한 통사적 제약을 제시했다. 또한 4장에서는 이를 분석 기준으로 학습자들의 '-길래'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어 5장에서는 학습자들이 오류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추정되는 '-길래'에 대한 제시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에서 출간된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논의한 '-길래'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 등에서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 교수하여야 할 '-길래'가 가진 특성을 4장과 5장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기술한 의사소통에 중점을 둔 문법 활용 교재를 제안하였다. 그 목적은 한국어 학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길래'가 필요한 담화 상황에서 '-길래'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목차

논문개요
Ⅰ.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3
3. 연구 방법 및 대상 ····· 9

Ⅱ. ‘-길래’의 의미 ····· 14
1. 문장에서 나타나는 ‘-길래’의 의미 ····· 17
1.1. 문장에서 화자의 ‘지각’ 및 ‘자각’이 드러나는 ‘-길래’의 의미 ····· 17
1.2. 문장에서 화자의 ‘지각’ 및 ‘자각’이 드러나지 않는 ‘-길래’의 의미 · 35
2. 담화 상에서 나타나는 ‘-길래’의 의미 ····· 44
2.1. ‘-길래’ 평서문[1]에서의 ‘-길래’의 담화적 의미 기능 ····· 48
2.1.1. 이유 설명과 상황 소개 및 추가 설명 ····· 49
2.1.2. 변명 ····· 52
2.1.3. 핀잔 ····· 54
2.2. ‘-길래’ 의문문에서의 ‘-길래’의 담화적 의미 기능 ····· 57
2.2.1. 이유 질문과 이유에 대한 궁금증 ····· 57
2.2.2. 비난과 비꼼 ····· 60
2.2.3. 따짐 ····· 61
2.2.4. 부정적 감정 표현과 감탄 ····· 62
2.2.5. 놀림 ····· 64
2.2.6. 핀잔 ····· 65
2.3. ‘-길래’가 사용되는 담화 환경의 특성 ····· 73

Ⅲ. ‘-길래’의 통사적 특징 ····· 76
1. ‘-길래’ 평서문[1]의 통사적 특징 ····· 81
1.1. 선·후행절의 1인칭 주어 필수 제약 ····· 81
1.2. 선행절에서의 ‘-길래’의 결합 제약 ····· 89

1.2.1. 선행절의 지각 및 즉각적 자각 가능 서술어 필수 제약 ····· 90
1.2.2. ‘-길래’의 문법 표현 결합 제약 ····· 96
1.3. 후행절의 미래 시제 불가 제약 ····· 102
1.4. 후행절 서술어의 의지적 행동 필수 제약 ····· 105
2. ‘-길래’ 의문문의 통사적 특징 ····· 117
2.1. 선행절의 의문사 수반 필수 제약 ····· 117
2.2. 후행절의 미래 시제 불가 제약 ····· 121
2.3. ‘-길래’의 문법 표현 결합 제약 ····· 122
2.4. 제약의 소멸 ····· 127
2.4.1. 선행절에서의 주어와 서술어 제약의 소멸 ····· 127
2.4.2. 후행절에서의 주어와 서술어 제약의 소멸 ····· 131
3. ‘-길래’ 평서문²의 통사적 특징 ····· 136
3.1. 후행절의 ‘-겠지’ 수반 필수 제약 ····· 136
3.2. 후행절의 미래 시제 불가 제약 ····· 143
3.3. ‘-길래’의 문법 표현 결합 제약 ····· 145
3.4. 제약의 소멸 ····· 149
3.4.1. 선행절에서의 주어와 서술어 제약의 소멸 ····· 150
3.4.2. 후행절에서의 주어와 서술어 제약의 소멸 ····· 152
4. ‘-길래’ 평서문¹·의문문·평서문²의 공통 제약과 개별 제약 ····· 156
4.1. ‘-길래’ 구문의 공통 제약 ····· 156
4.2. ‘-길래’ 구문의 개별 제약 ····· 160

Ⅳ. 학습자 자료에 나타난 ‘-길래’의 오류 분석 ····· 166
1.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 나타난 ‘-길래’의 사용 양상 분석 ····· 170
2.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 나타난 ‘-길래’의 오류 분석 ····· 176
2.1. 화용적 기능 오류 ····· 176
2.2. 주어 인칭 제약 오류 ····· 177
2.3. 후행절의 서술어와 시제 오류 ····· 181
2.4. ‘-길래’를 잘못 사용한 오류 ····· 185
2.5. 선행절의 결합 오류 ····· 189
2.6. 후행절의 서법과 의문문 오류 ····· 193

2.7. 기타 ····· 198
2.7.1.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 나타난 중국인 학습자의 '-길래' 사용 오류 분석 ····· 199
2.7.2. 교사의 채점 오류 ····· 200
2.7.3. 4급 학습자 시험 자료에 나타난 선행절 결합 오류 ····· 203

Ⅴ. 한국어 교재에서의 '-길래'의 제시 양상 ····· 209
1. 한국 출간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길래' ····· 212
1.1. 4급 교재의 '-길래' ····· 216
1.2. 3급 교재의 '-길래' ····· 247
1.3. 5급 교재의 '-길래' ····· 248
1.4. 한국 출간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길래' 제시의 문제점 ····· 251
2. 중국 출간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길래' ····· 260
2.1. 2학년 교재의 '-길래' ····· 261
2.2. 3학년 교재의 '-길래' ····· 263
2.3. 중국 출간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길래' 제시의 문제점 ····· 270
3. 한국 출간 교재와 중국 출간 교재의 '-길래'의 제시 양상 비교 ····· 272

Ⅵ. '-길래' 관련 문법 활용 교재 구성 ····· 278
1. 교재 구성의 개요 ····· 280
1.1. 제시 급수와 교재 구성 이론 ····· 280
1.2. '-길래' 제시의 단원 구성 ····· 283
2. '-길래' 관련 교재 구성 제안 ····· 287
2.1. '-길래' 평서문[1]의 '-길래'의 결합 정보 제시 ····· 288
2.2. '-길래' 평서문[1]의 '-길래'의 의미 제시 ····· 291
2.3. '-길래' 평서문[1]의 '-길래'의 통사적 제약 제시 ····· 292
2.4.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 제시 ····· 299
2.5. '-길래'의 화용 정보 제시 ····· 305
2.6. '-길래' 의문문 제시 ····· 305
2.7. '-길래' 평서문[2] 제시 ····· 310

Ⅶ. 결론 ····· 313
참고문헌 ····· 319
ABSTRACT ····· 326
부록 ····· 328

# 표목차

[표 1] 학습자 오류 분석 대상 자료의 수와 학습자의 국적 수 ····· 11
[표 2]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한국 측과 중국 측의 한국어 교재 ····· 12
[표 3] 사전류에서 제시한 '-길래'의 의미 ····· 14
[표 4] '-길래'가 쓰인 용례 수 ····· 48
[표 5] '-길래' 평서문[1]에서의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과 특징 ····· 54
[표 6] '-길래' 의문문에서의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과 특징 ····· 66
[표 7] 의문문에서의 '-길래'의 담화적 기능의 '도대체' 류 등의 수반율 ····· 67
[표 8] '-길래' 의문문에서의 '-길래'의 담화적 기능을 제시한 선행연구 ····· 69
[표 9]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과 출현 횟수 ····· 71
[표 10] '-길래'가 나타난 구어 담화의 환경적 특성 ····· 73
[표 11] '-길래' 평서문[1]·의문문·평서문[2]의 주어 및 서술어 제약 ····· 160
[표 12] '-길래'를 사용한 학습자의 국적 분포 ····· 167
[표 13] '-길래'를 사용한 학습자의 학습 목적 ····· 168
[표 14] '-길래'를 사용한 학습자의 한국어 급수 ····· 168
[표 15] 1학기 4급 학습자의 국적 분포 ····· 169
[표 16] 2학기 4급 학습자의 국적 분포 ····· 169
[표 17] 학습자의 말뭉치 자료와 '-길래'가 사용된 말뭉치 자료의 국적 비교 ····· 171
[표 18] '-길래'를 오류 없이 사용한 학습자의 국적 및 급수와 문장 수 ····· 172
[표 19] 학습자가 일으킨 '-길래'의 주어 인칭 제약 오류 유형 및 오류율 · 178
[표 20] 학습자가 일으킨 '-길래'의 후행절 서술어 제약 오류 유형 및 오류율 ····· 182
[표 21] 학습자가 일으킨 '-길래'의 대치 오류 유형 및 오류율 ····· 186
[표 22] 학습자 '-길래' 구문의 선행절 결합에서 나타난 오류 유형 및 오류율 ····· 189
[표 23]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 나타난 '-길래' 사용의 오류 유형 및 오류율 ····· 196
[표 24]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 나타난 중국인의 '-길래' 사용의 오류 유형 및 오류율 ····· 199

[표 25] 4급 학습자 자료에 나타난 '-길래' 사용의 오류 유형 및 오류율 … 203
[표 26] 4급 학습자 '-길래' 구문의 선행절 결합에서의 오류 유형 및 오류율 … 204
[표 27]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한국 측과 중국 측의 한국어 교재 … 211
[표 28] 한국 출간 한국어 교재에서 '-길래'가 제시된 급수와 단원 … 213
[표 29] 한국 출간 한국어 교재에서 '-더-' 류와 '-길래'가 제시된 급수와 단원 … 215
[표 30]『재미있는 한국어 4』에서 제시한 '-길래' … 217
[표 31]『이화 한국어 4』에서 제시한 '-길래' … 219
[표 31-1]『이화 한국어 참고서 중국어판 4』에서 제시한 '-길래' … 220
[표 32]『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중급 2』에서 제시한 '-길래' … 224
[표 33]『경희한국어 중급 2 문법』에서 제시한 '-길래' … 226
[표 34]『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4』에서 제시한 '-길래' … 229
[표 34-1]『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4』에서 제시한 '-길래' … 230
[표 35]『함께 배우는 건국 한국어 4』에서 제시한 '-길래' … 233
[표 36]『홍익 한국어 4B』에서 제시한 '-길래' … 235
[표 37]『선문 한국어 중급 Ⅲ』에서 제시한 '-길래' … 237
[표 38]『성균 한국어 4 어휘·문법』에서 제시한 '-길래' … 239
[표 39]『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4-1』에서 제시한 '-길래' … 242
[표 40]『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즐거운 한국어』에서 제시한 '-길래' … 244
[표 41]『배우기 쉬운 한국어 3』에서 제시한 '-길래' … 247
[표 42]『연세 한국어 5』에서 제시한 '-길래' … 249
[표 43]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들의 '-길래' 제시 양상 … 251
[표 44]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들의 '-길래'에 대한 통사적 제약 제시 양상 … 255
[표 45] 중국 측 한국어 교재에서 '-길래'가 제시된 학년과 단원 … 261
[표 46]『韓國語 3』에서 제시한 '-길래' … 261
[표 47]『標准韓國語 第3冊』에서 제시한 '-길래' … 263
[표 48]『新編 高級 韓國語 [上]』에서 제시한 '-길래' … 267
[표 49] 중국에서 출판된 교재들의 '-길래' 제시 양상 … 270
[표 50] 단원 구성 … 283
[표 51] 교재에 제시되는 '-길래'의 특성 및 단계 … 287

[표 52] 교재에 제시되는 ‘-길래’ 평서문[1]의 ‘-길래’의 결합 정보 ····· 288
[표 53] 교재에 제시되는 ‘-길래’ 평서문[1]의 ‘-길래’의 의미 ····· 291
[표 54] 교재에 제시되는 ‘-길래’ 의문문의 ‘-길래’의 결합 정보 ····· 306

# 그림목차

[그림 1] 워크북 ‘문제 1’에서의 ‘-길래’의 결합 연습 ····· 289
[그림 2] 워크북 ‘문제 2’에서의 ‘-길래’의 결합 연습 ····· 290
[그림 3] 교재에 제시되는 ‘-길래’의 통사적 제약 ····· 293
[그림 4] ‘문법 설명’에서 추가 제시되는 ‘-길래’의 통사적 제약 ····· 293
[그림 5] ‘연습 1’에서의 ‘-길래’ 평서문[1]의 통사적 제약 연습 ····· 295
[그림 6] ‘연습 2’에서의 ‘-길래’ 평서문[1]의 통사적 제약 연습 ····· 296
[그림 7] ‘연습 4’에서의 ‘-길래’ 평서문[1]의 통사적 제약 연습 ····· 297
[그림 8] ‘문법 설명’에 제시되는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 ····· 299
[그림 9] ‘연습 3’에서의 ‘-길래’의 담화적 기능 연습 ····· 300
[그림 10] ‘듣기’에서의 ‘-길래’의 ‘변명’의 담화적 기능 제시 ····· 301
[그림 11] ‘쓰기’에서의 ‘-길래’의 ‘변명’의 담화적 기능 연습 ····· 302
[그림 12] ‘말하기’에서의 ‘-길래’의 ‘비난’과 ‘변명’의 담화적 기능 연습 ····· 303
[그림 13] 워크북 ‘문제 3’의 ‘-길래’의 ‘핀잔’ 및 ‘비난’의 담화적 기능 연습 ····· 304
[그림 14] 교재에 제시되는 ‘-길래’의 화용 정보 ····· 305
[그림 15] 교재에 제시되는 ‘-길래’ 의문문의 ‘-길래’의 의미 ····· 307
[그림 16] 교재에 제시되는 ‘-길래’ 의문문의 통사적 제약 ····· 308
[그림 17] ‘문법 설명’에서 추가 제시되는 ‘-길래’ 의문문의 통사적 제약 ··· 308
[그림 18] 워크북 ‘문제 3’의 ‘-길래’ 의문문 연습 ····· 309
[그림 19] ‘문법 설명’에서의 ‘-길래’ 평서문[2] 제시 내용 ····· 310
[그림 20] ‘읽기’에서의 ‘-길래’ 평서문[2]의 제시 ····· 311

# Ⅰ. 서론

## 1. 연구 목적

이 논문의 제목이자 주제는 '인과 연결어미 '-길래'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길래'를 사용해 오류 없이 유창하게 한국인 화자와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수많은 인과 연결어미 중에서도 특히 '-길래'를 연구 주제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길래'가 사용 빈도가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총체적인 교육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길래'는『21세기 세종 계획』에서 구축한 균형 말뭉치 자료의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의 출현 빈도수에서 전체 21개 중 10위를 차지한 인과 연결어미이다. 이와 관련해 노미연(2010: 208)[1]에서는 준구어 말뭉치를 대상으로 중급 이유 표현의 사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길래'가 230회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길래'는 2011년 8월 31일에 이르러 표준어로 인정되면서[2] 그 이후 출간된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되는 문법 항목이기도 하다[3]. 이는 '-길래'가 한국인에게 적지 않은 빈도로 발화되면서, 외국인 학습자에게도 교수되는 문법 항목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길래'가 표준어로 지정되면서 한국어 교재에 기술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교수에 참고할 만한 그에 대한 연구 및 교육 자료는 이러한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즉 '-길래'가 표준어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면서 외국인에게 교수되는 문법 항목이 되기는 하였지만,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인과 연결어미에 비해 '-길래'에 대한 연구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구

---

1) 노미연(2010: 208)은 드라마와 영화 등의 준구어 말뭉치를 통해 중급 이유 표현 사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길래'가 230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128회의 '-느라고', 그리고 70회의 '-는 바람에'에 이어 20회의 '-는 통에'였으며 마지막으로는 '-는 탓에'가 13회 나타났다고 했다.

2) '-길래'는 그간 '-기에'의 비표준어로 다루어지다가 2011년 8월에 국립국어원의『표준 국어 대사전』에 '-기에'의 구어적 표현으로 실리면서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3) 이에 해당하는 교재에는『경희 한국어 중급 2』,『다문화 가정과 함께 하는 즐거운 한국어 중급 2』,『선문 한국어 중급 Ⅲ』,『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4-1』,『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중급 2』,『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4』,『함께 배우는 건국 한국어 4』,『홍익 한국어 4B』 등이 있다.

체적으로 말하자면 '-길래'의 의미, 통사적 특성, 교수법 등에 대한 연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 모든 특성을 망라하여 일관된 관점으로 심도 있게 다룬 연구는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4].

이와 같은 사실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선상에서 혹은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 입장에서도 문제가 된다. 즉 한국어 교사 입장에서는 교수되어야 할 객관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교육 자료의 부재로 인해 '-길래'에 대한 설명 제시를 교사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해 학습자에게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전달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학습자들에게 '-길래'에 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정적 측면이 발생할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측면은 학습자의 '-길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어져 학습자들이 그 사용을 주저하거나 사용에 있어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바로 여기에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이 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가 아닌 이상 필요한 상황에서 '-길래'를 정확히 사용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면, 우선적으로 '-길래'가 가진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길래'의 의미, 통사적 제약, 화용 정보 등에 대한 설명 제시가 논리정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길래'에 대해 다루어져야 할 모든 학습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는 문법서나 연구 자료 등은 없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의 측면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교수할 '-길래'에 대한 교육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길래'가 가지는 의미, 통사적 특징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때 필수 조건은 '-길래'가 예외적으로 실현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길래'에 대한 모든 특성을 학습자에게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교육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본고에서 파악된 '-길래'의 특성을 학습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법 활용 교재를 제안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외국인 학습자가 문법 항목을 습득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 교재인데, 교재를 통해서는 문법 항목에 대한 정확한 학습 정보를 제대

4) '-길래'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석사 및 박사 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소논문은 있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안주호에 의해 진행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길래'의 의미와 통사적 제약 등을 제시한 연구에는 안주호(1998), 안주호(1999ㄱ), 염재일(2012), 서경숙(2013) 등이 있고, '-길래'의 교수법을 제시한 연구에는 안주호(2008), 민진영(2011), 김미숙(2015), 박상숙(2019) 등이 있었다.

로 그리고 동일하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의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사를 통한 제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제시나 제시 오류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본고의 목적대로 교재를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길래'에 대한 모든 특성이 학습자에게 잘 제시된다면, 학습자들은 '-길래'를 사용해 유창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발화 의도를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단 교재의 대상을 중국인 학습자로 설정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중에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이었는데, 이는 '-길래'의 사용에 있어 그들에 의한 사용 빈도도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5].

## 2. 선행연구 검토

'-길래'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길래'를 '-기에'와 같거나 혹은 '-기에'의 이형태로 보는 관점과 '-기에'와 구분해 독자적인 의미와 통사적 특성을 지닌 인과 연결어미로 보는 관점으로 나뉜다.

전자에는 최현배(1937, 1971), 김승곤(1981), 허웅(1995), 서정수(1996), 성기철(2007) 등이 있는데 그에 대한 논의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길래'를 독립적인 형태소로 인정하지 않은 연구 중 가장 이른 것은 최현배(1937, 1971: 300)로 볼 수 있다. 최현배(1971: 297)에서는 "참일 매는꼴(事實拘束形)은 이미 참일(事實)로 들어난 얽맴을 보이는 꼴이니:이에는…"이라고 하며 13개의 연결어미의 의미와 그 용례를 들었다. 그리고 300쪽에서 '-기에'의 의미와 용례를 제시한 아래에 '-길래'를 '까닭'이라고 간단히 언급하고 한 개의 용례를 들었을 뿐이었다[6].

김승곤(1981: 31-32)은 '-길래'가 '-기에'와 어감의 차이만이 있을 뿐[7] 용법

---

5) 2020년 7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국제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체류자격별 입국자 추이에서 '유학·일반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중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중국인 유학생이 21600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했다. 또한 본고에서 국립국어원의 학습자 말뭉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인 학습자의 자료가 3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길래'를 사용한 학습자에서도 중국인 학습자가 5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6) "-길레"(까닭)
그가 그러길레, 나도 그런 줄로만 알았다.
(최현배 1971: 300)

7) 김승곤(1981: 32)에 따르면 '-길래'는 '-기에'에 'ㄹㄹ'을 더해 '-기에'를 좀더 부드럽게 표현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기에'의 변이형이라고 했다.

이나 의미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그는 '-길래'를 '핑계'의 의미를 가진 연결어미로 간주하여 그로 인한 통사적 제약 등을 논하고 있으나, 그 논의가 후행절의 서술어 및 서법 제약에 한해서만 이루어졌다.

허웅(1995: 807-810)은 '-길래'를 '-기에'와 '-기로' 그리고 '-기'와 함께 제시했는데, 모두 명사형 어미 '-기'에서 만들어진 어미로 같은 의미와 통사적 특성을 가졌다고 언급했다.

서정수(1996: 1227)에서는 까닭 접속소 중에 하나로 '-길래'를 들었는데 "'기에'의 변이형태로 여겨짐"이라고 설명하면서, '-기에'와 '-길래'가 서로 교체된다며 한 개의 용례를 들었다[8].

마지막으로 성기철(2007: 217-239)은 '-길래'가 '-기에'의 비표준형이 아니라 '-기에'와 함께 동일한 형태소를 이룬다고 주장했다[9]. 그 근거로 '-길래[10]'가 '-기에'를 대신해 자유롭게 방언적 교체를 하지 않고, '-기에'보다 더 많은 통사적 제약을 가지면서도 부분적으로는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상 위에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길래'를 '-기에'의 변이형 혹은 이형태로만 치부하면서, '-길래'가 가지는 의미나 문법적 제약 등이 '-기에'와 동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길래'를 '-기에'와 다른 독립적인 인과 연결어미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연구들도 있다. 이 연구들은 그 방면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유형에는 '-길래'의 의미와 통사적 제약 등을 다룬 연구가 해당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래'가 가지는 '지각'이라는 양태적 의미 측면에서 진행된 연구들, 세 번째와 네 번째에는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 및 효과적인 교수 방안에 대해 논의한 연구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길래'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중 먼저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와 그와 관계된 통사적 제약을 논의한 연구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

8) (1) 그이가 좋은 말로 {하길래/하기에} 나도 그리했다.
(서정수, 1996: 1227, 예문 (3) 인용)

9) 성기철(2007: 222)에 따르면 '-기에'는 명사형 어미 '-기'에 조사 '에'가 결합된 복합 형태가 아니라 연결어미 혹은 부사형 어미인데, '-길레'는 '-기에'의 이형태이므로, 결론적으로 '-기에'는 '-기에', '-기('-기에'의 축약형)', '-길레'의 세 가지의 이형태를 가진 복합 형태가 아닌 단순 어미 형태라고 주장했다.

10) 성기철(2007: 222)은 '-길래'를 '-길레'로 표기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 '-길레'와 '-길래' 중 최근의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을 따라 '-길레'로 기술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채연강(1985: 95-97)에서는 '-길래'가 주로 화자의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행동에 대해 스스로 이유를 말할 때 쓰이는 어미라면서, 그러한 의미가 갖는 통사적 제약을 후행절의 주어·서술어·서법 제약으로 논의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 중 처음으로 '-길래'를 '-기에'와 구분해 그의 의미와 통사적 특성을 독립적으로 기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안주호(1998)는 처음으로 국어학 방면에서 '-기에'의 구어적 이형태로 치부되던 '-길래'를 통사적 특성과 의미 측면에서 '-기에'와의 비교를 통해 '-길래'가 '-기에'와 별개인 독립적 연결어미라는 것을 증명해 내었다. 그 이후 '-길래'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를 이끌어 냈다는 데 이 논문의 더 큰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어 안주호(1999ㄱ, 1999ㄴ[11])는 이유 표현 연결어미인 '-길래'를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먼저 1999ㄱ에서는 전기 근대 국어 시기 이후부터 사용된 '-기에'와 '-길래'에 대한 그리고 1999ㄴ에서는 '-기에, -길ᄂᆡ, -기로'에 대한 통사적·의미적 특성과 문법화 과정을 논하고 있다.

안주호의 이 두 논문(1999ㄱ, 1999ㄴ)은 '-길래'에 대한 통시적 연구를 그 형성과 문법화[12] 현상에 초점을 두어 진행해, '융합[13]'이나 '공존화', '분화' 그리고 '전문화화' 등의 문법화 경향[14]을 짚어 내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두 연구를 통해 '-기에'에서 '비격식적인 구어체'라는 기능적 필요성에 의해 '-

11) 한 연구자의 논문이 같은 연도에 발표되었을 경우 편의에 따라 년도 뒤에 '가나다' 순에 따라 자음을 추가하여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1999ㄱ'은 「연결어미 '-기에'/'-길래'의 특성과 형성과정」을, '1999ㄴ'은「'-기'형 연결어미 '-기에, '길ᄂᆡ, -기로'의 특성과 문법화 과정-20세기 초기 국어를 중심으로」를 지칭한다.

12) Paul Hopper는 1991년 'On some principles of grammaticalization'이라는 논문에서 문법화의 원리로 '층위화(layering)', '분화(divergence)', '전문화(Specialization)', '의미지속성(persistence)', '탈범주화(decategorialization)' 등의 5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이성하, 2016: 185-201)

13) '융합'이란 서로 다른 형태소가 결합된 통사적 구성이 문법화가 심화되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형태로 굳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다(안주호 1999ㄱ: 116)

14) 안주호(1999: 116-117)에서는 '-길래'의 문법화 과정을 5가지의 '문법화의 준칙'으로 분석했다. 우선 '-길래'가 다른 인과 연결어미들과 같이 이유를 표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공존의 준칙'이 적용된 것이며, '-길래'가 '-기에'에서 형성되었는데 '-기에'가 여전히 인과 연결어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화의 준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기에'가 쓰인 모든 문장을 '-길래'로 교체할 수 없다는 측면 즉 특정한 조건에서만 '-길래'가 사용된다는 점은 '특정화의 준칙'이 반대로 '-길래'절은 '-기에'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은 '유지의 준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길래'는 이미 재분석을 통한 융합이 심화되어 '-기에'의 '-기'+'에'로 분리하여 볼 수 없고 하나의 형태로서 연결어미에 속한다는 점에서 '탈범주화의 준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했다.

길래'가 생산되었으며, '화자의 행동을 초래한 지각'이라는 의미 영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는 '-길래'의 화용적 기능과 의미의 시발점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안주호(1998, 1999ㄱ, 1999ㄴ)에 이르러 '-길래'의 형성 및 의미와 통사적 특성 등 '-길래'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의 기틀이 다져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길래'의 의미를 '지각'이라는 양태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 논의하려고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연구에는 임은하(2002), 임채훈(2008), 박재연(2009), 정인아(2010), 염재일(2012), 서경숙(2013) 등이 있다

이중에서 임채훈(2008)은 한국어 문법 교육에 있어서 '감각적 증거' 양태성을 가진 어미류를 고찰하였다. 특히 이 논문은 '-길래'가 가지는 '지각'이라는 의미의 증거 양태적 특수성을 밝혀 '-길래'에 대한 정밀한 의미 해석을 시도했다. 그러한 시도가 학습자들의 이 의미와 연관된 주어 제약의 이해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임채훈(2008)과 유사한 논지를 보인 연구에 정인아(2010)와 서경숙(2013)이 있다. 먼저 서경숙(2013)도 임채훈(2008)과 같이 '-길래'의 의미가 증거 양태(證據 樣態)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에 그 관련성을 검증하여 '-길래'가 시지각과 그 외의 지각(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직접 증거 혹은 경험 증거와 비교적 잘 결합하며, 내성과 추리[15]와 결합하기도 한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 이 논문은 '-길래'가 가지는 증거 양태성의 속성을 체계적으로 들여다 보고 이와 연관된 인칭 제약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내려 했다는 점에서 인정되는 바가 있다.

그리고 정인아(2010)는 한국어가 가지는 '증거성'이란 범주에 집중하여 한국어에서 '증거 표지'로 논의되는 문법 요소들을 '직접 증거 표지', '간접 증거 표지', 그리고 '직·간접 증거 표지'로 분류하여 그들의 '증거성'을 정밀하게 조명했다. 특히 '-길래'를 '-더-', '-네'와 같이 '직접 증거 표지'로 분류하여, '-길래'의 의미와 평서문과 의문문에 나타나는 '증거성' 및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증거성'의 관점에서 연결어미 '-길래'에 대한 특성의 체계화를 시도했다는

15) 박진호(2011: 5)에 따르면, '내성'은 화자만이 알 수 있는 기분이나 상태 등의 자신의 내적 상태를 깨닫게 된 것이며, '추리'는 화자가 지각한 것을 근거로 한 추측을 가리킨다고 했다.
(1) 너무 피곤하길래 반차 냈어. (내성)
(2) 밤사이 비가 왔길래 장화를 신었어. (추리)

의의가 있다.

여기까지 살펴본 '-길래'의 양태적 의미를 논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길래'의 선행절에 나타나는 주어 인칭 제약을 '-길래'가 가지는 '지각'이라는 양태성에 주목하여 해석했다는 특징이 있다. 즉 안주호(1998: 214)등은 '-길래'가 '후행절의 화자의 행위에 대한 타의적인 근거'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타의적인 근거'라는 의미가 선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채훈(2008) 등은 이 '타의적인 근거'를 '화자의 지각'으로 보고 '-길래'를 통해 발화되는 선행절은 화자가 지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주어 인칭 제약이 일어난다고 해석한 것이다.

한편 '-길래'가 가지는 의미를 실제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담화 상황에서 분석한 연구들도 있었다. 이에는 진정란(2004, 2005), 권미숙(2017), 고우미(2018), 이지선(2021) 등이 있다.

진정란(2004)에서는 9개의 인과 표현 어미를 대상[16]으로 기존에 연구된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근거로 하여 실제 담화 범주에서 실현되는 이유 표현들의 사용 맥락을 분석해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다. 이중 '-길래'가 '이유설명'의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도 '변명', '우김', '추궁', '핀잔' 등의 기능을 담화 상에서 수행한다고 제시했다. 이 논문은 처음으로 '-길래'가 담화 맥락상 드러내는 의미 기능을 분석해 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논할 수 있다.

다음으로 권미숙(2017)은 그동안 '-길래'와 '-기에'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 경향이 그들이 가진 의미로 인한 통사적 제약에 치중한 반면에, 처음으로 두 인과 연결어미의 담화적 기능의 차이[17]를 밝혀내 그것을 근거로 두 문법 항목의 의미와 통사적 차이를 기술하였다.

---

16) 진정란(2004)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9개의 이유 표현에는 '-아서, -니까$_1$, -느라고, -길래, -기 때문에, -는 바람에'의 6개의 연결 표현과 '-거든, -기 때문이다, -니까$_2$'의 3개의 종결 표현이 있다.

17) 권미숙(2017: 65-66)에 따르면 새연세말뭉치에서 추출한 용례를 통해 '-길래'와 '-기에'의 담화 기능 및 그 사용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고 했다. '-길래'는 '변명/핑계/해명(52,7%)'>'추궁(18.3%)'>'의문(15.1%)'>'추측의 이유(7.5%)'>'배경설명(4.3%)'>'핀잔(2.1%)'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어 '-기에'는 '배경설명(59%)'>'주장강조(14.5%)'>'변명/핑계/해명(8.6%)'>'추측의 이유(7.7%)'>'의문(5,1%)'>'감정표현(3.4%)'>'추궁(1.7%)'의 순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과는 두 인과 연결어미의 담화 기능 및 주된 사용 영역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길래'가 가지는 '핀잔'의 담화 기능이 '-기에'에서는 드러나지 않으며 '-기에'와 달리 '주장강조'와 '감정표현'의 기능을 '-길래'는 담당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길래'는 '변명'이나 '핑계' 그리고 '해명'에 주로 사용되는 반면에 '-기에'는 '배경설명'의 주요 담화적 기능을 가진다고 했다(권미숙 2017: 66).

고우미(2018)는 화용적 측면에서 화자가 어떤 발화 의도로 인과 연결어미 '-길래'를 선택해서 담화를 이끌어 가는지에 중점을 두고, '-길래'의 후행절의 화행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길래' 구문이 전체적으로 어떤 화행을 실행하는지를 살펴보았다[18].

'-길래'의 담화적 의미 기능을 중점적으로 논한 위 세 연구에서 진정란(2004, 2005)과 권미숙(2017)은 '-길래'가 가지는 담화적 기능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고우미(2018)는 두 선행연구에 비해 구체적인 담화적 기능을 제시했지만, 후행절의 화행에 초점을 두고 '-길래'가 담화에서 수행하는 발화 의도를 분석해 냈기 때문에 화행과 담화적 기능이 달리 나타나는 경우들이 확인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길래'에 대한 교수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다. 모두 6편으로 확인되었는데, 먼저 '-길래'가 가지는 의미와 문법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고 효과적인 교수법을 논한 연구에는 민진영(2011)과 김미숙(2015)이 있었다. 또한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길래'가 담화 상에서 수행하는 기능에까지 확장된 교수법을 제안한 연구로는 안주호(2008), 노미연(2010), 성진영(2017) 그리고 박상숙(2019)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다각도로 다양한 교수법이 시도되고 있고, 특히 '-길래'의 담화적 기능에 대한 교수 방안이 제안되고는 있지만, 아쉽게도 제시된 교수 방안에서 대체적으로 부족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이는 이 방면에 대한 조금 더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중에서 안주호(2008)는 평서문과 의문사를 수반한 '-길래'를 각각 '-길래1'과 '-길래2'로 나누어 제시하고, 사용 빈도 면에서 '-길래1'이 '-길래2'보다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길래1'의 실제 화행 기능을 강조하는 교수 방안[19]을 제안하였다. 다만 '-길래'의 담화적 기능의 연습이 효과적으로 제시되지 못해 중급 이상의 외국인 학습자들이 '-길래'를 맥락에 맞게 적절히 발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측면이 있었다.

김미숙(2015)이 제안한 교수법은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을 바탕으로 하되, 그

18) 고우미(2018: 5-6)는 준구어 말뭉치 자료인 드라마 대본 47편을 대상으로 '-길래'가 나타난 206개의 서술문 용례와 202개의 의문문 용례를 수집해, '화행'과 '화·청자의 관계'및 '상황 맥락의 관계'의 맥락 분석의 틀에 근거해서 '-길래'의 화용적 특성을 도출해 내었다고 했다.

19) 안주호(2008: 208)는 실제 화행 기능을 강조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라면서 '목표 형태의 제시→목표 형태의 의미 전달→목표 형태의 사용 환경 제시→활용 연습→담화 연습→평가'의 순으로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 제시 단계에서 ‘형태초점접근법(Focus on Form)’의 입력 강화 기법 중 하나인 ‘문법 의식 고양 과제(Grammar Consciousness-Raising Tasks)’를 도입한 것이었다. 그 목적은 학습자들 스스로 ‘-길래’의 통사적 특성 및 제약을 찾아내게 하여 효과적으로 ‘-길래’의 의미와 통사적 특성을 이해하고 발화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연구자가 집중적으로 논한 ‘문법 의식 고양 과제’의 활동지에서 ‘-길래’의 대표적인 통사적 제약의 하나인 ‘후행절의 시제 제약’에 대한 문제가 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제약에 대한 미제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박상숙(2019)에서는 ‘-길래’의 기능을 하나로 보고 담화적 기능을 중심으로 교수 방안을 제시한다고 했음에도 실제 담화 상의 여러 기능에 대한 제시 및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지금까지 ‘-길래’에 대한 연구들을 의미와 통사적 특성, 교수법 등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최현배(1937, 1971)이후 8·90년대 국어학 방면에서는 주로 ‘-길래’를 ‘-기에’의 ‘변이형’ 또는 ‘이형태’로 보는 경향이 강했지만, 안주호(1998) 이후로는 ‘-길래’를 ‘-기에’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문법소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다양한 방면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길래’의 선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에 대해 화자의 ‘지각’이 관여된 것이라는 양태적 의미에 기반한 해석이나 ‘화자의 행위를 초래한 화자 외적인 근거’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변명’ 류의 ‘-길래’의 담화적 기능들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진 것은 고무적이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현재까지 ‘-길래’에 대한 연구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길래’에 관련된 모든 특성을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가 없다는 점이다.

## 3. 연구 방법 및 대상

이 논문은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길래’의 이상적인 설명 제시 방안의 하나로 최종적으로 문법 활용을 위한 교재를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교재 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길래’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 그리고 학습자의 ‘-길래’의 사용 오류 및 교재 분석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2장과 3장의 연구 진행 방식에 대해 소개하자면, 논의 방식은 선행연구와의 비교 및 대조 과정을 통해 가장 타당한 의미 및 통사적 특징을 분석해

내는 것이다. 먼저 2장에서는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하나는 문장에서 나타나는 '-길래'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담화 상황에서 드러나는 '-길래'의 또 다른 담화적 의미 기능이다. 문장에서 드러나는 '-길래'의 의미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선행연구와의 비교 및 대조를 통해 가장 타당한 '-길래'의 의미를 제시하려고 한다. 다음으로 담화에서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를 분석할 때에는 이지선(2021)의 논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즉 세종 코퍼스의 말뭉치 자료를 검색해 나온 '-길래'의 용례를 그 대상으로 하는데, 분석 대상은 구어 담화에서 쓰인 208개와 문어 담화에서 쓰인 111개의 '-길래' 구문으로 총 319개에 해당한다. 크게 '-길래'가 사용된 평서문과 의문문으로 구분해 '-길래'가 담화 상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 분석 기준은 담화 상황이 화자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길래'를 통해 화자가 어떤 발화 의도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등의 담화 맥락이 된다. 분석 방법 측면에서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동시에 진행해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 중에서도 어떤 것이 대표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각 의미 기능이 '-길래'의 통사적 특성과 관련해 어떤 표현과 공기해 강조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추가적으로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과 관련해 '-길래'가 어떤 담화 환경에 사용되는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 분석 대상은 앞서 언급한 319개의 '-길래' 구문이다. 이를 대상으로 '담화의 유형', '담화 내용의 종류',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하여 '-길래'의 화용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어서 3장에서는 '-길래'의 통사적 특징을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즉 '-길래'가 '화자의 행동을 초래한 화자가 지각한 상황'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그 첫 번째이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화자가 지각한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느껴 질문하는 이유'와 '화자가 지각한 사실에 대해서 추측하는 이유'라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분석 순서는 먼저 각 유형의 통사적 특징을 선행절과 후행절에 적용되는 통사적 제약의 존재 여부 및 제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에, 세 가지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파악된 공통 제약과 각 유형의 개별 제약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때 '-길래'의 통사적 특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허용 외(2005: 296-298)에서 제시된 연결어미에서 확인된 통사적 제약[20]을 기초적인

20) 허용 외(2005: 296-298)에서는 연결어미에서 확인되는 제약을 대표적으로 4가지로 꼽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 첫째는 완료형 선어말어미 '-았/었/였-'과의 결합 여부, 둘째는 선·후행절

분석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주어 및 서술어 제약, 선행절의 선어말어미에 관한 제약, 후행절의 서법 제약의 4가지로 볼 수 있다.

덧붙여 3장의 마지막에서는 2장과 3장을 통해 국어학적 관점에서 타당성을 기준으로 확인된 '-길래'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에서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 학습자에게 제시해야 할 내용을 선별해 정리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외국인 학습자가 일으킨 '-길래'의 오류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에서 '-길래'를 검색해 나온 자료와 S대학 기관의 4급 학습자 시험 자료가 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학습자 오류 분석 대상 자료의 수와 학습자의 국적 수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3" rowspan="2">한국어 학습자 자료</td><td colspan="3">S대학 4급 학습자 시험 자료</td></tr>
<tr><td colspan="3">1학기 2학기 합계</td></tr>
<tr><td rowspan="2">자료 수</td><td>문어</td><td>구어</td><td>합계</td><td>1학기</td><td>2학기</td><td>합계</td></tr>
<tr><td>88개</td><td>7개</td><td>95개</td><td>33개</td><td>42개</td><td>75개</td></tr>
<tr><td rowspan="2">학습자 국적 수</td><td colspan="3" rowspan="2">15개국[21]</td><td colspan="2">1학기</td><td>2학기</td></tr>
<tr><td colspan="2">8개국</td><td>13개국[22]</td></tr>
</table>

위에 제시된 두 가지 유형의 자료를 대상으로 학습자가 일으킨 오류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피되, 2장과 3장에서 확인된 '-길래'의 의미 및 화용적 기능과 통사적 제약을 오류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이때 두 자료의 분석 과정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쓴 95개의 '-길래' 구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4급 학습자 시험 자료에서 진행된 논의와 관련해 언급할 만한 내용이나 혹은 따로 다루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의 '-길래'의 사용에 있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자료 중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작성한 '-길래' 구문에 대한 분석을 별도로 진행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앞서 밝힌 것처럼 본고의 최종적인 목적인 '-길

---

의 주어 일치 혹은 불일치 여부에 대한 제약이다. 그리고 셋째는 선행절의 서술어로 허용되는 용언의 종류, 넷째는 후행절에 허용되는 문장 유형의 종류에 대한 제약이다. 이 4가지의 제약은 선행절의 완료형 선어말어미 결합 제약, 선·후행절의 주어 일치·불일치 제약, 선행절의 서술어 제약, 후행절의 서법 제약으로 정리된다.

21)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타이, 홍콩, 베트남, 대만,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미국, 대한민국,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싱가포르, 파나마

22) 1학기 자료는 중국, 대만, 일본, 카타르, 프랑스, 홍콩, 헝가리, 말레이시아의 8개국 나라의 학습자 자료이며, 2학기는 중국, 대만, 일본, 독일, 폴란드, 홍콩, 카타르, 러시아, 체코, 이탈리아, 칠레, 브라질, 방글라데시의 13개국의 학습자 자료에 해당한다.

래’의 제시를 위한 문법 교재를 제안하는 데 있어 그 대상이 중국인 학습자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발생한 오류를 유형별로 분석할 때 분석된 구체적인 오류의 현상을 이정희(2003: 83)가 제시한 용어의 개념에 따라 논의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써야 할 표현을 안 쓰고 다른 표현으로 잘못 쓴 ‘대치’, 써야 할 표현을 안 쓴 ‘누락’, 불필요한 표현을 더 쓴 ‘첨가’이다.

그리고 5장에서는 한국 및 중국에서 출간한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길래’에 대한 제시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그 이유는 ‘-길래’를 사용할 때 학습자가 오류를 일으키는 이유를 ‘학습하지 못해서’ 혹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인 교재를 대상으로 ‘-길래’에 대한 제시가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다. ‘-길래’의 제시를 살펴볼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길래’를 제시한 한국에서 출간된 13종의 교재와 중국에서 출간된 3종의 교재이다.

[표 2]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한국 측과 중국 측의 한국어 교재

| | ‘-길래’가 제시된<br>한국 출간 교재 명 | ‘-길래’가 제시된<br>중국 출간 교재 명 |
|---|---|---|
| 1 | 경희 한국어 중급 2 | 韓國語 3 |
| 2 | 다문화 가정과 함께 하는 즐거운<br>한국어 중급 2 | 標准韓國語 第3冊 |
| 3 | 배우기 쉬운 한국어 3 | 新編 高級 韓國語 〔上〕 |
| 4 | 선문 한국어 중급 Ⅲ | |
| 5 | 성균 한국어 4 어휘·문법 | |
| 6 | 연세 한국어 5 | |
| 7 |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4-1 | |
| 8 | 이화 한국어 4 | |
| 9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중급 2 | |
| 10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4 | |
| 11 | 재미있는 한국어 4 | |
| 12 | 함께 배우는 건국 한국어 4 | |
| 13 | 홍익 한국어 4B | |

위에 제시된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진행될 분석의 기준은 ‘-길래’의 의미가 다르게 드러나는 3가지의 유형의 경우를 모두 제시했는지의 여부이다. 또

한 그에 관련된 ‘-길래’의 의미, 통사적 특징, 결합 정보, 담화적 의미 기능, 화용 정보의 5가지 항목을 모두 제시했는지의 여부도 교재 분석의 기준에 해당한다. 단 교재의 분석 순서는 급수 및 학년 별로 진행될 예정인데, 전자는 한국 측 교재에 해당되고 후자는 중국 측 교재에 해당된다. 먼저 한국에서 출간된 교재부터 분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순서는 13종의 교재에서 ‘-길래’를 가장 많이 제시한 급으로 조사된 4급 교재부터이다. 4급에서 ‘-길래’를 제시한 교재를 시작으로 3급 그리고 5급에서 ‘-길래’를 제시한 교재 순으로 각 교재에서의 ‘-길래’의 제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중국에서 출간된 2학년 한국어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부터 3학년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 순으로 분석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양측 교재에서 확인된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서 ‘-길래’의 제시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점과 공통적으로 드러난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2장에서 5장까지 논의된 내용의 결론으로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길래’의 바람직한 제시 방안의 하나로 교재와 워크북 모형을 제안할 것이다. 단 본고에서 제시되는 교재 모형은 ‘-길래’의 특성을 자세하고 온전하게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둔 문법 교재이기는 하나 문법 항목에 대한 학습은 이해를 통한 적절한 사용까지를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연습 과정을 담으려고 한다. 따라서 ‘의사소통식 교수법’을 토대로 ‘사과와 변명’을 주제로 하여 여러 연습과 활동이 짜여진 교재 모형이 구성될 것이다. 이 구성 안에서 구체적으로 교재에 제시되는 ‘-길래’에 대한 내용은 앞서 5장의 교재 분석 기준 항목과 동일하다. 즉 ‘-길래’의 의미, 통사적 특징, 결합 정보, 담화적 의미 기능, 화용 정보 및 그 외에도 ‘-길래’가 실현되는 의문문과 이유 추측의 평서문의 특징을 교재 및 워크북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재에 기술되는 ‘-길래’에 대한 학습 정보는 앞서 3장에서 정리한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 교수해야 할 ‘-길래’에 대한 특성이 될 것이다.

## Ⅱ. '-길래'의 의미

'-길래'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이유를 표현하는 어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길래'는 인과 연결어미에 분류된다. 이와 같은 인과 연결어미 '-길래'가 문장에서 나타내는 의미에 대해서 12종의 사전류에서 기술한 내용을 정리해 제시하자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 사전류에서 제시한 '-길래'의 의미

| 유형 | 사전에서 기술된 '-길래'의 의미 | 해당 사전 명칭 |
|---|---|---|
| ① | '-기에' | 우리말 큰사전 1 ㄱ~ㅁ[23]<br>표준국어사전[24], 국어대사전[25] |
| ② | '-기에'의 구어적 표현 | 표준 국어 대사전[26],<br>우리말 샘[27], 국어학습사전[28],<br>고급 한국어 학습사전[29] |
| ③ | 후행절의 원인이나 이유, 근거 |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30],<br>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용법 편[31],<br>연세 한국어사전[32] |
| ④ | 의문문에서 후행절의 목격한 사실에 대해 질문하는 원인이나 이유 | 연세 한국어사전,<br>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33] |
| | 평서문에서 후행절의 행동을 초래한 이유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 |
| ⑤ | 평서문에서 이유가 되는 화자의 행위를 유발한 화자가 지각한 내용. 이때 이 이유는 화자 자신 이외의 외부적인 상황이나 사실로 인한 것임 | 한국어교육 문법 자료편[34] |
| | '(마침) -는 것을 보고'의 뜻 | 연세 한국어사전 |

23) 한글 학회, 1991: 623
24) 문세영, 1958: 268
25) 그런데 『국어대사전』에서는 '-길래'를 '-기에'로 제시하는 동시에, '-관대'를 '-길래'의 두 번

12종의 사전류에서의 '-길래'의 의미 제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모든 사전류에서 '-길래'를 '-기에'와 관련지어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 '-길래'의 의미에 관한 제시 양상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 첫째는 '-길래'의 의미를 '-기에'와 동일시한 유형이며, 두 번째는 '-기에'를 대신해 구어체에서 쓰이는 '-기에'의 화용적 기능의 이형태로 '-길래'를 제시한 유형이다. 총 12종 중에서 7종의 사전류가 '-길래'의 의미를 이처럼 '-기에'와 같거나 '-기에'의 구어적 표현이라고 제시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전류가 '-길래'가 표준어로 지정된 2011년 이전에 편찬된 편찬 시기로 인한 것이다. 즉 '-길래'를 '-기에'와 동일시하거나 혹은 '-기에'의 화용적 이형태로 간주하던 그 당시의 연구 경향[35]을 수용해 사전이 편찬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문장 유형에 대한 구분 없이 '후행절의 원인이나 이유 혹은 근거'라고 포괄적인 의미를 제시한 유형이다. 그런데 이 유형에는 위에서

---

째 의미로도 기술하고 있다(이희승, 1961: 463). 또한 『국어학습사전』에서도 '-길래'의 의미를 '-관대' 및 '-기에'와 유사한 표현이라고 기술하고 있다(양재찬, 2012: 537). 이 '-관대'의 의미에 대해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관데'의 비표준어라고 제시했고,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예스러운 표현으로)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앞에는 의문사가 오며 뒤에는 의문 형식이 옴"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보면, 『국어대사전』과 『국어학습사전』에서는 설명의문문에서 실현되는 '-길래'의 의미를 '-관데'를 빌어 제시한 듯하다.

26) 국립국어연구원, https://ko.dict.naver.com/#/entry/koko/332d242cd60a4466a4d3e316d0049250
1999년에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은 2011년 8월31일에 '-길래'가 표준어로 지정되기 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932쪽에서 '-길래'를 '-기에²'의 잘못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포털사이트에 제공되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길래'에 관해 개정된 의미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정된 내용으로 위 표에 실었음을 밝힌다. 이는 『고려대 한국어대사전』도 해당된다. 역시 이 사전도 2009년에 출간되었기 때문에 973쪽에서 '-길래'를 '-길래²'로 표기하면서 '-기에⁴'와 같다고 제시하고 있어 포털사이트 상의 내용과 달랐다. 그래서 '표준국어대사전'과 마찬가지로 포털사이트 상의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 제공하는 개정된 '-길래'의 의미를 위 표에 실었다.

27) https://ko.dict.naver.com/#/entry/koko/332d242cd60a4466a4d3e316d0049250

28) 양재찬, 2012: 537

29) 최종희, 2013: 145

3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ttps://ko.dict.naver.com/#/entry/koko/332d242cd60a4466a4d3e316d0049250

31) 국립국어원, 2005: 88-89

32)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278

33) 서상규 외 7, 2006: 95

34) 강현화 외 5, 2016: 169-171

35) 허웅(1995; 807)에서는 '-길래'가 명사형 어미 '-기'에서 만들어진 어미로 '-기에', '-기로', '-기'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또한 서정수(1996: 1227)에서는 '-길래'를 '-기에'의 '변이형태'이라고 기술했다.

제시한 사전류 외에도 최현배(1971: 300), 허웅(1995: 807), 서정수(1996: 1227) 등의 선행연구도 해당된다. 즉 최현배(1971: 300)에서는 '-길래'의 의미를 '까닭'으로, 허웅(1995: 807)에서는 '까닭, 때문, 탓' 등으로, 서정수(1996: 1227)에서는 '원인이나 이유'로 제시한 것이다. 네 번째는 문장 유형별로 나누어 평서문과 설명의문문에서 나타나는 '-길래'의 의미를 제시한 유형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는 감각을 통한 '지각'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길래'의 의미를 서술한 유형이었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네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사전은『연세 한국어사전』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이며, 다섯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사전에는 『연세 한국어사전』과 『한국어교육 문법 자료편』이 있었다. 이 중에서 특히 『연세 한국어 사전』에서 기술한 '-길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은 눈에 띄는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길래'가 표준어로 지정된 2011년 이전인 1998년에 편찬되었으면서도,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달리 나타나는 '-길래' 의미를 구분해 제시한 점을 말한다[36]. 뿐만 아니라 '-길래'의 의미를 '(마침) -는 것을 보고'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이라는 '-길래'의 또 다른 의미 속성을 파악해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언급할 만하다.

한편 화자가 이유나 원인 혹은 그 근거를 이야기해야 할 상황에서 그 수많은 인과 연결어미 중에서도 '-길래'를 선택하는 이유는 '-길래'만의 남다른 의미적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에 근거해 사전류에서 제시된 '-길래'의 의미 중 다른 인과 연결어미와 구별되는 의미적 특성을 따져본다면, 우선은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가 다르다는 점일 것이다. 즉 평서문에서 나타나는 '-길래'의 의미는 세 가지로 꼽아볼 수 있는데, '후행절의 행동을 초래한 이유(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2006: 95)', '화자의 행동을 유발한 이유인 화자가 지각한 내용(한국어교육 문법 자료편 2016: 169-171)', 그리고 '화자의 행위를 초래한 외부적인 상황이나 사실(한국어교육 문법 자료편 2016: 169-171)'이다. 그리고 의문문에서는 '후행절의 목격한 사실에 대해 질문하는 원인이나 이유(연세 한국어 사전 1998: 27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2006: 95)'라는 의미를 '-길래'가 가진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길래'의 의미는 선행연구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우선 '화자의 행위를 초래한 외부적인 상황이나 사실'이란 '-길래'의 의미는 안주호(1998), 진정

36) 이에는『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도 해당된다. 즉 이 사전도 '-길래'가 표준어로 지정되기 전인 2006년도에 '-길래'의 의미를 평서문과 의문문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란(2003), 김지혜(2009ㄴ), 노미연(2010), 민진영(2011), 김미숙(2015) 등에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 이 중에서 '화자의 행위를 초래한 외부적인 상황이나 사실'이란 의미에서 '외부적인 상황이나 사실'에 대해 화자의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밝혀 기술한 연구에는 진정란(2003), 김지혜(2009ㄴ), 민진영(2011) 등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화자의 행동을 유발한 이유인 화자가 지각한 내용'이라는 '-길래'의 의미에 대해서는 임은하(2002), 임채훈(2008), 정인아(2010), 민진영(2011), 염재일(2012), 서경숙(2013), 박상숙(2019) 등의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전류와 유사하게 의문문에서 나타내는 '-길래'의 의미를 제시한 선행연구에는 안주호(1998), 임은하(2002), 민진영(2011), 염재일(2012)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고는 이 장에서 위와 같은 사전류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길래'의 의미 및 그 외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를 여러 측면에서 세밀히 살펴보고 그 과정을 통해 '-길래'의 가장 타당한 의미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외국인 학습자들의 '-길래'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다른 원인 표현들과 구별되는 '-길래'의 의미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그로 인한 통사적 특성 및 제약도 자연스럽게 파악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과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장에서는 둘로 나누어 '-길래'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첫째는 문장에서 나타나는 '-길래'의 의미이다. 두 번째는 문맥상 나타나는 의미 외에도 상대방과의 담화에서 드러나는 '-길래'를 통해 전달되는 화자의 발화 의도라 할 수 있는 담화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길래'가 어떤 언어 환경, 즉 어떤 상황의 어떤 언어 형식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한 '화용적 특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 1. 문장에서 나타나는 '-길래'의 의미

### 1.1. 문장에서 화자의 '지각' 및 '자각'이 드러나는 '-길래'의 의미

아래 예문 (1)에서 제시된 문장들은 모두 인과 연결어미 '-길래'가 쓰인 평서문이다. 그래서 이 문장들에서 '-길래'가 포함된 선행절은 이유를 후행절은

그로 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1) 가. 별님이 엄마가 그런 소릴 하길래 호기심에 가 본 거죠.
(종이 먹는 개 로로_동화, 문학사상사, 2003[37])
나. 연락이 왔길래 그냥 한 번 만났는데.
(독백_첫사랑)
다. 어제 학교에 안 왔길래 집에 전화를 했더니 좀 만나자고 하잖아.
(닫힌 교문을 열며_소설, 유시춘, 1990)
라. 맛있게 먹길래 하나 더 주문했지.
(일상대화_30대)

이때 후행절에 온 결과가 (1가)에서는 '(내가) 호기심에 가 봤다', (1나)에서는 '(내가) 그냥 한 번 만났다'로 모두 화자인 1인칭 주어가 한 행동임을 알 수 있다. 이는 (1다)와 (1라)의 예문들도 마찬가지이다. 즉 (1다)에서는 '(내가) 집에 전화를 했다'가 그리고 (1라)에서는 '(내가) 하나 더 주문했다'가 후행절의 결과로 온 것이다. 따라서 (1가~1라)의 예문들에서 '-길래'의 후행절에 온 결과가 되는 상황의 공통점은 모두 주어가 '나'인 1인칭이며 서술어로는 화자가 한 행동이 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 더 짚어보아야 할 점은 예문 (1)의 후행절에 온 화자의 행동이 모두 화자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2) 가. 연락이 {와서/*왔길래} (내가) 반가웠어요.
나. 뒤의 사람이 자꾸 나를 {밀어서/밀길래} 나도 그 사람을 밀었어.
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몰려들길래} 여기까지 밀렸어.
라. 해야 할 일이 {많아서/*많길래} (내가) 못 먹었어.
마. 해야 할 일이 {많아서/많길래} 안 먹었어.

따라서 예문 (2가), (2다), (2라)처럼 '반갑다'의 형용사나 '밀리다'의 피동사 그리고 '못 먹었다'의 불가능했던 상황을 후행절에 배치하면 '-길래'가 쓰인 문장은 비문이 된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형용사나 피동사 및 불가능한 상황은

37) 여기에서 사용된 용례들은 주로 국립국어원의 말뭉치 자료를 검색해 나온 '-길래' 구문들인데 그 외에 선행연구에서 인용한 용례들도 있다. 간혹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본고에서 임의로 든 예문임을 밝힌다.

위에서 살펴본 (1가~1라)의 후행절과 달리 화자가 의도적으로 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2나)의 '밀었다'라는 동사는 화자가 의지를 가지고 한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길래'와 자연스럽게 공기해 쓰이고 있다. 한편 (2마)의 후행절에 온 '안 먹었다'에도 (2라)의 후행절과 동일하게 동사 앞에 부정 부사가 왔지만, (2라)와 달리 (2마)의 문장은 자연스럽다. 그 이유는 이때 부정 부사 '안'이 '화자의 의지 부정'이라는[38]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2마)의 후행절에 동사인 '먹다' 앞에 부정 부사 '안'이 와서 서술어로 '안 먹었다'가 쓰이면, '안 먹었다'라는 서술어는 화자의 의지에 의해 선택한 행동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로 인해 (2마)의 후행절인 '내가 안 먹었어'는 문맥상 '내가 참았어'나 '내가 일을 했어'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참다'나 '일을 하다'는 화자의 의지에 의한 행동이기 때문에 '안 먹었어'가 '-길래'의 후행절에 허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2라)의 후행절 서술어인 '못 먹었어'는 화자의 의지로 선택한 행동이 아니다. 이는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화자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었던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길래'의 후행절에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길래'의 후행절에는 '화자가 한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가 제시한 이와 같은 '-길래'의 후행절의 의미는 앞서 임은하(2002: 90)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하지만 반드시 후행절에 화자가 완료한 행위만이 오는 것은 아니다.

(3) 가. 마침 팔고 있길래 {샀어요/사고 있어요}
나. 음식을 많이 시켰길래 같이 {먹었어요/먹고 있어요}

예문 (3)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후행절에 화자가 지금 진행 중인 행동이 와도 '-길래'로 이유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길래'의 후행절은 '하고 있거나 완료한 화자의 의지에 의한 행동'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길래'의 후행절의 의미에 대해서 채연강(1985: 95)과 임은하(2002: 90)에서는 본고와 유사한 의미를 제시한 반면에, 거의 모든 선행연구에서는 조금 다른 제시를 한 것이 확인된다[39]. 즉 채연강(1985: 95)과 임은하

38) 고영근·구본관(2009: 340)에 따르면 '안'이 동사 앞에 쓰이면 '단순 부정' 및 '의도 부정'의 2가지 의미를 모두 나타낸다고 했다. 그런데 '의도'는 '화자의 의지가 담긴 계획'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안 먹었다'라는 서술어에 화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2002: 90)는 후행절에 오는 화자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밝혀 기술했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채연강(1985: 95)에서는 '화자가 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임은하(2002: 90)에서는 '화자의 의지적 행위'로 '-길래' 후행절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화자의 행동'이라고만 후행절의 의미를 제시해 이들과 차이를 보인다. 즉 거의 모든 선행연구에서는 후행절의 화자의 행위에 화자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미적 특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채연강(1985: 95)과 임은하(2002: 90)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공통점도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본고와 달리 화자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관련된 의미를 분명히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해 '화자의 (의지적) 행위' 혹은 '화자가 한 (의도적인) 행위'로만 제시해서 화자의 행위가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완료한 시점만을 기술해 진행 중인 행위도 나타내는 후행절의 의미를 올바로 기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40]. 이와 같은 논의를 근거로 하면 선행연구에서는 '-길래'의 후행절이 나타내는 의미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본고에서는 '-길래'의 후행절의 의미를 '화자의 의지에 의해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행동'으로 제시함으로써 '-길래'의 후행절이 가지는 의미적 특성을 모두 밝혀 기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길래'의 선행절을 보면 (1가)에서는 '별님이 엄마가 그런 소리를 했다', 그리고 (1나)에서는 '연락이 왔다'라는 상황이 후행절의 화자의 행동에 대한 이유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다)에서는 '(걔가) 어제 학교에 안 왔다'가, (1라)에서는 '(네가) 맛있게 먹었다'라는 상황이 후행절의 이유가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행절의 상황들은 후행절과 달리 화자의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화자와 무관한 상황이 선행절에 왔음이 확인된다. 즉 선행절의 주어가 '별님이 엄마', '연락', '걔', 그리고 '너' 같은 2인칭 혹은 3인칭 주어로 바로 이들에 의한 상황이 후행절의 화자의 행동을 불러온 이유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절의 의미에 대해 안주호(1998: 222)에서는 '비의도적이

39) 이에는 안주호(1998), 임은하(2002), 오경진(2003), 진정란(2003), 임채훈(2008), 김지혜(2009ㄴ), 노미연(2010), 정인아(2010), 민진영(2011), 서경숙(2013), 김미숙(2015), 권미숙(2017), 고우미(2018), 박상숙(2019) 등이 해당된다.

40)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길래'의 의미에 대한 것이므로 선행연구에서도 '-길래'의 의미를 어떻게 기술했는지에 한해 살펴본 것임을 밝힌다. 즉 선행연구에서 '-길래'의 의미에 대한 기술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을 뿐, 그 외 '-길래'의 통사적 제약에서 다루어진 후행절에 대한 시제 특성은 본고의 3장에 해당되므로 이 장에서는 논외로 한다는 것이다.

고 타의적인 근거'라고 했고, 진정란(2003: 365)에서는 '화자가 의도하지 않은 이유[41]'라고 했다. 그들에 따르면 '-길래'가 예문 (1가~1라)에서 나타내는 의미는 '화자의 의지적 행동을 초래한 화자가 의도하지 않은 외부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4) 가. (내가) 좀 답답하길래 올라와서 바람 좀 쐬고 있어요.
나. (내가) 승진 소식에 너무 기분이 좋길래 소리를 질렀어요.
다. (내가) 생각보다 많이 샀길래 친구들에게 좀 나눠줬어요.

예문 (4)의 선행절에는 (1)과 달리 2인칭이나 3인칭 주어가 아니라 1인칭 주어가 왔다. 이는 곧 예문 (1)과 달리 예문 (4)의 선행절의 상황이 화자와 무관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예로 든 예문 (4)의 문장들은 어색하지 않다. 그 이유는 '-길래'가 결합된 선행절이 위에서 언급된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즉 '답답하다'나 '기분이 좋다' 등의 화자의 상태나 기분,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샀다'의 상황은 모두 화자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주호(1998: 214)에서는 심리 혹은 소유 형용사나 비행위성 자동사 등이 화자 자신의 내적 요소가 아니라 '타의적인 것'에 속하기 때문에 '-길래'의 선행절에 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4다)의 선행절에 쓰인 '사다'라는 동사는 안주호(1998: 214)의 논의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즉 형용사나 비행위성 자동사가 아니라 행위성 타동사인 것이다. 따라서 선행절의 의미에 관련된 안주호(1998: 214)의 지적은 타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한편 김지혜(2009ㄴ: 145)에서는 '-길래'의 선행절이 나타내는 이유가 '화자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선행절에 화자의 감정이나 상태, 그리고 화자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혜(2009ㄴ: 145)의 이와 같은 논의는 위에서 예로 든 예문 (4)의 경우를 통해 그 타당성이 증명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일 '-길래'가 가지는 의미가 진정란(2003: 365)이나 김지혜(2009ㄴ: 145) 등의 주장처럼 '화자의 행동을 초래한 화자가 의도하지 않은 이유'라면

41) '-길래'의 선행절의 의미를 '외부적이고 타의적인 근거'로 본 선행연구에는 노미연(2010), 김미숙(2015), 권미숙(2017) 등이 있고, '화자의 비의도적인 이유'로 제시한 선행연구에는 김지혜(2009ㄴ), 민진영(2011) 등이 있다. 그리고 두 논점을 모두 반영하여 '화자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적인 것과 관계된 이유'로 '-길래'의 선행절의 의미를 제시한 선행연구에는 성진영(2017)이 있다.

다음의 문장들도 자연스럽게 성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가. 동생이 일찍 출발했길래 도착하면 기다리라고 했어요.
나. 부모님이 부산에 사시길래 명절마다 내려갔어요.

위 (5)의 예문들은 위에서 살펴본 '-길래'가 나타내는 선·후행절의 의미에 부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선행절에는 '동생이 일찍 출발했다', '부모님이 부산에 사신다'의 화자 자신의 의지나 의도로 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인 상황이 왔다. 그리고 후행절에는 '(내가) 기다리라고 했다', '(내가) 명절마다 내려갔다'의 화자의 의지에 의한 행동이 왔다. 따라서 (5)의 예문들에서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는 '화자의 의지적 행동을 초래한 화자의 비의도적인 이유'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5가)와 (5나)의 문장은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진정란(2003: 365)이나 김지혜(2009ㄴ: 145) 등의 '화자가 의도하지 않은 이유'라는 의미도 '-길래'가 결합된 선행절이 나타내는 타당한 의미로 볼 수 없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6) 가. (보니까) 할인을 하길래 사는 김에 네 것도 같이 샀어.
나. (먹어 보니까) 좀 짜길래 물을 더 넣었지.
다. (들어 보니까) 청소기 소리가 시끄럽길래 바로 껐어.
라. 지나가는데 (냄새를 맡아 보니까) 커피 향이 좋길래 들어왔어.
마. (만져 보니까) 이불이 부드럽길래 하나 살까 하고 보고 있어.
바. 너무 아프길래(느끼고) 자세히 봤더니 가시가 박혔더라고.
사. 요즘 좀 피곤하길래(느끼고) 쉬려고 휴가를 신청했어.
아. 듣고 있자니 짜증이 나길래(느끼고) 전화를 끊어버렸어.

위에 제시된 (6)의 예문들도 역시 후행절은 화자가 하고 있거나 한 의지적인 행동이며 선행절은 그와 같은 화자의 행동을 일으킨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길래'가 쓰인 선행절은 화자가 직접 보고, 듣는 등의 감각 기관의 행위를 통해 그전에는 몰랐다가 순간적으로 알게 된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6가)의 문장은 화자가 눈으로 보고 그 순간 할인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친구의 것까지 같이 샀다는 것을 의미한다. (6나)의 경우도 화자가 혀로 느껴서 그 순간 음식이 짜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근거로

물을 더 넣은 것이라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즉 선행절의 상황은 화자의 직접적인 감각 경험을 통해 순간적으로 인지하게 된 '지각'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임채훈 2008: 221[42]). 이는 (6다~6마)의 선행절에도 해당되는 바다. 즉 화자가 귀로 듣고 청소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것을, 코로 냄새를 맡고 커피향이 좋다는 것을, 또한 손으로 만져보고 이불이 부드럽다는 것을 그 순간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6바~6아)의 선행절의 상황은 앞서 살펴본 (6가~6마)의 경우와 다르다. 즉 (6바~6아)의 선행절은 (6가~6마)와 달리 화자가 감각기관을 수단으로 해서 인지하게 된 상황이 아니라 어느 순간 저절로 느껴진 상황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6바)의 예문은 갑자기 아프다는 것이 느껴져서 알게 된 후에 아픈 곳을 찾아봤다는 것을 의미한다. (6사)와 (6아)의 경우에도 화자가 피곤하다는 것이, 그리고 듣다가 짜증이 난다는 것이 어느 시점에 저절로 느껴져서 알게 된 후에, 그것을 근거로 후행절의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6바~6아)의 선행절에 온 서술어인 '아프다', '피곤하다', '짜증이 나다'라는 상태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주체는 바로 화자 자신뿐이다. 감정이나 상태 등은 화자가 저절로 감지하게 되는 대상이지 감각 행위를 통해 인지하게 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감정이나 상태 등을 화자가 저절로 느껴서 알게 되는 것은 '자각(自覺)'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길래'가 내포하고 있는 '지각'이란 의미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첫째는 화자가 사물이나 다른 존재를 대상으로 자신의 감각 기관을 수단으로 삼아 하는 행위를 통해 지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화자 자신이 저절로 감지(感知)하게 된 자각(自覺)[43]으로 '내적인 지각'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6가~6마)의 예문에서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는 '지각'이고, (6바~6아)에서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는 '자각'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선행절의 '-길래'의 의미로 인해 '-길래'가 쓰인 문장은 '화자가

---

42) 임은하(2002: 93)에서는 '-길래' 구문이 '화자가 몰랐던 상황을 순간 지각한 이후에 그것을 동기로 모종의 행동을 하게 됨'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다. 따라서 '-길래'는 '화자의 행동을 촉발시킨 지각적 상황'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임은하 2002: 93). 그런데 임은하의 이와 같은 '-길래'의 의미 제시는 '화자의 직접적인 감각 경험을 통한 지각'을 강조한 임채훈(2008: 221)과 달리 '어느 시점에 순간적으로 알게 됨'이라는 '-길래'의 의미적 특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43) 본고와 마찬가지로 염재일(2012: 136)에서도 '-길래'의 의미를 지각과 자각으로 구분해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선행연구에서 화자의 감정이나 상태 등의 내적인 이유를 지적하는 경우는 확인되었지만, 명료하게 그러한 '내적인 자각'을 '지각'의 일부로 보는 경우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염재일 2012: 136).

지각이나 자각한 상황으로 인해 화자의 의지에 의한 행동을 하고 있거나 함'이라는 의미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를 화자의 지각으로 본다면 위에서 제시한 (5)의 예문들이 어색한 이유가 설명이 된다. 즉 선행절에 온 (5가)의 '동생이 일찍 출발했다'는 화자가 직접 보고 듣는 등의 감각 행위를 통해 순간적으로 인지한 상황이나 자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5나)의 '부모님이 부산에 사신다'라는 선행절의 상황은 화자가 어느 순간 지각하게 된 사실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5가)와 (5나)의 선행절의 상황은 '-길래'가 가지는 '지각'이라는 의미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길래'의 앞에 쓰일 수 없다. 그러나 예문 (1)과 (4)의 선행절에 온 상황들은 모두 화자가 직접 지각한 상황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길래'의 선행절에 자연스럽게 실현된다. 먼저 (1가)의 선행절은 화자가 별님이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호기심을 느꼈다는 것이고, (1나~1라)는 모두 화자가 보고 알게 된 상황에 해당한다. 즉 연락이 온 것, 그 친구가 학교에 안 온 것, 네가 맛있게 먹는 것은 모두 화자가 보고 인지한 사실인 것이다. 또한 (4가)와 (4나)의 '답답하다'와 '기분이 좋다'는 상태와 기분이므로 화자가 자각한 상황에 해당한다. 그리고 (4다)의 '(내가) 생각보다 많이 샀다'는 '화자가 물건을 살 때는 몰랐는데, 산 후에 산 물건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물건을 많이 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4다)에서 '-길래'의 선행절이 나타내는 의미는 화자의 '지각'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고에서 예로 든 '-길래'가 실현되는 문장에서 '-길래'와 결합된 선행절의 의미는 '지각' 및 '자각'의 의미로 모두 설명이 가능하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보면, '-길래'가 결합된 선행절이 나타내는 의미는 화자가 순간적으로 지각이나 자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길래'가 나타내는 이 '지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염재일(2012: 137)에서는 선행절에 '-겠-'이 출현하는 상황은 '-길래'의 '지각'의 의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7) 소나기가 오겠길래 서둘러 정리했어요.

염재일(2012: 137)은 위 (7)의 경우처럼 '-길래' 앞에 온 화자의 추측은 화자가 지각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 것이다. 염재일(2012: 137)의 이와 같은 지적은 그가 지각을 단순히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등의 협소한 의미로만 파

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길래'가 나타내는 지각은 '화자의 감각 기관을 거쳐 알게 된 것'으로 여기에서 '알게 된 것'은 화자의 감각 경험을 근거로 한 화자의 추측까지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위에서 예로 든 (7)에서 선행절의 '소나기가 오겠다'라는 상황은 화자가 하늘의 먹구름을 보고 알게 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염재일(2012: 137)의 지적처럼 '-길래'가 나타내는 '지각'의 의미 범주를 감각 기관의 행위로만 본다면 다음과 같은 예문이 성립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8) 가. 사과가 3개에 1000원이길래 샀어요
나. 사과가 싸길래 샀어요.
다. 비가 왔길래 샌들을 안 신었어요.

(8가)의 문장에서 화자가 지각한 것은 '사과가 3개에 1000원이다'라는 사실이다. 이는 화자가 본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염재일(2012: 137)의 논의에 부합되는 지각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8나)와 (8다)의 경우에 선행절에 온 화자가 지각한 사실은 '사과가 싸다'와 '비가 왔다'이다. 하지만 이것은 화자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니다. 즉 (8나)의 선행절은 사과의 가격을 보고 화자가 판단한 내용에 해당한다. 또한 (8다)의 선행절은 길에 물웅덩이가 생긴 것을 보고 화자가 추리한 상황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8나)와 (8다)의 선행절은 염재일(2012: 137)의 논의에 따르면, '-길래'가 나타내는 지각의 의미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 문장들은 성립될 수 없다. 하지만 '-길래'가 쓰인 이 문장들은 어색하지 않다. 이는 곧 '사과가 싸다'라는 것, 그리고 '비가 왔다'라는 것도 '화자가 지각한 것'이라는 의미를 '-길래'가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근거로 본다면, '-길래'가 나타내는 '지각'의 의미에 대한 염재일(2012: 137)의 지적은 타당하지 못하다. '지각'의 '화자가 감각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이라는 의미에는 감각 경험을 통해 그것을 근거로 추측하거나 판단한 상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44]. 화자가 추측이나 판단한 상황 등도 '화자가 알게 된 것' 즉 '화자가 인지한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4) 이와 같은 염재일(2012: 137)의 논의에 대해 박상숙(2019: 115)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지각'의 의미를 근거로 들면서, 화자가 직접 지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시각', '청각' 등의 오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지 상황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또한 '-길래'가 가지는 지각의 의미는 선·후행절 사건의 시간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9) 가. 자는 동안 눈이 왔길래 쌓인 눈을 치우러 나갔어.
나. *자는 동안 눈이 왔길래 다음 날 쌓인 눈을 치우러 나갔어.

위 예문에서 (9가)는 자연스럽지만 (9나)는 어색하다. 그 이유는 임은하(2002: 85)가 지적한 것처럼 '-길래'가 가지는 지각에는 화자의 지각이 일어나자마자 화자의 행동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45]. 따라서 (9가)의 예문은 '화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자신이 자는 동안 눈이 왔다는 것을 알고 나서 바로 눈을 치우러 나갔다'라는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연스럽다. 반면 (9나)의 경우는 화자가 지각을 한 순간 화자의 행동이 이어지지 않아서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예로 든 (5나)에서 '-길래'의 쓰임이 어색한 또 다른 이유로 (5나)의 후행절이 이와 같은 '-길래'의 지각의 의미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부모님이 부산에 사시길래 명절마다 내려갔어요'라는 문장에서 설령 '부모님이 부산에 사신다'는 것을 몰랐다가 감각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해도 후행절의 '명절마다 내려갔어요'라는 문장이 '-길래'가 가지는 지각의 의미에 적합한 화자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후행절은 화자의 지각이 일어나자마자 한 행동이 아니라 '명절 때마다 간다'라는 반복되는 화자의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5나)의 문장은 후행절로 인해서도 '-길래'가 지각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보면, '-길래'가 쓰인 문장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화자의 직접적인 지각이나 자각으로 인해 이어서 의지적 행동을 함[46]'이란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길래' 구문이 나타내는 의미에 대한 본고의

45) 염재일(2012: 137)도 '-길래'가 나타내는 지각에 대해 유사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즉 선행절의 지각으로 인한 행동은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각하자마자 후행절의 행동이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염재일 2012: 137).

46) 본고와 가장 유사하게 평서문에서의 '-길래'의 의미를 제시한 선행연구에는 임은하(2002: 90-93)가 있다. 단 차이점이라면 임은하(2002: 90-93)에서는 본고에서 제시한 '자각'의 의미를 '지각'과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고, '지각'으로만 '-길래'의 의미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3장에서 다루어지는 '-길래'의 통사적 제약에서 '-길래'가 가지는 이 '자각'이라는 의미로 인한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임은하(2002: 90-93)의 이와 같은 의미 제시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

제시에서 특히 선행연구에서 '지각'으로만 제시했던 '-길래'의 의미를 특성에 따라 '지각'과 '자각'으로 구분해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문법 항목에 대한 정밀한 의미 제시는 그로 인한 통사적 제약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학습자의 이해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같은 '-길래'의 '지각'이라는 의미에 대해 '증거성(證據性)'이라는 개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47]. 이처럼 '-길래'가 '증거성'과 연관되어 다루어지는 이유는 '증거성'이 '화자가 진술한 내용에 대한 정보 획득 방법을 표현하는 문법 범주 혹은 의미 범주'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48]. 그런데 '-길래'가 나타내는 '지각'도 '화자가 보고 듣는 등의 감각 행위를 통해 알게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의미 안에는 '화자가 알게 된 과정' 즉 '정보 획득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길래'가 가지는 이와 같은 특성을 의미 범주에서는 '증거 양태'라고 하기도 하고 문법 범주에서는 '증거성(Evidentiality)'[49]이라 하기도 한다. 송재목(2009: 33)에 의하면 이 '증거성'은

47) 이에 해당하는 선행연구에는 임채훈(2008), 정인아(2010), 서경숙(2013) 등이 있다.

48) 송재목(2009: 32)에서는 '증거성'을 '화자가 발화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정보 획득의 방법을 표현하는 문법적 수단'이라고 했다. 또한 정인아(2010: 18)에서는 '증거성'이 '화자가 진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근거인 정보의 출처를 밝히는 방식과 관계된 문법적 범주'라고 주장했다. 박진호(2011: 3)에서도 '문장에 기술된 내용에 대한 정보의 입수 경로 즉 정보의 근원을 밝히는 문법 범주'를 '증거성'이라고 했다. 반면에 임채훈(2008: 203)에서는 '증거성'을 '증거 양태'라고 하면서 '문장에 기술된 내용, 즉 정보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명시하는 의미 범주'라고 했다. 이를 보면 송재목(2009: 32), 정인아(2010: 18), 박진호(2011: 3) 등과 임채훈(2008: 203)은 '증거성'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 입장 차이가 있는 듯하다. 즉 전자의 연구자들은 '증거성'을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로 봤지만, 임채훈(2008: 203)은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칭도 '증거성'과 '증거 양태'로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49) 정인아(2010: 15)에서는 'Evidentiality'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Franz Boas(1947)인데 이 용어가 한국어 문법계에서는 학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용어로 명명되었다고 했다.

| 학자별 Evidentiality에 대한 명칭 | 학자 명 |
|---|---|
| 증거성 | 송재목(2007, 2009) |
| 증거성 범주 | 송재목(2007, 2009) |
| 증거 양태 | 박진호·박병선(1999), 임채훈(2008) |
| 증거 | 박재연(2006) |
| 증거의 부류 | 박재연(2006) |
| 확인법 | 구현정(1995) |
| 인증 | 김종현(2000) |

(정인아, 2010: 15)

또한 정인아(2010: 16)는 'Evidentiality'와 'Evidentials'가 간혹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Evidentiality'는 주로 '증거성'이란 용어로 'Evidentials'는 '증거(증거성) 표지'로 사용된다고 했다. 다만 필자는 이 논문에서 '-길래'의 'Evidentiality'의 속성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

크게 ‘직접 지식’과 ‘간접 지식’으로 구분되는데, 화자가 직접 감각 기관을 통해 인식하게 된 정보가 전자에 속하며, 타인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나 지각한 상황을 근거로 하는 추측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했다[50]. 이 ‘직접 지식’과 ‘간접 지식’을 각각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로 지칭하기도 한다(박진호 2011: 6). 특히 한국어는 이 ‘증거성’이 수의적으로 특정 어미를 통해 나타나는 언어인데, ‘-길래’가 바로 이 ‘증거성’을 나타내는 어미인 ‘증거성 표지’[51]에 해당하는 것이다(임채훈 2008: 206).

이와 관련하여 ‘-길래’는 선행절에서 간접화법의 ‘-다고/냐고/라고/자고 하다’와 결합한 형태인 ‘-다/냐/라/자(고 하)길래’로 자주 쓰이고 있음이 확인된다[52].

(10) 가. 대구탕을 끓일까 하다가 생대구가 없다길래 그만뒀어.

(아름다운 그 시작_소설, 유기성, 1994)

나. 마을에 사는 아저씨 한 사람이 아는 척하면서 어디 가느냐고 묻길래 서울 이모네 집엘 간다고 대답했었다.

(어둠의 자식들_소설, 황석영, 1980)

다. 그래도 대고 들어오라고 하길래 염치 불구하고 들어갔지.

(열린 사회와 그 적들_소설, 김소진,1994)

라. 아니, 같이 보자길래 기다렸지.

(주제대화_향수와 영화)

이렇게 ‘-길래’가 빈번하게 간접화법과 결속되어 쓰이는 이유는 우선 ‘-길래’가 가지는 ‘지각’의 의미로 인해 선행절에 주로 2·3인칭 주어가 온다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각은 일반적으로 화자 이외의 존

---

아니라 ‘-길래’의 핵심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증거성’이나 ‘증거(성) 양태’라는 용어를 구분 없이 사용하겠다.

50) 박진호(2011: 4)에 따르면 ‘시지각, 시각 이외의 지각, 내적 사유 및 내성, 지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추리, 일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론, 傳聞’의 6가지 요소가 범언어적으로 증거성을 이룬다고 했다.

51) 정인아(2010: 45)에서는 한국어의 증거성 체계를 ‘직접 증거 표지’와 ‘간접 증거 표지’로 정리해 제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직접 증거 표지’에는 ‘-더-’, ‘-네’, ‘-군/구나’, ‘-길래’가, 그리고 ‘간접 증거 표지’에는 ‘추론’의 ‘-겠-’, ‘-군/구나’, ‘-(은)ㄴ가/았나/나 보-’, ‘-(으)ㄴ/는/(으)ㄹ 모양이-’와 ‘보고’의 ‘-고 (말)하-’가 있다고 했다.

52) 민진영(2011: 121)에서도 ‘-길래’가 간접화법과 결합해 쓰이면 자연스럽다고 언급했다.

재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간접화법도 화자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을 전달하는 문법 형식이기 때문에 선행절에 화자 이외의 주어가 오게 된다. 즉 이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이 말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절의 주어에서 자연스럽게 1인칭 주어가 배제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라는 것은 알게 된 정보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길래'가 가지는 '증거성(證據性)'과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증거성'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화자가 직접 감각 경험을 통해 인지한 '지각'은 '직접 증거'에 해당한다. 그 외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이나 감각 경험을 근거로 추측한 '추리' 혹은 일반적 사실을 근거로 추측한 '추론'은 '간접 증거'로 분류된다. 그런데 -길래'를 통해 나타나는 '증거성'은 화자의 시각·청각 등을 통해 혹은 저절로 감지해서 직접 정보를 입수했다는 '직접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길래'는 '직접 증거 표지[53]'에 속한다(박진호 2011: 6). 이는 (6)의 예문을 통해서도 그 타당성이 입증된다. 즉 '-길래'가 (6가)에서는 '시각'을, (6나)에서는 '미각'을, (6다)에서는 '청각'을, (6라)에서는 '후각'을, 그리고 (6마)에서는 '촉각'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6바~6아)에서는 화자가 저절로 '자각[54]'한 사실이라는 의미를 '-길래'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즉 '-길래'는 화자가 감각 기관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각하였거나 저절로 자각한 내용이 증거임을 밝히는 언어 표지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55]. '-길래'가 가진 이와 같은 정보적 특성으로 인해 '-길래'는 들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정보'는 직접 표현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간접 증거'를 '-길래'를 통해 근거로 제시할 때에

---

53) '직접 증거 표지'는 화자의 직접적인 정보 획득의 경위를 나타내는 문법 형태를 말한다. 즉 이는 화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사건을 자신이 직접 감각 기관의 행위를 통해 알았거나 스스로 자각했다는 것을 통사적으로 표현해 주는 문법 형태를 가리키는데, '-길래' 이외에도 '-더-', '-네' 등이 이에 해당한다(이의종 2012: 9, 서경숙 2013: 497).

54) 이의종(2012: 7)에서는 본고에서 제시한 '자각'을 Plungian(2001: 354)의 논의를 인용해 '내성적(endophoric)'으로 분류하면서 '내성적'은 아픔이나 배고픔 등의 내적 상태를 느껴서 아는 것이라는 설명했다. 또한 박진호(2011: 4)에서는 '자각'을 '내적 사유' 및 '내성(內省)'으로 제시했다.

55) (1) (네가 평일에는 매일 출근하니까) *네가 오늘도 출근했길래 회사로 전화했지.
위 예문에서 선행절의 '네가 오늘도 출근했다'는 화자가 알고 있던 정보를 근거로 한 '추론'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추론'은 '간접 증거'이고, '-길래'는 '추론'이라는 '간접 증거'를 나타낼 수 없는 '직접 증거 표지'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비문이 된다.

는 이 기능을 수행하는 문법 형태인 간접화법의 '-다고 하다' 류와 '-길래'를 결합 시켜 사용해야 한다(서경숙 2013: 497). 그 정보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전해 들은 것이라는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56]. 그러므로 바로 이와 같은 '-길래'의 사용 양상은 '-길래'가 '직접 증거 표지'에 속하는 문법 표현이라는 특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덧붙이자면 앞에서 살펴본 추측의 선어말어미 '-겠-'과 '-길래'가 결합해 쓰이는 양상도 '-길래'가 '직접 증거 표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근거라 할 수 있다. 즉 예문 (7)의 '소나기가 오겠길래 서둘러 정리했어요.'에서 화자가 지각한 것은 '소나기가 오겠다'이다. 그런데 '증거성'의 관점에서 화자가 이 상황을 인지하게 된 과정은 화자가 눈으로 본 것을 근거로 한 추측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했던 바대로 화자가 감각 경험을 근거로 해서 추측한 경우도 '간접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상황이 화자의 행동의 이유가 될 때에는 '-길래'가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길래'를 통해 나타내는 이유가 화자의 감각 경험을 근거로 한 추측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하므로 '간접 증거 표지'인 '-겠-[57]'과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화자의 감각 경험을 근거로 한 추측인 '추리'가 '-길래' 앞에 오는 경우, 항상 '-겠-'이 '-길래' 앞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11) 가. 소나기가 오겠길래 안 나갔어요.
나. 비가 왔길래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었어요.

위 (11)의 두 예문에서 후행절의 화자의 행동을 초래한 이유는 모두 화자가 눈으로 보고 추리한 상황이다. 즉 '소나기가 오겠다'나 '비가 왔다'라는 상황은 화자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먹구름을 보고, 길에 흥건한 물을 보고 추측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11가)에서는 '-길래' 앞에 '-겠-'이 왔지만 (11나)에서는 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서경숙(2013: 497)의 지적처럼, '-길래'가 '추리'라는 '간접 증거'를 경우에 따라

56) 서경숙(2013: 497)에서도 '-길래'가 '傳聞'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과는 직접 결합해 쓰일 수 없기 때문에 '-다(고) 하-' 류의 표현과 결합해 쓰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57) 송재목(2007: 6)에서는 '-겠-'이 '증거성'에서 '간접 지식'을 나타낸다고 했다. 즉 '-겠-'은 화자가 전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직접 감각 경험을 통해 획득한 것이 아니라, 화자의 지각을 거쳐 간접적으로 얻은 정보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겠-'을 '간접 증거 표지'로 분류한 선행연구에는 정인아(2010), 이의종(2012) 등이 있다.

직접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1나)의 경우처럼 '-길래' 앞에 화자가 추리한 내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의 출처를 '-겠-'을 사용해 밝히지 않고 직접 '-길래'로 표현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의종(2012: 7)의 논의를 들어 설명이 가능하다. 이의종(2012: 7)은 Plungian(2001: 354)의 논의를 인용해 '추리'를 '동시적 추리'와 '회고적 추리'로 구분해 제시했는데, '동시적 추리'는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징후를 보고 아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회고적 추리'는 '사건이 발생했던 흔적을 목격하고 아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11가)는 '동시적 추리'에 (11나)는 '회고적 추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길래'는 '간접 증거'에 속하는 '회고적 추리'도 나타내는 증거 표지이기 때문에 (11나)의 경우처럼 '회고적 추리'가 '-길래' 앞에 올 경우에는 '-길래'가 '간접 증거 표지'인 '-겠-'과 결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근거로 보면, '-길래'는 '회고적 추리'의 간접 증거성을 지닌 '직접 증거 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길래'가 '직접 증거 표지'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특성은 '-길래'의 '증거성'을 논의한 정인아(2010)와 서경숙(2013)에서도 지적된 바이다.

정인아(2010: 76-84)는 임채훈(2008)이 제시한 '-길래'의 증거 양태성[58]을 인정하면서 '-길래'가 '직접 증거 표지'에 속한다는 특성을 '증거성'에 입각해서 다루었다. 그 결과 '-길래'는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화자가 상황을 직접 지각했고, 그것이 바로 증거임을 나타내는 '직접 증거 표지'라고 했다(정인아 2010: 84[59]).

서경숙(2013: 488)에서는 '-길래'가 다른 인과 연결어미와 구분되는 증거성(證據性)의 양태 의미를 가지는데, 특히 직접 증거성이 강한 '직접 증거 표지'에 속한다고 기술했다. 그 근거로 '-길래'가 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지각' 및 '내성'으로 구성되는 '직접 증거'와 잘 결합하고, 이외에 '간접 증거'에서는 지각 증거를 토대로 해서 추측하는 '추리'와만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서경숙 2013: 496-497).[60] 두 선행연구의 차이점이라면, 정인아

58) 임채훈(2008: 206)은 '증거 양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길래'를 통해 서술되는 선행절의 내용은 화자가 감각적으로 지각해서 인지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였는지의 획득 방법 측면에서 '-길래'가 증거 양태성을 가진다고 했다. 이로 인해 '-길래'는 '선행절의 지각한 사건에 영향을 받아 화자가 후행절의 행동을 함'이란 의미 구조를 가지게 된다고 기술했다(임채훈 2008: 222).

59) 정인아(2010: 79)에서는 이와 같은 '-길래'의 증거성으로 인해 '-길래'가 쓰인 문장은 '화자가 지각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모종의 행동을 함'이란 의미 구조를 이룬다고 기술하고 있다.

60) (1) 가. 집에 와서 보니, 계산이 틀렸길래 전화로 따져 물었다. (내성)

(2010)와 달리 서경숙(2013)은 '-길래'가 '추리'의 간접 증거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본고에서는 여러 논의를 통해 평서문에서 '-길래'가 나타내는 가장 타당한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길래'는 '화자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거나 끝낸 행동을 초래한 순간적으로 일어난 화자의 직접적인 지각 및 자각'이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주지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길래'의 의미에는 후행절의 화자의 행동이 화자의 지각이 일어나자마자 이어진다는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길래'는 직접 증거성이 강하기 때문에 화자가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길래'를 통해 이유로 표현할 때에는 특정한 문법 표현과 결합해 쓰여야 한다는 특성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길래'의 증거성으로 인해 화자가 감각 경험을 근거로 추리한 상황이 '-길래' 앞에 위치할 때, 경우에 따라 '-겠-'이 '-길래' 앞에 쓰이는 양상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길래'의 의미에 대해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 외에 본고와 다른 논지를 전개한 연구가 있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오경진(2003: 384)에서는 '선행절의 완료된 상황이 이유가 되어 화자가 후행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길래'의 의미를 제시했다. 하지만 '날씨가 덥길래 냉커피를 시켰어요.'에서 '날씨가 덥다'라는 상황은 완료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오경진(2003: 384)이 제시한 '-길래'의 의미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기철(2007: 235)은 '-길래'의 의미를 '대체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의견 및 판단에 대한 이유'라고 했다. 그 근거는 '-길래' 구문에서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인과 연결어미 '-길래'와 공기하는 어말어미 '-지'의 주요한 의미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성기철(2007: 232-235)은 '-지'가 '확신성'이나 '확

---

나. (아침에 일어나 길이 젖어 있는 것을 보고) 밤사이 비가 왔길래 서둘러 출근했다. (추리)

다. *(철수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하니까) 오늘도 운동을 하길래 나도 운동을 갔다. (추론)

라. 갑: 철수가 회사를 그만뒀어.

을: (갑한테서 이야기를 듣고) *철수가 회사를 그만뒀길래 나도 그만 두고 싶었다. (傳聞)

(서경숙, 2013: 496 예문 (12) 인용)

서경숙(2013: 496)은 박진호(2011: 4)가 제시한 범언어적인 증거성(證據性)을 이루는 '시지각, 시각 이외의 지각, 내적 사유 및 내성, 추리, 추론, 전문(傳聞)'의 6개의 요소를 기준으로 삼아 '-길래'가 이들 중 어느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로 '-길래'에서 '시지각' 및 '시지각 이외의 지각', '내성', '부분적인 추리'의 項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추론' 및 '전문(傳聞)'의 두 요소는 없었다고 밝혔다(서경숙 2013: 496).

실성’이 부족한 의견이나 판단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바로 이 점에 근거해 ‘-길래’의 의미를 정의했다. 그러나 바로 위에서 예로 든 ‘날씨가 덥길래 냉커피를 시켰어요.’에서 ‘-길래’는 성기철(2007: 235)의 주장처럼 ‘확실하지 않은 의견이나 판단의 근거’를 의미하지 않는다. ‘화자 자신의 행동을 초래한 화자가 지각한 상황’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성기철(2007: 235)이 기술한 ‘-길래’의 의미도 ‘-길래’의 의미를 제대로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61].

마지막으로 염재일(2012: 141)에서는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를 ‘계기’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길래’가 사용된 문장은 지각이나 인식의 주체가 선행절의 상황을 지각이나 인지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 후행절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염재일 2012: 141). 이는 염재일이 ‘-길래’가 ‘지각’이라는 양태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인과 연결어미로서 ‘-길래’가 가지는 ‘인(因)’에 해당하는 의미를 본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이유’로 제시한 것[62]과 달리 ‘계기’로 정의한 것임을 말해 준다.

(12) 가. 철수가 건물에서 나오길래 말을 건넸다. 철수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 전기불이 들어오길래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너무 재미있어서 마저 다 읽고 싶었기 때문이다.

(염재일, 2012: 138, 예문 (14) 인용)

염재일(2012: 138)에서는 위와 같은 예문을 들면서, 후행절의 화자의 행동을 초래한 이유는 ‘철수가 건물에서 나왔다’와 ‘전기불이 들어왔다’의 선행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그 이유는 후행절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때 ‘-길래’가 결합된 선행절은 ‘계기[63]’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그 근거는

61) 그런데 성기철(2007: 235)이 제시한 ‘-길래’의 의미는 이후에 살펴볼 평서문에서 화자의 추측의 화행이 이루어질 때 ‘-길래’가 가지는 의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것을 ‘-길래’의 주된 의미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62) 김승곤(1984), 채연강(1985), 서정수(1996), 오경진(2003), 진정란(2003), 성기철(2007), 김지혜(2009ㄴ), 노미연(2010), 정인아(2010), 민진영(2011), 성진영(2017), 박상숙(2019) 등이 이에 해당한다.

63) 포털 사이트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계기’를 사건이 발생하거나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한 결정적인 원인 혹은 기회를 의미한다고 했다.
(https://ko.dict.naver.com/#/entry/koko/f923bac73c414e31aef0e2193b467e4e)

선·후행절의 관계성이 미흡하다는 것, 즉 선행절이 후행절의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런데 염재일(2012: 138)의 이와 같은 주장을 살펴보면, 그는 '이유'의 개념을 '원인'으로 파악한 듯하다. 그 근거로 서정수(1996: 1217)와 이은경(2000: 239)의 논의를 들 수 있다. 서정수(1996: 1217)에서는 '결과를 초래한 필연적인 요인'을 '원인'이라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은경(2000: 237-239)에서도 '후행절의 사건을 야기한 직접적이고 필연적인 요인'을 '원인'으로 보았다. 이에 따르면 염재일(2012: 138)이 기술한 '이유'라는 개념은 바로 이 '원인'의 개념에 해당한다. 반면에 '이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서정수(1996: 1217)에서는 '만나는 이유', '믿는 이유', '반박하는 이유', '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 '지각한 이유' 등 행위의 동기, 주장 혹은 믿음의 근거, 추측의 전제나 근거, 설명 및 논리적 방어의 합리적인 근거, 행위나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밝히거나 따지기 위한 근거 등을 나타낸다고 했다. 또한 이은경(2000: 238)에서는 화자의 입장에서 판단 시, 선행하는 사건에 대해 합리적으로 반응하여 어떤 행위가 이어지는 경우, 그와 같은 선·후행절의 관계를 이유로 나타낸다고 했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근거로 보면, 염재일(2012: 138)이 제기한 '계기'의 의미는 '이유'라는 의미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길래'는 '화자의 행동을 일으킨 화자가 지각한 상황'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서정수(1996: 1217)에서 제시한 이유의 개념에 포함된 '행위의 동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12)의 예문들에서도 확인되듯이 '-길래' 구문에서는 선행절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화자의 행동이 연달아 발생하므로, 문장에서 '-길래'는 이은경(2000: 238)이 정의한 '이유'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염재일(2012: 138) 스스로도 그가 제시한 '계기'라는 의미가 상황에 따라 '이유'로 간주된다고 인정한 바가 있는 것이다. 즉 해석 과정에서 강화되는 현상이라면서, 화용적인 측면에서 화자는 청자가 계기를 이유로 확대해석할 것이라 가정하고 발화하며, 청자는 이유로 해석한다고 기술한 점을 말한다(염재일 2012: 138). 한편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염재일(2012: 138)에서는 계기가 선·후행절의 두 사건이 거의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로 인해 이유와 달리 선·후행절이 독립된 시제를 가질 수 없다고 했다.

(13) 가. 또 늦게 왔길래 한마디 했어요.
나. 내 우산을 가져갔길래 가져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위 예문에서 확인되듯이 (13가)와 (13나)의 선행절에 온 '또 늦게 왔다'와 '내 우산을 가져갔다'는 후행절의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았/었/였'의 선어말어미가 '-길래' 앞에 쓰이고 있다. 완료형 선어말어미가 사용되었으므로 염재일(2012: 138)의 주장에 따르면 선행절과 후행절은 독립된 시제를 가진 것이다. 따라서 이때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는 그의 주장대로 '이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염재일(2012: 138)이 제시한 '-길래'의 의미에 대한 '계기'라는 용어는 타당성이 부족하다. 즉 '계기'라는 의미는 평서문에서 '-길래'가 나타내는 부분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길래'의 의미를 '이유'로 정의한 선행연구의 주된 논의에 동의하는 바다.

결론적으로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는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화자의 행동을 초래한 이유로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화자의 직접적인 지각이나 자각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 1.2. 문장에서 화자의 '지각' 및 '자각'이 드러나지 않는 '-길래'의 의미

'-길래'는 평서문에서 '화자의 의지적 행위를 초래한 화자의 순간적인 지각이나 자각'이라는 의미와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14) 가. 어른이 애들에게 공연히 매질을 했겠니, 다 매맞을 짓을 했길래 때렸겠지.

(안주호, 1998: 217, 예문 (57) 인용[64])

나. 돈을 다 썼길래 (지가) 못 들어오는 거겠지.

(안주호, 1998: 223, 예문 (124) 인용)

다. 누가 데려왔길래 (내가) 여기서 잤겠지.

라. 내가 전화를 안 받길래 (네가) 직접 왔겠지.

위 (14)의 예문들도 모두 평서문으로 '-길래'를 통해 후행절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 문장들은 모두 발화 시 이루어지는 화자의 추측을

64) 안주호(1998: 205)에 따르면 그가 제시한 예문들은 연세대학교 사전편찬실에서 채집한 말뭉치 자료라고 했다.

나타낸다[65].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14가～14라)의 후행절은 화자가 알게 된 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4가)의 후행절은 '어른이 아이들을 때렸다'라는 그리고 (14나)는 '(지가) 못 들어온다'라는 발생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14다)와 (14라)의 후행절도 '(내가) 여기서 잤다', 그리고 '네가 직접 왔다'라는 발생한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후행절에 온 내용은 이미 일어난 상황이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다[66]. 그런데 이와 같은 후행절의 사실을 알게 된 과정을 보면, (14가)와 (14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인식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4다)는 일어나서 보고, (14라)는 상대방을 보고 알게 된 사실이다. 따라서 후행절의 내용은 화자가 보거나 듣는 등의 과정을 통해 인식하게 된 사실이므로 '지각한 사실'로도 볼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을 포함해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은 곧 '지각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모든 앎의 과정은 보거나 듣거나 혹은 전해 듣거나 등의 감각 기관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책이나 선생님을 통해 일반적인 지식을 획득하는 것도 눈으로 책을 읽은 후에 혹은 선생님의 설명을 듣거나 선생님의 판서를 본 후에 그 지식을 알게 된다. 즉 포괄적인 인지의 과정을 '지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각'은 앞서 살펴본 '-길래'가 가지는 '지각'의 의미와는 그 범주가 다르다. 왜냐하면 '-길래'가 나타내는 '지각'의 의미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들어서 알게 된 '간접 지식'도 이 '지각'의 의미 범주 안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14가～14라)의 '화자가 지각한 사실'이라는 후행절의 의미는 앞서 살펴본 '-길래' 평서문의 후행절이 나타내는 의미와도 다르다. 즉 (14가～14라)의 후행절에는 (14다)를 제외하면 화자 이외의 주체로 인한 상황이나 그와 관계된 상황이 온 것이다. 그리고 (14다)의 경우도 후행절의 '여기서 잤다'라는 행동의 주체가 화자이긴 하나, 문맥상 그 행동을 화자가 의지를 가지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후행절의 상황은 잠에서 깬 후에야 화자 자

65) 안주호(1998: 223)에서는 이 '-길래' 구문이 화자가 직접 추측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고 했다.

66) 김지혜(2009ㄴ: 147), 염재일(2012: 150), 박상숙(2019: 112-113)에서도 추측의 '-길래' 평서문에서 후행절에 사실이 온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염재일(2012: 150)에서는 추측의 '-길래' 평서문에서 선행절은 추측의 일부에 해당하지만, 후행절은 늘 사실로 전제된다고 했다. 박상숙(2019: 112-113)에서도 '-길래'의 후행절에는 사실이 오는데, 만일 후행절에 다른 사람의 행동이 오면 화자는 그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후행절에 '-겠지'라는 표현을 사용해 추측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이 낯선 곳에서 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예문 (14)의 후행절은 '하고 있거나 한 화자의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평서문과 예문 (14)에서 제시된 평서문은 후행절에서 의미상 차이를 보인다.

한편 '-길래'가 결합된 선행절을 보면, (14가)에서는 어른이 아이를 때린 이유가 왔는데, 그 이유도 '화자가 직접 감각 기관을 통해 인지한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4가)는 어른이 아이들을 때린 이유를 '아이들이 매 맞을 짓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화자가 추측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14나)에서 나타내고 있는 아이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도 '아이가 돈을 다 썼기 때문일 것'이라는 화자의 추측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선행절의 의미는 (14다)와 (14라)에서도 확인된다. (14다)에서는 '누가 데려왔기 때문일 것이다', (14라)에서는 '내가 전화를 안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의 의미를 선행절이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 문장들에서 '-길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화자의 행동을 초래한 화자가 직접 지각한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후행절의 사실에 대해 화자가 추측하는 이유'라는 의미를 나타냄을 보여준다. 즉 '-길래'가 '지각' 혹은 '자각'의 의미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67]. 그 이유는 후행절에 온 '-겠지'라는 추측의 표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14) 마.′ [[[내가 전화를 안 받길래][(네가) 직접 왔]겠]지]

안주호(1998: 217)에서는 '-겠지'가 쓰인 '-길래' 평서문에서 '-겠-'이 가지는 추측의 범주를 위와 같이 분석하면서, 후행절의 '-겠-'의 의미 범주 안에 선행절과 후행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후행절에 온 추측의 선어말어미 '-겠-'의 의미가 영향이 미치는 범주 안에는 선행절인 '내가 전화를 안 받길래'와 후행절의 '(네가) 직접 왔다'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절이 추정의 '-겠-'의 의미 범주 안에 들어가면서 '-길래'가 나타내던 '화자의 직접 지각 및 자각'이라는 양태적 의미가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즉 이 문장에서 '-길래'의 '지각'이라는 의미가 발현

67) 이에 대해서 박재연(2009: 124)에서는 '-길래'가 나타내는 지각의 양태적 의미는 '-길래' 평서문에서만 확인된다고 했다. '-길래'가 쓰인 의문문이나 후행절에 추측의 '-겠-'이 온 평서문에서는 '-길래'가 지각의 의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되면 화자가 직접 감각 기관의 행위를 거쳐 알게 된 것을 화자가 다시 추측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비논리적인 발화 상황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후행절의 '-겠-'으로 인해 '-길래'에는 인과 연결어미로서의 의미만이 남게 되고 여기에 '-겠-'의 추측의 의미가 더해져 결국 '-길래'는 '화자가 추측하는 이유'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 것이다. 그런데 후행절 또한 '-겠-'의 의미의 영향을 받는 범주 안에 있으면서 후행절에서 추측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후행절에는 화자가 알게 된 사실이 오기 때문이다. 이미 일어난 사실을 화자가 다시 추측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선행절은 화자가 발화 당시 알게 된 사실의 이유를 나타내므로 이에 대해 화자의 추측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알게 된 사실'이란 그전에는 몰랐다가 어떤 상황이 완료된 후에 혹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이유를 화자는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측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근거로 (14가~14라)의 '-길래' 구문은 '화자가 어떤 사실을 지각한 후에 그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이유를 추측함'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처럼 지각한 사실에 대해 화자가 추측하는 이유를 '-길래'를 통해 나타낼 때는 공통적으로 특정된 표현이 사용된다는 것이 확인된다. 즉 위 예문(14)의 후행절에 모두 '-겠지'라는 표현이 쓰인 것이다. 이 '-겠지'는 '화자의 감각 경험을 근거로 한 추측'이라는 양태적 의미를 가지는 '-겠[68]-'과 '이미 알고 있음'을 의미하는 '-지[69]'라는 양태소가 결합한 형태이다. 따라서 '-겠지'로 두 문법 형태가 결합하게 되면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한 추측(장경희 1985: 133)'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길래' 평서문이 이유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낼 때 추측의 선어말어미 '-겠-' 이외에도 '-지'가 사용되는 이유는 후행절의 의미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즉 앞서 논의한 바대로 이 '-길래' 평서문에서는 후행절이 '화자가 알게 된 사실'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벌어지고 있거나 벌어진 상황에 대해

68) 본고에서는 앞서 송재목(2007: 6)의 논의를 들어 '-겠-'이 '화자의 지각을 거쳐 간접적으로 얻은 정보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증거성'에서 '간접 지식'을 나타낸다고 했다. 따라서 '-겠-'은 '화자의 감각 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를 근거로 추측한다'는 양태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69) 장경희(1985: 116)에서는 '-지'를 '이미 앎'의 주요한 의미 외에도 문맥상 '짐작'이나 '의견'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양태 종결어미라고 했다. 박재연(2006: 200-207)에서도 '이미 앎'으로 '-지'의 양태적 의미를 파악했는데, 이와 같은 화자의 '기지정보'라는 양태적 의미는 청자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술했다.

서 그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이유를 추측할 때에는 화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화자의 기지정보(旣知情報)'라는 양태적 의미를 가진 '-지'가 '-겠-' 뒤에 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가 가지는 '화자가 이미 알고 있음'이라는 양태적 의미에서 '알다'는 한편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가 맞다'라는 화자의 정보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한 확신의 태도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겠지'라는 결합형이 나타내는 의미는 '화자의 확신이 담긴 주관적인 추측'이 된다. 따라서 후행절에 '-겠지'가 위치한 '-길래' 평서문은 '화자가 어떤 사실을 지각한 후에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 이유를 확신을 가지고 추측함'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겠지'가 나타내는 의미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우선 박재연(2006: 270-271)에서는 양태 선어말어미 '-겠-'은 평서문에서 '화자의 개연성이 높은 판단'을 나타낸다고 했다. 또한 양태 종결어미 '-지'는 화자의 정보에 대한 내면화 정도 측면에서는 '이미 앎,' 그리고 청자의 지식 측면에서는 화자가 인지하고 있는 정보를 청자도 알고 있을 것이라 가정하는 '기지가정'을 의미한다고 기술했다(박재연 2006: 270-271). 따라서 '-겠지'의 형태로 두 양태 요소가 결합되면, 두 요소의 양태적 의미가 융합되어 '짐작된 정보는 기존에 알고 있던 것임'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재연(2006: 271)은 '-겠지'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은 장경희(1985: 133)의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한 짐작'과는 다른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즉 박재연(2006: 271 -272)에서는 자신이 제시한 '짐작된 정보는 기존에 알고 있던 것임'이라는 의미에서 '화자가 알고 있던 정보'는 청자의 기지가정을 포함하는 의미이며, 또한 '짐작'의 의미에는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화자의 개연성 판단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두 학자의 논점의 차이는 추측에 대한 확신인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의 개입 여부라 볼 수 있다. 즉 '-겠지'에 대해서 박재연(2006: 271-272)은 '기지 정보를 근거로 이루어진 추측에 화자의 확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고, 장경희(1985: 134)에서는 '기지정보를 근거로 한 추측'으로만 그 의미를 파악한 것이다.

다음으로 정인아(2010: 95-97)는 '-겠지'의 형태로 두 양태소가 결합하여 쓰이게 되면 '-지'의 '이미 앎'이라는 양태적 의미에 동화되어 '-겠-'의 감각 경험을 통한 '새로운 앎'이란 증거 양태성이 희석된다고 했다. 이 논지에 따르면 '-

겠지’라는 연쇄형에서 ‘-겠-’은 ‘-지’로 인해 ‘감각 기관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하는 추측’이란 의미에서, ‘감각 기관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실’이란 의미가 소실되고 ‘추측’의 의미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양태소 ‘-지’가 가지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란 의미가 더해져 ‘-겠지’는 결국 ‘발화 시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측’이란 최종적인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정인아(2010: 95-97)의 이와 같은 논의는 ‘-길래’가 ‘화자가 추측하는 이유’라는 의미를 가질 때 후행절에 ‘-겠-’과 ‘-지’가 결합한 형태가 쓰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겠-’이 나타내는 ‘감각 기관을 거쳐 알게 된 것을 근거로 한 추측’이라는 의미에서 이 ‘알게 된 것’이라는 의미는 ‘-지’의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란 의미와 상충이 일어난다. 하지만 정인아(2010: 95-97)의 주장대로 ‘-지’가 가진 의미의 영향으로 ‘-겠-’의 ‘새로운 정보’라는 의미가 사라지게 되면, ‘-겠-’에는 두 문법 표현에서 충돌되는 양태적 의미가 소실되고 추측의 의미만이 남게 된다. 따라서 두 문법 표현은 결합해 쓰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70].

마지막으로 서경숙(2013: 504)은 ‘-겠지’가 화자의 지식 체계에 내면화된 정보로 인한 ‘확신’이라는 개연성 판단을 나타낸다고 했다.

이상 ‘-겠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박재연(2006: 270～271)과 서경숙(2013: 504)은 장경희(1985: 134) 및 정인아(2010: 95-97)와 달리 ‘-겠지’가 나타내는 추측에 ‘화자의 확신’이라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진행된 본고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의 논의를 통해 ‘-길래’가 쓰인 평서문에서 ‘-길래’가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첫째는 ‘화자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거나 한 행동을 초래한 순간적으로 일어난 화자의 직접적인 지각이나 자각’이라는 의미이다. 두 번째는 ‘화자가 지각한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추측하는 이유’라는 의미[71]이다.

---

70) ‘-겠지’와 관련된 통사적 특징은 3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71) 안주호(1998: 223)에서는 ‘-겠지’가 쓰인 평서문에서 나타나는 ‘-길래’의 의미를 ‘화자의 추측의 근거’라고 했다. 김지혜(2009ㄴ: 147)에서는 이 문장이 ‘화자가 이미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이유를 추측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다. 염재일(2012: 150)에서도 ‘-겠지’가 쓰인 평서문에서 ‘-길래’가 ‘후행절의 사실에 대해 화자가 추측하는 이유’를 의미한다고 논의했다.

그런데 '-길래'는 의문문에서도 그 쓰임이 확인된다.

(15) 가. 그래, 도대체 집에서 뭘 하길래 아이가 삼십 점을 받아와?
(랍스터를 먹는 시간_소설, ㈜창비, 2003)
나. (너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 야단이냐?
(똘배가 보고 온 달나라_소설, 권정생 외, 1977)
다. 누구 결혼식이길래 조폭들이 많이 왔지?
(대화/일상)
라. 내가 어제 무슨 짓을 했길래 (내) 손이 이렇게 파래?

위 (15)의 '-길래'가 쓰인 의문문의 후행절의 내용을 보면, 후행절에 '-겠지'가 온 평서문과 마찬가지로 화자의 행동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15가)의 '아이가 삼십 점을 받아 왔다', (15나)의 '(네가) 야단이다', (15다)의 '조폭들이 많이 왔다', (15라)의 '(내) 손이 파랗다'는 화자가 알게 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상황 혹은 화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15가~15라)의 후행절은 모두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에 해당한다[72]. 그러므로 의문문에서 '-길래'의 후행절이 나타내는 의미는 추측의 '-길래' 평서문과 동일하게 '화자가 지각한 사실'이 된다.

한편 (15가~15라)의 선행절은 화자의 질문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15가)는 화자가 아이가 삼십 점을 받아 온 사실을 알고 나서, 아이가 그런 점수를 받아 온 이유에 대해 의문이 생겨 아내에게 그 이유를 '(당신은) 도대체 집에서 뭘 하길래'로 묻고 있는 내용이다. 화자는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선행절에 사용된 '뭘'이라는 의문사로 그 근거를 삼을 수 있다. 만일 화자가 후행절의 상황을 초래한 이유에 대해 알거나 혹은 짐작 가는 바가 있었다면 선행절에 의문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짐작하는 이유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판정의문문의 형식으로 질문을 했을 것이다.

이는 (15나~15라)의 선행절에도 해당된다. 화자가 지각한 상황에 대해서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문을 '(네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누구 결혼식이길래', '내가 어제 무슨 짓을 했길래'로 의문사를 사용해 상대방에게 질문한 것이다. 이처럼 화자가 후행절의 상황을

72) '-길래' 의문문의 후행절에 사실이 온다는 의미적 특성을 지적한 선행연구에는 염재일(2012: 146), 박상숙(2019: 111) 등이 있다.

초래한 이유를 모르는 것은 후행절의 내용이 화자가 알게 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즉 어떤 사실을 발화 전에는 몰랐다가 발화하는 시점에 지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화자 이외의 주체로 인한 것이든 화자로 인한 것이든 화자는 그와 관계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벌어진 상황을 지각하고 나서 그 이유를 짐작해서 질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전혀 짐작도 안 될 경우에는 예문 (15)와 같이 의문사를 사용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5라)에서 화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손이 파란 것을 지각하고 나서 그 이유를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야 자신의 손이 파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 추정되는 어제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15가~15다)의 후행절은 화자가 인지하게 된 상황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을 일으킨 주체가 (15라)와 달리 화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다. 따라서 화자는 당연히 후행절의 상황을 초래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문문에서 '-길래'가 결합된 선행절은 '화자가 의문이 생겨 질문하는 이유'라는 의미를 가진다. 물론 그 의문은 화자가 지각한 사실에 대해서이다.

이와 같이 의문문에서 '-길래'의 선행절에 기술된 내용이 '화자가 모르는 것'이라는 의미에 대해 임은하(2002: 89)에서는 선행절의 내용이 '화자가 알지 못하는 정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 근거로 화자가 어떻게 해도 예측하기 힘든 요소가 있을 때 쓰인다는 '도대체'나 '대관절'이라는 부사가 '-길래' 의문문에서 자주 어울려 쓰이는 경향을 들었다(임은하 2002: 89). '어떻게 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알 수 없다'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표현이 '-길래' 의문문의 선행절에 쓰이는 것은 곧 선행절의 내용이 화자가 '모르는 정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한편 의문문에서 '-길래'가 결합된 선행절이 나타내는 이와 같은 의미는 평서문에서 '-길래'가 나타내던 지각이나 자각의 의미와는 상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길래'의 지각 및 자각은 '화자가 직접 감각 기관을 통해 혹은 저절로 느껴져서 인지한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길래' 의문문에서는 선행절의 '-길래'에서 '화자가 직접 보거나 듣고 안 것'이라는 지각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길래' 의문문은 화자가 후행절의 발생한 상황을 알게 된 후에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 이유를 알지 못해서, 선행절에서 의문사를 사용해 그 이유를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화자가 이유에 해당하는 '-길래'가 결합된 선행절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결

국 감각 행위를 통해 알게 된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지각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각의 의미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길래'가 쓰인 의문문도 추측의 평서문과 마찬가지로 '-길래'에서 지각 혹은 자각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들을 근거로 '-길래'가 쓰인 의문문은 '화자가 지각한 사실에 대해 의문이 생겨 질문하는 이유(민진영 2009: 127[73])'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상숙(2019: 111)에서는 '-길래'를 '후행절의 사실에 대해 선행절에서 발견하거나 느낀 것이 이유가 됨'이라고 정의하고, 이 정의가 모든 '-길래' 구문에 적용된다고 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정의는 '화자가 순간 지각 및 자각을 한 후에 그것을 근거로 화자의 의지적 행동을 하거나 함'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길래' 평서문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겠지'로 추측의 화행을 수행하는 평서문이나 의문문에서 나타나는 '-길래'의 의미는 아닌 것이다. 즉 추측의 평서문에서 '-길래'는 '화자가 추측하는 화자가 지각한 사실을 초래한 이유'라는 의미를, 그리고 의문문에서는 '화자의 지각한 사실을 초래한 이유에 대한 의문'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이 두 화행에서 '-길래'의 의미가 박상숙(2019: 111)이 제시한 것처럼 '이유가 되는 화자가 선행절에서 발견하거나 느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박상숙(2019: 111)이 제시한 '-길래'의 의미는 타당하지 않다. '-길래'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부분적인 제시만을 했기 때문이다.

이상 문장에서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크게는 '-길래'에서 지각이나 자각의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었다. 전자에는 후행절에 화자의 의지적 행동이 오는 평서문이 해당되고, 후자에는 의문문과 후행절에 '-겠지'가 쓰인 평서문이 해당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문장에서 나타나는 '-길래'의 의미를 '지각'과 '자각'으로 구분하고 그와 같은 의미가 문장에서 드러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길래'의 의미를 나누어 제시한 것은 본고만의 새로운 논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

73) 의문문에서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에 대해 몇몇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다. 채연강(1985: 96)에서는 '-길래' 의문문의 후행절이 '상대방의 의견을 알아봄'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길래' 의문문이 '화자가 추측한 것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려고 함'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했다. 안주호(1998: 223)에서는 '화자의 근거에 대한 요구'를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김지혜(2009ㄴ: 148)에서는 화자의 감정을 전달한다고 했다. 염재일(2012: 146)은 '후행절의 사실에 대한 이유'라고 기술했다.

또한 ‘-길래’에서 나타나는 의미는 세 가지의 다른 의미로 구분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길래’는 평서문에서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화자의 의지적 행동을 초래한 순간적으로 일어난 화자의 직접적인 지각 및 자각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둘째, ‘-길래’는 후행절에 ‘-겠지’가 쓰인 평서문에서 화자가 지각한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추측하는 이유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셋째, ‘-길래’는 의문문에서 화자가 지각한 사실에 대해 의문이 생겨 질문하는 이유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평서문에서 ‘-길래’의 의미가 두 가지로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화자가 지각하게 된 상황이 오는 위치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화자가 지각한 상황이 선행절에 오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한 화자의 의지적인 행동이 이어지지만[74], 반대로 결과인 후행절에 오면 화자는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이유를 추측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적 특성은 의문문에서도 확인된다. 화자가 지각한 사실이 후행절에 오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이유를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다.

## 2. 담화 상에서 나타나는 ‘-길래’의 의미

안주호(1998: 223)에서는 ‘-길래’가 의문문에서 ‘화자의 근거에 대한 요구’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그와 같은 의미 외에도 의문문의 형식으로 화자의 다른 발화 의도를 전달하는 것 같다고 했다. 즉 ‘-길래’ 의문문은 ‘비난’, ‘위로’, ‘칭찬’ 등의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문처럼 보인다고 한 것이다. 김지혜(2009ㄴ: 148)에서도 ‘-길래’가 쓰인 의문문은 청자의 대답을 듣겠다는 목적 이외에도 화자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보면, 앞에서 살펴본 문장에서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 외에도 화자의 또 다른 발화 의도를 ‘-길래’가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74) 염재일(2012: 135)에서는 화자가 지각한 상황이 근거가 되면 지각을 한 주체의 행동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길래’의 담화적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임규홍(2006: 164)에서는 ‘담화’의 범주를 ‘음운<낱말<어휘<문장<의미<담화’라면서 ‘담화’는 문장 단위에서 벗어난 언어의 한 단위이자 범위라고도 했다. 또한 이관규(2012: 281)에 따르면, 담화가 문장들이 모여 구성된 ‘실제 쓰인 언어 형식’을 가리키는 광의(廣義)로 사용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담화’는 구어적 언어 형태와 문어적 언어 형태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 된다는 것이다[75](이관규 2012: 281).

그렇다면 구어적인 언어 환경에서의 담화란 대화의 참여자인 화자와 청자가 상호적으로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대화 형식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대화 차원에서 화자와 청자는 자신들의 발화 의도 및 목적을 서로에서 전달하게 되는데 이 발화의 의도나 목적을 ‘의사소통 기능’ 혹은 ‘담화 기능’이라고 한다(김상수 2014: 156, 이병규 2015: 246). 이러한 ‘담화 기능’은 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상황적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와 관련해 진정란(2004: 8-9)에서 이를 ‘담화 맥락’이라 정의한 바 있다. 진정란(2004: 8-9)은 화자와 청자가 대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발화 의도를 설명하는 상황적인 의사소통 요소들을 실제 대화 상황에서 포착되는 ‘담화 맥락’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진정란(2004: 9-10)은 Hymes(1972)가 제시한 SPEAKING 모델에서 담화 맥락의 주요 요소를 4가지로 꼽았는데, 그것은 바로 ‘배경’, ‘참여자’, ‘화제’, 그리고 ‘목적’이었다. ‘배경’은 격식·비격식 등의 화용적 측면의 ‘담화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화·청자의 ‘담화 참여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참여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화제’는 ‘화제의 종류’를 ‘목적’은 ‘발화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담화 요소들이 관계되면서 ‘-길래’도 앞 절에서 살펴본 문장에서 나타나는 의미 외에 담화 맥락상에서 드러나는 여러 구체적인 담화 의미들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 ‘담화 의미’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화자의 발화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담화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를 ‘담화 의미 기능’이라고 칭할 수 있겠다.

‘-길래’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길래’가 담화에서 나타내는 의미 혹은 그 기능에 대한 논의를 한 연구는 11건이었는데, 그중에서도 기존의 선행연구를 그

75) 임규홍(2006: 172)에서는 담화의 개념에 대해 이견이 많은데 6·7차 교육과정의 문법 교과서 해설서에서 제시한 개념 규정을 보면 보통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가 된다고 했다. 첫째는 문장 이상의 구어 자료는 담화로 문어 자료는 텍스트로 보는 입장이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는 담화를 구어와 문어 모두를 포괄한 개념으로 보는 입장으로, 이에 따라 구어는 ‘구어 담화’로 문어는 ‘문어 담화’로 칭한다고 했다(중학교 국어 교육과정 해설 2002: 151, 임규홍 2006: 172에서 재인용).

대로 수용해서 담화적 기능을 기술한 연구는 노미연(2010), 김미숙(2015) 그리고 박상숙(2019)의 3건이었다. 노미연(2010)과 김미숙(2015)은 진정란(2005)의 논지를 그대로 따랐고, 박상숙(2019)은 진정란(2005), 성진영(2017), 권미숙(2017) 그리고 고우미(2018) 등 4명의 연구자가 제시한 '-길래'의 담화적 기능을 정리해 짧게 언급했다[76].

그 외 8건의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길래'의 담화적 의미 기능을 살펴보면 평서문에서는 주로 '변명'이나 '핑계'의 기능이 그리고 의문문에서는 '비난' 및 '추궁', 그리고 '의문'의 기능이 제시되었음[77]을 확인할 수 있었다[78].

한편 위에 제시한 선행연구 중에서도 담화 상에서 '-길래'가 가지는 의미 기능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한 연구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란(2004, 2005), 권미숙(2017), 고우미(2018), 그리고 이지선(2021)에 해당한다.

진정란(2004, 2005)은 실제 담화에서의 화용 요소 및 담화 정보의 상황, 그리고 '-길래'의 상호 작용기능을 분석했는데, '-길래'가 주로 '화자가 처한 상황이 열세인 비격식적인 구어'라는 담화 상황에서 사용된다고 했다. 또한 '-길래'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이유 설명'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부정적일 때에는 '변명'이나 '우김'의 담화 기능을 나타낸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추궁'의 기능과 상대방의 적절치 못한 행동을 지적하는 '핀잔'의 담화 기능도 가진다고 기술했다(진정란 2004: 102-109).

권미숙(2017)은 진정란(2004)이 제시한 이유 표현 및 '-길래'의 담화적 의미 기능을 토대로 하여, '구어 담화' 및 '문어 담화'에서 나타난 '-길래'의 담화상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길래'의 담화 기능을 진정란(2004, 2005)이 논의한 내용보다 3가지를 더 밝혀내었는데, 그에는 '의문', '추측의 이유', '배경 설명'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고우미(2018)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길래'에 관한 담화 의미

---

76) 박상숙(2019: 113)에서는 '이유 설명, 변명, 정당화, 질문, 비난, 감탄, 놀림, 불평' 등으로 선행연구의 담화·화용적 기능을 정리해 제시하고, 그중에서 '변명'의 기능을 선정해 교수 방안에서 다루었다.

77) 평서문에서 확인되는 '-길래'의 담화적 기능을 제시한 선행연구에는 진정란(2004, 2005), 김지혜(2009ㄴ), 권미숙(2017), 성진영(2017), 고우미(2018), 이지선(2021) 등이 있다. 그리고 의문문에서 나타나는 '-길래'의 담화적 기능을 논의한 선행연구에는 안주호(1998), 진정란(2004, 2005), 권미숙(2017), 성진영(2017), 고우미(2018), 이지선(2021) 등이 해당된다.

78) 이외에 김승곤(1981: 32)에서는 '-길래'에서 부드러운 어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진정란(2003: 365)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어감으로 인해 '-길래'를 통해 화자가 자신이 한 행동을 완곡하게 정당화하는 의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고 논의했다.

분석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면서[79], 후행절에서 수행되는 화행을 중심으로 각 화행에서 나타나는 '-길래' 구문의 화용적 의미를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길래' 평서문의 화행 기능은 '설명'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변명', '정당화하기', '시도', '추측', 그리고 '핑계'의 빈도순을 보였다고 했다(고우미 2018: 9). 그리고 의문문에서는 '질문'과 '비난'의 두 화행 기능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불평', '놀람', '놀림', '감탄'의 네 가지 화행 기능의 출현 빈도보다 4배 정도의 비율[80]로 많이 나타난 것이 확인되었다고 했다(고우미 2018: 17).

그리고 필자는 소논문(이지선 2021)을 통해 '-길래'의 담화적 의미 기능을 선행절과 후행절을 중심으로 한 문장으로 구분해 직접 분석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길래'의 담화 맥락상 의미가 제대로 파악된 것이 아니거나 기준으로 내세운 분석 범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 등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81]. 그래서 이 절에서는 이지선(2021)의 연구를 중심으로 '-길래'가 담화에서 수행하는 의미 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본고는 앞 절에서도

---

79) 고우미(2018: 4)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분석해 낸 '-길래'의 담화적 의미 기능이 '-길래'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인지, 선행절에서 나타나는 담화 맥락상 의미인지, 후행절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화자의 발화 의도인지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그 근거로 권미숙(2017)이 제시한 '-길래'의 '배경 설명'의 담화 기능은 선행절을 중심으로 분석한 담화적 기능인데 반해, '추측의 이유'는 후행절을 중심으로 분석한 담화 기능이라는 점을 들었다.

80) 고우미(2018: 17)에서는 '질문'의 화행이 84회, 그리고 '비난'의 화행은 77회로 두 화행이 수행된 빈도수가 총 202개의 의문문에서 79.7%를 차지했다고 했다.

81) (1) 미치겠어. 내가 얼마나 살이 쪘<u>길래</u> 나보고 돼지라고 그러지?

(권미숙 2017: 56 예문 (4-7) 인용)

(2) 교장: 아니 교감 선생님, 그게 전 손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교감 선생님 손에 종기 같은 게 나 있길래 <u>확인해 보려고 잠깐...</u>

자옥: 그걸 변명이라고 하세요?

(고우미 2018: 11 예문 (3) 인용)

이 용례들에서 (1)은 이지선(2021: 245)이 지적한 '-길래'의 담화적 기능을 잘못 파악한 것에 그리고 (2)는 기준으로 내세운 분석 범위에서 화행 기능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즉 권미숙(2017: 56)은 위 용례 (1)번에서 '-길래'가 '의문'의 담화적 의미를 나타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추궁'과 달리 부정적이지도 감정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화자는 '왜 자신에게 사람들이 돼지라고 하는지'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상황에 대한 짜증과 답답함 및 억울함,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칭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까지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길래'는 권미숙(2017: 56)의 주장처럼 '의문'의 담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고우미(2018: 11)에서는 (2)의 담화 상황에서 '교감 선생님 손에 종기 같은 게 나 있길래 확인해 보려고 잠깐...'이라는 문장의 후행절이 나타내는 화행이 '변명'이라고 했다. 하지만 '확인해 보려고 잠깐...'이라는 후행절의 화행을 고우미(2018: 9-10)가 제시한 '설명'의 화행으로는 볼 수 있지만, '변명'으로 보기에는 억지스러움이 있다. 이 '변명'의 화행 기능은 오히려 '-길래'가 결합한 선행절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이지선 2021: 245).

‘-길래’가 문장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논의했듯이 이 절에서도 ‘-길래’가 쓰인 문장이 드러내는 ‘화자의 발화 의도’ 즉 ‘담화 의미’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앞장에서 확인된 ‘-길래’의 의미별로 나누어 ‘-길래’의 또 다른 화자의 발화 목적을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이지선(2021)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세종 코퍼스 말뭉치에서 ‘-길래’가 ‘화자가 지각한 사실에 대해 추측하는 이유’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길래’ 평서문[2]를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길래’ 평서문[1]과 ‘-길래’ 의문문으로 나누어 두 문형이 화자의 어떤 발화 의도 즉 담화적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 2.1. ‘-길래’ 평서문[1]에서의 ‘-길래’의 담화적 의미 기능

이지선(2021)에서는 담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길래’의 의미 기능을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인 언어 자료라는 판단하에 분석 대상을 세종 코퍼스의 현대 문어와 현대 구어의 말뭉치 언어 자료에서 검색된 인과 연결어미 ‘-길래’의 용례들로 선정했다. 구체적인 용례 수는 문어에서 260개[82], 그리고 구어에서는 65개였다. 그중 문어에서 대화체로 담화가 진행된 것도 구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용례들을 구어로 포함시켜 결국 문어의 용례는 111개 그리고 구어는 208개가 되었다(이지선 2021: 245).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4]이다.

[표 4] ‘-길래’가 쓰인 용례 수

| 문어에서 쓰인 ‘-길래’ 구문 | 구어에서 쓰인 ‘-길래’ 구문 |
|---|---|
| 111(35%) | 208(65%) |

(이지선, 2021: 246)

위 표를 통해 보면 ‘-길래’는 문어에 비해 구어에 치중해 쓰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길래’가 구어의 담화 환경에서 주로 쓰인다는 ‘-길래’의 화용적 기능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82) 사실 세종 코퍼스 말뭉치를 검색해 나온 문어에서 ‘-길래’가 쓰인 용례 수는 본래 306개였다. 그러나 그중에서 인과 연결어미로 쓰인 것이 아닌 경우나 인과 연결어미로 쓰였다고는 해도 ‘사랑이 뭐길래’의 경우와 같이 드라마 제목에서 쓰인 경우 등을 제외한 용례 수가 260개가 된 것이다(이지선 2021: 245).

### 2.1.1. 이유 설명과 상황 소개 및 추가 설명

‘-길래’는 앞 절에서 확인했듯이 ‘-길래’ 평서문[1]에서 ‘화자의 행동을 불러온 화자가 순간 직접 지각이나 자각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청자와의 담화 상황에서는 ‘-길래’가 화자 자신의 행동을 초래한 이유를 설명한다는 의미 외에도 후행절 상황의 배경을 설명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끝난 발화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는 의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의미 기능이 바로 ‘이유 설명’, ‘상황 소개’, 그리고 ‘추가 설명’에 해당한다. 이 기능들의 공통점은 후행절의 상황에 대해서나 앞서 완료한 발화에 대해서 ‘-길래’가 ‘설명’의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이지선 2021: 246).

(16) 가. ㉠: 어쩐 일이야?
㉡: 푼짱하고 같이 가길래 뭐 하나 걸렸나 하구 재미나 좀 볼려구요.
(어둠의 자식들_소설, 황석영, 1980, 이지선 2021: 247 예문 (1) 인용)
나. ㉠: 왜 그랬어?
㉡: 포크가 없길래
(일상대화_미팅, 이지선 2021: 247 예문 (2) 인용)

위 예문 (16)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은 ‘-길래’를 통해 자신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때 이와 같이 화자가 청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게 된 동기는 ‘어쩐 일이야?’와 ‘왜 그랬어?’의 상대방의 질문으로 인한 것이다. 즉 먼저 청자가 이유를 질문하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고, 화자는 청자의 그러한 요구를 수용해 그 질문에 답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담화에서 ‘-길래’ 평서문[1]의 ‘-길래’가 수행하는 이와 같은 의미 기능을 바로 ‘이유 설명’이라고 한다(이지선 2021: 246). 따라서 ‘-길래’ 평서문[1]의 ‘-길래’가 나타내는 ‘이유 설명’의 담화적 의미는 ‘질문’이라는 청자의 요구가 전제된다는 특성을 가진다. 그런데 (16나)를 보면, ‘-길래’의 후행절이 생략된 것이 확인된다. ‘이유 설명’은 청자가 어떤 상황을 알게 된 후에 그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이유를 질문한 것에 대해서 화자가 이유를 설명해 주는 의미 기능이다. 따라서 ‘-길래’ 평서문[1]에서 화자가 이유를 설명하는 선행절은 청자에게 있어 새로운 정보가 되지만,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을 진술하는 후행

절은 구정보가 된다(이지선 2021: 248). 이러한 정보적 특성으로 인해 (16나)의 담화 상황처럼 '-길래'의 후행절이 생략되더라도 화자와 청자 간의 의사소통에는 어떤 장애도 발생하지 않는다. '-길래'의 후행절이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길래'가 담화에서 '이유 설명'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후행절이 생략되는 양상이 자주 확인된다.

(17) ㉠: 나는 삼월 군번인데 니 삼월달에 제대한다 막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 음음.
㉠: 근데 그런 얘기를 이 년 하구 나니까 제대하더라구요
㉡: 그렇게 돼,
㉠: 근데 나는 이제 대통령 선거 하구서는,
㉡: 으응,
㉠: 공약 내세우<u>길래</u> 나 그래 생각했어요. 웃기지 마라 뭐~저거 내보내 봤자,
㉡: 응.
㉠: 도로 말짱 꽝이다.

(주제대화_대통령선거)

위 (17)의 예문은 군대 복무 기간과 대통령 선거 공약에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담화 상황이다. 그런데 위 용례는 대화 상황이기는 하지만 화자인 '㉠'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청자인 '㉡'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응'이나 '그렇게 돼' 등의 호응을 하면서 화자의 다음 이야기를 재촉하고 있다. 이 담화 상황에서 화자는 대통령 후보가 내세우는 군대 복무 기간 단축이라는 공약이 가능성 없는 헛소리라는 화자의 생각을 일으킨 배경을 '공약 내세우길래'라는 선행절로 먼저 설명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담화 상에서의 '-길래'의 의미 기능을 '상황 소개'라고 한다(이지선 2021: 247). 하지만 이 '상황 소개'라는 의미 기능은 '이유 설명'과 달리 상대방의 질문을 계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자가 이어지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먼저 제공하는 담화적 의미 기능이다. 단 전제는 '-길래'를 통해 앞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이어지는 후행절과 연관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소개'의 담화 의미는 위 예문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화자가 일방적으로 담화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또한 '-길래'가 '상황 소개'의 의미 기능을 수행할 때는 '-길래' 평서문[1]의 선·

후행절의 내용이 모두 청자가 알지 못하는 정보라는 특성이 존재한다(이지선, 2021: 248). 화자 자신만이 알고 있는 상황을 청자의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진술하는 담화 상황에서 수행되는 의미 기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길래' 평서문[1]에서 '-길래'가 이 담화적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선·후행절의 내용이 모두 청자에게는 신정보이므로 '이유 설명'과 달리 후행절의 생략이 불가능하다[83]. 이지선(2021: 249)에 따르면 '-길래'가 '상황 소개'의 담화 의미를 나타낼 때 수반되는 이와 같은 선·후행절의 정보적 특성으로 인해 특히 이 의미 기능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사건을 서술하는 문어 담화에서 빈번하게 목격된다고 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상황 소개'와 마찬가지로 화자가 청자의 요구 없이도 스스로 정보를 제시하는 담화 맥락적 특성을 보이는 '-길래'의 또 다른 담화 의미 기능이 있다.

(18) ㉠: 아~,반지에 제왕 어디까지 봤냐?
㉡: 다 봤지.
㉠: 어~ 두 개의 탑까지?
㉡: 응.
㉠: 아우 두 개의 탑을 볼라고. 명수 시디 구워 뒀길래.
㉡: 난 그거, 극장에서 두 번 봤어.
㉠: 그래?
㉡: 응.
㉠: 난 원은~ 극장에서 보고, 투는 아직 못 봤어.

(주제대화_영화와 배우)

위 예문에서 '㉠'과 '㉡'은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어디까지 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담화 상황에서 화자인 '㉠'은 '반지의 제왕'의 두 번째 시리즈인 '두 개의 탑'을 볼 것이라고 청자인 '㉡'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이유를 '친구인 명수가 시디를 구워 뒀길래'라고 보충해서 설명

83) 진정란(2004: 49)에서는 '이유 설명'과 이지선(2021: 247)의 '상황 소개'에 해당하는 '배경 설명'의 특성을 설명할 때, 정보에 대한 청자의 인식 여부와 그와 관계된 정보의 중점도에 대해 다룬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배경 설명'의 선·후행절의 내용은 청자에게 있어 모두 새로운 정보이므로 선행절과 후행절이 모두 청자에게 중요한 정보이지만, 이유 표현이 '이유 설명'의 기능을 수행할 때는 선행절의 내용만이 신정보가 되기 때문에 선행절의 내용이 중요하므로 후행절은 생략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하고 있다. 하지만 화자가 이유를 덧붙여 설명한 것은 청자가 질문한 것에 대해 화자가 그 이유를 답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청자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짐작하고 앞선 발화에 '-길래'로 그 근거를 덧붙인 것이다. 이처럼 화자가 발화를 마친 후에 그에 대한 근거를 자발적으로 추가해서 제공하는 담화 의미 기능을 '추가 설명'이라고 한다(이지선 2021: 249). 이때 추가 설명되는 내용은 바로 앞서 끝마친 발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이 된다[84]. 또한 '-길래'를 통해 부연 설명되는 내용은 청자가 모르는 새로운 정보라는 특성을 가진다. 청자의 요구 없이 화자가 스스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의 논의들을 정리해 보자면, 담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유를 질문했을 때 화자의 답변이 되는 '-길래' 평서문[1]의 '-길래'는 '이유 설명'의 담화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 하지만 상대방의 대답 요청이라는 요구가 없는 담화 상황에서는 '-길래'가 화자 스스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 소개'와 '추가 설명'이라는 담화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 '상황 소개'는 후행절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길래'를 통해 먼저 제시하는 의미 기능이고, '추가 설명'은 화자의 발화가 끝난 후에 '-길래'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근거를 덧붙여 설명하는 의미 기능을 가리킨다.

### 2.1.2. 변명

'-길래'는 인과 연결어미이므로 담화 상황에서 당연히 상대방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 이유를 대답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길래'가 이렇게 '이유 설명'의 기능을 수행할 때는 그 담화 상황이 화자에게 부정적이거나 불리하지 않다. 하지만 이와 달리 '-길래'를 통해 청자의 질문에 이유를 대답하는 담화 상황이 화자에게 부정적이거나 불리할 때에는 '-길래'는 화자의 또 다른 발화 의도를 드러내게 된다.

(19) ㉠: 너 아까 안 와 가지고 막, 께속 기다리다가, 왜 안 오나.
㉡: 진짜, 아 난 되게, 내가 먼저 가 있으라 그랬잖아, 아유.

84) 진정란(2004: 131)은 '-거든(요)'가 나타내는 담화적 기능 중의 하나로 '부연 설명'을 제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부연 설명'은 청자의 요구로 화자가 대답을 마친 후에 청자의 이해를 돕는 목적으로 대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시하는 담화 상의 상호작용 기능이라고 했다(진정란 2004: 131). 본고의 '추가 설명'은 진정란(2004: 131)이 제시한 '부연 설명'의 개념을 따른 것이다.

㉠: 난 그게, 가 있으라는 건 줄 몰랐어. 기다리라는 건 줄 알았어.
나올 테니까 기다려 이래 가지구.
㉡: 미안 미안. 난 대학 매일이 있길래, 대학 매일 재밌잖아, 들쎠 보고 있었는데.
㉠: 왜 그런 걸 보고 그래?
㉡: 재밌지 않니?
㉠: 너 땜에. 기다렸잖아! 비난하기 막 이제.
㉡: 미안해

(주제대화_일상[85])

(19)의 대화는 자신의 의도와 달리 친구를 기다리게 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안 화자인 '㉡'이 '대학 매일'이라는 잡지를 보느라고 늦게 나왔다면서 청자인 '㉠'에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화자는 이 담화 상황이 화자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끝에 '-길래'를 사용해 구실을 대며 자신의 행동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다. '-길래'의 이와 같은 담화상의 의미를 '변명'이라고 한다(이지선 2021: 251). 그런데 이때 '-길래'의 직접적인 후행절인 "들쎠 보고 있었는데" 앞에 "대학 매일 재밌잖아,"가 왔는데, 이들이 '-잖아(요)'와 '-었는데(요)'라는 표현을 수반해 상황을 해명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먼저 '-잖아(요)'라는 청자의 동의를 구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청자의 이해를 도모하려는 화자의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었는데(요)'라는 표현을 수반한 것은 청자의 눈치를 살피며 변명을 계속 진행할지 말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길래'의 '변명'의 기능에 자주 수반되는 표현들에는 이외에도 '-지', '-은/는 것이다', '-은/는 줄 알았다', '-고 말았다', '-지 뭐예요' 등이 있었다(이지선 2021: 259). 구체적으로 이 '변명'의 기능에 수반되는 표현들을 살펴보면, '-지' 류로 청자의 이해를 구한다거나, '-고 말았다'나 '-은/는 줄 알았다' 등의 표현을 동반해 후행절의 결과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는 의미를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 말았다' 혹은 '-은/는 줄 알았다'라는 표현은 '-길래'와 공기하여 그 결과에 대한 화자의 '비의도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일으켜, 궁극적으로는 '-길래'가 변명의 담화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석된다. 이와 같이 '-길래'가 '변

85) 권미숙(2017: 54)에서도 '변명/핑계/해명'의 기능이 수행된 용례로 제시한 바 있다.

명’의 담화 의미를 보일 때, 후행절에 화자의 ‘비의도성’을 강조하는 표현들을 수반하는 이유는 앞서 논의했듯이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이 ‘화자의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담화 상황에서 후행절의 결과가 화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면 후행절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의지나 의도를 숨겨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길래’가 ‘변명’의 담화적 의미 기능을 수행 시 앞서 언급한 화자의 의지를 감추는 문법 표현을 동반하는 경향은 결국은 ‘-길래’가 ‘변명’의 담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자구책이라 할 수 있겠다.

### 2.1.3. 핀잔

또한 ‘-길래’는 아래와 같은 담화 상황에서 화자의 또 다른 발화 의도를 전달한다.

(20) ㉠: 휴가는 다 갔군.
㉡: 꼼짝없이 한반도를 사랑하면서 9월까진 애써 줘야겠어.
㉢: 그러길래 일찌감치 휴가나 다녀오지.
(9시 뉴스를 기다리며_르뽀, 신은경, 1992, 이지선 2021: 265 예문 (4) 인용)

위에서 제시한 (20)의 예문은 뜻밖에 발생한 상황으로 계획대로 휴가를 못 가게 된 상대방에게 화자가 진작에 휴가를 가지 왜 안 갔냐며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하는 담화 상황이다(이지선 2021: 265). 그런데 이 담화 상황은 화자와 관계 없이 화자가 행동을 지적한 상대방에게 부정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상대방으로 인한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화자가 그것을 직접 지적하면서 가볍게 책망하는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을 ‘핀잔’이라고 한다(이지선 2021: 265).

이상 ‘-길래’ 평서문[1]에서 수행되는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길래’는 담화 상에서 ‘이유 설명’, ‘상황 소개’, ‘추가 설명’ 외에도 ‘변명’과 ‘핀잔’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길래’ 평서문[1]에서의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과 특징

| 담화 의미 기능 | 특징 |
|---|---|

| | |
|---|---|
| 이유 설명<br>상황 소개<br>추가 설명 | ①[-부정적] 결과, 화자의 [+의도성], [중립적]<br>②이유 설명 시 후행절 생략 가능 |
| 변명 | ①[+부정적] 결과, 화자의 [-의도성], [불리]<br>②화자의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 후행절에 특정 문법 표현을 동반하는 경향이 존재함[86]<br>'-지(요)'>'-은/는 줄 알았다'>'-은/는 것이다'>'-고 말았다'='-지 뭐예요'의 빈도순을 보임 |
| 핀잔 | ①[-부정적] 결과, [중립]<br>②'그러길래'가 후행절의 '-지'와 호응해서 '그러길래 -지'의 관용적 표현으로 쓰이는 경향이 존재함[87]. |

(이지선, 2021: 259, [표 2] 참고 수정)

위 표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길래'가 선행절에서 '이유 설명'이나 '상황 소개', 그리고 '추가 설명'의 담화 의미 기능을 수행할 때는 그 결과가 되는 후행절에 온 화자의 행위에서 화자의 '의도'나 '의지'가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담화 상황이 화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은 '변명'의 의미 기능에서는 달리 나타난다. 즉 반대로 후행절의 결과로 인해 담화 상황이 화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후행절의 화자의 행위에 대한 진술에서 그 '의도'나 '의지'를 감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표에서 제시한 것처럼 '-지(요)'나 '-은/는 줄 알았다' 등의 문법 표현을 수반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후행절에 나타나는 화자의 의지를 감추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이지선, 2021: 260).

특히 주지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길래'가 담화 상 나타내는 '변명'이 '-길래'의 담화적 의미를 심도 있게 다룬 진정란(2004: 104-106), 권미숙(2017: 53-54), 고우미(2018: 11) 등의 모든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는 담화적 의미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변명'을 '-길래' 평서문[1]의 '-길래'가 나타내는 대표적인 담화적 의미로 꼽을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선행연구에서

86) 이지선(2021: 259)에서는 '-길래' 평서문[1]의 '-길래'가 '변명'의 담화적 의미를 나타낼 때 후행절에 같이 쓰이는 문법 표현 중에서 '-지(요)'가 9번, '-은/는 줄 알았다'는 6번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또한 '-은/는 것이다'는 5번, '-고 말았다' 및 '-지 뭐예요'는 각각 2번씩 후행절에 출현했으며, '-잖아' 혹은 '-지 그랬어요' 등의 문법 표현도 후행절에 나타났다고 했다(이지선 2021: 259).

87) '-길래'가 '핀잔'의 담화 의미를 나타내는 용례는 총 2개였는데, 2개에서 모두 '그러길래'와 '-지'가 공기해 쓰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조사된 ‘변명’의 사용 빈도를 들 수 있다. 즉 권미숙(2017: 46)은 ‘변명’ 류의 담화적 의미가 사용 빈도의 52.7%를 차지했다고 했고, 고우미(2018: 9)에서는 10%로 나타났다고 한 것이다. 이외에 이지선(2021: 253)에서는 ‘-길래’의 ‘변명’의 담화적 의미가 18%의 사용 빈도를 보였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는 ‘변명’이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 중에서도 ‘고빈도’에 속하는 담화 의미 기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변명’을 ‘-길래’의 대표적 담화 의미 기능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이자면, ‘-길래’가 담화에서 이렇게 주로 ‘변명’의 담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길래’가 가지는 자체적인 의미 속성과 연관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길래’ 평서문[1]에서 ‘-길래’의 선행절이 가지는 의미는 화자의 행동을 일으킨 ‘지각’ 혹은 ‘자각’인데, 이에는 화자의 의지가 반영될 수 없는 의미적 특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절의 의미가 ‘후행절의 발생한 사건을 초래했지만 그 이유는 화자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길래’의 이러한 의미가 화자가 담화 상황에서 입장이 불리해지면, 화자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 부합하여 ‘변명’의 의미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한편 ‘변명’과 달리 담화 맥락상 후행절의 결과가 부정적이지 않아서 화자의 입장 또한 불리하지 않은 특성을 보이는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에는 ‘핀잔’도 있다. 그런데 이 의미 기능은 ‘-길래’ 평서문[1]에서 연결어미 ‘-길래’가 아니라 접속부사인 ‘그러길래’와 어말어미 ‘-지’가 공기한 ‘그러길래 ～지’의 형태로 쓰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지선(2021)이 제시한 이와 같은 ‘-길래’ 평서문[1]의 ‘-길래’가 수행하는 담화적 의미 기능에 대해서 선행연구[88]에서도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중 ‘변명’은 이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진정란(2004: 104-106), 권미숙(2017: 53-54), 고우미(2018: 11)에서 모두 제시한 담화 의미 기능이었다.

다음으로 ‘이유 설명’은 고우미(2018: 9)에서 ‘설명’이라는 의미 기능으로 다루어진 바 있지만, 권미숙(2017)은 이 의미 기능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진정란(2004, 2005)의 논의에서는 ‘이유 설명’이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동일한 의미 기능은 아니었다. 즉 진정란(2004, 2005)에서는 이지선(2021)과 동일하게

88) 이후 이지선(2021)의 논의와 비교 및 대조를 진행할 선행연구는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룬 바 있는 진정란(2004, 2005), 권미숙(2017), 고우미(2018)임을 밝힌다.

‘이유 설명’이라는 담화적 의미를 제시했지만, 이 담화 의미는 청자의 질문을 전제로 해서 이유를 설명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화자가 청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행위를 하거나 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이지선(2021)의 ‘이유 설명’과는 다른 담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황 소개’는 권미숙(2017: 58)에서 ‘배경 설명’이라는 담화적 의미로 제시된 바 있지만, 고우미(2018)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진정란(2004, 2005)에서도 이 담화 의미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바로 앞에서 언급된 진정란(2004, 2005)의 ‘이유 설명’이 ‘상황 소개’의 담화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정란(2004: 102)은 ‘-길래’가 담화에서 ‘설명’ 및 ‘해명’의 의미를 전달할 때, ‘-길래’ 평서문[1]의 선·후행절의 내용은 청자가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선·후행절의 이와 같은 정보적 성격은 이지선(2021)이 제시한 ‘상황 소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진정란(2004, 2005)의 ‘이유 설명’의 의미 범주 안에 이지선(2021)이 제시한 ‘상황 소개’라는 의미가 속해있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핀잔’은 진정란(2004, 2005)과 권미숙(2017)에서만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추가 설명’의 ‘-길래’의 담화 의미는 진정란(2004, 2005), 권미숙(2017), 고우미(2018)에서 모두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앞선 본고의 논의에서 이 담화 의미가 ‘이유 설명’, ‘상황 소개’, ‘변명’, ‘핀잔’과는 다른 담화 맥락에서 달리 나타나는 의미 기능임이 밝혀졌으므로 새롭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2.2. ‘-길래’ 의문문에서의 ‘-길래’의 담화적 의미 기능

### 2.2.1. 이유 질문과 이유에 대한 궁금증

‘-길래’ 의문문은 화자가 어떤 사실을 지각한 후에 그에 대해 의문을 느끼고 이유를 질문한다는 의미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담화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1) ㉠: 대학교 일학년 땐가? 버스에서 신문 보다가 토했잖아.

㉡: 얼마나 탔<u>길래</u>?
㉠: 아니 뭐~ 학교까지 가는 거였는데.
㉡: 근데 어떻게 토할 수가 있어?

(일상대화_교통수단, 하루생활)

위 담화 상황에서 화자인 '㉡'은 '㉠'의 이야기를 듣고 '㉠'이 버스에서 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에 화자는 '얼마나 탔길래?'로 상대방인 '㉠'에게 버스에서 토하도록 만든 이유인 버스 탑승 시간을 질문했다. 그 질문에 대해 '㉠'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거리만큼의 시간'이었다고 화자인 '㉡'에게 대답하고 있다. 이렇게 담화 상황에서 화자가 어떤 사실을 지각한 후에 청자를 대상으로 지각한 사실에 대한 이유를 질문하면서 청자의 답변을 요구하는 발화 의도를 '이유 질문'이라고 한다(이지선 2021: 256).

이 담화 의미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길래'가 의문문에서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담화적 의미에 해당한다. 이때는 (21)의 예문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반드시 질문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답변이 전제된다는 특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화자인 '㉡'의 질문을 보면 "얼마나 탔길래?"로 후행절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논의했던 진술되는 정보의 특성과 관계된 것이다. 즉 "얼마나 탔길래 (버스에서 토했어?)"와 같이 후행절의 생략된 내용은 이미 청자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후행절이 생략될 수 있는 것은 '-길래' 의문문에서 '-길래'가 '이유 질문'의 담화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선행절에 '상대방에게 이유를 질문한다'는 화자의 발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지선(2021: 257)에서는 '-길래'가 '이유 질문'의 담화 의미 기능을 수행한 용례를 분석한 결과, 총 24개 중 11건 즉 '이유 질문'의 용례 중 46%에서 후행절이 생략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길래'가 '이유 질문'의 담화적 의미를 나타낼 때 후행절이 생략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길래' 의문문을 통해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질문의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 담화 상황에서 질문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22) 이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곳에서 분비되는 도파민, 페닐에틸아민, 옥시토신, 엔돌핀 등의 호르몬이 분비되어 느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호르몬들은 대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사랑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_정보, 궁리출판, 2002)

위 예문 (22)는 (21)과 달리 화자의 질문의 대상이 청자가 아니며,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도 않는다. 따라서 화자는 그에 대한 답변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화자는 '-길래' 의문문을 통해서 후행절의 이유가 되는 사랑의 감정을 주관하는 호르몬의 기능에 대해서 강한 궁금증을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질문의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 담화 상황에서 화자가 지각하게 된 사실을 초래한 이유를 궁금해하는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을 '이유에 대한 궁금증[89]'이라고 한다(이지선 2021: 257-258).

그런데 '-길래'가 나타내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의 담화 의미는 실질적인 질문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는 특성으로 인해 문어의 서술문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총 47개의 용례에서 분석된 '이유에 대한 궁금증'의 담화 의미 중에서 29개가 문어의 서술문에서 확인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유에 대한 궁금증'의 담화적 의미가 문어 담화에서 표출될 때에는 (22)의 예문에서처럼 후행절에 '-을까요' 및 '은/는가' 등의 의문형 종결어미가 자주 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90]. 그 이유도 역시 '-길래'의 '이유에 대한 궁금증'의 담화 의미와 위에서 언급한 의문형 종결어미가 가지는 질문의 대상과 관련된 특성으로 인한 것이다. 즉 문어에 '-을까요' 및 '은/는가' 등의 의문형 종결어미가 쓰이면 화자의 추측을 표현하거나 스스로에게 자문하거나 혹은 의문을 드러내는데, 그때 그 대상이 '이유에 대한 궁금증'과 마찬가지로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하나 더 지적하자면, '-길래'가 의문문에서 '이유에 대한 궁금증'의 담화 의미를 드러낼 때 '도대체'나 '대체' 등의 부사와 호응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의 정도를 심화시키기 위해서였다. 이는 바로 위 (22)의 예문에서도 그 근거가 확인되는데, 실제로 '-길래'가 '이유에 대한 궁금증'의 담화 의미 기능

89) 이지선(2021: 257)에서는 '-길래'의 이 담화 의미 기능을 '이유의 궁금증'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 담화적 의미를 더욱 대표할 수 있는 용어를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라 보고 위와 같이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90) 이지선(2021: 260)에 따르면 총 47개의 '이유에 대한 궁금증'의 담화 의미 기능이 표현된 '-길래' 의문문에서 후행절에 '-을까요'의 종결어미가 쓰인 용례는 19개, 다음으로 '-은/는가'의 종결어미가 쓰인 용례는 9개로 조사되었다고 했다.

을 수행할 때 ‘도대체’ 류의 부사를 수반하는 비율이 이 기능 전체의 2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지선 2021: 261).

### 2.2.2. 비난과 비꼼

화자 이외의 주체로 인한 사건이 화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때 화자는 그와 같은 사건을 일으킨 주체를 대상으로 부정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23) 가. ㉠: 알아서 어떻게? 그래도 전업주부라며, 도대체 집에서 뭘 하길래 애가 삼십 점을 받아와?
㉡: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나. ㉠: 형이 처맞을 동안 니놈은 뭘 했어, 뭘 했길래 니놈은 멀쩡해?
㉡: 아니, 그게 아니라.....잘못했어요, 엄마.
(랍스터를 먹는 시간_소설, ㈜창비, 2003)

위 (23가)에서 화자는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아 온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보고 그 점을 지적하며 아내를 비판하고 있다. 이때 ‘-길래’ 의문문으로 전달되는 화자의 발화 의도는 바로 ‘비난’이다. 즉 화자가 지각한 부정적인 사건을 주도한 타인을 대상으로 날카롭게 잘못을 지적해 비판하는 것이 곧 ‘-길래’가 나타내는 ‘비난’의 담화 의미인 것이다(이지선 2021: 262). 그런데 이 ‘-길래’ 의문문은 의문문이기는 하지만 화자의 발화 목적이 자신의 질문에 대한 청자의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를 비난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자도 (23가)와 (23나)의 담화 상황처럼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옹호하는 발화를 하거나 혹은 사과를 하게 된다.

한편 (23나)를 보면, 어머니는 큰아들이 남에게 맞고 들어 온 것에 대한 분노를 작은아들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 담화 상황에서처럼 ‘-길래’가 ‘비난’의 담화적 의미를 드러낼 때에는 발생한 후행절의 상황이 화자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화자의 감정도 부정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예문 (23)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도대체’ 류의 부사, 그리고 ‘처맞다’나 ‘니놈’처럼 화자의 격양된 감정을 대변할 수 있는 부정적인 정서의 어휘를 수반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비난’의 담화 의미 기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비난’의 기능이 수행

된 ‘-길래’의 용례를 분석한 결과, ‘도대체’ 류의 부사가 수반된 비율이 전체 ‘비난’의 용례에서 64%로 나타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기껏 -냐?’, ‘-느냐는 말이야?’, ‘간뎅이가 부었던지’ 등의 부정적인 정서의 어휘나 문법 표현이 ‘-길래’와 공기하여 쓰이고 있었다는 점도 그 근거로 볼 수 있다(이지선, 2021: 263).

이어서 살펴볼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은 ‘비꼼’인데, 이 담화 의미는 화자가 지각하게 된 상황이 못마땅할 경우 청자에게 혹은 그 외 대상에게 화자의 이런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의미 기능을 말한다(이지선 2021: 263).

(24) 대체 얼마나 바쁘길래 30분도 안 되냐? 아이구, 몰라봤네. 연예인보다 바쁜 사람 여기 있었네.

(레이디경향_잡지, 경향신문사, 1994)

위 담화에서 화자는 만나자고 했는데 거절당하자 그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상대방을 비꼬면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비꼼’의 담화 의미 기능도 ‘비난’과 마찬가지로 지각하게 된 사건으로 인한 화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담화 의미의 차이점도 존재하는데 ‘비난’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의 표출 방식이 직접적인데 반해, ‘비꼼’은 간접적이라는 것이다. 즉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한 대상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비난’이라면, 감정을 누르고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비꼼’에 해당한다. 따라서 ‘-길래’가 의문문에서 ‘비꼼’의 담화적 의미를 보일 때에는 ‘비난’과 달리 화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표현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진다.

### 2.2.3. 따짐

한편 ‘-길래’ 의문문은 논쟁의 담화 상황에 쓰여 상대방 주장의 불합리함을 지적할 때도 있다.

(25) 정씨: 왜 이래, 동철이가 옳은 말하는데 통장 반장 괜히들 그러지 말어.
통장: 내가 도대체 뭐라구 했길래 정씨는 아까부터 난리요?
전씨: 안 되겠구먼 정씨, 밖에 좀 나가 계슈.

(어둠의 자식들_소설, 황석영, 1980, 이지선 2021: 267 예문 (6) 인용)

위 예문 (25)는 '정씨'와 '통장'이 서로 반대 입장에서 논쟁이 벌어진 담화 상황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통장은 '동철이의 말이 옳다'며 반박하는 '정씨'에게 자신의 의견을 반대하는 이유를 추궁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궁극적 발화 목적은 자신의 추궁에 대한 청자의 대답을 듣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 반박의 불합리함을 지적함으로써 결국은 자신의 의견을 견지하려는 발화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다. '-길래'가 나타내는 이와 같은 담화 의미를 '따짐'으로 볼 수 있다(이지선 2021: 267). 즉 화자와 청자 간의 의견 대립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수용할 수 없는 청자의 이의제기에 대해 그에 대한 이유를 추궁하는 방식으로 청자가 제기한 이의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담화 의미가 바로 '-길래' 의문문의 '-길래'가 나타내는 '따짐'인 것이다[91]. 따라서 '따짐'의 기능은 화자가 자신의 의견에 반발하는 청자의 비논리성을 꼬집어 물으면서 자신의 의견의 타당성을 거듭 강조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따짐'의 담화 의미 기능은 앞서 살펴본 '비난' 및 '비꼼'과 마찬가지로 발생한 사건이 화자에게 부정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 담화 의미들은 담화 상황, 그리고 담화에서의 화자의 입지 측면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따짐'은 화·청자의 대립이 첨예한 담화 상황에서 화자가 청자보다 불리한 입장이라고 판단했을 때, 청자에게 반박의 근거를 따져 물으며 자신의 입지를 올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비난'은 화자가 상대방보다 우세한 입지를 가진 담화 상황에서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비꼼'은 그 대상보다 우세하거나 혹은 대상과 동등한 입지에서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담화 의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이지선 2021: 273).

### 2.2.4. 부정적 감정 표현과 감탄

'-길래' 의문문은 담화에서 화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기도 한다. 이를 '-길래'의 '부정적 감정 표현'의 담화 의미 기능이라고 한다(이지선 2021: 268).

---

91) 진정란(2004: 81)에서는 '-(으)니까'의 담화 의미 기능의 하나로 '따짐'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이 기능에 대해서 화자와 청자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화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목적으로 끌어들이는 상호작용기능이라고 논의했다(진정란 2004: 81).

(26) 가. KBS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요즘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 공영 방송 체제에 무슨 중대한 결함과 오류가 있길래 방송은 엉망이 되어가고 방송국은 마치 전투장을 방불케 하는 살벌함으로 가득 차 있는가. 무엇보다도 국민의 소유인 전파를 이용토록 하고 있으면서 시청료까지 내고 있는 공영 방송의 실질적인 주인이나 다름 없는 국민(시청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고 그 입장은 무슨 꼴이 되고 있는가라는 한숨 섞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사설_신문, 조선일보, 1990)

나. 할머니는 이제 통일에 매달리는 대신 예전처럼 형우에게 귓가에 나다니지 마라 신발을 빠개 신고 다니지 마라는 등 시시콜콜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앙상궂게 오그라붙은 할머니의 가슴에 무슨 역병이 있길래 노상 왼새끼만 꼬려 드는 것일까.' 형우는 여든살의 할머니가 매사에 안달복달 잦추르는 게 몹시도 못마땅했다.

(완전한 만남_소설, 김하기, 1990)

예문 (26가)의 사설에서 화자는 '-길래' 의문문을 통해 방송의 실질적인 주인 격인 시청자를 무시하는 KBS 공영 방송의 비이성적이고 한심한 운영 실태에 대해 화자의 깊은 '통탄'을 토로하고 있다. 즉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이유를 묻거나 그러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의문을 나타내는 것이 화자의 주요한 의도가 아닌 것이다. 또한 (26나)에서도 이야기를 진술해 가는 화자는 할머니의 집착이 남북통일에서 자신에게 옮겨 온 것에 대한 '불만'의 감정을 '-길래' 의문문을 통해 담화에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26)의 문어 담화에서 '-길래' 의문문의 '-길래'가 나타내는 담화 의미는 '부정적 감정 표현'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 모두 11개의 용례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한 화자의 '불만, 절망, 분노, 억울함, 당황, 슬픔, 답답함, 비통함, 어이 없음' 등의 부정적 감정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담화 상황과 달리 화자가 후행절의 사실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담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의미 기능이 있는데 바로 '감탄'의 담화적 기능이다(이지선 2021: 268).

(27) 향기롭고 신비로운 그녀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던 여자인가. 어떤 여자이길래 저다지도 개성이 강할까. 독특한 마스크에 강렬한 시선, 대화 톤까지도 짜릿할 정도였다.

(주간경향_잡지, 경향신문사, 1995)

위에 제시된 담화에서 '-길래' 의문문은 화자가 지각하게 된 어떤 사실에 대한 강한 궁금증보다는 어떤 대상을 향한 화자의 긍정적인 감정인 '감탄'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이 담화에서 '-길래' 의문문은 '그녀는 정말 너무나 개성이 강한 여자다!'라고 화자의 발화 의도가 해석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길래' 의문문의 '-길래'가 '감탄'의 담화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후행절의 사실이 화자에게 긍정적으로 해석된 경우로,[92] 이는 같은 의문문에서 수행되는 '비난', '비꼼', '따짐', '부정적 감정 표현'의 담화적 기능과는 상반되는 특성이다. 조사 결과 언어 자료 중 총 3건에서 '-길래'가 화자의 '감탄'의 담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때 '-길래' 의문문은 답변을 기대하고 질문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의문문의 형식으로 화자의 다른 발화 의도인 '감탄'을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수사의문문에 해당한다. 그런데 화자가 '감탄'의 발화 의도를 일반적인 감탄문의 형식이 아니라 '-길래' 의문문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즉 화자가 어떤 대상을 향한 '감탄'을 부각시키려는 목적으로 문장의 형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때 '-길래'의 수사의문문이 선택된다는 것이다.

### 2.2.5. 놀림

'-길래' 의문문의 '-길래'는 담화에서 청자를 놀리는 '놀림'의 의미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이지선 2021: 269).

(28) ㉠: 그~대구 친구가, 인제, 집에서 올라와 가지구? 그날 사람들을 다 봤다? 사람들 얘기를 다 들었어. 뭐~밤새고 막~그랬다구, 그러면서, 미팅을 하구, 다 끝내구 나왔다? 그 대구 그~집에 갔다 온 친구가 아유 주연 씨가 제일 티 난다고, 막~이러는 거야, 밤 샌 거 제일 티 난대, 나보고...
㉡: 니 밤 안 샜잖아. ㅋㅋㅋ.
㉠: 근까 난 거기 없었다구, 나는 안 했다구. 어머 주연씨가, 난 주연씨가 제일 심한 줄 알았다구. 막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제일.....나보고~.

92) '-길래'가 의문문에서 수행하는 '감탄'의 화용적 기능에 대해서는 고우미(2018: 22)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 그는 제시한 용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화자의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감탄'의 화행을 하는 것이라고 서술했다.

㉡: 김주연~아침에 어떻길래 그런 거야. ㅋㅋㅋ
㉠: 나 완전히 쇼크 받았잖아. 폐인이야 폐인....

(전화대화_#2)

위 예문 (28)은 '㉡'의 화자가 그 전날 푹 자고 나갔는데도 밤새 일해서 제일 피곤해 보인다고 오해한 직원 이야기를 하며 기막혀하는 친구의 상황을 듣고 재미있어하며 '-길래' 의문문을 통해 놀리고 있는 담화 상황이다. 따라서 청자인 '㉠'도 자신을 놀리고 있는 화자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느꼈던 황당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지선(2021: 270)에 의하면 이렇게 '-길래'가 담화에서 '놀림'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총 4건이었는데, 모두 구어에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2.2.6. 핀잔

앞서 '-길래' 평서문[1]에서 '그러길래'라는 부사가 '-지'와 호응해 '핀잔'의 담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 그런데 '-길래'가 쓰인 의문문에서도 이 '핀잔'의 담화 의미가 확인된다.

(29) 가. 그는 방으로 들어서면서 소리쳤다.
"야, 너는 보일러실에 내려가서 뭘 했길래 이제 오냐? 보일러 틀어 놓는데 몇 시간이나 걸리나?"

(경마장에서 생긴 일_소설, 하일지, 1994)

나. 농담이다. 넌 어떻게 돼먹은 아이길래 그만한 농담도 못 하니. 우리 이러지 말고 어디 가서 이차전 버리자.

(숨은 사랑_소설, 정종명, 1993, 이지선 2021: 265 예문 (5) 인용)

위 (29가)에서 화자는 '-길래' 의문문을 통해 보일러를 틀러 내려가서 늦은 청자에게 너무 늦게 온 것에 대해 혹은 보일러실에 보일러를 틀러 간다고 핑계를 대고 다른 일을 하다가 온 것이냐며 핀잔을 주고 있다. 이 담화 상황은 '-길래' 평서문[1]에서 나타나던 '핀잔'의 담화 의미와 동일하게 화자에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청자에게 부정적인 경우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9나)의 경우는 조금 다른 양상을 드러낸다. 이 담화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한 농담에 보

인 청자의 예상 외의 반응으로 인해 머쓱해진 상황에서 자신의 농담에 냉담한 청자의 융통성 없음을 지적하며 청자를 가볍게 책망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경우는 화자가 한 농담이 청자의 면박을 초래한 화자에게 부정적인 담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자는 오히려 상대방인 청자의 융통성 부족을 꼬집어 청자를 핀잔하고 있는 것인데, 이때는 (29가)와 달리 청자보다 화자가 불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해 보자면, '-길래'가 '핀잔'의 담화 의미 기능을 수행할 때는 주로 담화 상황이 청자에게 불리하지만, 간혹 화자가 곤란한 입장에 처했을 때 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목적으로 '-길래' 수사의문문을 선택하여 청자를 핀잔 주는 상황도 있다는 것이다. '-길래'의 '핀잔'의 기능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은 선행연구와 구별되는 본고만의 새로운 관점에 의한 논의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지선(2021: 266)에 의하면 모두 15개의 '-길래' 구문에서 '-길래'가 '핀잔'의 기능을 수행했는데, 그중에서 13개는 의문문[93]에서 확인되었다고 했다. 이는 '-길래' 평서문[1]보다 '-길래' 의문문에서 '-길래'의 '핀잔'의 담화 의미 기능이 더 많이 수행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상 '-길래' 의문문의 '-길래'가 수행하는 담화 의미 기능을 살펴보았는데, 그 종류와 특징을 다음의 [표 6]으로 정리해 제시하겠다.

〔표 6〕 '-길래' 의문문에서의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과 특징

| 담화적 의미 기능 | 특징 |
|---|---|
| 이유 질문<br>이유에 대한<br>궁금증 | ①[-부정적] 결과, [중립]<br>②후행절이 생략되는 경향이 존재함[94]<br>③'도대체' 류나 '이렇게' 류의 표현을 동반하는 경향이 존재함<br>④'이유에 대한 궁금증'의 담화 의미는 서술문에 안긴 문장에서 자주 나타남[95]<br>+서술문에서 '이유에 대한 궁금증'의 담화 의미 기능에 자주 출현하는 특정 종결어미가 존재함.<br>-서술문: '-을까(요)?'>'-은/는가?' |

93) '핀잔'의 담화 의미 기능이 '-길래' 의문문으로 수행된 빈도수는 간접 의문문을 포함한 숫자이다. 즉 '그러길래 ~지 않았냐며...', '그러길래 뭐하러 왔느냐는 말에...'등의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쓰인 경우가 3건 있었는데, 이를 포함 시켜 총 13개가 된 것이다.

94) '-길래'의 '이유 질문'의 담화적 의미가 나타난 24개의 '-길래' 의문문에서는 11개에서, 또한

| | |
|---|---|
| 핀잔 | ①[-부정적] 결과, [중립]<br>※수사의문문에서 가끔 [+부정적] 결과, [불리][96]<br>②'-길래' 평서문[1]과 '-길래' 의문문에서 모두 나타남<br>③특히 '-길래' 의문문에서는 후행절에 '-니' 혹은 '-냐'의 종결어미가 사용되는 경향이 강함. '-길래' 평서문[1]과 마찬가지로 '그러길래 - 지?' 등 '그러길래'와 호응해서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존재함. |
| 비난 | ①[+부정적] 결과, [유리]<br>②'도대체' 류의 부사와 공기하는 경향이 강함<br>③부정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어휘를 수반하는 경향이 존재함. |
| 부정적 감정 표현 | ①화자의 감정 표현: [+부정적] 결과, [불리]>화자 이외의 대상에 대한 감정 표현: [-부정적] 결과, [중립]<br>②'이렇게' 류의 표현을 동반하는 경향이 존재함. |
| 비꼼 | ①대상이 분명:[+부정적] 결과, [유리]>대상이 불분명: [-부정적] 결과, [중립]<br>②'도대체' 류의 부사를 동반하는 경향이 존재함. |
| 놀림 | ①[-부정적] 결과, [유리] |
| 따짐 | ①[+부정적] 결과, [불리]<br>②'도대체' 류의 부사를 동반하는 경향이 존재함. |
| 감탄 | ①[+긍정적] 결과, [중립]<br>②'이렇게' 류의 표현을 동반하는 경향이 존재함 |

(이지선, 2021: 271-272, [표 3] 참고 수정)

'-길래' 평서문[1]과 달리 '-길래' 의문문에서 나타나는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들에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이 있다. 그것은 바로 '놀림'과 '핀잔' 이외의 거의 대부분의 담화적 기능들이 '도대체'나 '대체'의 부사, 혹은 '이렇게' 류의 표현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이다.

[표 7] 의문문에서의 '-길래'의 담화적 기능의 '도대체' 류 등의 수반율

---

'이유에 대한 궁금증'의 담화적 의미가 나타난 47개의 '-길래' 의문문에서는 9개에서 후행절이 생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95) 총 47개의 '이유에 대한 궁금증'의 담화 의미가 나타난 용례 중에서 11개가 서술문에 안긴 성분절의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96) '핀잔'으로 분석된 13개의 의문문 중에서 2개에서 이와 같은 담화 상황이 나타났다.

| ‘도대체’ 류가 쓰인 담화적 의미 | 수반율 | ‘이렇게’ 류가 쓰인 담화적 의미 | 수반율 |
|---|---|---|---|
| 비난 | 57% | 감탄 | 67% |
| 비꼼 | 29% | 부정적 감정 표현 | 36% |
| 이유에 대한 궁금증 | 26% | 이유에 대한 궁금증 | 13% |
| 따짐 | 25% | 이유 질문 | 12% |
| 이유 질문 | 12% | | |

위 [표 7]을 보면, 특히 ‘비난’은 ‘도대체’ 류의 부사를 그리고 ‘감탄’은 ‘이렇게 류의 표현을 수반한 비율이 각각 57%, 67%로 가장 높은 것이 확인된다. 이처럼 특정 표현을 두드러지게 동반하는 경향은 이 두 담화 의미 기능이 다른 의미 기능에 비해 화자의 감정을 특히 부각시키는 특성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길래’ 의문문에 ‘도대체’ 류의 표현이 더해지면 선행절의 의문사와 호응을 일으켜 의문의 정도를 심화시키게 된다. 그 결과 문장 안에 내재되어 있던 화자의 감정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발휘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류의 표현도 후행절의 상황을 더욱 강조하여 결국 그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효과를 불러온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화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더불어 전달하는 ‘비난’의 기능과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감탄’의 기능에 이러한 표현이 수반되는 경향이 강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특성은 위에서 제시된 ‘도대체’ 류나 ‘이렇게’ 류가 자주 사용되는 담화적 의미들에서도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길래’ 의문문에서 이와 같은 특정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 것은 화자의 감정을 노출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효과적으로 담화 의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논의할 것은 ‘핀잔’의 담화적 기능이 ‘-길래’ 평서문[1]에서 뿐만 아니라 ‘-길래’ 의문문에서도 수행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길래’가 ‘핀잔’의 담화 의미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주로 청자가 초래한 부정적 결과를 지적하면서 청자를 책망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담화 상황이 청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반대로 화자가 불리한 입지에 놓여 있을 때에도, 간혹 ‘핀잔’의 담화 의미 기능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길래’ 의문문을 선택해 청자를 핀잔하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공격적인 화법으

로 볼 수 있다(이지선 2021: 272).

마지막으로 후행절의 사태가 화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될 때에는 위 표에서처럼 '-길래'를 통해 '비난'이나 '부정적 감정 표현', 혹은 '비꼼' 및 '따짐' 등의 화자의 발화 의도가 표출될 수 있다. 이때 '비난'은 화자가 유리한 담화 상황에서 반대로 '따짐'은 화자가 불리한 담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비꼼'이나 '부정적 감정 표현'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후행절의 결과가 화자에게 부정적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즉 화자가 화자와 관련된 일로 인해서 감정을 표출할 때에는 후행절의 결과가 화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 경우이므로 화자의 입장도 불리하다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화자와 무관한 대상에 대한 감정을 보일 때에는 후행절의 사태가 화자에게 부정적이지 않으므로 화자의 입장 또한 불리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비꼼의 대상이 분명할 때에는 후행절의 결과가 화자에게 부정적이라는 상황적 특징이 있지만,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에 따라 화자의 입장도 전자에서는 유리한 것으로 후자에서는 중립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선 2021: 273).

여기까지 논의된 '-길래' 의문문에서의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다.

[표 8] '-길래' 의문문에서의 '-길래'의 담화적 기능을 제시한 선행연구

|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 | 제시한 선행연구 |
|---|---|
| 이유 질문 | 고우미(2018: 18-19) |
| 이유에 대한 궁금증 | 권미숙(2017: 55-56) |
| 비난 | 고우미(2018: 19-20) |
| 비꼼 | X |
| 따짐 | X |
| 부정적 감정 표현 | X |
| 감탄 | 고우미(2018: 22) |
| 놀림 | 고우미(2018: 21) |
| 핀잔 | 권미숙(2017: 46) |

이지선(2021)이 제시한 담화 상에서 '-길래' 의문문의 '-길래'가 수행하는 총 9개의 담화 의미 기능 중에서 '비꼼', '따짐', '부정적 감정 표현'은 진정란(2004,

2005), 권미숙(2017), 고우미(2018)에서 모두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고우미(2018)에서는 '이유 질문', '비난', '감탄', 그리고 '놀림'의 4개의 담화 의미를, 권미숙(2017)은 '이유에 대한 궁금증'과 '핀잔'의 2개의 담화 의미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이지선(2021)에서는 담화에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화자의 발화 의도 즉 '-길래'의 담화적 의미 기능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분석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결과로 선행연구보다 더 많은 의문문에서 나타나는 '-길래'의 담화적 의미를 포착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에 대한 학습을 통해 '-길래'를 사용해 상황에 꼭 맞는 더욱 다양한 발화 의도를 유창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하지만 특히 진정란(2004, 2005)에서는 이지선(2021)이 제시한 단 하나의 담화 의미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그(2004. 2005)가 '-길래' 의문문에서의 '-길래'의 담화적 의미를 '추궁'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이다. 즉 다만 감정적인 논쟁의 담화 상황에서 화자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길래' 의문문을 선택하는 것이라면서, 이때 '-길래'가 나타내는 담화적 의미를 포괄적으로 추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와 달리 권미숙(2017)은 의문문에서의 '-길래'의 담화적 기능을 질문 대상이 청자인지 아닌지의 여부, 그리고 담화 상황이 감정적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추궁'과 '의문'으로 구분해 논의한 바 있다. 이 '의문'의 기능이 바로 이지선(2021: 257)이 제시한 '이유에 대한 궁금증'의 담화적 기능에 해당한다. 그런데 권미숙(2017)이 제시한 '추궁'과 진정란(2004, 2005)이 논의한 바 있는 '추궁'의 담화 의미는 분위기가 부정적이고 감정적인 담화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점은 이지선(2021)이 제시한 '비난', '비꼼', '따짐', '부정적 감정 표현'도 부정적이고 감정적인 분위기를 띄는 담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진정란(2004, 2005)과 권미숙(2017)의 '추궁'의 담화 의미 기능이 이지선(2021)에서는 담화 맥락에 따라 '비난', '비꼼', '따짐', '부정적 감정표현'으로 구체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지선(2021: 268)이 제시한 '부정적 감정 표현'이 고우미(2018: 20)에서도 유사한 담화 의미로 보이는 '불평'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길래'의 '부정적 감정 표현'의 담화 의미는 화자가 느끼는 '불평'이라는 감정뿐만 아니라 '억울함', '한탄', '절망', '분노' 등의 여러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한다는 면에서 고우미(2018: 20)의 '불평'과는 다르다.

마지막으로 논의할 점은 담화에서 '-길래' 평서문[1]에서의 '-길래'가 드러내는

‘핀잔’의 의미만을 제시한 진정란(2004, 2005)과 달리, 권미숙(2017: 46)은 이지선(2021)과 마찬가지로 ‘-길래’ 평서문[1]과 ‘-길래’ 의문문에서 모두 ‘-길래’가 ‘핀잔’의 담화적 기능을 보인다고 지적한 것이다[97].

이상 이지선(2021)이 제시한 ‘-길래’ 의문문에서의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을 선행연구와 비교해 살펴본 결과, ‘따짐’, ‘비꼼’, ‘부정적 감정 표현’은 제시된 바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담화 의미들도 앞선 논의 과정에서 분석된 것처럼 그 외 기능들과는 다른 담화 맥락에 의해 드러나는 기능들이다. 따라서 의문문에서 ‘-길래’가 수행하는 담화적 기능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이지선(2021)의 논의를 중심으로 ‘-길래’ 평서문[1]과 ‘-길래’ 의문문을 통해서 담화 상황에서 ‘-길래’가 전달하는 담화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길래’ 평서문[1]에서의 ‘-길래’는 총 5가지의 그리고 ‘-길래’ 의문문에서의 ‘-길래’는 총 9가지의 담화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표 9]는 그 구체적인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과 언어 자료에서 각 의미 기능이 얼마나 출현했는지를 정리한 내용이다.

[표 9]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과 출현 횟수

| ‘-길래’ 평서문[1]에서의 담화 의미 기능 | | ‘-길래’ 의문문에서의 담화 의미 기능 | |
|---|---|---|---|
| 담화 의미 기능 | 출현 횟수 | 담화 의미 기능 | 출현 횟수 |
| 상황 소개 | 107(33%) | 이유에 대한 궁금증 | 47(15%) |
| 변명 | 56(18%) | 이유 질문 | 24(7.6%) |
| 이유 설명 | 15(4.8%) | 비난 | 14(4.6%) |
| 추가 설명 | 12(3.8%) | 핀잔 | 13(4%) |
| 핀잔 | 2(0.6%) | 부정적 감정 표현 | 11(3.5%) |
| | | 비꼼 | 7(2%) |
| | | 따짐 | 4(1.1%) |
| | | 놀림 | 4(1.1%) |
| | | 감탄 | 3(0.9%) |
| 총 192개(60.2%) | | 총 127개(39.8%) | |

97) 진정란(2005: 153)에서는 ‘그러길래 ~지’ 혹은 ‘그러길래 ~잖아’로 ‘핀잔’의 담화 의미 기능이 수행된다고 했다. 또한 권미숙(2017: 59)에서는 ‘-길래’가 평서문에서는 ‘-은/는 줄 알았다’와 공기해서, 의문문에서는 ‘도대체’와 호응해서 ‘핀잔’의 담화 의미를 보인다고 했다.

(이지선, 2021: 275 [표 4] 참고 수정)

조사 결과를 보면, '-길래' 의문문보다 '-길래' 평서문[1]에서의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이 1.5배 정도 더 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길래' 의문문보다 '-길래' 평서문[1]의 '-길래'가 나타내는 담화적 기능이 담화 상황에서 더 많이 선택된다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각 문형에서의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의 출현 빈도를 보면, '-길래' 평서문[1]에서는 '상황 소개'와 '변명'이 163회로 이 문형에서의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 총 출현 빈도의 85%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문문에서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과 '이유 질문' 다음으로 '비난', '핀잔', '부정적 감정 표현'의 담화적 의미가 주로 나타났다는 것이 확인된다. 의문문에서 나타난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 총 출현 빈도의 86%를 차지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길래' 평서문[1]에서는 '상황 소개'와 '변명'이, 그리고 '-길래' 의문문에서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 및 '이유 질문', 그리고 '비난', '핀잔', '부정적 감정 표현'이 주로 쓰이는 담화적 의미 기능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중에서 특히 전체 용례에서 20%에 육박한 출현 빈도를 보인 '변명'이 유사한 담화적 기능으로 볼 수 있는 '이유 설명'보다 4배 이상 더 사용된 결과는 '-길래'가 선택되는 담화 상황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길래'는 단순히 질문에 이유를 대답하는 상황보다는 화자에게 불리한 담화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함으로써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로 사용되는 경향성을 가진다는 것이다(이지선 2021: 277).

이어서 문형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길래'의 담화적 의미의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보인 담화적 의미는 '상황 소개'로 전체 용례에서 33%나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변명', '이유의 궁금증', '이유 질문', '이유 설명'과 '핀잔', '비난', '추가 설명', '부정적 감정 표현' 등의 순으로 '-길래'가 담화적 의미를 나타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곧 '-길래'가 수행하는 담화적 의미 기능의 사용 빈도 순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길래'가 인과 연결어미로서 '-길래' 평서문[1]과 '-길래' 의문문에서 기본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담화 의미는 '이유 설명'과 '상황 소개', 그리고 '이유 질문'과 '이유의 궁금증'이라 할 수 있다. 즉 인과 연결어미이므로 평서문에서 '-길래'를 통해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고, 의문문에서는 이유를 질문하거나 이유에 대한 의아함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또한 '-길래'가 담화에서 드러내는 '상황 소개'의 의미도 모든 인과 연결어미에서 동일하게

확인되는 본질적인 의미 속성에 해당한다. 그 근거로 안주호(2002: 163)의 논의를 들 수 있는데, 인과 연결어미가 결합된 선행절의 사건시가 후행절보다 앞선다는 특성으로 인해 선행절은 일반적으로 후행절에 대해 '상황의 설명'이라는 의미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네 가지의 담화적 의미를 제외하면 담화에서 주로 수행되는 '-길래'의 특색 있는 담화 의미 기능은 '변명' 그리고 '핀잔' 및 '비난' 등이 된다(이지선 2021: 277). 즉 화자에게 불리한 담화 상황에서 하게 되는 '변명', 혹은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한 대상을 향해서 하는 '핀잔'이나 '비난'의 담화 의미 기능을 담화에서 '-길래'가 담당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 2.3. '-길래'가 사용되는 담화 환경의 특성

여기에서는 '-길래'가 주로 어떤 상황의 어떤 담화에서 쓰이는지, 즉 '-길래'가 가지는 화용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이지선(2021: 246)의 선행연구에서 세종 코퍼스의 말뭉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길래'가 구어에서 나타난 비율이 65%로 확인되어 문어 담화보다는 구어 담화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진정란(2004: 168)에서는 '-길래'가 구어 담화에서만 쓰이는 인과 연결어미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정란(2004: 168)의 논의는 이지선(2021: 246)이나 권미숙(2017: 31) 등의 논의를 근거로 보면 타당하지 않다. 즉 이지선(2021: 246)에서는 분석 결과를 통해 '-길래'가 35%의 문어 담화에서도 그 쓰임이 확인되었음을 밝힌 것이다. 또한 권미숙(2017: 31)에서도 '-길래'가 76%의 비율로 주로 구어에서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이는 나머지 24%의 비율로 '-길래'가 문어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근거로 보면, '-길래'는 문어 담화보다는 구어 담화에 주로 쓰인다는 화용적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길래'가 주로 사용되는 구어 담화의 구체적인 상황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지선(2021)이 말뭉치 자료에서 검색해 낸 '-길래'의 용례를 분석해 보았다. 그 분석 대상은 이지선(2021: 245)에서 밝힌 것처럼 총 319개의 용례에서 '-길래'가 구어 담화에서 사용된 것으로 분류한 용례 208개였다. 이 208개는 문어 담화에서 '-길래'가 쓰인 대화문인 143개가 포함된 숫자이다.

[표 10] '-길래'가 나타난 구어 담화의 환경적 특성

| 담화의 유형 | 담화 내용의 종류 | 사용 빈도 | 담화 사용 환경 | 사용 빈도 |
|---|---|---|---|---|
| 사적 담화 | 일상 대화 | 131 | 비격식적 상황 | 183 (87.9%) |
| | 주제 대화 | 26 | | |
| | 고백(경험담)[98] | 18 | | |
| | 말다툼 | 8 | | |
| 공적 담화 | 업무 대화 | 6 | 격식적 상황 | 25 (12.1%) |
| | 인터뷰 | 6 | | |
| | 방송 | 4 | | |
| | 진술[99] | 4 | | |
| | 강연 | 2 | | |
| | 강의 | 1 | | |
| | 상담 | 1 | | |
| | 설교 | 1 | | |
| 합계 | | 208 | 합계 | 208(100%) |

위 [표 10]의 내용은 '-길래' 구문이 사용된 담화가 어떤 담화에 속하며,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다. 그 분석의 첫 번째 항목인 '담화의 유형'은 진행되는 담화가 개인적인 것에 속하는지 아니면 공적인 것에 속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다음으로 '담화 내용의 종류'는 담화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담화를 구분한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담화 사용 환경'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상대방에 대한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담화 상황을 나누어 본 것이다. 그 결과 위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적 담화'에 속하는 '일상 대화'에서 '-길래'가 출현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출현 빈도는 131회로 전체에서 62.9%의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일상 대화'의 담화가 포함된 '사적 담화'에서 '-길래'가 나타난 횟수는 183회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전체의 87.9%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반면에 공적 담화에서 '-길래'가 사용된 경우는 총 25회로 전체에서 사용률이 12.1%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길래'가 '공적 대화'보다 '사적 대화'에서 사용되는

98) 담화 내용 중의 '고백'은 화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담화를 이끌어가는 경우를 말한다.
99) '진술'은 형사를 대상으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공적 담화를 가리킨다.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일상 대화’, ‘주제 대화’, ‘고백’, ‘말다툼’의 ‘사적 담화’는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가 친밀한 격식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가진다. 반면에 ‘업무 대화’, ‘인터뷰’, ‘방송’, ‘진술’ 등의 ‘공적 담화’는 격식적 상황에서 진행된다는 상황적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의들을 근거로 하면, ‘-길래’는 비격식적 상황의 구어의 사적 담화에서 사용되는 경향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길래’의 이와 같은 화용적 특성에 대해 권미숙(2017: 31)에서도 본고와 같은 논지를 전개한 바 있다. 그는(2017: 42-46) ‘새연세 구어 및 문어 균형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 총 93개의 문장에서 ‘-길래’가 나타났는데, 이 중 83개의 대화문에서 ‘-길래’가 쓰였다고 했다. 그런데 그중 공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겨우 9개였다면서 이를 근거로 ‘-길래’가 주로 구어의 사적인 상황 즉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선택되는 이유 표현임을 알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또한 고우미(2018: 16, 23)에서도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모두 ‘-길래’가 사적인 담화의 비격식적인 상황에 치중해 쓰인다는 화용적 특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상 2장을 통해서 문장에서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와 담화 상황에서 ‘-길래’가 드러내는 담화적 의미, 그리고 ‘-길래’가 가지는 화용적 특성 및 기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길래’는 문장에서 지각이나 자각의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전자에는 ‘-길래’ 평서문[1]이 그리고 후자에는 ‘-길래’ 평서문[2]와 ‘-길래’ 의문문이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세 가지 유형의 문장에서 ‘-길래’가 각기 다른 의미를 표출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즉 ‘-길래’ 평서문[1]에서 ‘-길래’는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화자의 의지적 행동을 초래한 화자의 직접적인 지각 및 자각’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길래’ 의문문이나 ‘-길래’ 평서문[2]에서는 ‘화자가 지각한 사실에 대해 의문이 생겨 질문하는 이유’ 혹은 ‘확신을 가지고 추측하는 이유’라는 의미를 ‘-길래’가 전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담화 상에서는 이와 같은 문장에서 나타나는 ‘-길래’의 기본적인 의미 외에도 담화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화자의 발화 의도인 ‘담화 의미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로 ‘-길래’의 대표적인 담화적 의미가 ‘변명’, ‘핀잔’, ‘비난’이라는 결론을 얻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길래’는 비격식적 상황의 구어 담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화용적 기능을 가진다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 Ⅲ. ‘-길래’의 통사적 특징

‘-길래’의 통사적 특징을 처음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김승곤(1981: 31-32)으로 볼 수 있다. 김승곤(1981: 31-32)은 ‘-길래’가 ‘-기에’와 같은 용법을 가졌다고 하면서 ‘-길래’의 후행절에는 동사가 와야 하며,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길래’가 사용될 수 없다는 후행절의 서술어 및 서법 제약을 논의했다. 채연강(1985)은 처음으로 ‘-길래’를 ‘-기에’와 구분해 통사적 특성을 기술했다는 의의가 있는데, 김승곤(1981)이 제시한 후행절의 서술어 및 서법 제약 외에도 후행절에 1인칭 주어가 온다는 후행절의 주어 제약을 추가로 제시했다. 이후 안주호(1998, 1999ㄱ)는 ‘-기에[100]’와 다르게 나타나는 ‘-길래’의 통사적 특성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길래’의 인과 연결어미로서의 독립적인 자리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데 가치가 있다. 구체적으로 안주호(1998, 1999ㄱ)에서는 ‘-길래’의 통사적 제약에 대해 후행절의 주어 및 서술어 제약과 서법 제약, 그리고 후행절에 과거 시제만이 허용된다는 후행절의 시제 제약을 논의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안주호(1998, 1999ㄱ)에 이르러 ‘-길래’가 화자의 행위를 초래한 이유를 나타낼 때 적용되는 대표적인 제약이 전반적으로 다루어졌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로 인해 이후에 이어진 선행연구의 연구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첫째는 ‘-길래’가 가지는 제약에 대해 안주호(1998, 1999ㄱ)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반복하[101]는 경우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관점으로 안주호(1998, 1999ㄱ)의 논의에 대해 반박하고 그와는 다른 제약을 제시하는 경우이다[102]. 한편 특히 ‘-길래’의 주어 제약을 ‘-길래’가 가지는 ‘지각’이라는 양태적 의미에 근거해 살핀 연구도 있었는데, 그에는 임은하(2002), 임채훈(2008), 박재연(2009), 정인아(2010), 염재일(2012), 서경숙(2013), 성진영(2017) 등이 해당된다. 그들은 ‘-길래’가 나타내는 지각의 의미로

100) 안주호(1998: 207-211)에서는 ‘-기에’는 ‘-길래’와 달리 선·후행절의 주어 제약, 그리고 후행절의 서술어 및 시제 제약 등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권미숙(2017: 30)은 ‘-길래’는 의문사를 수행한 설명의문문에서만 실현되는 반면 ‘-기에’는 모든 의문문에서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1) 오경진(2003), 진정란(2003), 노미연(2010), 민진영(2011), 김미숙(2015), 권미숙(2017) 등이 이에 해당한다.

102) 진정란(2004: 101)에서는 후행절에 과거 시제만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도 올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염재일(2012: 134)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염재일(2012: 140-141)은 이외에도 평서문에서 ‘-길래’의 후행절에 1인칭 주어만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각을 한 주체자가 오는 후행절의 주어 제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지혜(2009ㄴ: 145)는 후행절에도 선행절과 마찬가지로 서술어 제약이 없다고 논의했다.

인해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올 수 없는 제약이 있지만, 화자의 지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선행절에도 1인칭 주어가 허용된다고 논의했다.

그런데 '-길래'의 통사적 특성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길래'의 후행절의 시상 제약이나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허용되는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제시를 하거나 체계적인 설명 부족 등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 가. (내가) 저녁을 일찍 먹었더니 좀 출출하길래 (내가) 라면 하나 끓였어요.
나. (내가) 시계를 보니 10시까지 잤길래 (내가) 씻지도 않고 왔어요.
다. 마침 여름 이불을 싸게 팔길래 보고 있어요.

안주호(1998: 214)에서는 화자의 행동을 초래한 이유를 나타내는 '-길래' 평서문에서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올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동작성]의 형용사나 몇몇 자동사가 선행절에 올 경우에는 선행절에도 후행절과 마찬가지로 1인칭 주어가 허용된다고 했다. 또한 진정란(2003: 365)은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허용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즉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오고 형용사가 서술어로 위치하면, '-길래'로 나타내는 이유가 화자 자신이 의도한 바가 아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비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절에 동사가 오면 반드시 선행절에는 2·3인칭 주어가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진정란 2003: 366). 이에 따르면 위 예문 (1가)에서 선행절의 서술어가 '출출하다'라는 [-동작성]의 형용사이므로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와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모두 '나'로 1인칭이 되더라도 비문이 아니다. 하지만 예문 (1나)에서는 선행절에 서술어로 온 '자다'가 [+동작성]의 동사이기 때문에 1인칭 주어가 허용되지 않는데도 1인칭 주어가 왔다. 그러므로 안주호(1998: 214)와 진정란(2003: 366)의 주장에 따르면 비문이어야 한다. 하지만 (1나)의 선행절은 1인칭 주어인 화자가 일어나서 시계를 보고 자신이 10시까지 잤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상황으로 이는 화자가 '시각'이라는 감각 작용을 거쳐 깨달은 사실이 된다. 따라서 '-길래'가 가지는 지각의 양태적 의미에 부합하므로 이 문장은 비문이 아니다[103]. 즉 '-길래' 평서문 선행절의 주어 제약을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할

103) 김지혜(2009ㄴ: 145)에서는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오는 경우에 대해서 '-길래'가 화자의 행동을 유발한 의도치 않은 이유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임채훈(2008: 222)은 서술어에 완료형 선어말어미가 결합하면 화자의 지각 대상이 진행 중인 행위 자체가

수 있는 기준은 화자 의지의 미개입[104]이 아니라 '-길래'가 가지는 지각이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또한 안주호(1998: 218)와 김미숙(2015: 39)은 '-길래' 평서문의 시상 제약을 논하면서 후행절의 상황시는 반드시 발화시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1다)의 예문을 보면 화자의 후행절의 상황시와 발화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염재일 2012: 134[105]). 그러므로 안주호(1998: 218) 등이 주장한 후행절의 시상 제약은 후행절의 상황시가 발화시와 같거나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길래'의 통사적 제약에 대한 오류는 '-길래'가 가지는 통사적 제약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길래'가 가지는 통사적 특징 및 제약에 대해 이 장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펼치기에 앞서 '-길래'의 통사적 특징 및 제약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살펴볼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길래'가 구현되는 문장을 의미별로 나누어 통사적 특성을 살펴본 후에,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길래'의 제약과 달리 나타나는 통사적 특징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앞 장에서 '-길래'가 '설명', '추측', '질문'의 화행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나타난다는 것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런데 '-길래'의 통사적 특징도 그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구분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의미별로 구분해 '-길래'가 문장에서 나타내는 통사적 특징 및 사용 시 지켜져야 하는 제약을 파악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외국인 학습자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박상숙(2019: 119)에서는 앞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 평서문의 선·후행절의 주어 제약에 대해 선행절에는 2·3인칭 주어가 후행절에는 1인칭 주어가 위치해야 하는 비동일 주어 제약이 논의되었지만, 이는 주어의 주된 출현 상황일 뿐 통사적 제약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아니라 명제가 되기 때문에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허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104) 안주호(1998: 214)에서는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오는 이유를 서술어로 쓰인 [-동작성]의 감정 형용사나 몇몇 자동사들이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했다. 또한 진정란(2003: 366)도 같은 맥락에서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허용되는 경우를 이때 서술어로 쓰인 형용사가 화자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상황임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선행연구의 관점을 화자 의지의 미개입으로 볼 수 있다.

105) 염재일(2012: 134)에서도 본고와 같은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후행절의 미래 시제 불가 제약에 대해서 언급한 선행연구에는 임은하(2002: 86), 진정란(2004: 101), 권미숙(2017: 26), 성진영(2017: 289), 노미연(2010: 212), 민진영(2011: 123) 등이 있다.

그의 이러한 논의는 '-길래'를 통해 화자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추측하는 평서문의 경우에 후행절에도 1인칭 이외의 주어가 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지적은 국어학적으로 타당하다. 하지만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길래'의 주어 제약을 이와 같이 막연하게 제시한다면 그들은 '-길래'의 사용에 있어 다양한 주어 인칭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학습자들의 문법 항목의 사용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를 포착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 과정의 하나로 '-길래'가 전달하는 의미별 통사적 특징을 분석해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도 본고와 같이 '-길래'가 문장에서 드러내는 의미별로 유형을 구분해 '-길래'의 통사적 특징을 살펴본 바 있다(안주호 1998[106]). 하지만 안주호(1998)에서는 화자의 행위에 대한 이유를 의미하는 '-길래'의 제약에 치중해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길래'가 화자가 지각한 사실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유나 추측하는 이유라는 의미를 가질 때 나타나는 통사적 특성은 부가적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복잡하게 나타나던 '-길래'의 제약이 후행절에서 추측과 질문의 화행이 이루어지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시 정도에 그쳐 이에 대한 통사적 특성이 자세하게 다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길래'의 의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길래'의 통사적 특징을 유형 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적용되는 제약의 존재 여부와 제약의 유무를 초래한 이유까지 자세하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된 선행연구의 논의에 대해 그 타당성의 여부를 따져보면서 최종적으로는 '-길래'의 특징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통사적 제약을 제시하는 것을 3장의 기술 목적으로 한다. 이에 그 분석 대상이 될 유형의 첫째는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화자의 의지적 행동을 초래한 이유를 나타내는 '-길래' 평서문이다. 다음으로 둘째는 화자가 지각하게 된 사실에 대해 그 이유를 궁금해하며 질문하는 '-길래' 의문문, 마지막으로는 화자가 지각하게 된 사실의 이유를 추측하는 '-길래' 평서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후로는 편의상 전자의 '-길래' 평서문을 '-길래' 평서문[1]로 후자

106) 본고와 달리 임은하(2002)에서는 적용되는 시제 해석에 따라 '-길래1'과 '-길래2'로 나누어 '-길래'의 통사적 특징을 논의한 바 있다. 이때 '-길래1'은 상대 시제 해석을 받는 경우로 화자의 행위에 대한 이유를 의미하는 '-길래'에 해당하고, '-길래2'는 절대 시제 해석을 받는 경우로 그 의미가 화자가 질문하는 이유나 추측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길래'를 말한다(임은하 2002: 81). 그리고 염재일(2012)은 서법에 따라 '직설법' 평서문, '의문법' 문장, '서상법' 문장으로 구분해 '-길래'가 어떤 통사적 특성을 가지는지 논의했다.

의 ‘-길래’ 평서문을 ‘-길래’ 평서문[2]로 구분해 지칭할 것이다[107].

그리고 ‘-길래’의 통사적 특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허용 외(2005: 296-298)에서 제시된 연결어미에서 확인된 통사적 제약[108]을 그 분석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 이유는 일단 ‘-길래’도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연결하는 통사적 기능을 하는 연결어미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존에 파악된 연결어미의 통사적 제약을 기준으로 삼아 ‘-길래’의 통사적 특징을 살피면서, 이 제약들 외에 ‘-길래’에 적용되는 또 다른 제약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럼 위에서 언급된 허용 외(2005: 296-298)의 제약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총 4가지로 주어 및 서술어 그리고 선행절의 선어말어미에 관한 제약과 후행절의 서법 제약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밝힐 점은 본고에서 기술하는 ‘제약’이라는 용어는 ‘허용되지 않음’의 의미가 아니라 ‘-길래’가 실현되는 통사적 조건을 말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약’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정종수·김기범(2012: 115-117)의 것을 따랐다. 정종수·김기범(2012: 115-117)에 의하면, 연결어미에 나타나는 문법적 규칙을 제약으로 보는데, 그중에서 꼭 지켜져야 하는 통사적 규칙을 ‘제약’ 혹은 ‘필수 제약’으로 이와 반대로 허용되지 않는 통사적 규칙은 ‘불가 제약’으로 명칭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받아들여[109] 본고에서도 ‘-길래’가 가지는 통사적 규칙을 제약으로써 살펴보려는 것이다. 덧붙여 본고에서는 이 제약들 중에서 선행절의 선어말어미 제약을 조금 더 확대 적용하여 ‘선행절에서의 ‘-길래’의 결합 제약’으로 설정해 ‘-길래’가 선어말어미 이외에도 어떤 문법 표현과 결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이유는 ‘-길래’가 가지는 통사적 제약 및 특징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함이다.

---

107) 본고의 이와 같은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에 따른 분류는 일찍이 안주호(1999: 103)에서도 제시된 바 있는데, 그는 본고의 ‘-길래’ 평서문[1], ‘-길래’ 평서문[2], ‘-길래’ 의문문을 각각 ‘-길래’$_1$, ‘-길래$_2$’, ‘-길래$_3$’ 으로 구분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구분의 목적은 차이가 있다. 즉 본고에서는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로 인해 달라지는 통사적 특성을 파악하려는 목적인 반면에, 안주호(1999: 111)는 단지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다.

108) 허용 외(2005: 296-298)에서는 연결어미에서 확인되는 제약을 대표적으로 4가지로 꼽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 첫째는 완료형 선어말어미 ‘-았/었/였-’과의 결합 여부, 둘째는 선·후행절의 주어 일치 혹은 불일치 여부에 대한 제약이다. 그리고 셋째는 선행절의 서술어로 허용되는 용언의 종류, 넷째는 후행절에 허용되는 문장 유형의 종류에 대한 제약이다. 이 4가지의 제약은 선행절의 완료형 선어말어미 결합 제약, 선·후행절의 주어 일치·불일치 제약, 선행절의 서술어 제약, 후행절의 서법 제약으로 정리된다.

109) 본고는 ‘-길래’가 가지는 통사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기 때문에 ‘제약’이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논외로 한다.

## 1. ‘-길래’ 평서문[1]의 통사적 특징

### 1.1. 선·후행절의 1인칭 주어 필수 제약

‘-길래’는 ‘-길래’ 평서문[1]에서 화자의 행동을 초래한 이유를 의미한다.

(2) 가. 커갈수록 야구장 따라가는 걸 고역스러워하길래 놓아주었어요.
(한 말씀만 하소서_소설, 박완서, 1993)
나. 네가 곤히 자고 있길래 깨길 기다렸어.
(대화_일상)
다. 그가 투석할 준비를 서두르길래 나는 얼른 몸을 뺐어.
(멋진 한세상_소설, 공선옥, 2001)

위에서 예로 든 (2)의 문장들은 모두 화자가 후행절의 행동을 한 이유를 ‘-길래’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3개의 예문이 공통적으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다르다. 즉 후행절에는 ‘나’로 동일하게 1인칭 주어가 왔지만 선행절에는 후행절과 상이하게 2인칭이나 3인칭 주어가 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2가)의 선행절의 주어는 ‘아이가’로 3인칭이고 (2나)는 ‘네가’로 2인칭 주어가 선행절에 왔으며, (2다)에서는 ‘그가’로 (2가)와 마찬가지로 선행절에 3인칭 주어가 쓰였다. 이처럼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에 2·3인칭 주어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이 문장들에서 ‘-길래’가 가지는 ‘지각’이라는 의미 때문이다[110]. 즉 앞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길래’는 기본적으로 이유를 표현하는 인과 연결어미이지만 그와 동시에 ‘화자가 감각 기관을 거쳐

110) 본고와 같이 ‘-길래’의 ‘지각’으로 인한 주어 인칭 제약에 대한 논의는 임은하(2002), 임채훈(2008), 박재연(2009), 정인아(2010), 염재일(2012), 서경숙(2013), 박상숙(2019) 등에서도 다루어 진 바 있다. 특히 임채훈(2008: 206-208)은 한국어는 수의적으로 어미를 통해 증거 양태를 실현시키는 언어인데, ‘-길래’는 감각적 증거의 양태를 표시하는 증거성 표지라고 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인칭 주어 불가 제약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상숙(2019)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지각’의 의미는 감각 기관의 작용만을 말하는 경향이 있다. 즉 ‘지각’과 그로 인해 알게 된 사실을 분리해 다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박재연(2009: 123)은 ‘-길래’의 용법에서 주어 인칭 제약을 일으키는 이유를 ‘지각’의 의미로 보지 않고 ‘새로 앎’이라는 의미 속성 때문으로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2장에서도 밝혔듯이 ‘-길래’가 가지는 ‘지각’의 의미를 ‘감각 기관을 통해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지각’의 의미가 그와 연관된 ‘-길래’의 통사적 속성을 가장 잘 대변해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지하게 된 것'이라는 의미를 동반하는데 그것을 '지각'으로 보는 것이다. 이때 화자가 지각하게 되는 대상은 화자 이외의 사물이나 타인이 되기 때문에 선행절에 자연스럽게 2인칭이나 3인칭 주어가 위치하게 된다.

(2) 가.′ *나는 커갈수록 야구장 따라가는 걸 고역스러워하길래 놓아주었어요.
나.′ *내가 곤히 자고 있길래 깨길 기다렸어.
다.′ *내가 투석할 준비를 서두르길래 나는 얼른 몸을 뺐어.

그래서 위 예문들처럼 선행절의 주어를 1인칭으로 교체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또한 후행절의 주어를 1인칭 이외의 주어로 대치해도 통사적으로 어색한 문장이 된다.

(2) 가.″ (아이가) 커갈수록 야구장 따라가는 걸 고역스러워하길래 아이 엄마가 놓아주었어요.
나.″ 네가 곤히 자고 있길래 깨길 반장이 기다렸어.
다.″ 그가 투석할 준비를 서두르길래 네가 얼른 몸을 뺐어.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예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후행절에 1인칭 주어 대신 '아이 엄마가'와 '반장이'의 3인칭 주어나 '네가'의 2인칭 주어를 배치하면 비문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선·후행절의 주어 양상 때문에 안주호(1998, 1999ㄱ)와 김지혜(2009ㄱ, 2009ㄴ)를 위시한 수많은 선행연구에서 '-길래' 평서문[1]에는 후행절에 1인칭 주어 제약이 있으며, 선·후행절에 비동일 주어 제약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111].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논의에 수긍하는 부분도

111) 이에 해당하는 선행연구로는 임은하(2002), 오경진(2003), 진정란(2004), 임채훈(2008), 노미연(2010), 민진영(2011), 김미숙(2015), 권미숙(2017), 성진영(2017) 등이 있다. 그런데 박상숙(2019: 119)은 이들과 다른 입장을 보여서 주목할 만하다. 즉, 앞서 3장의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평서문에서 선행절에는 2·3인칭 주어가 후행절에는 1인칭 주어가 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을 뿐이므로 이를 평서문의 주어 제약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이다. 박상숙(2019: 119)의 이와 같은 견해는 화자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이유를 추측하는 '-길래' 평서문[2]가 앞에서 언급한 '-길래' 평서문[1]과는 다른 주어 제약을 보이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역으로 어떤 측면에서 그의 이와 같은 지적은 본고의 경우와 같이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에 따라 구분해 그에 따른 통사적 속성을 파악하려는 연구 방법에 대한 필요성 및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음을 밝힌다. 즉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의 1인칭 주어 제약에 대해서는 그들과 같은 견해를 가지지만 선행절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위 용례들에서 확인한 것처럼 '-길래' 평서문[1]이 후행절에 1인칭 주어만을 허용하는 주어 인칭 제약에 대해 논의하자면, 이 제약은 역시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이 나타내는 의미와 긴밀한 연관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에는 의미상 화자가 지금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행동이 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후행절의 의미에 제약되어 주어가 화자인 1인칭으로만 제한된다. 그러므로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에는 1인칭 주어 필수 제약이 존재하는 것이다(채연강 1985: 96)[112].

한편 선행절에는 위 예문 (2가~다)처럼 2인칭이나 3인칭 주어가 오는 경우 외에 후행절과 동일하게 1인칭 주어가 오기도 한다.

(3) 가. (내가) 기분이 상하길래 나도 한마디 한 거예요.
나. (내가) 좀 답답하길래 나와서 걷고 있어요.
다. (내가) 캄캄한 골목길을 혼자 가려니까 겁이 나길래 전화했어요.
라. (내가) 하다 보니 자신이 생기길래 더 적극적으로 했어요.

'-길래' 평서문[1]의 위 예문들은 선행절의 주어가 모두 1인칭인데도 불구하고 비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 문장들에서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가 '화자의 내적 지각'인 '자각(自覺)'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각 예문에서 (3가)의 '기분

---

타당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112) 안주호(1998: 213)에서는 후행절의 1인칭 주어 필수 제약에서 벗어나 후행절에 3인칭 주어가 허용되는 경우를 설명한 바 있다. 즉 본래 후행절의 주어가 1인칭이었지만 이 문장이 간접 인용문으로 바뀌면서 주어가 중화되어 실현됐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다. 예를 들면 '동생에게 회사를 그만둔 이유를 물었더니 야근이 밥 먹듯이 계속 되길래 (동생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어요.'의 간접 인용문에서 후행절의 주어는 '동생은'의 3인칭이지만, 직접 인용문으로 바꿔 보면 '야근이 밥 먹듯이 계속 되길래 (나는) 사직서를 제출했어.'가 되어 주어는 '나는'의 1인칭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지각의 주체자인 화자가 발화할 당시에 후행절의 1인칭 주어 필수 제약은 지켜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염재일(2012: 141)은 소설 등의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후행절에 3인칭 주어가 허용되는 경우를 예로 들며, 후행절에는 1인칭 주어 제약이 아니라 지각이나 인지의 주체 주어 제약이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논의는 국어학적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학적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후행절 주어 제약의 제시가 학습자들의 후행절의 주어 인칭 사용 오류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 상하다'와 (3나)의 '답답하다'라는 기분이나 상태, 그리고 동사인 (3다-라)의 '겁이 나다[113]' 및 '자신이 생기다'는 모두 저절로 느껴져서 알게 된 화자가 자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위 예문 (3가), (3다), (3라)의 경우처럼 선행절에 2자리 서술어가 온 경우에 대해서 오경진(2003: 386)은 문장에서의 표면적인 주어가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이므로 선행절에서는 2·3인칭 주어 제약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즉 "머리가 아프길래 약을 먹었어요[114]."라는 예를 들면서, 이 문장이 성립되는 이유는 '아프다'라는 서술어의 실제적인 주어는 '내가'인 1인칭이지만, 표면적인 주어는 '머리가'인 3인칭이기 때문에 '-길래' 선행절의 2·3인칭 주어 제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오경진 2003: 386). 그러나 위 예문 (3나)의 경우에는 '답답하다'라는 서술어의 주어가 1인칭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논점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길래'의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가능한 이유를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길래'가 내포하고 있는 '자각'이라는 양태적 의미로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길래'를 통해 나타내는 상황이 화자의 눈이나 귀 등의 감각 기관으로 직접 보거나 듣는 등의 행위를 해서 알게 된 경우인 '지각'에 해당하면 이때에는 예문 (2)의 경우처럼 선행절에 주로 2인칭이나 3인칭 주어가 오게 된다. 하지만 '기쁘다', '우울하다' 등의 감정이나 '피곤하다', '궁금하다' 등의 상태를 형용하는 형용사나 '기억이 나다', '용기가 생기다' 등의 동사는 화자만이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선행절에 반드시 1인칭 주어가 와야 한다. 다시 말해 '-길래'에는 '지각'과 '자각'의 의미가 존재하는데 '-길래'가 '자각'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선행절에 1인칭 주어 필수 제약이 적용되는 것이다[115]. 따라서 아래 예문처럼 선행절의 내용이 화자가 자각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1인칭 주어 대신 2·3인칭 주어로 교체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

113) 안주호(1998: 214)는 선행절의 서술어가 비행위성 자질을 갖는 형용사와 일부 자동사일 경우 화자의 의지와 관계없는 즉 화자 자신의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타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허용된다고 했다.

114) 오경진(2003: 386)에서 (30)번 예문을 인용한 것임

115) 임채훈(2008: 221)에서도 선행절의 주어 제약에 대해서 '-길래'의 직접 지각의 의미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임채훈(2008: 221)은 감정이나 상태의 내적 상태는 지각의 주체자인 화자만이 지각할 수 있으므로 선행절의 1인칭 주어 불가 제약이 사라진다고 했다. 이와 같은 설명은 선행절에 내적 상태가 올 경우에 1인칭 주어도 올 수 있다는 1인칭 주어의 허용 여부를 말하는 것으로, 화자가 자각했을 경우에는 선행절에 반드시 1인칭 주어가 와야 한다는 본고의 견해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3) 가.′ 형이 기분이 상하길래 나도 한마디 한 거예요.
나.′ 네가 좀 답답하길래 나와서 걷고 있어요.
다.′ 민우가 캄캄한 골목길을 혼자 가려니까 겁이 나길래 전화했어요.
라.′ 동료가 자신이 생기길래 더 적극적으로 했어요.

위 예문들에서 선행절에 온 서술어는 화자만이 감지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앞서 지적한 것처럼 선행절에는 2·3인칭 주어 불가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만일 선행절에 2인칭이나 3인칭 주어가 오게 되면 '-길래'가 지각의 의미를 나타내야 하므로 선행절의 상황을 화자가 지각한 것이라는 의미가 서술어에서 명시되어야 한다. 즉 형용사에 '-아/어/여하다'나 '-아/어/여 보이다' 등의 문법 표현을 결합시켜 화자가 지각했다는 의미가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이다.

(3) 가.″ 형이 기분이 상해하길래 내가 대신 한마디 한 거예요.
나.″ 네가 좀 답답해하길래 나와서 걷는 거야.
다.″ 민우가 캄캄한 골목길을 혼자 가려니까 무서워하길래 전화했어요.
라.″ 동료가 자신이 있어 보이길래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위 예문 (3가″)에서 '형이 기분이 상해하길래'는 화자가 형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형이 기분이 나빠졌다는 것을 인지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3가′)의 '형이 기분이 상하길래'와 달리 '-길래'의 선행절에서 다른 대상에 대한 화자의 지각의 의미가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 문장은 비문이 아니다. 이는 나머지 (3나″~3라″)예문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길래'가 문장에서 '화자의 자각'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선행절에 반드시 1인칭 주어가 와야 하는 선행절 '1인칭 주어 필수 제약'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16]. 이처럼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에 적용되는 '1인칭 주어 필수 제약'을 제시한 것은 본고가 처음이다. 즉 일반적으로 통사적 제약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의미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길래'

116) 박재연(2009: 125)도 본고와 유사한 관점으로 화자만이 감지할 수 있는 심리나 감각 형용사가 선행절에 오면 오히려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이때에도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를 '지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고와 차이가 있다.

평서문[1]의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오는 경우를 '-길래'가 '자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로 분석하고 그것을 선행절의 통사적 제약으로 본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에 의한 통사적 제약의 제시는 '-길래'의 통사적 제약을 더욱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한편 앞서 예문 (2)를 통해 논의한 내용에 따르면 '-길래'가 지각의 의미를 드러낼 때에는 선행절에 1인칭 주어 불가 제약이 있다는 추정도 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길래'가 지각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는 선행절에 적용되는 주어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4) (내가) 생각보다 많이 만들었길래 가져왔어요.

예문 (4)는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왔다. 따라서 바로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통사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길래'가 자각의 의미를 가질 때이므로, '-길래'의 선행절의 서술어로는 화자만이 감지할 수 있는 감정이나 상태가 와야 한다. 하지만 서술어로 '만들다'의 동작 동사가 왔는데도 이 문장은 비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길래' 앞에 서술된 상황이 화자가 지각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즉 '생각보다 많이 만들었다'라는 상황은 화자가 한 행동이지만, 그 행동 이후에 감각 기관을 통해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화자가 음식을 만든 후에 만든 음식의 양을 보고 자신이 많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길래'가 문장에서 지각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위 예문처럼 선행절에 2·3인칭 이외에도 1인칭 주어가 올 수 있다.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점은 (4)의 예문에서도 확인되듯이 화자가 자신의 행동을 지각하려면 먼저 그 행동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선행절의 동사를 현재형으로 대치하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4)′ (내가) 생각보다 많이 {만들었길래/*만들길래} 가져왔어요.

위 예문에서 '내가 생각보다 많이 만들길래'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즉 화자가 주동적으로 선택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이미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다시 보거나 듣는 등의 감각적 행위를 통해 알아차린다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

문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화자가 행동을 마친 이후에는 자신이 그 행동의 결과를 지각할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화자의 완료한 상황에 대한 지각에 대해 임채훈(2008: 222)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했다. 즉 '-길래'가 완료형 선어말어미 '-었-'과 결합하게 되면, 지각의 대상이 발생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명제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를 하고 있는 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칭 제약이 사라진다고 했다(임채훈 2008: 222)[117]. 그러나 만일 임채훈(2008: 222)의 주장처럼 '-었-'과 '-길래'가 통합형으로 쓰여서 선행절에 화자의 의도적인 행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1인칭 주어가 가능해진 것이라면 다음의 예문들은 비문이 되어야 한다.

(5) 가. (내가) 나도 모르게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길래 라디오를 껐어.
나. (내가) 긴장했는지 손을 떨고 있길래 두 손을 꽉 잡았어.

위 두 예문에서 선행절에는 1인칭 주어가 왔고 서술어로 온 '노래를 따라 부르다'나 '손을 떨다'는 화자의 행위이다. 따라서 임채훈(2008: 222)에 따르면 선행절에 온 서술어가 화자의 내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서술어로 행위가 완료된 상황이 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동사 뒤에 '-고 있다'의 현재 진행형이 왔는데도 이 문장들은 문법적으로 허용된다. 이러한 사실은 선행절에 동작 동사가 온 경우에 완료형으로 쓰이는 것이 선행절의 1인칭 주어 불가 제약 해소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님을 보여준다. 따라서 임채훈(2008: 222)의 주장은 '-길래' 평서문[1]에서 선행절에 내적 상태가 아니라 화자가 하고 있거나 끝낸 행위가 왔는데도 1인칭 주어가 쓰이는 이유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될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길래'가 가지는 '지각'의 의미를 이 모든 경우를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려고 한다. 즉 화자가 지각할 수 있는 상황적 여건이 조성되기만 한다면 선행절에 어떤 주어가 오더라도 통사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것이다[118]. 따라서 위 예문 (5가)에서 '내가

117) 박재연(2009: 124)에서는 이에 대해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허용된 이유를 '-길래'가 몰랐다가 새로 알게 된 상황에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118) 이와 같은 '-길래'가 가지는 지각의 의미로 설명 가능한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의 주어 양상에 대해 서경숙도 유사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즉 증거 양태성 어미에 속하는 '-길래'는 화자가 지각할 수 있는 여건만 주어진다면 선행절에 특정한 주어 인칭 제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서경숙 2013: 499)

노래를 부르는 노랫소리를 듣고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가, 그리고 (5나)에서는 '순간적인 목격으로 내가 손을 떨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의미가 '-길래'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오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화자인 1인칭 주어가 자신의 행동을 감각 경험을 통해 알아차렸다는 '지각'이라는 양태적 의미는 행동에 대한 화자의 의지나 의도성을 상쇄시키는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앞선 예문 (4)에서 '의도치 않게 혹은 예상 밖으로' '생각보다 많이 만들었다'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예문 (5가)와 (5나)에서도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5가)에서는 '노래를 따라 부르다' 앞에 '나도 모르게'가 와서 '화자가 노래를 따라부르는 행위를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즉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의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5나)에서도 '손을 떨다'라는 행위가 긴장으로 인한 것 같다며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임을 나타낸다.

이에 대해 이의종(2012: 22-26)은 '-길래'가 가지는 '증거성(證據性)'으로 설명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이의종 2012: 24-25), 일반적으로 1인칭 주어는 가장 강력한 '증거성'의 강도, 즉 높은 신빙성을 가진 요소인 '직접 증거 표지'와 쓰이는 것이 전형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직접 증거 표지'에 속하는 '-더-, -네, -길래' 등은 이와 달리 1인칭 주어와 잘 결합하지 못하는 통사적 제약이 있는데, 이와 같은 특성은 바로 한국어의 '직접 증거 표지'가 낮은 증거 강도에 속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면서, 그 이유를 증거성 실현이 필수적이지 않은 유형에 속하는 한국어의 특성 때문으로 보았다[119]. 그러나 이렇게 증거성 강도가 낮은 요소들이 예외적으로 1인칭 주어와 같이 쓰이게 되면, 이는 곧 화자의 비의도적인 행위나 통제 불가의 상황이라는 의미를 표출한다는 것이다(이의종 2012: 25-26). 따라서 '-길래'도 위 예문 (4), (5)에서와 같이 선행절에서 1인칭 주어와 공기하여 화자의 의도에 의한 행동이나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를 드러낸 것이라고 파악된다.

사실 '지각'의 '감각 기관의 행위를 거쳐 인지하게 된 것'이라는 의미는 그

119) 이의종(2012: 26)은 증거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요구하지 않는 유형인 한국어에서는 '무표적 단언(어떤 증거성 표지도 나타나지 않는 문장)'이 가장 강력한 증거성과 높은 신빙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근거로 Givón(2001)의 증거 강도 위계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했다.

<증거성 표지가 비필수적인 한국어의 증거 강도 위계>
무표적 단언> 직접 증거> 추측> 전언
(이의종 2012: 26)

지각의 대상이 일반적으로 화자 이외의 사물이나 타인이라는 것을 동시에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화자의 의지나 의도가 반영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지각'의 의미에는 화자의 의지나 의도의 미개입이라는 특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일 화자가 '-길래'를 통해 자신이 하고 있거나 한 행동을 지각했다면 바로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그 '지각'에는 화자의 의지나 의도가 담길 수 없다. 따라서 이의종(2012: 25)의 견해처럼 그 행위에서는 화자의 의도 밖의 예상하지 못한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2차적인 의미가 노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행절에 화자의 자각 이외에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는 동사가 출현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이 화자의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목격 등에 의해 알게 되었거나 알아차린 상황이라면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실현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선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화자가 자각을 한 상황에는 선행절에 1인칭 주어 필수 제약이 있지만, 지각을 한 경우에는 선행절에 적용되는 주어 제약이 없는 것이다. 다만 '-길래'가 평서문에서 '지각'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선행절에 주로 2·3인칭 주어가 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주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근거로 '-길래' 평서문[1]의 선·후행절에 적용되는 주어 제약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절에 1인칭 주어 필수 제약이 있다. 단 이 제약은 선행절에 화자가 자각한 상황이 올 경우로 제한된다. 이와 달리 선행절에 화자가 지각한 상황이 올 경우에는 선행절에 2인칭이나 3인칭 주어가 주로 오는 경향이 있다.

둘째, 후행절에 1인칭 주어 필수 제약이 있다.

특히 본고에서 위에 제시한 제약 중에서 선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에 관련된 내용은 '-길래'의 의미를 '지각'과 '자각'으로 양분하고 그 의미에 따른 합당한 제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 1.2. 선행절에서의 '-길래'의 결합 제약

이 절에서 살펴볼 선행절에서 나타나는 '-길래'의 결합 제약은 크게 두 가지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길래'가 선행절에서 결합하는 서술어에 관련된 제약이며, 두 번째는 '-길래'와 결합하는 선어말어미 등의 문법 표현과 연관된 제약이다.

### 1.2.1. 선행절의 지각 및 즉각적 자각 가능 서술어 필수 제약

아래 예문 (6)의 문장들을 보면 선행절에서 '-길래'와 결합해 쓰인 서술어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가. 장사는 할 생각 않구 매일 짜기나 하구 그래서 귀찮길래 오팔팔에다 본전에 띵겼어.

(어둠의 자식들_소설, 황석영, 1980)

나. 야간 뉴스에 오늘 박살 난 주식의 종가가 나오길래 "텔레비전 꺼"라고 소리 질렀다.

(꼭두의 사랑_소설, 문학사상사, 2003)

다. 부러워하는 눈치길래 줘 버린 거야.

(묵시의 바다_소설, 윤흥길 2002)

라. 제 시험지가 아니길래 가지고 왔는데요.

(주제대화_학원강사와 고등학생)

구체적으로 예문 (6가)에서는 '-길래'가 형용사인 '귀찮다'와 결합해 쓰이고 있고, (6나)에서는 동사인 '나오다'가 '-길래' 앞에 위치했다. 그리고 (6다)와 (6라)에서는 '-길래'가 명사인 '눈치'와 '시험지'에 지정사인 '이다'와 그 부정형인 '아니다'가 결합한 형태와 결속하여 이유를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길래'는 선행절에서 동사나 형용사와 결합하며 명사의 경우에는 지정사 '이다' 혹은 '이다'의 부정형인 '아니다'와 결속한 형태인 '명사+이다/아니다'와도 결합해 쓰인다. 다시 말해 '-길래'는 결합해 쓰이는 서술어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것이다(허웅 1995: 807[120]).

하지만 안주호(1999: 107)에서는 '-길래'가 선행절에서 '수사/대명사+이다'의 형태를 서술어로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다음의 예문을 들었다.

---

120) 안주호(1998), 오경진(2003), 김지혜(2009ㄴ) 등에서도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에 적용되는 서술어 제약이 없음을 언급한 바 있다.

(7) 가. *당첨된 사람은 나이길래 (나는) 본부석 앞으로 달려갔다.
나. *호명된 사람은 그이길래 (내가 대신) 시상대로 달려갔다.
(안주호, 1999:107, 예문 (9) 인용)

안주호(1999: 107)는 (7가)와 (7나)의 예문에서처럼 선행절에서 '-길래'의 서술어로 대명사와 '이다'가 결합된 형태가 쓰이면 어색하다면서, 연세대 말뭉치 자료에서도 '-길래' 구문의 선행절 서술어로 수사나 대명사에 지정사가 온 형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염재일(2012: 133)은 (7가)의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람 뒤에 온 보조사 '은'으로 인한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래서 '은'을 '이'로 교체하여 '당첨된 사람이 나이길래 본부석 앞으로 달려갔다'로 수정하면 화자가 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상황으로 인식되어 자연스러워진다고 한 것이다(염재일 2012: 134). 그의 이러한 지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보조사 '은/는'은 주제 표지의 의미 기능이 있어서 화용적으로 주제를 부각시키는데, 이 기능은 바로 '은/는'이 상대방이 알고 있는 구정보를 전달할 때 보통 사용된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이익섭·채완 1999: 205-206). 따라서 이러한 '은/는'의 의미는 '감각 기관을 통해 새로 인지하게 된 것'이라는 '-길래'의 양태 의미와 상충되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위 (7가)의 예문이 어색한 이유는 서술어로 대명사가 왔기 때문이 아니라 염재일(2012: 133)의 지적처럼 의미상 '-길래'와 공기할 수 없는 보조사를 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121].

한편 안주호(1999: 107)의 주장과 달리 '-길래'의 서술어로 대명사 외에도

121) 이에 대해 박상숙(2019: 116)에서는 '이/그/저'가 삼인칭 대명사로 쓰일 때는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7나) 예문의 '그이길래'를 '그 사람이길래'로 대치하면 비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7나)의 예문을 박상숙의 의견대로 수정한 문장도 여전히 어색하다고 느껴진다. 즉 조사의 교체 없이 인칭 대명사만을 수정하게 되면 '호명된 사람은 그 사람이길래 내가 대신 시상대로 달려갔다'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장이 비문인 이유는 3인칭 대명사의 어색한 쓰임 때문이 아니라 보조사 '은'이 담지하고 있는 '기지정보'라는 의미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길래'의 선행절에 대명사가 서술어로 올 수 없다는 안주호(1999: 107)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그리고 박상숙(2019: 116)은 (7가)의 예문이 비문법적은 아니지만 여전히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그 이유를 화자가 지각하게 된 사실이 바로 자신과 관계된 것이어서 의미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상숙이 지적한 대로 (7가) 예문의 선행절의 내용이 비록 화자 자신과 관계된 것이기는 하나 염재일(2012: 134)이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자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다면, 즉 화자가 새삼 지각한 것이라는 의미가 드러난다면 '-길래'의 선행절에 쓰일 수 있다. 따라서 박상숙(2019: 116)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

[수사+지정사]가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가. 서류를 보니까 미나 씨 나이가 스물 다섯(살)이길래 높임말을 하라고 했어요.
나. 사과가 천 원에 5개길래 얼른 샀어요.

위 예문 (8)에서 확인되듯이 선행절의 서술어가 '스물 다섯'이라는 수사와 '-길래'가 결합한 형태인데도 어색하지 않다. 다만 단위 명사인 '살'이 수사와 같이 쓰이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8나)의 예문처럼 지정사는 생략되고 수사 '5' 뒤에 단위명사 '개'가 결합되어 '-길래' 앞에 온 경우에 만일 단위 명사인 '개'를 생략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그렇지만 문법 규칙에 따라 수사가 단독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단위 명사와 결속되어 쓰인다 하더라도 위 (8가), (8나)의 예문들처럼 '-길래' 구문의 선행절 서술어로 쓰이고 있으므로 안주호(1999: 107)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논의들을 근거로 보면 결론적으로 안주호가 지적한 '대명사/수사+이다'가 '-길래'의 선행절의 서술어로 쓰일 수 없다는 제약은 옳지 않다.

또한 안주호(1999: 107)에서는 '-길래'가 1인칭 주어를 필요로 하는 심리동사와는 결합할 수 없다면서 다음의 예문을 들었다.

(9) *본인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없고 조합원이 되는 일이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길래 (본인은) 탈퇴하고자 합니다.
(안주호, 1999: 107, 예문 (9) 인용)

안주호(1999: 107)는 위 예문처럼 '-길래' 앞에 '느끼다'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느끼다'가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에 올 수 없는 1인칭 주어와 공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음의 예문들처럼 발화 당사자만이 감지할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또한 '느끼다'와 같이 1인칭 주어와만 공기하지만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에 자주 나타난다.

(10) 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길래 사진첩을 뒤져봤어요.
나. (내가) 그 말을 듣고 오기가 치밀길래 하겠다고 한 거예요.

따라서 안주호(1999: 107)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박상숙(2019: 116)은 '-길래' 평서문[1]에서 '-길래'가 '화자의 행동을 일으킨 이유가 되는 화자가 발견하거나 느낀 상황'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선행절에 화자의 행동이 다시 오는 것은 의미상 어색하다고 했다. 따라서 선행절에 '사랑하다' 등의 심리동사는 올 수 없지만 심리 형용사가 오면 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122]. 즉 선행절의 화자가 지각하는 범위 안에는 보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느끼고 깨닫는 것까지 포함되므로, 화자가 느낄 수 있는 기분을 나타내는 형용사도 선행절에 허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리동사는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 형용사와 달리 화자가 지각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박상숙 2019: 116). 그러나 이러한 박상숙(2019: 116)의 논의도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길래 근처를 좀 걷고 있어.'라는 문장이 성립하는 것을 보면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이 문장 역시 후행절의 화자의 행동에 대한 근거를 화자의 행동으로 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선행절에 화자의 행동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 순간 감각 경험을 통해 인지했다면 얼마든지 선행절에 화자의 행위가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9)의 '느끼다' 등의 심리동사와 예문 (10가), (10나)의 '기억이 나다', '오기가 치밀다' 등의 동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들의 어떤 차이점이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의 서술어 제약에 관련된 것일까? 본고에서는 앞서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을 살펴보면서, '-길래'가 가지는 직접 지각은 보통 화자 이외의 다른 객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2인칭이나 3인칭 주어가 온다고 논의한 바 있다. 그런데 만일 화자가 자신의 행위를 지각하게 된다면 그 행위는 일반적으로 화자가 의도한 바가 아닌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화자가 의식적으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행동을 재차 지각한다는 상황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화자의 지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지각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화자 자신의 의지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이 가정에 따르면 '느끼다' 등의 심리동사는 화자가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에 속하므로 그것은 화자가 지각할 수 없는 대상이 된다[123]. 하지만

122) (1) *(나는) 영미를 사랑하길래 울었다.

(박상숙, 2019: 115, 예문 (9) 인용)

123) 이에 대해 임홍빈(1993: 299-300)에서는 '느끼다'는 화자가 인지하기 전에 이미 의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알게 됨'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지각'의 양태적 의미를 가진 문법 표현과는 사용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염재일(2012: 133)에서는 '느끼다'와 같은 심리동사인

‘기억이 나다’, ‘오기가 치밀다’ 등의 동사는 화자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느껴진 상태이므로 지각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지각 가능한 대상에 대한 요건은 아래의 예문들에서도 확인된다.

(11) 가. 네가 불쌍하게 여겨지길래 내가 그만 꾹 참은 거야
(숨은 사랑_소설, 정종명, 1993)
나. *너를 불쌍하게 여기길래 내가 그만 꾹 참은 거야.
(12) 가. *(내가) 너를 불쌍하게 느끼길래 내가 그만 꾹 참은 거야.
나. (내가) 네가 불쌍하게 느껴지길래 내가 그만 꾹 참은 거야.

위 예문 (11가)의 선행절 서술어인 ‘여겨지다’도 ‘느끼다’와 같이 1인칭 주어와 공기하는 동사에 해당한다. 하지만 예문 (9)의 ‘느끼다’의 경우와 달리 (11가)에서는 ‘여겨지다’가 ‘-길래’와 자연스럽게 결합해 쓰이고 있다. 이는 ‘여기다’에 피동 표현인 ‘-어지다’가 결속해 화자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적인 것에 의해 행해진 행동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화자가 의식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화자가 지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11나)의 선행절 서술어인 ‘여기다’는 이와 달리 화자의 의식적인 행동에 속하기 때문에 화자가 지각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 선행절에 오면 어색하다. 이는 (12가)와 (12나)의 예문을 통해서 바로 그 주장의 타당성이 확인된다. 즉 (11가)의 피동형 동사 ‘여겨지다’와 마찬가지로 (12나)의 선행절의 서술어인 ‘느껴지다’는 예문 (12가)의 ‘느끼다’와 달리 ‘-길래’의 선행절에 허용되어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근거로, ‘-길래’ 평서문[1]에서 선행절에 그 사용이 허가되는 서술어에는 ‘화자의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길래’가 가지는 지각의 의미와 연관된 것으로 화자의 순간 지각 가능 여부가 선행절 서술어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 서술어에 적용되는 제약으로 제시하는 바다.

한편 임은하(2002: 83)에서는 반드시 1인칭 주어와 공기해야 하는 심리 형용사가 선행절에 허용되는 이유를 화자의 생리적 혹은 심리적 변화는 화자가 지

---

‘사랑하다’ 등이 ‘-길래’ 평서문[1] 선행절의 서술어로 올 수 없는 이유는 ‘사랑하다’가 지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왜 ‘사랑하다’가 지각 대상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각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13) 가. (내가) 혼자 있으려니 우울하길래 술 한 잔 하고 있어.
나. (내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안 좋길래 그냥 나왔어.
다. (내가) 출출하길래 뭐 먹을 게 있나 하고 냉장고를 뒤지고 있는 거야.
라. *(내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행복하길래 옆의 친구를 꼭 안았어.
마. *(내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불행하길래 울음을 터뜨렸어.

위에서 제시한 (13가)~(13마) 예문들의 선행절 서술어는 모두 화자의 기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그런데 (13가)부터 (13다) 예문의 선행절 서술어인 '우울하다', '마음이 안 좋다', '출출하다'는 '-길래'와 자연스럽게 결합해 쓰이고 있는 반면에, (13라)와 (13마)의 '행복하다'와 '불행하다'는 그 쓰임이 어색하다. 먼저 그 이유를 앞선 임은하(2002: 83)의 주장에 따라 분석해 보자면, 화자가 자각 가능한 내적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그의 주장(2002: 83)은 발화 당사자만이 느낄 수 있는 화자의 내적 상태라 하더라도 그것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생리적이나 심리적 변화가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예문에서 '우울하다'나 '마음이 안 좋다' 등의 기분이나 '출출하다'의 생리적 상태는 내부적으로 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자가 쉽게 자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행복하다' 등의 심리 형용사도 '우울하다' 등에 속하는 감정 형용사로 내적으로 심리적 변화를 느껴 자각하는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에는 허용이 되지 않는 걸까? 혹시 (13가)~(13다) 예문의 선행절에 온 형용사들과 달리 내적 변화가 자주 발생하지 않아서일까? 본고에서는 그 이유를 '행복하다' 등의 형용사가 가지는 의미로 인한 것으로 보았다. 즉 '우울하다', '마음이 안 좋다', '출출하다' 등의 형용사의 의미와 '행복하다', '불행하다' 등의 형용사가 가지는 의미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행복하다' 등의 형용사는 화자가 쉽게 자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면, '마음이 안 좋다', '출출하다' 등은 화자가 즉각적으로 느껴서 알 수 있는 심리 형용사에 속한다. 하지만 '행복하다'는 화자가 바로 자각이 가능한 한 가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만족감', '흐뭇함' 등의 여러 가지 감정

이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심리 형용사[124]이다. 따라서 그 순간 느끼면 바로 알 수 있는 '출출하다'나 '우울하다' 등과 달리 '행복하다'나 '불행하다'는 복합적으로 여러 감정이 결부되는 심리 형용사이므로 화자의 순간적인 자각이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길래'와 결합해 쓰일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아래와 같이 '행복하다' 대신에 '기쁘다'의 순간적인 자각이 가능한 감정 형용사를 배치하면 문장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으로 그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다.

(13) 라.′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길래 옆의 친구를 꼭 안았어.

이런 점을 보면 선행절의 서술어가 화자의 자각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화자의 즉각적인 자각이 가능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 여러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에는 지각이나 즉각적인 자각이 가능해야 한다는 서술어 제약이 있음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길래'와 결합한 서술어가 지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와 자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로 나누어 서술어 제약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선행절의 서술어가 화자가 지각한 상황을 나타낼 때에는 선행절에 화자의 비의지(非意志) 서술어 필수 제약이 있다.
둘째, 선행절의 서술어가 화자가 자각한 상황을 나타낼 때에는 선행절에 화자의 즉각적인 자각 가능 서술어 필수 제약이 있다.

### 1.2.2. '-길래'의 문법 표현 결합 제약

'-길래'는 대부분의 선어말어미와 자주 결합해 쓰인다.

(14) 가. 항상 밝게 계시길래 그런 상처가 있을 줄은 짐작도 못 했거든요.
(냉장고_소설, 김현영, 2002)
나. 전화가 왔길래 내가 꼭 한번 다녀가라고 했지.
(해남 가는 길_소설, 김영현, 1994)

---

124)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행복하다'의 의미를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하다'로 정의했다.

다. 그이 혼자서 능히 하겠길래 나는 손을 떼었지.

(허웅, 1995: 811)

위 예문 (14가)부터 (14다)까지를 보면 '-길래'가 여러 선어말어미와 자유롭게 결합해 쓰인 것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길래'가 (14가)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인 '-시-'와 그리고 (14나)에서는 완료형 선어말어미인 '-았/었/였-'과 결합한 형태로 사용되었다. 또한 (14다)에서는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인 '-겠-'과 결합하여 '-겠길래[125]'로 실현되었다.

하지만 회상의 선어말어미 '-더-'와 결합한 형태는 살펴본 모든 '-길래' 구문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15) 폭설이 {왔길래/오길래/오겠길래/*오더길래} 안 나갔어요.

위 예문 (1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다른 선어말어미와 달리 '-길래'가 '-더-'와 결합하면 어색한 문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회상의 선어말어미인 '-더-'가 '-길래' 구문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를 짐작해 보자면, 그것은 '-길래'가 가진 양태적 의미 때문으로 보인다. 즉 '-길래'는 '화자의 행동을 일으킨 이유'를 말하는데 이때 이 이유는 '말하는 사람이 감각 기관을 거쳐 인지하게 된 내용'이 된다. 그런데 회상의 '-더-'에도 바로 이 화자의 직접적인 '지각'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126] 따라서 '-길래' 구문에서 '-길래' 앞에 '-더-'가 쓰이게 되면 두 문법 형태가 가진 이 양태적 의미가 중첩되므로 언어 사용에서의 경제성 원리로 인해 '-더-'의 사용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점을 근거로 '-길래'는 선행절에서 선어말어미 '-더-' 결합 불가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다(허웅 1995: 807). 한편 이와 같은 선어말어미 결합 제약에 대해 정종수(2014: 282)는 본고와 같은 견해를 제시한 바 있으나, 김지혜(2009ㄴ:

125) 채연강(1985: 99)에서는 '-길래'가 시상어미(時相語尾) '-았/었/였-'과는 결합이 가능하지만 시상어미(時相語尾) '-겠-'과는 결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126) 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먼저 장경희(1985: 65)에서는 '-더-'가 '과거지각(過去知覺)' 즉 '화자가 과거에 지각한 것'이라는 양태적 의미 속성을 지닌다고 했다. 또한 박재연(2006: 155)에서도 그와 유사한 견해를 제시했는데 '-더-'는 화자가 직접적으로 감각 기관을 통해 알게 된 상황에만 쓰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1) 어제 보니까 미나 씨 남자친구가 참 멋있더라고요(과거에 화자가 보고 인지하게 된 사실).
(2) 학교 앞 포장마차에서 파는 떡볶이가 진짜 맵더라고요(과거에 화자가 먹고 인지하게 된 사실).

150)에서는 다른 주장을 전개했다. 즉 선행절에서 '-길래'가 '-었-', 혹은 '-겠-' 등의 시상 요소와 결합해 쓰인다면서 선행절에 적용되는 특정한 시상 요소 결합 제약은 없다고 단언한 것이다(김지혜 2009ㄴ: 146, 150). 그러나 본고의 논의를 통해 '-었-', '-겠-'과 마찬가지로 시상 요소에 속하는 '-더-'와는 '-길래'가 결합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김지혜(2009ㄴ: 150)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길래'는 아래 예문 (16)과 같이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과도 결합이 가능하다.

(16) 가. 네가 좋아할 것 같길래 샀지.

(허웅, 1995: 810)

나. 두 분이 늦으실 듯 하길래 미리 주문했어.

위 예문들을 보면 '-길래' 평서문[1]에서 선행절에 '-을 것 같-'이나 '-을 듯하-'의 추측을 나타내는 우언적 형식이 '-길래'와 결합하여 후행절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사한 추측의 우언적 형식인 '-을 것이-'는 '-길래' 구문의 선행절에서 그 쓰임을 확인할 수 없었다.

(17) 하늘을 보니 오후에 비가 {오겠길래/올 듯하길래/올 것 같길래/*올 거길래} 우산을 챙겼죠.

예문 (17)을 보면 추측의 표현들 중에서 '-길래'는 유독 '-을 것이-'와 함께 쓰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길래'가 '-을 것이-'와 결합이 불가능한 이유를 민진영(2011: 125)은 '-을 것이-'와 '-길래'가 결합해 선행절에 '-을 거길래'라는 형태로 사용되면 의미상 추측이 아니라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에는 시제 상 과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만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보다 앞선 시제가 와야 하는 선행절에 미래 시제가 올 수 없다는 것이다(민진영 2011: 125).

그런데 사실 추측의 양태적 의미를 갖는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미래 시제를 동시에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18) 친구가 좀 {늦을 것 같아요./늦을 듯해요./늦을 거예요.}

위 예문 (18)에는 그 어디에도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 문장은 화자의 추측을 표현하는 동시에 시제 상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화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추측을 했기 때문이다. 위 예문을 통해 확인되듯이 화자가 추측을 하게 되는 상황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127], 이를 나타내는 추측의 표현들은 자연스럽게 미래 시제를 동시에 담아 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위 (16)의 예문들에서 제시한 '-길래'와 자연스럽게 결합한 추측 표현들에서도 시제 상 미래가 읽혀지는 이유이다[128]. 따라서 '-을 거이-'라는 추측 표현이 '-길래'와 결합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진호(2011: 17-18)에서는 '-겠-'이나 '-을 것이-'는 모두 '추측'이라는 양태적 의미를 가지지만, 감각 기관을 통해 획득하게 된 정보를 근거로 한 추리에는 '-겠-'이, 그리고 일반적 지식을 근거로 한 추론에는 '-을 것이-'가 더 많이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129]. 이와 같은 주장에 근거하면 '-겠-'은 감각

---

127) 물론 '추측'은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양태적 의미 속성을 지적하는 것이므로 과거 상황에 대한 추측도 물론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밥을 안 먹었을 것 같길래 지도 안 먹고 왔겠지.'와 같은 문장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언급한 내용은 '추측의 표현들이 곧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추측이 일어난다'라는 그 경향성을 지적하는 것임을 밝힌다. 또한 허용 외(2005: 282)에서도 주로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겠-'이 예정된 상황에 쓰이면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고 했다.

128) 박재연(2006: 97-98)에서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인 '-은'과 '-을'의 양태적 의미에 대해 대립적으로 논의한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심재기(1982)는 '-을'이 '-은'과 대립적으로 [-결정성]의 양태성을 보인다고 했으며, 서태룡(1980)은 [-확실성]의 양태성을 나타낸다고 했다. 그리고 이효상(1991: 77-78) 및 최동주(1995: 271)는 '-은'은 현실 관형형을 '-을'은 비현실 관형형을 대립적으로 표현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박재연 2006: 98에서 재인용).

129) '-겠-'이 가지는 '증거성' 대해 논한 연구자들은 송재목(2007: 6)과, 정인아(2010: 90-93) 및 박진호(2011: 18) 등이 있다. 먼저 송재목(2007: 6)은 증거표지인 '-겠-'은 '직접증거표지'인 '-더-'나 '-네'가 화자의 직접적인 지식을 표현하는 것과 대립적으로 간접적인 지식임을 드러내는데, 이는 명제에 기술된 상황에 대한 정보를 화자가 직접적으로 감각 기관의 경로를 거쳐 입수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로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즉 '비가 오겠다'라고 했을 때 명제에 기술된 상황은 '비가 오겠다'지만 화자는 이를 '하늘에 먹구름이 낀 것을 보고' 추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증거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자가 지각한 내용과 추리한 내용이 같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겠-'이 간접적인 증거에 의한 추측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그 추측의 과정은 화자가 직접 지각한 근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인아(2010: 90-93)도 송재목과 같은 관점으로 '-겠-'을 '간접 증거 표지'로 분류했지만, 역시 화자가 직접 지각한 증거들을 근거로 한 추측임을 보여주는 표지가 바로 '-겠-'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진호(2011: 18)는 아래와 같은 예를 들어 '-겠-'과 '-을 것이-'의 추측의 양태적 의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1) (테이블 끝에서 떨어질락 말락 하고 있는 공을 **보고**) 떨어지겠다/??떨어질 것이다.

기관을 거쳐 새로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추측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데 반해, '-을 것이-'는 이미 알고 있던 정보를 근거로 추측을 하게 되는 경우에 쓰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을 것이-'의 이와 같은 양태적 의미 속성은 '-길래'의 '지각'이라는 양태적 의미와 만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길래'가 담지하고 있는 '지각'의 의미는 '화자의 감각 경로를 거쳐 인지하게 된 새로운 상황'이라는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지 정보'를 근거로 하는 추측의 '-을 것이-'는 그가 갖는 추측의 양태적 의미 속성으로 인하여 '-길래' 구문의 선행절에서 '-길래'와 결합해 쓰여 화자의 추측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즉 '-길래'는 선행절에서 '-을 것이-' 결합 불가 제약이 있다.(허웅 1995: 807[130]).

한편 '-을 것이-'는 추측의 의미 외에도 동사와 결합하여 1인칭 주어와 공기하면 아래 예문 (19)와 같이 화자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한다[131].

(19) 저는 꼭 이 분야에서 성공할 거예요.

그렇다면 '추측'이 아니라 '의지'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도 '-을 것이-'는 '-길래'와 결합해 쓰일 수 없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0) (내가) 이 대학교에 반드시 {*합격할 거길래/*합격하겠길래} 미리 와서 둘러보는 거예요.

---

(2) (**긴 테이블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굴러가고 있는 공의 속도/가속도 및 역학 법칙을 바탕으로 추측건대)** 공은 테이블에서 떨어질 것이다/?떨어지겠다.

(박진호, 2011: 18, 예문 (9) 인용)

130) 허웅(1995: 807)에서는 '-길래'를 '-기로', '-기에', '-기'와 같이 묶어 설명했는데, 여기에서 '-기'는 '-기에'와 '-기로'의 줄임말이다. 허웅(1995: 807)에 따르면 이 연결어미들이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등과 품사를 가리지 않고 결합하며, '-더-'와 '-으리-'를 제외한 '-으시-', '-었-', '-겠-', '-삽-' 등과 잘 어울려 쓰인다고 했다. 여기에서 허웅(1995: 807)이 '-길래'와 결합할 수 없다고 제시한 '-으리-'는 '-을 것이-'의 옛말에 해당하므로 허웅(1995: 807)이 이 제약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31) 문법서에서도 '-을 것이-'가 나타내는 '의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즉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2005: 772)』에서는 '-을 것이다'가 동사와 결합하여 이후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동작 주체의 강한 의지 및 의견이나 주관적인 소신 등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어교육문법자료편(2016: 575)』에서는 '-을 것이다'가 동사와 결합해 1인칭 주어와 같이 쓰이면 '다짐'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여기에서 기술한 '다짐'에는 주체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므로 두 문법서에서 공통적으로 '-을 것이-'가 동사와 결합해 1인칭 주어와 쓰이면 의지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본 것이라 하겠다.

위 예문 (20)을 통해 드러나듯이 '-을 것이-'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길래'와 결합할 수 없다. 이는 같은 통사적 환경에서 화자의 의지의 의미를 드러내는 '-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을 것이-'나 '-겠[132]-'으로 표현되는 화자의 의지는 화자가 지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앞서 살펴본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 결합 제약에서 선행절에는 반드시 지각이나 자각이 가능한 서술어가 와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위에서 예로 든 (20)에서 '합격하다'라는 동사가 '-을 것이-' 및 '-겠-'과 결합해 쓰인 '합격할 것이다'나 '합격하겠다'라는 서술어는 화자가 지각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화자의 행동이 선행절에 온다고 해도 하고 있거나 끝낸 행동을 화자가 보거나 듣는 등의 감각 행위를 통해 알게 되었다면 '-길래'의 서술어로 허용되는데, 이때 조건은 이 화자의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즉 화자의 의지에 의한 행동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의 '(내가) 이 대학교에 반드시 합격할 거길래 미리 와서 둘러보는 거예요'나 '(내가) 이 대학교에 반드시 합격하겠길래 미리 와서 둘러보는 거예요'에서 '합격할 거길래' 및 '합격하겠길래'는 일단 화자가 하고 있거나 한 행동이 아니다. 즉 미래에 발생할 상황이기 때문에 화자가 지각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선행절에서 '합격할 거길래'의 '-을 거이-'와 '합격하겠길래'의 '-겠-'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길래' 평서문[1] 선행절의 서술어 제약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다. '-길래' 앞에는 화자의 의지가 담긴 서술어가 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서술어의 제약은 다른 한편으로는 '-길래'를 통해 화자 자신과 연관된 상황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이 화자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예상 외의 상황이라는 '의외성[133]'이 드러나야 한다고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길래'의 지각의 양태적 의미가 가지는 '의외성'은 화자의 의지나 의도와는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을 것이-'나 '-겠-'이 나타내는 의지의 양태적 의미는 '-길래' 앞에서 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 '-길래' 평서문[1]에서 확인된 선행절에서의 '-길래'의 문법 표현과의

---

132) 장경희(1985: 52)에서는 '-겠-'이 '결과 추측'과 '추측' 이외에도 '의도'나 '능력'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2005: 30-31)』에서도 '-겠-'이 문맥에 따라 화자의 지각을 근거로 한 추측이나 화자의 의지나 의도, 곧 발생할 것이 확실한 미래, 가능성이나 능력 등을 의미한다고 했다.

133) 박진호(2011: 7)에서는 '의외성'이 언어학에서 최근에야 주목을 받기 시작한 개념으로, '문장에 기술된 내용이 예상 밖의 새로운 정보라는 것을 표현하는 문법 범주'라고 했다.

결합 제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모두 세 가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첫 번째는 '-길래'가 회상의 선어말어미 '-더-'와는 결합할 수 없다는 제약이고, 두 번째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도 '-을 것이-'와는 결합해 쓰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제약은 화자의 의지를 의미하는 문법 표현들과도 '-길래'가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상 '-길래' 평서문[1]에서 나타나는 선행절에서의 '-길래'의 결합 제약을 서술어와 문법 표현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길래'는 선행절에서 서술어로 어떤 품사와도 결합이 가능하지만, '-길래'가 가지는 '지각'과 '자각'의 의미가 서술어에 특정한 제약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길래'의 이와 같은 양태적 의미 속성으로 인해 '-더-'나 '-을 것이-' 등의 특정 문법 표현과는 결합할 수 없다는 제약을 가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특히 '-길래'가 '-더-'나 '-을 것이-' 혹은 의지의 문법 표현과 결합할 수 없는 이유를 '-길래'의 '지각' 및 '자각'의 양태적 의미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은 본고의 새로운 시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 의해 분석된 '-길래' 평서문[1] 선행절에서의 '-길래'의 결합 제약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선행절의 서술어가 화자의 지각을 나타낼 경우에는 선행절에 화자의 비의지(非意志) 서술어 필수 제약이 적용된다.
둘째, 선행절의 서술어가 화자의 자각을 나타낼 경우에는 선행절에 화자의 즉각적 자각 가능 서술어 필수 제약이 적용된다.
셋째, '-길래'에는 '-더-', 추측의 '-을 것이-', 의지의 문법 표현 결합 불가 제약이 있다.

### 1.3. 후행절의 미래 시제 불가 제약

아래 예문 (21가)와 (21나)는 후행절에는 화자의 행동이 그리고 선행절에는 후행절을 초래한 이유 즉 화자가 지각한 상황이 오는 '-길래' 평서문[1]에 해당하는 문장들이다.

(21) 가. 위층 화장실 창문으로 쌔벼 들어오길래 내가 잡았어요.

(헐리우드키드의 생애_소설, 안정효, 1992)

나. 날씨가 좋길래 좀 걷고 있어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위에서 예로 든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 상황의 시제가 과거와 현재라는 점이다. 즉 (21가)의 '내가 잡았어요'는 과거, (21나)의 '걷고 있어요'는 현재 진행을 나타낸다.

(22) 가. 마땅히 할 일도 없길래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봤어요/*볼 거예요/*보겠어요}

나. 좀 피곤하길래 {누워 있어요/누웠어요/*누울 거예요/*눕겠어요}

위 예문 (22가)와 (22나) 역시 '-길래' 평서문[1]에 해당하는 예문들인데, 예문의 후행절의 시제가 문장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도 있지만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다. 즉 (22가)에서 '보고 있어요'와 '봤어요', 그리고 (22나)에서 '누워 있어요' 및 '누웠어요'의 시제는 현재와 과거인데, '-길래' 구문의 후행절에 쓰여 통사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에 반해 후행절에 현재나 과거 시제 대신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으)ㄹ 거-' 혹은 '-겠[134]-'이 쓰이면 위 예문 (22가)와 (22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색한 문장이 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길래'가 쓰인 문장의 후행절에 오는 상황의 시제는 현재나 과거만이 가능하며 미래 시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 미래 시제 불가 제약'은 '-길래' 후행절의 의미와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다. 즉 '-길래' 평서문[1]에서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는 화자가 앞서 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근거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상 하거나 한 행동을 서술해야 하는 후행절에는 당연히 미래 시제가 올 수 없는 것이다.

덧붙여 '-길래' 평서문[1] 후행절의 시제에 관해 하나 더 언급해야 할 점이 있

134) 허용 외(2005: 281-283)에서는 '-겠-'의 가장 주된 양태적 의미를 '추측'으로 제시하면서, 이 외에도 '미래'의 시제, '의지' 및 '가능성'라는 의미, 그리고 '완곡'의 발화 태도를 나타낸다고 했다.
(1)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이동이 있겠습니다(미래).
(2) 한 달 안에 꼭 살을 빼겠습니다(의지).
(3) 나도 그만큼은 먹겠다(가능성).
(4) 처음 뵙겠습니다(완곡).

는데 그것은 바로 현재 시제이다.

(23) 가: 뭐 해?
나: 날씨가 화창하길래 {산책하고 있어요/?산책해요}

만일 '-길래'의 후행절에 현재 시제가 쓰이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화자가 이야기를 하는 발화시와 후행절의 사건시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3)의 예문에서도 '나'의 화자는 지금 산책을 하면서 '가'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후행절의 상황시와 발화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길래'의 후행절에 현재 시제가 올 때에는 '-고 있-'의 진행상이 쓰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23)의 예문에서처럼 후행절에 '산책해요'가 오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이와 같은 시제 경향은 화자가 발화를 하고 있는 시점에 화자의 행동이 아직 완료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길래' 평서문[1]에는 후행절에 미래 시제가 올 수 없는 미래 시제 불가 제약이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다(진정란 2004: 101). 그런데 이 후행절의 미래 시제 불가 제약에 대해서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도 본고와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음[135]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몇몇 선행연구는 본고와 다른 논지를 전개하거나 아예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고와 다른 주장을 한 선행연구에는 앞서 서두에서도 지적했던 안주호(1998: 218)와 김미숙(2015: 39)을 들 수 있다. 그들은 후행절의 상황시는 발화시보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후행절에 과거 시제만이 허용된다는 시제 및 시상 제약을 제시한 것이다. 다음으로 정종수(2014)에서는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의 시제 제약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었다[136]. 그런데 이중 정종수(2014)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해 보자면, 그는 '-길래'를 포함한 14개의 인과 연결어미에 해당하는 제약으로 자신이 제시한 11개의 제약 중에 후행절의 시제 제약을 설정하지 않았다.

135) 이에 해당하는 선행연구에는 임은하(2002), 김지혜(2009ㄴ), 노미연(2010), 민진영(2011), 권미숙(2017), 성진영(2017), 박상숙(2019) 등이 있다.
136) 정종수(2014: 281-282)는 '-길래'를 포함한 14개의 인과 연결어미를 분석하여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11개의 제약을 기준으로 잡고 각각의 인과 연결어미가 어떤 제약을 가지는지를 살펴본 후에,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인과 연결어미의 적절한 교육 순서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길래'의 후행절에서 발견된 미래 시제 불가 제약과 관련된 제약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종수(2014)가 '-길래' 평서문[1] 후행절의 시제 제약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와 동시에 정종수(2014)가 후행절의 시제 제약을 제약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은 다른 인과 연결어미에서는 이 제약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보면 '-길래' 평서문[1]이 가지는 후행절의 '미래 시제 불가 제약'은 여타 인과 연결어미와 구별되는 '-길래' 특유의 통사적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 1.4. 후행절 서술어의 의지적 행동 필수 제약

앞서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에는 '동사', '형용사', '명사'가 모두 서술어로 쓰일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24) 가. 이완 맥그리거가 나온다길래 보는 거지.
(일상대화_관광 명소 등에 대해)
나. 배가 고프길래 밥 좀 달라고 했어요.
(독백_어린 시절의 추억)
다. 마침 경기지경으로 오르는 행중이길래 태웠소이다.
(객주5_소설, 김주영, 1996)

위의 예문들을 보면 '-길래'의 선행절에 온 서술어로 '나오다'의 동사, '고프다'의 형용사, 그리고 '행중이다'의 지정사 '이다'와 결합한 명사까지 다양한 품사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에는 서술어로 쓰이는 품사와 관련된 특정한 제약이 없는 것이다(허웅 1995: 807). 이에 반해 '-길래' 후행절에 온 서술어는 '보다', '달라고 하다', '태우다'로 모두 동사이다. 따라서 후행절 서술어를 형용사로 대치하면 문장들이 어색해진다.

(24) 가.′ *이완 맥그리거가 나온다길래 너무 기뻤어.
나.′ *배가 고프길래 밥을 먹고 싶었어요.
다.′ *마침 경기지경으로 오르는 행중이길래 반가웠어요.

위 예문들처럼 '기쁘다', '싶다', '반갑다'의 형용사는 후행절의 서술어로 올

수 없다. 이는 '-길래' 평서문[1]의 의미에 의한 것으로 선행절에는 화자가 직접 지각한 상황이 오며 후행절에는 선행절을 근거로 화자가 하고 있거나 한 행동이 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근거로 보면, '-길래' 평서문[1]은 선행절과 달리 후행절에는 반드시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요구되는 후행절 서술어 동사 제약이 있는 듯하다.

그런데 예문 (24나′)의 후행절에 온 '먹고 싶다'를 보면 '먹다'의 동사와 보조 용언인 '싶다'가 결합해 쓰인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도 '싶다'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 앞에 동사인 '먹다'가 왔지만 '-길래' 후행절에 서술어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5) 조서 받는 경찰관한테 담뱃값이라고 슬쩍 집어주라고 충고하길래 일리 있다 싶어서 조서 받고 나올 때 담배 한 보루 값 찔러 주고 왔어요.
(숨은 사랑_소설, 정종명, 1993)

하지만 위 예문 (25)에서도 보조 형용사인 '싶다'가 서술어로 '-길래'의 후행절에 왔는데도 이 문장은 (24나′)와 달리 어색하지 않다. 그 이유는 보조 형용사인 '싶다'가 나타내는 다양한 의미 때문이다. 즉 (24나′)의 '먹고 싶다'에서 '싶다'는 어떤 행동을 원하는 마음이나 욕구를 의미한다. 하지만 (25)의 '일리 있다 싶다'는 '일리 있다고 생각하다'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때 '싶다'는 '생각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면, 바로 위에서 지적했던 것과 달리 '동사'라는 품사가 후행절의 서술어 제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싶다'라는 보조 형용사의 의미가 두 예문의 후행절 서술어로의 허용 여부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면, 앞서 살펴보았던 예문에서 후행절에 쓰인 '보다', '달라고 하다', '태우다'는 모두 동사이면서 몸으로 이루어지는 동작이다. 그런데 이 동작은 동작주인 주체자의 의식이 있는 행동으로 이는 곧 그의 의지로 인해 이루어지는 행위라고도 해석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생각하다'는 그 주체가 의식을 가지고 하는 행위이므로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에 허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래 예문과 같이 '-길래'의 후행절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26) 공약 내세우길래 나 그래 생각했어요.

(주제대화_대통령 선거)

하지만 이와 달리 (24나′)에서 '싶다'가 나타내는 희망의 의미는 화자의 의식 있는 행동이 아니라 내면적인 욕구이다. 그러므로 후행절의 서술어로 올 수 없다.

또한 '생각하다'와 같거나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보조 용언들도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자주 발견된다.

(27) 가. 수혜 학생이 방에 없길래 둘이 같이 있는 줄 알았지.

(아름다운 그 시작_소설, 유기성, 1994)

나. 점심시간이 지나도 (네가) 일어나지 않길래 무슨 피곤한 일이 있었나 보다고 직원들이 깨우질 않았대요.

(구효서, 낯선 여름_소설, 1996)

다. 아무 말도 없길래 나는 또 기거할 곳이 생겼구나 했지.

(아름다운 그 시작_소설, 유기성,1994)

예문 (27가), (27나)에서 후행절의 '둘이 같이 있는 줄 알았지'는 '둘이 같이 있다고 생각했지'로, '피곤한 일이 있었나 보다고'는 '피곤한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27다)에서 '기거할 곳이 생겼구나 했지'는 '기거할 곳이 생겼다고 생각했지'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은/는 줄 알다', '-은가/나 보다', '-은가/나 하다' 등의 다양한 보조 용언들이 본용언 뒤에서 '생각하다', '추측하다' 등의 화자의 의식 있는 행동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면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에 사용 가능한 것이다. 이는 '-길래' 평서문[1] 후행절 서술어로의 허용 조건을 화자의 의식 있는 행동 즉 의지가 반영된 행동으로 보는 본고의 견해[137]를 입증해 주는 실례(實例)가 된다.

---

137) '-길래' 평서문[1] 후행절의 서술어 제약에 대해 안주호(1998: 221)는 후행절에는 화자의 의지가 담긴 적극적인 행동이 와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의 예를 들었다.

(1) 아이들이 떠들길래 {*시끄럽다/*공부할 수 없다/아이들을 혼내 주었다}.

(안주호, 1998: 221, 예문 (110)~(112) 인용)

안주호(1998)와 같이 후행절의 서술어 제약에 대해 본고와 유사한 의견을 제시한 선행연구에는 채연강(1985), 성기철(2007) 등이 있다. 그런데 특히 성기철(2007: 232)은 채연강(1985:

한편 임은하(2002: 84)에서는 보조 형용사 '싶다'가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에 서술어로 올 수 있는 것은 이때 보조 형용사 '싶다'가 [+동작성]의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138]. 따라서 아래와 같은 문장들에는 '-길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28) 가. 경찰이 정말 {빨라서/빠르기 때문에[139]/*빠르길래} 잡힌 거야.
나. 친구가 집에 {와서/왔기 때문에/*왔길래} 요리해야 해.
다. 숙제가 {많아서/많기 때문에/*많길래} 짜증이 났어.
라. 갑자기 폭우가 {와서/오기 때문에/*오길래} 못 갔지.

위 (28가~28라)의 예문들은 모두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구조가 인과 관계인 평서문이다. 하지만 이 4개의 예문들에서 '-어서'나 '-기 때문에'와 달리 '-길래'는 인과 연결어미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 확인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후행절의 서술어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8가)에서는 '-길래'의 후행

---

96)이나 안주호(1998: 224)와 달리 본고와 마찬가지로 '-길래' 평서문[1] 후행절 서술어의 제약을 '화자의 의지적 행동'으로 제시해 주목할 만하다. 즉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의 서술어에 대해 채연강(1985: 96)은 막연하게 '의도적인 문장'이 와야 한다고 했을 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을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이다. 또한 안주호(1998: 224)는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 서술어에 대해서 '화자의 의지가 반영된 행동'이라는 논지를 전개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제시한 제약은 '동작동사'라는 품사에 한한 제시여서 본고와 다른 부분이 있다.
이외에 '-길래' 평서문[1] 후행절 서술어의 제약을 동사의 [+동작성]으로 본 연구에는 임은하(2002), 진정란(2004), 박상숙(2019) 등이 있으며, 동사의 품사로만 제시한 연구에는 김승곤(1981), 박재연(2009), 민진영(2011), 김미숙(2015), 권미숙(2017), 성진영(2017) 등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 서술어 제약을 '동사'로만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 예문 (25)의 후행절에서 '~충고하길래 일리 있다 싶어서'의 경우처럼 후행절에 '일리(가) 있다 싶다'의 '싶다'가 비록 '생각하다'를 나타내긴 하나 형용사인 데다가 보조 형용사인 '싶다'와 결합한 본용언 '있다'도 형용사이므로, 이 문장은 후행절의 서술어 동사 제약에서 벗어난 경우가 되는 것이다.

138) 임은하(2002: 84)에서는 보문을 수반하는 보조 형용사 '싶다'가 '생각하다, 짐작하다, 알다' 등의 의미로 쓰여 [+동작성]의 의미를 가지면 '-길래' 구문의 후행절에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1) 얼굴빛도 좀 창백해 뵈길래 그저 몸이 안 좋은가 보구나 싶었다(짐작했다).
(2) 이 기집애가 맨날 차 끌고 다니면서 큰소리 치길래 난 모아둔 돈이 있나 싶었다(생각했다).
(임은하, 2002: 84, 예문 (10) 인용)

139)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 서술어에 대한 문법적 속성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길래'를 '-어서' 및 '-기 때문에'의 두 유사이유표현과 비교해 보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지용(2017: 226)에 따르면 '-길래'는 '-기에'와 의미가 가장 유사한데, 그 '-기에'는 또한 '-어서, -기 때문에, -으니까, -은 결과, -으므로'와 의미적 유사성이 깊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중에서도 구어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표적인 이유 표현으로 꼽히는 '-어서'와 권미숙(2017: 80)에 의해 '-기에'와 가장 비슷한 문법 표현으로 논의되었던 '-기 때문에'를 선별한 것이다.

절에 ‘잡히다’의 피동사가 왔고, (28나)에서는 ‘요리하다’의 동작 동사 뒤에 당위를 의미하는 ‘-어야 하다’가 결합해 쓰였다. 그리고 (28다)에서는 후행절에 ‘짜증이 나다’의 비행위성 자동사가 서술어로 왔으며, 마지막으로 (28라)에서는 ‘가다’ 앞에 ‘불가능’이나 ‘미발생’ 등을 의미하는 ‘못’이라는 부정 부사[140]가 와서 ‘못 가다’가 서술어로 쓰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근거로 보면, 후행절에 피동사나 비행위성 자동사가 오거나 혹은 당위나 불가능 등을 의미하는 표현과 결합한 동사는 ‘-길래’ 평서문[1]의 서술어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당위나 비행위성 자동사, 그리고 불가능 및 미발생의 행위는 [+동작성]의 화자의 행위가 아니므로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 서술어로 오기 어려운 것이다. 그 점은 쉽게 이해 가능하다. 그런데 (28가)의 ‘잡히다’도 [+동작성]의 화자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후행절에 허용이 안 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동사도 임은하(2002: 84)의 논의에 따르면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에 서술어로 쓰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잡히다’의 피동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28) 라.′ 갑자기 폭우가 {와서/오기 때문에/오길래} 안 갔지.

위 (28라′)의 예문은 (28라)의 예문에서 부정 부사 ‘못’을 ‘안’으로 대치한 문장이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전혀 어색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만일 (28라)의 예문에서 ‘못 갔어’가 후행절에 올 수 없는 이유가 ‘못 갔어’가 나타내는 ‘일어나지 않은 행위’라는 의미가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의 화자의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행위라는 의미에 부합되지 않아서라면, (28라′)의 ‘안 갔어’도 하지 않은 행동이므로 후행절에 올 수 없어야 한다. 하지만 ‘못 갔어’와 달리 ‘안 갔어’는 허용되므로 그 이유를 부정 부사 ‘못’과 ‘안’이 나타내는 의미 차이로 봐야 할 것이다. 즉 ‘못’과 달리 ‘안’은 화자의 의도 부정을 나타낸다는[141] 것이다. 따라서 의지 부정 부사인 ‘안’이 ‘가다’의 동사 앞에 쓰여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 서술어로 쓰이고 있는 것은 후행절 서술어가 나타내는 화자의 행위에 ‘의지’라는 제약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40) 고영근·구본관(2009: 341)에 따르면 부정 부사인 ‘못’은 동작주의 의지가 배제된 자신의 능력 부족이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그 행동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나타낸다고 했다.
141) 고영근·구본관(2009: 340)에서는 ‘안’이 동사 앞에 쓰이면 단순 부정 및 의도 부정의 2가지 의미를 모두 나타낸다고 했다.

(28라′)의 ‘안 갔어’의 서술어에는 화자의 의도 혹은 의지가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가시적인 동작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가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화자의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안 갔어’라는 서술어는 ‘거기에 안 가고 여기에 있었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여기에 있었어’도 화자의 의지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에 허용되는 서술어의 조건에 부합되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길래’ 평서문[1] 후행절에 허용되는 서술어로는 화자의 의도 혹은 의지가 느껴지는 행동이 와야 하는 것 같다[142]. 그렇기 때문에 위 예문 (28가)의 ‘잡히다’라는 피동사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잡다’라는 능동사와 달리 ‘잡히다’에서는 화자의 의지가 읽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근거로 하자면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 서술어에는 ‘화자의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성기철 2007: 232). 즉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 서술어 제약이 동사라는 품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승곤(1981: 31)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에 반드시 동사가 와야 한다고 주장[143]했는데, 본고의 논의를 통해 그 주장의 오류가 밝혀졌으므로 그에 대한 기술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

142) 김지혜(2009ㄴ: 145)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면서 ‘-길래’ 평서문[1]에서도 후행절에 형용사가 허용되기 때문에 결국은 선·후행절에 적용되는 서술어 제약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 두 사람이 헤어지길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2) 생각보다 물가가 비싸길래 거기에서 생활하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김지혜, 2009ㄴ: 145, 예문 (110) 인용)
그런데 김지혜(2009ㄴ: 145)의 주장과 달리 본고에서는 위 예문들이 어색하다. 왜냐하면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에는 화자의 직접적인 지각으로 인한 행위가 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 예문 (1), (2)번의 후행절에 온 서술어는 ‘아프다’, ‘힘들다’의 심리 형용사이므로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 서술어 제약에서 벗어난 경우가 된다. 따라서 두 문장은 비문이다. 그런데 (2)번과 달리 (1)번의 문장이 부자연스럽기는 하지만 허용되는 것도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 선행절 상황의 특수성 때문인 듯하다. 즉 우리가 실생활에서 다른 사람이 헤어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이다. 다만 영화나 드라마 같은 작품을 통해서는 가능한데, 화자가 본 감상을 이야기하면서 남녀 주인공이 헤어지는 장면에서 그때 화자가 느낀 감정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1)번 예문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영화에서 두 사람이 헤어지는 장면을 목격한 그 순간 화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뿐일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헤어지길래 울었어요(소리를 질렀어요)’ 등의 후행절의 서술어를 화자의 행위로 표현했다면 좋았겠지만, (1)번의 예문처럼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란 서술어가 왔다면 그것은 사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느꼈어요’의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인 모국어 화자들은 ‘-길래’의 후행절에 ‘아프다’라는 심리 형용사만 왔다고 하더라도 ‘암시적으로 화자가 그것을 느꼈다(심리동사)’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의 예문이 허용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듯하다.

143)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선행연구에는 안주호(1998), 박재연(2009), 민진영(2011), 김미숙(2015), 권미숙(2017), 성진영(2017) 등이 있다.

한편 박상숙(2019: 114)은 임은하(2002: 84)의 논의에 반박하면서 아래와 같은 예문을 들었다. 즉 박상숙(2019: 114)은 아래 예문들의 인지 동사에서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데도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에 자연스럽게 쓰인다고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 서술어가 화자의 의지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여야 한다는 주장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30) 가. 비가 오길래 길이 미끄러울까 걱정이 되었다(걱정했다).
나. 아이들이 가길래 수업이 끝난 줄 알았다(끝났다고 생각했다).
다. 옷이 젖었길래 비가 왔나보다 짐작을 했다.
라. 선배가 지적을 하길래 내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알아차렸다).

(박상숙, 2019: 114, 예문 (6) 인용)

하지만 본고에서는 박상숙(2019: 114)과 달리 위 예문들의 후행절 서술어에서 화자의 의지가 읽힌다고 보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이 예문들의 후행절 서술어에 줄을 긋고, 그 서술어 뒤 (  )안에 해당되는 의미를 해석해 기술했다. 그런데 그 내용들에서는 충분히 화자의 의도가 느껴진다. 구체적으로 (30가)의 후행절 서술어인 '걱정이 되었다'는 '-되다'라는 피동 표현이 쓰여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맥상 '(내가) 걱정했다'로 해석되기 때문에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인다. (30나)에서도 '끝난 줄 알았다'는 '끝났다고 생각했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동사의 의미에서 화자의 의지를 포착할 수 있다. (30다)의 경우도 '짐작을 했다'는 화자가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므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 또한 (30라)의 예문에서도 선배가 지적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그 지적을 들은 후에 '알았다'는 인지 상태의 지속이 아니라 인지의 변화를 기술하고 있다. 즉 선배의 지적을 들은 후에 화자는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보았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깨닫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보는 과정은 바로 화자의 의지가 개입된 것이므로 그 결과를 묘사한 '깨달았다'라는 서술어도 역시 화자의 의지에 의한 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역시 "선배가 지적을 하길래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져 물었어."나 "선배가 지적을 하길래 내 행동에 대해 다시 돌이켜 봤어."로 후행절의 내용을 화자의 의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내

용으로 수정하면 문장이 한결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길래' 평서문[1] 후행절의 서술어에 따르는 '의지가 드러나는 행위'라는 제약을 잘 설명해 주는 측면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앞서 논의한 것처럼 (30가)~(30라)의 후행절에 쓰인 인지를 나타내는 서술어들은 문맥에서 충분히 화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후행절의 서술어 제약에서 임은하(2002)의 논의에 대한 박상숙(2019)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본고가 앞서 주장한 것처럼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 서술어에는 '화자의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제약이 적용된다.

한편 앞서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 시제에 대한 논의에서 후행절에 미래 시제가 올 수 없는 제약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31) 가. 날씨가 추워졌길래 두꺼운 스웨터를 {*입을 거예요/*입겠어요/*입을래요/입으려고 해요}.
나. 콘서트 표가 매진됐길래 다음에 {*볼 거예요/*보겠어요/*볼래요/보려고 해요}.

따라서 위 (31가)와 (31나)의 예문에서처럼 후행절의 동사에 '-을 것이-', '-겠-', '-을래-'가 결합되면 시제 상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길래'의 후행절에 쓰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두 예문의 후행절에 쓰인 '입으려고 해요'와 '보려고 해요'는 화자가 지금 하고 있거나 한 행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박상숙(2019: 120)에서는 '-(으)려고 하다'는 후행절의 사실이 현재의 의도에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후행절에 이 표현이 허용된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있는 일'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의도'를 '사실'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한편으로 위와 같은 그의 논점을 따른다면 위 예문에서 '-겠-'이나 '-을 것이-' 혹은 '-을래-'의 미래 표현들에서도 1인칭 주어로 인한 화자의 현재의 '의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길래'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위 예문들에서 '-겠-', '-을 것이-', '-을래-'등의 표현들은 이미 확인했듯이 '-길래'의 후행절에 출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그의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그 외에 성진영(2017: 189)에서도 후행절에 의도의 표현이 가능한 이유를 '-길래'의 의미로 인한 것이라며 지적한 바 있다. 즉 '-길래'는 이미 완료된 상황

혹은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일어난 판단/결정/결과에 대해서 화자의 정당성을 증명하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후행절에 '-(으)려고 하다'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32) 동생이 이번 시험에 1등을 했길래 나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144]
(성진영, 2017: 189, 예문 (7) 인용)

성진영(2017: 189)은 위의 예문을 들면서 화자가 열심히 공부하려는 의도가 생긴 이유는 동생의 좋은 시험 결과 때문이라면서, 즉 이 문장에서는 '-길래'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길래'로 화자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대상이 왜 의도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145].

결론적으로 '-길래'의 후행절에 '-(으)려고 하다'가 올 수 있는 이유로 본고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논거는 양지현(2013: 67)이 제시한 '-(으)려고 하다'의 의미이다. 양지현(2013: 67)에서는 '-(으)려고 하다'가 행위주의 의도를 나타내는 동시에 그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행위주의 행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33) 저는 잠을 자려고 해요.

위 문장에서 '-(으)려고 하다'는 자려고 하는 화자의 의도를 표출하고 있다. 그런데 양지현(2013: 67)은 그러한 의도 외에도 화자가 잠옷으로 갈아입고 이불을 정리하는 등의 잠을 자기 위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발화 당시에 화자의 의지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에 미래 시제가 올 수 없는 시제 제약이나 '화자의 의지적인 행위'라는 서술어의 제약에도 부합되는 측면이다. 따라서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에는 의도의 표현인 '-(으)려고 하다'가

144) 성진영(2017: 189)은 이 예문을 '동생이 이번 시험에 1등을 {했기에/*했길래} 나도 열심히 공부할 거야'라고 들었는데, 이어지는 논문의 설명과 어긋나는 듯하여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임의로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145) 민진영(2011: 123)에서는 단지 의지 혹은 의도를 의미하는 '-(으)려고 하다'가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에 자연스럽게 어울려 쓰인다고 하면서, '-길래' 평서문[1]에서의 이 표현의 사용 가능성만을 언급했다.

서술어로 허용되는 것이다[146]. 여기에서 한번 더 강조해야 할 점은 '-(으)려고 하다'가 후행절에 허용되는 이유는 '이 의도와 관련된 화자의 의지적인 행위가 현재 일어나고 있음'이라는 의미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의도 표현의 후행절 허용 이유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길래' 평서문[1] 후행절의 서술어에는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화자의 의지적인 행동 필수 제약'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길래' 평서문[1] 후행절의 서술어 제약은 사실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이 나타내는 의미에 기인한 제약으로 볼 수 있다. 즉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이 '화자가 하고 있거나 끝낸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길래' 평서문[1]에서 나타나는 통사적 특징을 주어 인칭 제약, 선행절의 결합 제약, 후행절의 시제 제약 및 서술어 제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에서 '-길래'가 가지는 지각과 자각이라는 의미에 따라 적용되는 주어 제약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길래'의 지각과 자각이라는 의미는 선행절의 서술어 및 문법 표현과의 결합 제약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즉 선행절 서술어로의 허용 여부가 화자의 지각이나 순간적인 자각의 가능성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 문법 표현은 '-길래'가 나타내는 지각의 양태적 의미와의 중첩 및 충돌로 인해 '-길래'와 결합할 수 없다는 제약이 존재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후행절에서는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의 의미가 주어 제약과 서술어 제약 및 시제 제약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즉 후행절의 의미로 인해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에는 1인칭 주어 필수 제약과 의지적 행동 필수 제약, 그리고 후행절 미래 시제 불가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 파악한 '-길래' 평서문[1]의 통사적 제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실제 교육에서 '-길래' 평서문[1]에 적용되는 통사적 제약에 대한 효과적인 제시의 토대가 될 수 있을

146) '-(으)려고 하다'는 아래의 예문들처럼 '-길래' 의문문이나 화자가 사건에 대한 이유를 추측하는 '-길래' 평서문[2]에서도 후행절에 나타난다. 뒤에서 다루어지겠지만 모든 '-길래' 구문은 후행절에 현재나 과거 시제만이 허용되는데, '-(으)려고 하다'라는 의도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의도와 관련된 화자의 행동이기 때문에 후행절에 이 표현이 올 수 있는 것이다.
(1)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거길 가려고 해요?
(2) 일 하기 싫길래 늦게 오려(고 하)는 거겠지.

것이다.

첫째, 선행절과 후행절에 모두 1인칭 주어 필수 제약이 있다.
단 선행절의 1인칭 주어 필수 제약은 선행절에 화자가 자각한 상황이 올 경우로 제한된다. 그리고 선행절에 화자가 지각한 상황이 오는 경우에는 선행절에 주로 2·3인칭 주어가 오는 경향이 있다.
둘째, 선행절의 서술어에는 지각이나 즉각적인 자각 가능 서술어 필수 제약이 있다. 특히 화자가 자신의 행동을 지각한 상황일 때에는 선행절의 서술어에 화자의 비의지(非意志) 서술어 필수 제약이 적용된다.
셋째, '-길래'에는 '-더-', 추측을 나타내는 '-을 것이-', 의지 문법 표현과의 결합 불가 제약이 있다.
넷째, 후행절에 미래 시제 불가 제약이 있다.
다섯째, 후행절 서술어에는 화자의 의지적인 행동 필수 제약이 있다.

위에 제시한 '-길래' 평서문[1]의 제약들 중에서 특히 선행절의 주어와 서술어에 대한 제약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은 본고만의 새로운 논점이 반영된 제약이라는 의의가 있다. 즉 선행절의 주어와 서술어에 대한 제약을 본고에서는 '-길래'의 의미를 '지각'과 '자각'으로 구분해 그와 연관 지어 제시했는데 이와 같은 제시는 앞선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선행절의 서술어 제약에 관련해 선행연구에서는 '느끼다' 등의 심리동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선행절에 올 수 없는 1인칭 주어와 공기하는 특성 때문이라고 잘못 제시한(안주호 1999: 107) 바 있다. 또한 '사랑하다'의 심리동사나 '행복하다'의 심리형용사는 지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절에 허용되지 않는다(염재일 2012: 133)는 막연한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 왜 지각 대상이 안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와 달리 본고에서는 지각이나 자각이 되지 않는 이유를 각각 화자의 의지 개입과 순간적인 자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해 그것을 제약으로 설정했다. 따라서 본고에서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 서술어 제약으로 제시한 '-길래'의 지각 및 자각의 의미로 인한 '비의지 서술어 필수 제약' 및 '즉각적인 자각 가능 서술어 필수 제약'은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에 허용되는 서술어의 통사적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하면서도 선행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제약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이와 함께 선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도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오는 경우를 선행연구처럼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시하지 않고 '-길래'가 '자각'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황과 연관 지어 해석해서 처음으로 제약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한편 '-길래'를 포함해 14개의 인과 연결어미의 제약을 비교 분석했던 정종수(2014)에서는 본고에서 제시한 '-길래' 평서문[1]의 제약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길래'의 '-더-' 결합 불가 제약이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정종수(2014)가 선행연구에서 본고와는 다른 제약들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종수(2014: 281[147]))가 위에서 언급한 선어말어미 제약 외에 제시한 주어 제약은 선·후행절의 주어 일치 필수 제약과 유정물 주어 필수 제약이었고, 서술어 제약은 선행절의 지속 동사 필수 제약과 동작성 동사 필수 제약이었다. 하지만 후행절 서술어에 대한 제약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정종수(2014)의 제약들 중에서 '-길래'에 적용되는 제약은 '-길래' 평서문[1]에서 '-길래'가 자각의 의미를 가질 때 나타나는 선·후행절의 주어 일치 필수 제약뿐이다. 즉 '-길래'가 자각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선행절에 반드시 1인칭 주어가 와야 하는데, 이는 곧 후행절의 1인칭 주어와 선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종수(2014)는 '-길래' 평서문[1]에서 나타나는 이 제약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의 차이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 첫째는 정종수(2014)가 '-길래' 평서문[1]에서 드러나는 제약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정종수(2014)에서 14개의 인과 연결어미의 분석을 통해 제시한 제약들과 본고에서 파악한 '-길래' 평서문[1]의 통사적 제약이 다르다는 점은 바로 '-길래'가 여타 인과 연결 어미와는 다른 통사적 제약을 가진 인과 연결어미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근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동시에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길래'가 통사적 특성이 낯선 문법 표

147) 정종수(2014: 281)가 14개의 인과 연결어미에서 파악한 제약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주어 제약으로 파악한 것은 선·후행절의 '주어일치필수제약'과 '유정물주어필수제약'이며, 서술어와 관련된 제약은 선행절 서술어의 '동작성동사필수제약'과 '지속동사필수제약'이 해당된다고 했다. 다음으로 선어말어미 제약은 선행절의 서술어와 '-었-,-겠-,-시-,-더-'등의 선어말어미 결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법 제약 즉 C2 유형 제약은 후행절에 '질문, 명령, 청유, 약속'의 화행이 올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과 화자나 주체가 선호하지 않는 부정적인 결과가 필수적으로 와야 한다는 '비선호내용 필수제약'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2014: 271)는 '-길래'가 선행절에서 선어말어미 '-더-'와 결합할 수 없다는 제약과 후행절에서 명령이나 청유 그리고 약속의 화행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제약만이 있다고 언급했다.

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 2. '-길래' 의문문의 통사적 특징

### 2.1. 선행절의 의문사 수반 필수 제약

아래 예문 (34)의 문장들은 모두 '-길래'가 쓰인 의문문이다.

(34) 가. 댁이 누구길래 어델 가잔 말요?
(만세전_소설, 염상섭, 1948)
나. 너 아침에 어떻길래 그런 거야?
(전화대화)
다. 도대체 방장이 뭘 하길래 애국가도 못 외우고 있나?
(어느 화가의 승천_소설, 안재성, 1992)

그런데 (34가)~(34다)의 선행절에 모두 의문사가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34가)에는 '누구'가 (34나)에는 '어떻다'가 그리고 (34다)에는 '무엇을'의 준말인 '뭘'이란 의문사가 '-길래' 앞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렇다면 '-길래' 앞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는 '-길래'가 출현할 수 없는 것일까?

(35) 가. *날씨가 춥길래 이렇게 옷을 껴입은 거야?
나. *늦게 일어났길래 씻지도 않고 왔어?
다. *좋은 일이 있길래 이렇게 콧노래를 불러?

위 (35)에서 제시된 문장들은 후행절의 상황에 대해 화자가 짐작한 이유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청자에게 확인하는 판정의문문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문장들은 (34)번의 예문들과 달리 어색하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선행절에 '얼마나', '몇', '무슨'의 의문사를 배치하면 문장이 자연스러워진다.

(35) 가.′ 날씨가 얼마나 춥길래 이렇게 옷을 껴입은 거야?

나.′ 몇 시에 일어났길래 씻지도 않고 왔어?
다.′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이렇게 콧노래를 불러?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보면 '-길래'는 판정의문문에서는 쓰일 수 없고 오직 선행절에 의문사를 필요로 하는 설명의문문에서만 그 사용이 허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길래'가 의문문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행절에서 의문사와 공기해야 한다는 통사적 규칙이 있는 것이다(안주호 1998: 219). 이러한 '-길래'의 '의문사 수반 필수 제약'은 '-길래'의 통사적 제약을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다[148]. 이에 반해 정종수(2014: 282)에서는 '-길래'가 질문의 화행을 수행할 수 있다고 기술했는데, 본고에서 확인한 것처럼 '-길래'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서만 질문의 화행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길래'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위에서 예로 든 (35가)~(35다)의 예문처럼 판정의문문에서 '-길래'가 자연스럽게 발화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말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행동을 초래한 화자의 지각'이라는 '-길래'의 의미로 인한 것이다. 즉 이 의미에 따르면 화자 자신이 지각해서 그것을 근거로 의지를 가지고 한 행위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질문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장은 비문이 된다.

(36) 가. *동생이 우울해하길래 내가 위로해줬어?
나. *좀 피곤하길래 (내가) 회의를 빨리 끝냈어?

위 (36가)와 (36나)의 경우처럼 화자가 지각하거나 자각해서 후행절의 행동을 했으면서 그 이유를 재차 다른 사람에게 확인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어떤 행동을 한 이유는 그 행동을 한 주체가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통사적으로도 '-길래'가 가지는 의미상 후행절에는 반드시 1인칭 주

148) 이에 해당하는 선행연구에는 임은하(2002), 오경진(2003), 진정란(2004), 성기철(2007), 김지혜(2009ㄴ), 민진영(2011), 염재일(2012), 김미숙(2015), 권미숙(2017), 성진영(2017), 박상숙(2019) 등이 있다.

어가 자리해야 하는 제약이 존재하는데, 의문문의 경우 후행절의 주어는 2인칭이나 3인칭이 오게 된다.

(37) 가. 무서워서 {(너는)/*내가} 비행기 안 타?
나. 일이 있어서 {미나 씨가/*내가} 그냥 간 거야?

화자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짐작한 이유를 청자에게 질문하는 판정의문문에서는 (37가)와 (37나)처럼 후행절에 1인칭 주어가 오면 어색하다. 판정의문문에서는 청자에게 그 청자가 관련되거나 다른 사람이 관련된 것에 대한 화자가 짐작한 이유의 사실 여부나 청자의 의견을 질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판정의문문의 후행절 주어 인칭 제약은 '-길래' 평서문[1] 후행절의 1인칭 주어 필수 제약과는 상충되는 것이므로 '-길래'는 판정의문문에서 출현할 수 없는 것이다(안주호 1998: 218[149]).

그렇다면 화자 자신의 의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화자가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대해서 '-길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그 이유를 질문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38) 가. *네가 살이 쪘길래 운동하고 있어?
나. *여기가 유명한 관광지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위 예문에서 '(네가) 운동하고 있다'나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화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관계된 상황으로 화자가 인식하게 된 사실이다. (38가)와 (38나)의 문장에서 화자는 이 상황을 초래한 이유를 짐작해서 '-길래'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에도 후행절의 화자가 인식한 사실을 초래한 이유가 화자가 짐작한 내용이 맞는지를 묻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 이것은 '-길래'가 가지는 지각의 의미와 연관된 것으로 '-길래'가 판정의문문에서 사용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에 해당한다. 즉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한 지각이 이유

149) 안주호(1998: 218)에서는 '-길래'가 판정의문문에서 쓰이지 못하는 이유를 '-길래' 구문의 후행절이 나타내는 의미 때문이라고 기술했다. 즉 '-길래'는 화자의 행위를 일으킨 근거를 설명하기 때문에 후행절에 반드시 1인칭 주어가 와야 하는데, 의문문은 후행절의 주어가 청자이기 때문에 '-길래' 후행절의 주어 제약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제시한 이유는 의문사를 수반한 의문문에서 후행절의 주어가 역시 대부분 2·3인칭인데도 불구하고 '-길래'가 사용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

가 되면 그 지각을 한 주체자가 결과가 되는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150]. 그런데 '-길래'를 통해 화자가 인식한 사실에 대해 자신이 짐작한 이유를 묻는다고 해도, '-길래'에는 '화자가 지각한 것'이라는 의미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때 '-길래'의 지각의 의미가 발현되면 화자가 지각한 선행절의 이유가 후행절의 화자가 인식한 사실과 괴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화자가 지각한 내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거나 어떤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아래의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8) 가.′ *네가 살이 쪘길래 운동하고 있어?
(=내가 네가 살이 찐 것을 눈으로 보고 알아서 네가 운동하고 있어?)
나.′ *여기가 유명한 관광지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내가 여기가 유명한 관광지라는 것을 뉴스를 보고 알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위 두 예문은 '-길래'의 '지각'의 의미가 반영된 문장의 의미를 기술해 본 것인데, 앞서 지적한 것처럼 문맥적으로 아주 어색하다. 즉 화자가 상대방이 살이 쪘다는 것을 보고 인지해서 상대방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나 화자가 여기가 유명한 관광지인 것을 알게 되어 다른 사람이 많이 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인과관계의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네가 살이 쪘길래 (내가) 그 운동기구를 사 준 거야.'와 같이 '-길래'가 가지는 '지각'의 의미는 그것을 지각한 주체의 행동을 야기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길래'가 나타내는 '지각'의 의미적 특성은 2장에서도 지적된 바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했거나 그와 관련된 사태가 화자가 지각한 상황이 초래한 결과일 수는 없기 때문에 (38가)나 (38나)의 판정의문문에서도 '-길래'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길래'의 선행절에 의문사가 수반되면 아래 예문과 같이 '-길래'가 의문문에서 자연스럽게 인과 연결어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38) 가.″ 네가 몇 kg이나 살이 쪘길래 운동하고 있어?

150) 염재일(2012: 135)은 이에 대해 지각을 한 주체자가 그로 인한 행위를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나.″ 여기가 얼마나 유명한 관광지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위 예문들은 앞서 제시한 (38가), (38나)의 예문에 적절한 의문사를 선행절에 배치한 것인데 위와 같이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의문문에서 '-길래'의 선행절에 의문사가 위치하면 후행절을 초래한 이유를 화자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즉 화자가 '-길래'가 위치한 선행절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감각 경험을 통해 인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의문사로 인해 '-길래'의 지각 양태성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길래'는 지각의 의미가 사라지고 인과 연결어미로서의 의미 기능만이 남게 되어 후행절의 발생한 상황에 대한 이유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151].

이상의 논의를 통해 '-길래'가 의문문에서 사용되려면 반드시 의문사와 공기해야 하는 '의문사 수반 제약'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제약이 존재하는 이유는 '-길래'가 나타내는 지각의 양태적 의미로 인한 것이었다. 즉 '-길래'에 수반되는 의문사는 '-길래'가 가진 지각 및 자각의 의미를 소실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길래'는 의문문에서 의문사를 동반한 설명의문문에서만 그 사용이 허용된다.

## 2.2. 후행절의 미래 시제 불가 제약

'-길래'가 쓰인 의문문의 후행절에는 허용되지 않는 시제가 있다.

(39) 가. 그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온 금액이길래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숨은 사랑_소설, 정종명,1993)
나. 대체 몇 시에 일어났길래 지금 왔어?
(주제대화_학원강사와 고등학생)

위 예문의 후행절 상황의 시제를 보면, (39가)의 '그 정도밖에 안 되냐?'는

151) 이처럼 '-길래'가 설명의문문에서만 실현되는 서법 제약을 불러온 이유에 대해 박상숙(2019: 112-113)은 본고와 다른 논지를 전개했다. 즉 후행절에 다른 사람의 행위가 오게 되면 화자는 다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선행절에 의문사를 수반해서 이유를 질문할 수 밖에 없다고 한 것이다(박상숙 2019: 112-113).

현재, (39나)의 '지금 왔어?'는 과거 시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제시한 예문 (34)의 후행절의 상황 시제도 확인해 보면, (34가)에서는 '어델 가잔 말요?', (34나)에서는 '그런 거야?', 그리고 (34다)에서는 '못 외우고 있나?'로 모두 현재 시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길래' 의문문의 후행절에 미래 시제가 온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40) 가. 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2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기다렸어요?/*기다릴 거예요?/*기다리겠어요?}
나. 언제 고향에 돌아가길래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있어요?/예매했어요?/*예매할 거예요?/*예매하겠어요?}

(40가)와 (40나)의 예문을 통해 보면 후행절에 현재와 과거 시제가 오면 자연스럽지만 '-을 것이-'나 '-겠-'의 미래 시제가 오면 어색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길래' 의문문의 후행절에 현재와 과거 시제만이 허용되고 미래 시제는 올 수 없다는 제약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후행절의 시제 제약이 존재하는 이유는 앞서 제시한 (34), (39) 예문에서도 확인되듯이 '-길래' 의문문의 후행절에 화자가 지각한 사실이 오기 때문이다. '사실'이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므로 그와 관련된 시제는 당연히 과거나 현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래 시제는 '-길래' 의문문의 후행절에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더불어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길래' 의문문에서 나타나는 '후행절의 미래 시제 불가 제약'은 앞서 살펴봤던 '-길래' 평서문[1]에 적용되는 후행절의 시제 제약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이 발화시를 기준으로 화자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행위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길래' 평서문[1]에도 '-길래' 의문문과 동일하게 '후행절의 미래 시제 불가 제약'이 존재한다(임은하 2002: 87[152]).

## 2.3. '-길래'의 문법 표현 결합 제약

152) 임은하(2002: 87)에서는 '-길래'의 통사적 특성을 '-길래'가 문장에서 상대시제 해석을 받는 경우와 절대시제 해석을 받는 경우로 구분해 분석했는데, 전자가 '-길래' 평서문[1]에 해당하고 후자가 '-길래' 의문문과 '-길래' 평서문[2]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2002: 87)는 모든 '-길래' 구문에 동일한 후행절의 시제 제약이 적용된다면서 그것은 바로 후행절에 미래 시제가 올 수 없는 제약이라고 했다.

‘-길래’ 의문문에서도 ‘-길래’가 선행절에서 선어말어미와 결합해 쓰이는 경우가 확인된다.

(41) 가. 해저녁에 어디로 출타하시길래 이렇게 노면(路面)을 하게 되었습니까? (객주5_소설, 김주영, 1996)
나. 너 이사한테 뭐 어떻게 했길래 이사가 전화질을 다 하냐? (주제대화_연애에피소드)

(41가)와 (41나)의 ‘-길래’ 의문문에서처럼 ‘-길래’는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및 완료형 선어말어미인 ‘-시-’, 그리고 ‘-았/었/였-’과 자연스럽게 결합해 쓰인다. 하지만 ‘-길래’ 평서문[1]과 달리 ‘-길래’ 의문문에서는 ‘-길래’가 추측의 선어말어미인 ‘-겠-’과 결합해 쓰인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42) 가. 대체 누가 {될 것 같길래/될 듯하길래/*되겠길래/?될 거길래} 그렇게 흥분하고 그래?
나. 시험이 얼마나 {어려울 것 같길래/어려울 듯하길래/*어렵겠길래/*어려울 거길래} 이렇게 긴장했어?

위 예문 (42가)와 (42나)는 ‘-길래’와 추측을 나타내는 문법 표현들이나 선어말어미를 결합 시킨 것인데,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견된다. (42가)에서는 ‘-겠-’이 ‘-길래’와 결합해 쓰인 것이 유독 어색하게 느껴지고, ‘-을 것이-’는 ‘-길래’와 결합한 형태가 선행절에 허용되는 것도 같다. 하지만 (42나)에서는 ‘-겠-’과 ‘-을 것이-’가 ‘-길래’와 결합해 쓰여 통사적으로 어색하다. 이렇게 ‘-을 것이-’가 (42가)에서는 ‘-길래’와 결합이 가능하고 (42나)에서는 결합이 불가능한 것은 ‘-을 것이-’가 나타내는 의미 차이로 인한 것이다. 즉 장경희(1985: 128)에서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을’이 동사와 결합하면 ‘발생예정상(發生豫定相)’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는 곧 ‘이 행동이 예정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42가)의 ‘대체 누가 될 거길래 그렇게 흥분하고 그래?’의 문장에서 ‘될 거길래’가 나타내는 의미는 추측이 아니라 ‘예정’에 해당한다. 동사 ‘되다’ 뒤에 온 ‘-을 것이-’의 우언적 구성에서 ‘-을’이 ‘이미 예정됨’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체 누가 될 거길래 그렇게 흥분하고 그래?’는 ‘거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유력한 후보자가 있거나 내정자가 있는 상황'에서 화자가 그 사람을 몰라 청자에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길래' 앞에 예정의 의미로 '-을 것이-'가 사용되면 문장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43) 대체 뭘 할 거길래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 난리야?

하지만 (42나)의 '시험이 얼마나 어려울 거길래 이렇게 긴장했어?'에서는 '-을 것이-'가 형용사 뒤에 쓰여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데 문장이 부자연스럽다. 이런 점을 근거로 보면 의문문에서 '예정'의 양태적 의미를 가지는 '-을 것이-'는 '-길래'와 결합이 가능하지만, 추측의 '-을 것이-'는 '-길래'와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42가)와 (42나)의 '-길래' 의문문에서 '-길래'가 추측을 의미하는 '-겠-'이나 '-을 것이-'와 결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길래'의 선행절이 후행절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의문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즉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의문사로 인해 '-길래'가 가지는 '지각'의 양태적 의미가 사라졌다고는 하나 '-겠-'이나 '-을 것이-'가 가지는 양태적 의미로 인해 '-길래'와 결합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앞서 박진호(2011: 18)의 주장을 들어 논의했던 것처럼, '-겠-'은 화자가 직접 현장에서 감각 기관을 통해 인지한 것을 근거로 하는 추측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화자가 후행절의 상황을 초래한 이유를 몰라서 질문하면서 그 이유를 청자가 직접 지각한 것을 근거로 추측한 것이라 가정하고 '-겠-'을 사용해 질문하는 것이 어색하다는 것이다. 이는 '-을 것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다. 즉 '-을 것이-'는 화자가 이미 알고 있던 일반적 지식을 근거로 하는 추측에 주로 쓰인다(박진호 2011: 18). 따라서 '-을 것이-'가 '-길래' 앞에 쓰이면, 화자가 청자에게 이유를 몰라서 질문하면서 후행절의 이유가 되는 청자의 추측이 청자가 내재화시킨 지식에 근거한 것이란 가정 하에 질문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비논리적이면서 비현실적이다. 청자의 추측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질문하는 화자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을 것 같-'나 '-을 듯하-'는 근거의 유무에 관계 없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생각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의미 기능을 하기도 한다[153]. 그러므로 이 표현을 사용해 이유를 질문하게 되면 단순히 상대방의 추측이나 생각을 묻는

다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길래'와 결합해 '-길래' 의문문의 선행절에 사용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근거로 보면, '-길래'는 의문문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겠-'과 '-을 것이-'와 결합할 수 없는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기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을 것이-'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추측'이나 '예정된 미래'라는 의미도 가지지만 동사와 결합해 1인칭 주어와 공기하면 의지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을 것이-'가 '의지'라는 의미를 드러낼 때에는 '-길래' 의문문에서 '-길래'와 결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4) 가. 내가 언제 반드시 담배를 {*끊을 거길래/*끊겠길래} 건강해질 거라고 한 거야?
나. 내가 꼭 누구랑 {*결혼할 거길래/*결혼하겠길래} 결혼선물을 준비했어?

하지만 예문 (44)를 통해 확인되듯이 '-길래' 의문문의 선행절에서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44가)의 선행절에서 '-길래' 앞에 온 문장은 '내가 언제 반드시 담배를 끊을 거예요?'나 '내가 언제 반드시 담배를 끊겠어요?'가 된다. 그런데 이 문장들처럼 화자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통사적 환경에 의문사가 쓰이게 되면 화자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의미가 되어 어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길래'가 쓰인 의문문을 포함한 모든 의문문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통사적 제약으로 보인다. 그래서 의문사를 제거한 '내가 반드시 담배를 끊을 거예요?'나 '내가 반드시 담배를 끊겠어요?'의 문장도 역시 비문법적인 것이다. 이는 화자 자신만이 마음속으로 품을 수 있는 의지라는 내적 상황을 상대방에게 질문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문

153) '-을 것 같다' 류가 나타내는 의미에 대해 사전류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2005: 773-775)』에서는 '-을 것 같다'가 어떤 일에 대해 막연하게 추측을 할 때 사용되며,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완곡하게 표현할 때도 쓰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어 교육 문법 자료편(2016: 550-553)』에서도 앞선 사전과 유사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을 것 같다'가 주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막연한 추측이나 개인적 의견에 의거한 추측을 의미한다고 한 것이다. 또한 '-을 듯하다'에 대해서는 두 사전 모두 '-을 듯하다'가 '-을 것 같다'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지만 다른 점이라면 '-을 듯하다'로 표현되는 내용에서는 이에 대한 화자의 불확실한 태도가 반영되는 것이라고 했다(『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2005: 786-787, 『한국어 교육 문법 자료편』, 2016: 556-557).

문의 통사적 특성에 의해 '-길래' 의문문의 선행절에서도 화자의 의지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길래' 의문문에서 '-길래'는 의지를 나타내는 문법 표현과 결합할 수 없다.

한편 '-길래'는 의문문에서 '-길래' 평서문[1]과 같이 '-더-'와 결합해 쓰이지 못한다.

(45) 가. 어제 누가 {왔길래/*오더길래} 학교가 그렇게 시끄러웠던 거야?
나. 어제 무슨 일이 {있길래/*있더길래} 학교에 안 온 거야?

위 예문 (45)를 통해 '-길래' 앞에 회상의 선어말어미 '-더-'가 위치하면 비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지적했던 바대로 '-더-' 또한 '-길래'와 마찬가지로 '화자가 직접 지각한 것'이란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45)의 질문들에서는 '학교가 시끄러웠다', '(네가) 학교에 안 왔다'의 발생한 사건이나 상대방이 한 행동에 대해서 화자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이유를 몰라서 질문하고 있다. 이때 선행절에 '-더-'가 쓰이게 되면 '-더-'의 양태적 의미로 인해 질문을 하는 화자가 지각한 것이 후행절의 상황에 대한 이유가 된다. 그렇지만 염재일(2012: 135)의 주장처럼 일반적으로 지각을 한 주체자가 그것을 근거로 후행절의 행위를 하게 되므로, 화자와 무관한 상황이나 타인이 행한 상황을 초래한 이유가 화자가 직접 지각한 상황이 될 수 없다. 한편, 또 다른 측면에서 '-더-'가 '-길래' 의문문의 선행절에 출현할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 즉 화자가 지각한 사실에 대해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몰라서 질문하면서, 그 이유가 '화자 자신이 직접 감각 기관을 통해 알게 된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질문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유가 되는 자신이 직접 지각한 상황을 몰라서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의문문에서 '-길래'가 '-더-'와 결합할 수 없는 이유는 '-길래' 평서문[1]에서 '-길래'가 '-더-'와 결합해 쓰일 수 없는 이유와 차이가 있다. 즉 '-길래' 평서문[1]에서는 '-길래'와 '-더-'가 가지는 '지각'이라는 양태적 의미의 중첩으로 인해 '-더-'가 '-길래'와는 결합해 쓰일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의문문에서는 앞서 논의했던 바대로, 선행절의 의문사로 인해 '-길래'의 지각 양태성이 소실된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더-'의 양태적 의미만이 존재하므로 그와 관계된 특성으로 인해 의문문에서 '-길래'는 '-더-'와 결합할 수 없

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의문문에서 '-길래'는 '-더-'가 가지는 '화자의 직접 지각'이라는 양태적 의미로 인해 '-더'와 결합할 수 없는 제약을 가진다.

여기까지 '-길래' 의문문의 선행절에서 '-길래'가 문법 표현과 결합할 때 어떤 제약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길래'에는 추측을 나타내는 '-겠-', '-을 것이-' 결합 불가 제약이 있다.

둘째, '-길래'에는 회상의 선어말어미 '-더-', 의지를 나타내는 문법 표현 결합 불가 제약이 있다.

끝으로 '-길래'가 의문문에서 위와 같은 결합 제약을 가지는 것에 대해 '-길래' 평서문[1]과 마찬가지로 그 이유를 '-길래'와 문법 표현들 간의 양태적 의미 측면에서 살펴본 것은 선행연구와 차이가 드러나는 본고만의 논의 방식이라는 점을 밝힌다.

## 2.4. 제약의 소멸

여기에서는 의미와 연관된 제약이 소멸된 경우를 선행절과 후행절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2.4.1. 선행절에서의 주어와 서술어 제약의 소멸

아래 (46)의 예문들은 모두 '-길래'가 쓰인 의문문인데 선행절에 온 주어에서 '-길래' 평서문[1]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46) 가. 내가 도대체 뭐라구 했길래 정씨는 아까부터 난리요?
(황석영, 어둠의 자식들_소설, 1980)

나. 뭘 했길래 니놈은 멀쩡해?
(랍스터를 먹는 시간_소설, ㈜창비, 2003)

다. 뭘 하는 여자들이길래 안면도 없던 나를 이렇게 혼낼까?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_수필, 김영희, 1992)

라. 얼마나 안 좋길래 안 온거야?

(일상대화_식사중회사원3인)

위 예문에서 (46나)~(46라)의 선행절에 '너는'의 2인칭 주어, '저 여자들은'과 '~씨는'의 3인칭 주어가 온 것 이외에도 예문 (46가)에서는 '내가'의 1인칭 주어가 왔다. 이는 곧 선행절에 모든 인칭이 주어로 자유롭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은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에 주로 2·3인칭 주어가 오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위와 같이 '-길래' 의문문에서 선행절에 적용되는 주어 제약이 없는 것은 바로 선행절에서 '-길래'가 가지는 의미로 인한 것이다. 즉 '-길래' 의문문은 화자가 후행절의 지각한 사실에 대해서 의품을 품고 선행절에서 이유를 질문한다는 의미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길래' 의문문의 의미는 '-길래'가 의문문에서 실현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 '선행절의 의문사 수반 제약'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해 '-길래'가 가지는 '화자의 직접 지각'이라는 양태적 의미로 인해 '-길래'가 판정의문문에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양태적 의미를 소실시키기 위해서 '-길래'는 반드시 의문사와 같이 쓰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길래' 의문문의 선행절에 의문사가 위치하게 되면 이때 '-길래'는 화자가 감각 경험을 통해 인지하게 된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길래'의 '지각'이라는 양태적 의미가 의문사로 인해 소실되어 그에 따라 선행절에 2·3인칭 주어가 주로 오게 되는 주어 경향도 사라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길래'가 화자의 '자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즉 '-길래' 평서문[1]에서 '-길래'가 '자각'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선행절에 '1인칭 주어 필수 제약'이 존재했지만, '-길래' 의문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선행절에 화자만이 자각할 수 있는 감정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서술어가 왔다고 하더라도 앞에 위치한 의문사로 인해 '-길래'의 '자각'의 의미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1인칭 주어 필수 제약'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47) 가. 영미가 얼마나 기분이 상했길래 밥도 안 먹고 그냥 간 거야?

나. (너는) 누구한테 그렇게 화가 났길래 얼굴이 그 모양이야?

따라서 위 예문 (47가)와 (47나)처럼 화자만이 스스로 감지할 수 있는 '기분이 상하다'나 '화가 나다' 등의 서술어가 선행절에 왔을 때에도 '영미가'나 '너는'의 3인칭 주어나 2인칭 주어가 올 수 있다. 그러므로 '-길래' 의문문의 선행절에는 주어 인칭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박재연(2009: 124)은 본고와 유사한 논지를 전개한 바 있다. 즉 '-길래' 평서문[1]에서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제약되는 이유를 '-길래'가 가지는 '지각'이라는 의미 때문이라고 하면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 쓰인 '-길래'에서는 '지각'의 증거 양태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선행절의 '1인칭 주어 불가 제약'이 사라진다고 주장한 것이다(박재연 2009: 124).

그러나 정인아(2010: 84-85)는 박재연(2009: 124)과 달리 '-길래'가 나타나는 의문문에서도 '-길래'를 통해 '지각'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즉 지각한 사건이 평서문과 같이 선행절에 나타나는데, 다만 '증거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복잡하게 시점이 이동되면서 비로소 노출되므로 그 '증거성'이 약화된 듯하다고 한 것이다(정인아 2010: 85).

(48) 가. (네가) 뭐라고 했길래 그렇게 혼이 난 거야?
(=네가 무슨 말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것을 듣고 너를 혼을 내서 네가 그렇게 혼이 난 거야?)
나. (학생들이) 무슨 시험을 보길래 이렇게 준비가 대단해요?
(=무슨 시험을 보는데 학생들(공동 관찰자)이 그 사실을 알아서(인지해서) 이렇게 준비를 대단하게 해요?)
(정인아, 2010: 85, 예문 (120), (121) 참고)

위 (48가)와 (48나)는 정인아(2010: 85)가 든 예문을 조금 변형시켜 예로 든 것이다. 정인아(2010: 85)에 따르면 (48가)는 '네가 나는 모르는 내용을 말한 것을 선생님이 듣고 알게 되어서 선생님이 너를 혼을 낸 거야?'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따라서 정인아(2010)는 선생님이 지각을 하고 지각을 한 선생님이 혼을 낸 것이므로, 지각의 주체가 화자가 아니라 선생님으로 바뀌긴 했으나 '-길래'의 '지각'이라는 '증거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예문 (48나)에서도 확인된다. 즉 지각의 주체가 '학생들'이라는 공동 관찰자인 것이다. 정인아(2010: 85)의 이러한 주장은 염재일(2012: 141)의 논의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즉 염재일(2012: 141)은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의 의미가 '화자

의 행동'이 아니라 '지각 주체자의 행동'이라면서 지각을 한 주체라면 1인칭 외의 주어도 후행절에 허용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에 따라 후행절에는 반드시 지각을 한 주체의 행동이 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예문 (48가)와 (48나)의 후행절의 서술어에는 모두 지각 주체자의 행위가 오지 않았다. 즉 (48가)의 '혼이 나다'는 지각 주체자인 선생님의 행동이 아니고 청자가 당한 일이며, (48나)의 '대단하다'는 형용사로 역시 행동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정인아(2010: 85)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154]. 그러므로 '-길래' 의문문의 선행절에 적용되는 주어 제약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길래' 앞에 의문사가 자리함으로써 화자가 후행절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모른다는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길래'가 가지는 '지각'이란 양태적 의미와 그에 관련된 주어 제약도 소실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길래' 의문문 선행절의 '의문사 수반 제약'으로 인한 '-길래'의 '지각'이나 '자각'의 양태적 의미 소실은 그로 인해 선행절 서술어에 적용되던 제약까지 사라지게 하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앞서 '-길래' 평서문[1]의 통사적 특성을 다루면서 선행절에는 지각이나 순간적인 자각이 가능한 서술어만이 올 수 있다는 제약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의문문에서는 이 제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9) 가. 내가 어제 뭐라고 <u>했길래</u> 영우가 저렇게 화를 내?
나. 넌 대체 얼마나 <u>불행하길래</u> 자살까지 하려고 한 거야?

위 예문 (49가)는 화자가 자신에게 화를 내는 영우를 보고 그 이유를 궁금해하며 상대방에게 하는 질문이고, (49나)는 친구가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유를 직접 당사자에게 질문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49가)와 (49나)의 선행절에 온 서술어는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 서술어 제약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즉 먼저 (49가)에서 선행절의 내용은 화자가 자신이 한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영우를 화나게 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때 이 선행절의 화자의 '말을 했다'라는 행동은 후행절의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사건 당시 화자가 의도적으로 한 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49가)의

154) 또한 정인아(2010: 85)의 주장은 이후에 논의되겠지만, '-길래' 의문문의 후행절에 적용되는 서술어 제약이 없다는 점도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절의 서술어는 '-길래' 평서문[1] 선행절의 '화자의 비의지(非意志) 서술어 필수 제약'을 어긴 경우에 해당한다. 화자가 의지를 가지고 한 행위는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므로 화자가 다시 지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49가)에서 확인되듯이 의문문에서는 화자의 의지적 행동을 나타내는 서술어가 선행절에서 '-길래'와 결합하여 통사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쓰이고 있다. 또한 (49나)에서는 선행절의 서술어가 '불행하다'라는 발화 당사자가 즉각적으로 자각하기 어려운 심리 형용사인데도 2인칭 주어와 공기하여 자연스럽게 선행절에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 서술어에 나타나던 제약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앞서 지적한 바대로 '-길래' 앞에 의문사가 쓰이면서 '-길래'의 '지각' 및 '자각'의 의미가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선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이나 서술어 제약까지 그 구속력을 잃어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근거로 '-길래' 의문문의 선행절에는 '-길래' 평서문[1]과 달리 특정한 서술어 제약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길래' 의문문의 선행절에는 적용되는 특정한 주어 제약과 서술어 제약이 없음을 확인했다(안주호 1998: 215[155]). 그에 대해 본고에서 밝혀낸 이유는 선행절의 '의문사 수반 필수 제약'이 '-길래'가 가지는 '지각' 및 '자각'의 의미를 소멸시키기 때문이었다.

### 2.4.2. 후행절에서의 주어와 서술어 제약의 소멸

앞서 제시한 (46) 예문에서 후행절의 주어를 살펴보면, (46가)에서는 '정씨는'의 3인칭 주어가 그리고 (46나)에서는 '니놈은'의 2인칭 주어가 쓰인 것이 확인된다. 또한 (46다)와 (46라)에서는 후행절에 '저 여자들은'과 '~씨는'의 3인칭 주어가 쓰였다. 이와 같은 후행절의 주어 인칭 양상은 후행절에 2·3인칭 주어가 와야 한다는 주어 제약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이는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 1인칭 주어 필수 제약'과는 상반된 주어 제약이다. 게다가 (46나)~(46라)에서는 선·후행절의 주어가 각각 2인칭, 3인칭, 3인칭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후행절의 주어 일치 양상은 '-길래' 평서

155) 안주호(1998: 215)에서는 '-길래'가 의문문에서 쓰이거나 추측의 근거를 나타내면 선·후행절에 적용되는 주어 제약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안주호(1998: 215)는 다만 '-길래' 의문문과 '-길래' 평서문[2]의 선·후행절에 나타나는 주어 제약이 없다는 사실만을 지적했을 뿐, 이들이 '-길래' 평서문[1]과 달리 주어 제약을 가지는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

문[1]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던 현상이다. '-길래' 평서문[1]은 선행절에 주로 2·3인칭 주어가 위치하고 후행절에는 반드시 1인칭 주어를 필요로 하므로 오히려 선·후행절의 주어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단 예외적으로 화자가 자신의 행동을 지각했거나 기분이나 상태를 자각했을 경우에는 선·후행절의 주어가 1인칭으로 동일하게 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46) 예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길래' 의문문의 후행절에 2인칭이나 3인칭 주어만이 쓰인 것은 '-길래' 의문문의 후행절이 나타내는 의미로 인한 것이다. 즉 '-길래' 의문문의 후행절에는 화자가 지각한 사실이 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앞서 (46)에서 제시된 예문들의 후행절을 확인해 보면, '정씨는 아까부터 난리다', '니놈은 멀쩡하다', '그 여자들이 나를 이렇게 혼낸다', '~씨가 안 왔다'로 모두 화자가 지각한 사실이다. 따라서 화자가 지각한 사실이 후행절에 오기 때문에 후행절에는 '-길래' 평서문[1]과 반대로 2인칭이나 3인칭 주어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이러한 '-길래' 의문문의 후행절이 가지는 의미는 후행절에 어떤 품사가 오더라도 서술어로 쓰일 수 있도록 한다. 즉 (46) 예문에서도 바로 확인되는 것처럼 '난리다', '멀쩡하다', '혼내다', '안 오다' 등의 지정사 '이다'와 결합한 명사나 형용사 및 동사가 자유롭게 후행절 서술어로 쓰인 것이다. 이는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에는 '화자의 의지적 행동 서술어 필수 제약'이 있는 것과 달리, '-길래' 의문문의 후행절 서술어에는 적용되는 제약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채연강 1985: 96[156]).

이와 같은 '화자가 지각한 사실'이라는 후행절의 의미로 인해 '-길래' 의문문은 후행절에 주로 2·3인칭 주어가 오는 경향을 가진다. 이를 제약이 아니라 경향으로 칭한 것은 후행절에 1인칭 주어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50) 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가 너희 집에 있는 거야?
나. 술에 취해서 무슨 짓을 했길래 (내가) 이렇게 피곤한거야?

위에서 지적했듯이 '-길래' 의문문에서 후행절에 2·3인칭 주어가 온다는 것은 예외가 없는 절대적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위 (50가)와 (50나)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후행절에 1인칭 주어인 '내가'가 쓰였는데도 이 문장들은 비문법적이지 않다. 이처럼 '-길래' 의문문의 후행절에 1인칭 주어가 가능한 것도 '-길

156) 채연강(1985: 96)에서는 '-길래'가 쓰인 평서문에서는 후행절에 1인칭 주어의 행동이 와야 하는 반면에, 의문문에서는 후행절에 적용되는 주어 및 서술어 제약이 없다고 했다.

래’ 의문문의 후행절이 가지는 ‘화자가 지각한 사실’이라는 의미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화자가 지각한 사실’이라는 의미만 노출된다면 ‘-길래’ 평서문[1]과 마찬가지로 1인칭 주어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예문 (50가)에서 후행절의 상황은 화자가 일어나 보니 친구 집에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이므로 화자가 지각한 사실은 자신이 친구 집에서 잔 것이 된다. 하지만 자신이 친구 집에서 잔 이유를 화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 무슨 일이 있었길래’라고 선행절에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50나)의 경우도 화자는 자신이 지금 너무 피곤한데 어제 술에 취해서 자신이 이렇게 피곤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청자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50가)나 (50나)의 경우처럼 자신이 한 행위나 느끼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초래한 이유를 화자 본인이 모를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을 일으킨 동기나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상태를 유발한 이유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화자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에 화자의 행위가 왔는데도 1인칭 주어가 허용된 경우에 화자가 지각한 이 상황은 ‘예상 외의 화자의 통제를 넘어 선 경우’라고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논점에 의하면 (50가)의 ‘화자가 남의 집에서 잔 사실’도 화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이유도 당연히 화자는 알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선행절에서 의문사를 수반한 ‘-길래’ 절을 통해 그 이유를 질문할 수 있다. 예문 (50나)에서는 후행절에 ‘피곤하다’라는 상태가 기술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태는 누차 강조한 것처럼 화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길래’ 의문문의 후행절에 화자가 자각한 사실이 왔기 때문에 1인칭 주어가 온 것이다. 따라서 화자 이외의 대상에 대해 지각한 사실 뿐만 아니라 화자가 지각한 예상 밖의 자신의 행위나 자각한 기분이나 상태를 초래한 이유를 알지 못할 때에도 ‘-길래’ 의문문을 통해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행절에 1인칭 주어가 올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길래’ 평서문[1]에서 ‘-길래’가 자각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적용되던 주어 인칭 제약이 ‘-길래’ 구문의 후행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화자만이 감지할 수 있는 기분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서술어가 와도 1인칭 이외의 주어가 쓰일 수 있다.

(51) 가: 밤에 뭐 했길래 (네가) 그렇게 피곤해해?
나: 과제 하느라고 밤 샜어.

(51)′ 가: 아, 진짜 피곤해.
나: 밤에 또 뭐 했길래 (네가) 피곤해?

위 (51)의 예문에서 ‘가’가 지각한 사실은 ‘상대방이 피곤해한다’는 것이다. 이는 화자가 보고 알게 된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길래’ 의문문의 후행절에 쓰여도 자연스럽다. 이와 달리 예문 (51)′에서 화자인 ‘나’가 지각한 사실은 ‘상대방이 피곤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화자가 지각한 사실일 수 없다. 왜냐하면 ‘피곤하다’라는 상태는 그것을 느끼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길래’ 의문문의 후행절에서 자연스럽게 화자가 지각한 사실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가능한 이유는 화자인 ‘나’가 ‘가’가 “진짜 피곤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가’가 피곤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타인으로부터 들은 후에 알게 된 상황을 ‘-길래’를 통해 이유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성립될 것이다.

(52) 네가 {*피곤하길래/피곤하다길래} 빨리 끝내자고 했어.

예문 (52)를 보면 ‘-길래’가 ‘피곤하다’와 직접 결합하지 못하고 간접화법 표현과 결속한 형태인 ‘피곤하다길래’로 실현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바로 ‘-길래’가 가지는 ‘지각’의 의미와 ‘-길래’ 의문문의 후행절에 위치하는 ‘화자가 지각한 사실’에서의 그 ‘지각’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2장에서 밝힌 바 있듯이 ‘-길래’는 ‘-길래’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화자가 직접적으로 지각 혹은 자각한 것’이나 간혹은 ‘화자가 추리한 것’이라는 정보의 경로를 나타내는 증거 표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 등의 간접 지각은 직접 ‘-길래’로 증거 획득 과정을 나타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 (52)의 예문처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면 간접화법과 결속해 ‘타인으로부터 들은 것’이라는 지각의 과정을 밝혀야만 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길래’ 의문문 후행절의 ‘화자가 지각한 사실’의 ‘지각’은 2장에서도 지적했듯이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 포괄적인 인지의 과정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길래’가 가지는 화자의 직접적인 ‘지각’의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간접 지각을 포함한 모든 지각의 과정을 통해서 인지한 것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51)′에서 ‘나’의 화자가 ‘가’가 “진짜 피곤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가’가 ‘피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밤에 또 뭐 했길래 (네가) 피

곤하다고 해?'가 아니라 바로 '밤에 또 뭐 했길래 (네가) 피곤해?'로 질문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화자가 청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지각한 사실은 '청자가 피곤하다'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길래' 의문문의 후행절에 오는 '화자가 지각한 사실'은 '-길래'와 달리 화자가 직접 지각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허용되기 때문에 특정한 서술어 제약이나 주어 인칭 제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문 (51)′의 경우와 같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용언이 오더라도 그것이 전해 듣는 등의 과정을 통해 지각한 것이라면 특정 문법 표현과 결합하지 않고 '-길래' 의문문의 후행절에 허용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근거로 '-길래' 의문문의 후행절에는 주어 제약과 서술어 제약이 없다고 할 수 있다(채연강 1985: 96[157]).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길래' 의문문의 선행절과 후행절에는 특정한 주어 제약과 서술어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선·후행절에 존재하던 주어 및 서술어 제약이 '-길래' 의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게 된 이유를 살펴본 결과, 선행절의 '-길래'의 의미와 후행절의 의미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다. 즉 선행절에 존재하던 1인칭 주어 필수 제약과 지각 및 자각 가능 서술어 제약이 사라진 것은 '-길래'가 가진 지각의 양태적 의미의 소실로 인한 것이었다. 또한 후행절의 1인칭 주어 필수 제약과 화자의 의지적 행동 서술어 제약이 없어진 것은 후행절에 화자가 지각한 사실이 오기 때문이었다. 다만 '-길래' 의문문은 후행절에 화자가 지각한 사실이 오기 때문에 후행절에는 주로 2·3인칭 주어가 빈도 높게 출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했다.

여기까지 '-길래' 의문문의 통사적 특징을 반드시 의문사를 동반해야 하는 이유, 후행절의 시제 제약, 선행절에서의 '-길래'와 문법 표현과의 결합 제약, 그리고 선·후행절에서의 주어 및 서술어 제약의 존재 및 적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157) '-길래' 의문문의 후행절의 주어 제약에 대해 서경숙(2013: 503-505)에서도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서경숙(2013: 503)에 따르면 '-길래' 의문문에서는 후행절에 화자 자신이 지각한 사건이 오기 때문에 주로 2·3인칭 주어가 쓰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후행절에 1인칭이 주어로 오면, 화자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유를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용법이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후행절에 1인칭 주어가 잘 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서경숙, 2013:503).

첫째, 선행절에 의문사 수반 필수 제약이 있다.
둘째, 후행절에 미래 시제 불가 제약이 있다
셋째, '-길래'에는 '-더-', 추측을 나타내는 '-을 것이-' 및 '-겠-', 그리고 의지를 나타내는 문법 표현과 결합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넷째, 선행절과 후행절에 주어 인칭 제약이 없다. 그런데 후행절에는 주로 2·3인칭 주어가 오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선행절과 후행절에 서술어 제약이 없다.

## 3. '-길래' 평서문[2]의 통사적 특징

이 절에서는 화자가 어떤 사건을 지각한 후에 그와 같은 사건을 일으킨 이유를 추측하는 '-길래' 평서문[2]에서 나타나는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3.1. 후행절의 '-겠지' 수반 필수 제약

이 절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추측의 양태 선어말어미 '-겠-' 뒤에 '-지(요)'라는 화자의 '기지정보'와 청자의 '기지가정'이라는 양태적 의미[158]를 나타내는 종결어미가 결합하여 '-겠지'라는 형태로 '-길래' 평서문[2]의 후행절에 항상 쓰인다는 사실에 대해서이다. 이에 대해 안주호(1998: 223)에서는 '-길래'가 '화자가 추측한 근거'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후행절에 반드시 추측의 선어말어미 '-겠-'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했다[159]. 하지만 염재일(2012: 149)은 '-길래'가 쓰인 추측의 평서문에서 후행절의 추측에 필요한 표현은 '-겠-'이 아니라 '-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160]. 그 근거로 '-지'가 단독으로 쓰이면 추측의 양

158) 박재연(2006: 200-201)에 따르면 양태소 '-지'에는 두 가지 측면의 양태적 의미가 존재한다고 했다. 그 첫째는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라는 '이미 앎'의 양태적 의미이며, 두 번째는 화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청자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기지가정'의 양태적 의미를 말한다(박재연 2006: 200-201). 본고에서는 그 논의를 받아들여 전자를 '기지정보'로 그리고 후자는 박재연(2006: 201)의 논의와 동일하게 '기지가정'이라고 기술했다.
159) 이와 관련해 안주호(1998: 223)가 제시한 예문들에 모두 '-겠지'의 형태로 추측의 '-길래'가 쓰이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안주호(1998: 223)는 이에 관해 화자가 직접 추측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후행절에서 선어말어미 '-겠-'에 한해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다고 했다. 또한 김지혜(2009ㄴ: 147)에서도 화자가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한 이유를 추측할 때 후행절에 '-겠-'이 사용된다고 했다.
160) 이러한 '-지'의 양태 의미에 대해 성기철(2007: 232-234)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성기철

태 의미가 보이지 않지만, 선행절의 '-길래'와 공기하여 쓰이면 '-길래'가 가진 '이유'라는 의미로 인해 후행절의 '-지'가 추측의 의미를 띄게 되는 것 같다는 견해를 제시했다(염재일, 2012: 149[161]). 이에 본고에서는 선행연구 간의 이처럼 상반된 주장에 대해 과연 어떤 주장이 더 타당한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려고 한다. 즉 '-길래' 평서문[2]에서 '-길래'의 '화자가 추측하는 이유'라는 의미에서 '추측'을 표현하고 있는 문법 표현이 '-겠-'인 것인지 아니면 '-지'인지 그도 아니라면 '-겠지'라는 두 양태 요소의 연쇄 형태인지를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53) ㉠: 내가 만든 김밥 현우는 안 먹더라.
㉡: 뭘 먼저 먹었길래 {안 먹었겠지/*안 먹었겠다/안 먹었지.}

위 (53)의 예문은 청자의 이야기를 듣고 인식하게 된 사실에 대한 이유를 화자가 추측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후행절의 '-겠지'에서 '-지'를 삭제한 문장은 비문이 되는 반면에, '-겠-'을 삭제한 문장은 비문은 아니지만 '-겠지'와는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문을 통해 논의하자면, "뭘 먼저 먹었길래 안 먹었겠지"는 '일반적으로 먹어서 배가 부르면 안 먹으니까 현우도 그래서 안 먹었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알고 있는 생활 상식 및 지식 등을 근

---

(2007: 232-234)에 의하면 '-지'가 '확인'이나 '약속' 그리고 '명령'의 화행을 수행할 때 '완곡성'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지'의 '표현의 완곡성 혹은 완화성'은 '확실하지 않은 의견이나 판단을 표현하는 것'이란 의미 기능으로도 보인다고 한 것이다.

161) 그러나 본고에서는 염재일(2012: 149)의 주장처럼 '-지'에서 추측의 의미가 읽힌다면 그것은 화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청자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청자에게 확인한다는 '-지'의 양태 의미로 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즉 청자도 알고 있을 것이란 '가정'이 추측과 연관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 염재일(2012: 149)이 제시한 예문을 살펴보면, '-지'가 정말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1) 그 상자가 넘어졌지.
(1)′ 그 상자가 넘어졌겠다.

(염재일, 2012: 149, 예문 (45) 인용)

염재일(2012: 149)은 (1)번의 예문을 들면서 이 문장에서는 '-지'에서 추측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예로 든 (1)′의 예문에서는 '-겠-'의 추정의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그가 제기한 추측의 '-길래' 구문에서의 화자의 추측을 표현하는 문법요소가 '-겠-'이 아니라 '-지'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즉 문법소 자체에서 드러나지 않는 추정의 의미가 그가 주장한 것처럼 '-길래'라는 다른 문법소와 호응해서 그 의미를 띄게 된다는 것보다는 '-겠-'의 경우처럼 문법소 본연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쪽이 더 타당해 보이기 때문이다.

거로 한 추측의 의미로 보인다. 그런데 “뭘 먼저 먹었길래 안 먹었지”에서는 추측의 의미보다 현우가 안 먹은 이유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강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후행절에 쓰인 양태소 ‘-지’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 아래 예문처럼 추측의 화행에서 개연성이 높을 때 자주 사용되는 ‘아마’라는 부사를 문장에 배치해 보았다.

(53) ㉡′ 아마 뭘 먼저 먹었길래 {안 먹었겠지/*안 먹었지}

위 (53) ㉡′의 예문에서 ‘-겠지’가 쓰인 문장은 자연스럽지만 ‘-지’가 쓰인 문장은 어색하다. 이는 ‘-겠지’와 달리 ‘-지’가 나타내는 의미가 ‘아마’의 의미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지’는 추측의 표현이 아님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역시 ‘-겠-’과 ‘-지’가 나타내는 양태적 의미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즉 ‘-겠-’은 추측을 나타내는 양태 선어말어미이고 ‘-지’는 청자의 ‘기지가정’을 전제로 한 화자의 ‘기지정보’를 의미하는 종결어미[162]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의 양태적 의미에 대해서 2장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지’가 가지는 화자의 ‘기지정보’라는 양태적 의미인 ‘나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알다’는 ‘이 정보가 맞다’라는 화자의 확신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에는 추측이 아니라 이 정보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라는 양태적 의미가 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자가 ‘-길래’를 통해 지각한 사실에 대한 이유를 추측할 때 후행절에 양태 종결어미인 ‘-지’만이 요구된다는 염재일(2012: 149)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덧붙이자면, 앞서 2장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길래’ 평서문[2]에서 후행절에 ‘-지’가 사용되는 이유는 ‘-지’가 추측을 나타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음’의 양태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즉 ‘-길래’ 평서문[2]에서 이루어지는 화자의 추측은 새로 알게 된 정보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던 기존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미 일어난 상황을 알게 된 후에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이유를 추측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162) 종결어미 ‘-지’의 양태적 의미를 화자의 정보에 대한 인지의 정도 측면에서 ‘이미 앎’으로 논의한 학자는 장경희(1985: 110-117), 박재연(2006: 200-207) 등이 있다. 그런데 장경희(1985: 116)에서는 양태 종결어미 ‘-지’에는 ‘이미 앎’이란 의미 외에도 문맥상 ‘짐작’이나 ‘의견’이라는 의미도 있음을 덧붙여 밝혔다.

그럼 '-길래' 평서문[2]에서 선어말어미 '-겠-'이 단독적으로 사용되어 추측의 의미 기능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논의를 진행해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송재목(2007: 6)의 지적처럼 추측의 선어말어미 '-겠-'이 '증거성'에서 감각 경험을 통해 인지한 것을 근거로 하여 화자가 추측을 하는 '추리[163]'의 '간접증거표지'에 속하기 때문이다.

(54) 가: 아동 심리학 수업 신청했어? 학점 잘 나온대.
나: 아, 그래? 그럼 그 과목 신청하는 학생들 많겠다.
↳화자가 감각 기관을 통해 인지한 것을 근거로 하는 추측

위 예문 (54)는 '나'가 친구인 '가'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내용을 근거로 '그 과목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겠다'라고 추측하고 있는 내용이다. 즉 '-겠-'을 통해 추측되는 내용은 화자가 들은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바탕으로 추리한 내용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서 제시한 예문 (53)에서 후행절의 '-겠-' 앞에 자리한 내용인 '안 먹었다'는 화자가 들어서 알게 된 내용 그 자체이기 때문에 '-겠-'과 직접적으로 결합할 수 없다.

같은 관점에서 장경희(1985: 47-49)는 이러한 '-겠-'의 특성을 '결과 짐작'이라는 양태 의미로 설명한 바 있다. 장경희(1985: 49)에 따르면 양태 선어말어미 '-겠-'은 사건 간의 인과 관계에서 '결과'를 '짐작'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55) 가: 오늘도 지각했어.
나: 그럼 (네가 오늘도 지각해서) 선생님이 화를 내셨겠다.
↳이유 ↳결과를 추측

위 (55) 예문의 대화를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오늘도 지각했다'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근거로 화자는 '선생님이 화를 내셨겠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 즉 장경희(1985: 49)가 지적한 '-겠-'의 '결과 짐작'이란 화자가 감각 경험한 것을 근거로 삼아 '-겠-'으로 그 결과를 추측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

163) 박진호(2011: 4)에서는 증거성의 관점에서 추리와 추론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즉 추리는 지각 증거를 근거로 삼아 이루어진 것이고, 추론은 일반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라는 것이다.

은 대화는 어색하게 느껴진다.

(55)′ 가: 오늘 선생님이 화를 내셨어.
나: *네가 오늘도 지각했겠다.

위의 대화가 어색한 이유는 '나'의 화자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것을 근거로 선생님이 화를 내신 이유를 추측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길래' 평서문[2]에서 화자가 추측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초래한 이유이기 때문에 '-겠-'은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의 예문을 보자.

(56) 가: 그 아르바이트생 오늘도 안 왔어?
나: 어디가 많이 아프겠지. 그래서 못 왔겠지.

예문 (56)에서 '나'의 "어디가 많이 아프겠지"라는 대답을 보면 '-겠지' 앞에 온 '어디가 많이 아프다'는 결과가 아니라 이유이므로 이 문장에서 '-겠지'는 이유를 추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진행된 논의에 따르면 '-겠-'은 결과만을 추측하는 양태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문장은 성립될 수 없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근거로 '-겠-'이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결과 짐작'의 의미를 가지지만, (56)과 같이 다른 문법 형태와 결합해 쓰일 때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란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장경희(1985: 49)는 '-겠-'이 양태 종결어미 '-지'와 결속하면 '짐작'의 의미만을 나타낸다고 지적한 바 있다[164]. 따라서 (56)의 예문처럼 어떤 사실에 대한 이유를 추측할 때 '-겠지'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56)의 "그래서 못 왔겠지"의 문장에서도 화자가 추측하는 것은 '못 왔다'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래서'의 이유가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길래'를 통해 '화자가 추측하는 이유'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길래' 평서문[2]에서 후행절에 '-겠지'가 쓰여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근거가 된다. 즉 "그래서 못 왔겠지"라는 문장에서 '-겠지'가 '그래서'로 표현되는 이유를 추측한 것처럼 '-길래' 평서문[2]에서도 선행절의 '-길래'로 표현되는 이유를 '-겠지'를 통해 추측할 수 있는 것이

164) 장경희(1985: 49)에서는 양태 선어말어미 '-겠-'이 양태 종결어미 '-지'와 연쇄되어 쓰이면 '결과 짐작'이 아니라 '짐작'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겠-'은 '짐작'과 '결과 짐작'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나타낸다고 했다.

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길래' 평서문[2]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추측은 화자가 알고 있던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보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를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이외에도 '추측'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겠-'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겠-'은 '-지'와 결합해 쓰이면 '결과 추측'이 아니라 '추측'의 의미만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길래' 평서문[2]의 후행절에는 '-겠지'의 연쇄형이 수반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이를 본고에서는 '-길래' 평서문[2]에 적용되는 통사적 제약으로 제시하는 바다.

그런데 하나 더 논의해야 할 것은 '-길래' 절이 화자가 추측하는 이유를 전달할 때에는 안주호(1998: 223)의 지적대로 후행절에서 화자의 추측을 선어말어미 '-겠-'으로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래에 제시된 예문처럼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을 것이다'와 '-을 것 같다' 등을 '-겠-' 대신 후행절에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53) ㉡ ″뭘 먼저 먹었길래 {안 먹었겠지/*안 먹었을 거지/*안 먹었을 것 같지}

먼저 '-을 것이-'가 '-겠-' 대신 '-길래' 평서문[2]의 후행절에서 추측의 표현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을 것이-'가 가지는 추론성으로 인한 것이다. 앞서 '-길래' 평서문[1]에서 나타나는 '-길래'의 결합 제약을 살펴보면서 '-길래'가 '-을 것이-'와 결합하지 못하는 이유를 박진호(2011: 17-18)의 견해로 논의한 바 있는데 후행절에 쓰이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다. 즉 '-을 것이-'가 일반적 사실을 근거로 삼는 추론에 주로 사용되는 특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을 것이-'의 양태적 의미는 뒤에 오는 '-지'의 양태적 의미와 겹치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지'는 화자의 감각 경로를 거쳐 새로 인지하게 된 정보가 아니라 감각 경험을 포함한 여러 통로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라는 양태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을 것이-'가 가지는 '일반적인 사실을 근거로 삼은 추측'에서 이 '일반적인 사실'이란 바로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즉 '기지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의 이와 같은 양태적 의미와 의미가 중복되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의 경제성이란 원리에 따라 같은 양태적 의미를 가지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와 '-을 것이-'의 추측 표현은 결합해 쓰일 수 없게 된다.

또한 ‘-을 것 같-’이나 ‘-을 듯하-’의 추측의 표현도 ‘-지’와 결합할 수 없는 것이 확인되는데, 그 이유는 ‘-을 것이-’와 달리 이들이 가지는 양태적 의미와 ‘-지’가 나타내는 의미의 충돌로 인한 것이다.

(57) 가. ㉠: 어제 왜 안 왔어?
㉡: 뭐 그냥 {재미없을 것 같아서/재미없을 듯해서} 안 갔어요.
나. ㉠: 이 옷 어때?
㉡: 좀 {비싼 것 같아요/비싼 듯해요}.

위 (57가) 예문에서 ‘-을 것 같-’ 혹은 ‘-을 듯하-’는 화자의 근거 없는 추측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57나)의 경우처럼 이 두 문법 표현은 추측이 아니라 화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기도 한다. 즉 ‘-을 것 같-’이나 ‘-을 듯하-’는 공통적으로 추측의 근거 유무와 관계 없이 추측이 가능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추측으로 분류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특히 ‘-을 것 같다’는 개연성이라는 인식 양태성 이외에도 다른 화용적 기능을 가지는데 그것은 바로 화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완곡히 표현한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을 것 같다’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화용적 기능을 확장 시켜 화자 자신의 기분이나 상태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165].

이에 반해 ‘-지’의 양태적 의미인 ‘기지정보’는 화자가 여러 방식으로 획득한 자신에게 내재화시킨 지식에 해당하므로 정보에 대한 화자의 ‘확실하고 당연하다’라는 주관적 판단이 녹아들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개연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이나 의견이라는 ‘-을 것 같-’ 류의 추측의 표현과는 어울려 쓰이기 어렵다. ‘-을 것 같-’ 류와 ‘-지’의 두 문법 표현이 나타내는 양태적 의미가 ‘근거 없는 추측’과 ‘개연성 높은 확신’으로 서로 상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와 ‘-을 것이-’ 및 ‘-을 것 같-’ 류가 가지는 양태적 의미의 중복 및 충돌로 인해 추측의 ‘-길래’ 평서문에서는 그 추측을 선어말어미 ‘-겠-’에 한정해 표현하는 것이라 결론지을 수 있겠다.

여기까지의 논의를 근거로 보면, ‘-길래’가 쓰인 평서문에서 화자가 어떤 사

165) (1) 저 좀 피곤한 것 같아요(자신의 상태를 완곡하게 표현).
(2) 오늘은 좀 우울한 것 같아요(자신의 기분을 완곡하게 표현).

건에 대한 이유를 추측할 때는 후행절에 반드시 '-겠지'의 결합형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추측의 표현을 '-겠-'이 단독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겠-'이 가지는 간접 증거성 혹은 결과를 추측하는 양태적 의미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만으로 추측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에는 추측의 의미가 아니라 화자의 전달하는 정보에 대한 확신이라는 양태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두 양태적 요소가 결합해 쓰이면 '-겠-'의 '화자의 감각 경험을 근거로 한 결과 추측'의 의미와 '-지'의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라는 의미가 융합되어 '-겠-'은 추측의 의미를 '-지'는 그 추측에 대한 화자의 확신의 태도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길래' 평서문[2]에서 '-길래'와 호응해 '화자의 확신이 담지된 주관적인 추측'이라는 의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두 문법 표현이 결속해 쓰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겠지'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서 2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장경희(1985: 133), 박재연(2006: 270~271), 정인아(2010: 95-97)등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는 '-길래' 평서문[2]의 후행절에 오는 '-겠지'가 나타내는 의미에 대해서만 논의를 진행했을 뿐, 왜 두 양태적 요소가 결합해 사용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반해 본고에서는 여러 과정의 논의를 거쳐 평서문에서 '-길래'를 통해 사건에 대해 화자가 추측하는 이유를 표현할 때에는 두 양태적 요소가 함께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 그것을 '-길래' 평서문[2]가 가지는 제약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길래' 평서문[2]의 후행절 '-겠지' 수반 필수 제약에 대한 본고의 이와 같은 논점은 선행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의가 있다 하겠다.

### 3.2. 후행절의 미래 시제 불가 제약

앞서 '-길래' 평서문[1]과 '-길래' 의문문의 후행절에 미래 시제가 올 수 없다는 제약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아래 예문 (58)에서처럼 '-길래'로 화자가 추측한 이유를 나타내는 평서문에서도 후행절에 현재와 과거 시제만이 허용된다.

(58) 가. 무슨 사정이 있길래 급하게 갔겠지.
나. 잘못한 걸 알길래 얼굴도 못 내미는 거겠지.

예문 (58)의 내용은 화자가 후행절의 발생한 사건을 인지하고 그와 같은 사건을 초래한 이유를 추측하는 것이다. 그런데 화자의 이유 추측은 안주호(1998: 215)의 지적처럼 모두 발화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겠지'의 결합형 앞에 온 화자가 인식한 상황의 시제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는데, (58가)의 '급하게 갔다'는 과거이고 (58나)의 '못 내밀다'는 현재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길래' 평서문[2]의 후행절에 오는 상황의 시제가 과거와 현재로 제한된다는 가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문 (58)의 '-겠지' 앞에 미래를 의미하는 문법 표현들을 결합 시켜 보았다.

(58) 가.′ 무슨 사정이 있길래 급하게 {가겠지/갔겠지/*갈 거겠지/*가겠겠지.}

나.′ 잘못한 걸 알길래 얼굴도 {못 내미는 거겠지/못 내밀었겠지/*못 내밀 거겠지/*못 내밀겠겠지[166].}

그 결과 위에서 든 예문에서 확인되듯이 후행절의 '-겠지' 앞에 현재나 과거 시제가 쓰이면 자연스럽지만, 미래를 나타내는 '-을 것이-'나 '-겠-'이 오면 문장이 어색해졌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길래' 평서문[2]도 '-길래' 평서문[1]이나 '-길래' 의문문과 마찬가지로 후행절에 과거에 발생했거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만이 올 수 있는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후행절에 '미래 시제 불가 제약'이 있는 것이다(임은하 2002: 89). '-길래' 평서문[2]에서 확인되는 이와 같은 후행절의 시제 제약도 역시 '-길래' 평서문[2]의 후행절의 의미로 인한 것이다. 다시 말해 '-길래' 평서문[2]는 화자가 지각한 사실에 대해 그 이유를 추측한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때 후행절에 오는 화자가 지각한 사실은 이미 일어났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므로 후행절에는 그와 같은 상황

166) (58가′)와 (58나′)의 후행절 서술어로 제시한 '가겠겠지'와 '못 내밀겠겠지'에서 앞뒤로 쓰인 '-겠-'의 의미는 각기 다른 것임을 밝힌다. 즉 앞서 허용 외(2005: 281-283) 등을 들어 기술한 것처럼 '-겠-'은 문맥에 따라 여러 의미를 드러낸다. 구체적으로 허용 외(2005: 281-282)에서는 '-겠-'이 가장 주요하게 수행하는 의미 기능을 '추측'으로 보았는데, 그 외에도 예정된 미래를 나타낼 때 '-겠-'이 사용된다고 한 바 있다. 또한 문법서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2005: 31』에서도 '-겠-'이 화자의 지각을 토대로 한 추측이나 확실히 발생할 미래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가겠겠지'나 '못 내밀겠겠지'에서 앞에 온 '-겠-'은 미래 시제를 그리고 '-지' 앞에 쓰인 '-겠-'은 추측을 나타내어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겠-'을 연달아 제시한 것이다.

시가 반영된 시제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길래' 평서문[1]과 '-길래' 의문문과 마찬가지로 후행절이 나타내는 의미로 인해 '-길래' 평서문[2]도 후행절에 미래 시제를 허용하지 않는 시제 제약을 가지게 된 것이다. 즉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은 화자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나 과거의 행위를 나타내고 '-길래' 의문문과 '-길래' 평서문[2]의 후행절은 화자가 지각한 현재나 과거의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3.3. '-길래'의 문법 표현 결합 제약

앞서 '-길래' 평서문[1]과 '-길래' 의문문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면서 '-길래'가 선행절에서 대부분의 선어말어미와 잘 어울려 쓰인다는 것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59) 가. 잘못했길래 못 들어오는 거겠지.

(안주호, 1998:215, 예문 (61) 인용)

나. 이 시간에 주무시길래 전화를 안 받으시겠지.

다. 할 수 있겠길래 한다고 했겠지.

(59)의 예문들을 보면 '-길래'가 '-길래' 평서문[2]에서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 완료형 선어말어미 '-았/었/였-', 그리고 추측의 선어말어미 '-겠-'과 자연스럽게 결합해 쓰이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길래'는 '-길래' 평서문[2]에서도 대부분의 선어말어미와 잘 어울려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길래' 평서문[2]에서도 '-길래'가 선어말어미 '-더-'와 결합해 쓰인 형태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길래'와 '-더-'의 결합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화자가 추측한 이유를 나타내는 '-길래' 앞에 '-더-'를 배치해 보았는데 아래 예문과 같이 비문이 되었다.

(60) 가. 유명한 사람이 {왔길래/*오더길래} 사람들이 다 모였겠지.

나. {맛있길래/*맛있더길래} 또 주문했겠지.

예문 (60가)와 (60나)에서처럼 '-길래'가 '-더-'와 결합할 수 없는 이유는 역

시 앞서 ‘-길래’ 평서문[1]과 ‘-길래’ 의문문에서의 ‘-길래’의 결합 제약에서도 논의되었던 것처럼, ‘-더-’가 가지는 화자의 ‘직접 지각’이라는 양태적 의미 때문이다. 화자가 어떤 상황을 인식한 후에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추측하는 ‘-길래’ 평서문[2]에서 추측하는 이유가 화자 자신이 지각한 상황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더-’가 ‘-길래’와 결합해 쓰이게 되면 그 결합형이 나타내는 이유는 ‘화자 자신의 감각 행위를 통해 인지한 상황’이라는 의미를 드러내게 된다. 따라서 이미 알고 있는 이유를 다시 추측한다는 상황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길래’ 평서문[2]에서도 ‘-길래’는 ‘-더-’와 결합해 쓰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더-’와 ‘-길래’가 같은 양태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길래’ 평서문[1]에서는 바로 이 ‘직접 지각’이라는 양태적 의미의 중첩으로 인해 ‘-길래’가 ‘-더-’와 결합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길래’ 의문문에서는 선행절의 의문사로 인해 ‘-길래’의 양태적 의미가 사라지면서 ‘-더-’가 나타내는 양태적 의미로 인해 두 문법 형태가 결합하지 못하는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같은 평서문인 ‘-길래’ 평서문[2]에서도 ‘-길래’의 양태적 의미가 남아 있다면 ‘-더-’와 결합할 수 없는 이유를 의미의 중첩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예로 든 (60가)의 ‘유명한 사람이 왔길래 사람들이 다 모였겠지’에서는 선행절에 온 ‘-길래’에서 화자의 ‘지각’이라는 의미가 읽히지 않는다. 즉 ‘유명한 사람들이 왔다’라는 선행절의 상황은 ‘화자가 그 당시 눈으로 보고 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길래’ 평서문[2]에서 ‘-길래’가 지각의 양태적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2장에서 논의된 것처럼 후행절에 온 ‘-겠지’라는 추측 표현으로 인한 것이었다.

(60) 가.′ [[[유명한 사람이 왔길래][사람들이 다 모였]겠]지]

‘-길래’ 평서문[1]과 달리 ‘-길래’ 평서문[2]에서 ‘-길래’가 지각 및 자각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위 예문처럼 후행절의 ‘-겠-’의 의미 범주 안에 후행절은 물론이고 선행절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안주호 1998: 217). 즉 선행절이 추정의 ‘-겠-’의 의미 범주 안에 들어가면서 화자의 직접 지각이나 자각이라는 ‘-길래’의 양태적 의미가 사라지고, 결국 인과 연결어미로서의 의미만이 남아 ‘화자가 추측하는 이유’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근거로 하면 '-길래' 평서문[2]에서 '-더-'가 '-길래'와 결합할 수 없는 이유는 두 문법 표현이 가지는 양태적 의미의 중첩 때문이 아니라 그에 앞서 지적한 것처럼 '-더-'가 가지는 양태적 의미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더-'가 나타내는 '화자의 직접 지각'이라는 양태적 의미는 '화자가 감각 행위를 통해 알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화자가 정확한 이유를 몰라서 추측하는 이유로 쓰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길래' 평서문[2]에서 '-길래'는 '-더-' 결합 불가 제약을 가진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길래'의 이 제약이 앞서 살펴본 '-길래' 평서문[1]과 '-길래' 의문문에서도 적용되는 제약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길래'의 '-더-' 결합 불가 제약이 '-길래'가 출현하는 모든 문장에 적용되는 공통된 제약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길래' 평서문[2]에서 '-길래'는 선어말어미 '-겠-' 이외에도 추측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들과 결합해 쓰인다.

(61) 가. 또 {안 올 것 같길래/ 안 올 듯하길래/*안 올 거길래} 미리 전화했겠지.
나. 이야기를 하면 네가 기분이 {나쁠 것 같길래/나쁠 듯하길래/*나쁠 거길래} 숨겼겠지.

(61)의 예문들을 보면 '-길래'와 자연스럽게 결합해 쓰이는 추측의 표현도 있고 그렇지 못한 표현도 있음이 확인된다. 즉 '-길래'가 '-을 것 같-'이나 '-을 듯하-'와 결합해 쓰이면 자연스럽지만, '-을 것이-'와 결합한 형태는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처럼 유독 '-을 것이-'가 '-길래'와 결합할 수 없는 이유는 후행절의 '-겠지'에 쓰인 '-지'의 양태적 의미로 인한 것이다. 앞절에서 '-길래' 평서문[2]에서 '-겠-'과 '-지'의 두 양태 요소가 같이 쓰여야만 하는 이유를 분석하면서 논의했듯이, '-지'는 화자가 다양한 과정을 통해 입수한 청자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기지정보'라는 의미를 가진다(장경희 1985: 112, 박재연 2006: 200-201). 또한 '-을 것이-'는 현장에서의 감각 경험으로 인해 알게 된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알고 있던 일반적 지식을 근거로 하는 추론에 주로 사용되는 문법 표현이다(박진호 2011: 17-18). 따라서 이 두 문법 형태는 '기지정보'라는 공통적인 양태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61) 나.′ [[[*이야기를 하면 네가 기분이 나쁠 거길래][숨겼]겠]지]

그런데 위처럼 (61나)의 예문에서 '-지'가 나타내는 의미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분석해 보면, '-겠-'의 의미 영역 안에 있는 선행절과 후행절뿐만 아니라 선행절과 후행절을 포함하고 있는 '-겠-'의 의미 영역까지 '-지'의 의미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을 것이-'가 가지는 '기지정보를 근거로 한 추측'의 의미가 '-겠지'가 나타내는 '기지정보를 근거로 한 화자의 확신이 담긴 추측'이라는 의미 안에 포함되면서 '기지정보를 근거로 한 추측'이라는 양태적 의미가 반복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후행절의 '-겠지' 앞에서 '-을 거길래'로 이유를 나타내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을 것 같-'이나 '-을 듯하-'는 앞에서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근거의 유무에 상관없이 추측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화자의 완곡한 의사 표현이라는 의미 기능까지 가진다. 이와 같은 의미는 후행절의 '-겠지'가 나타내는 양태적 의미와 겹치거나 상충되지 않아 '-길래' 평서문[2]에서 '-길래'와 자연스럽게 어울려 쓰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을 것이-'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만 '-길래'와 결합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로 쓰일 때에도 '-길래'와 결합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이다. 앞서 '-길래' 의문문에서 '-을 것이-'가 예정의 의미로 쓰일 때는 '-길래'와 결합해 쓰이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62) 가. 내가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할 거길래/?성공하겠길래} 축하한다고 했겠지.
나. 집에 가서 {먹을 거길래/먹겠길래} 샀겠지.

위 예문에서 '-길래'가 '-을 것이-'나 '-겠-'과 결합한 형태가 어떤 것은 문장에서 자연스럽고 어떤 것은 어색하다. 그 이유는 '-을 것이-'와 '-겠-'이 문맥상 나타내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62가)에서는 주어가 1인칭인데 '-을 것이-'가 동사에 결합해서 서술어로 쓰여 동작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겠-'에게도 해당되는데 '-겠-' 또한 동사와 결합해서 1인칭 주어와 공기하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167]. 하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축하한다고 말하는 이유를 '내가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할 것이다' 혹은

167) 앞서 각주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2005: 772)』, 『한국어교육문법자료편(2016: 575)』, 허용 외(2005: 282) 등에서 기술하고 있는 '-을 것이-'와 '-겠-'에 대한 의미를 제시한 바 있다. 요약하자면 이 책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을 것이-'나 '-겠-'이 동사와 결합한 형태가 1인칭 주어의 서술어로 쓰이면 '의지'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다.

‘내가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하겠다’로 추측하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의지는 화자 자신만이 도모할 수 있는 내적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화자가 분명하게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문장은 후행절의 상황을 초래한 이유를 몰라서 그 이유를 추측하는 것인데, 그 이유에 화자가 잘 알고 있는 자신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은 극도로 비논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길래’ 평서문[2]에서도 ‘-길래’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과는 결합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하겠길래 축하한다고 했겠지’의 문장에서는 ‘-겠길래’가 허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이때 ‘-겠길래’는 화자의 의지가 아니라 추측의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선행절에 쓰인 화자의 의지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반드시’라는 부사를 제거해 보면 ‘-겠-’의 추측의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들 수 있다. 정리하자면 ‘-겠-’이 동사와 결합한 형태가 1인칭 주어의 서술어로 쓰인다고 해서 ‘-길래’와 결합해 쓰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즉 ‘-겠-’이 화자의 의지를 나타낼 때에는 ‘-길래’와 결합해 쓰일 수 없지만, 추측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앞서 예문 (59)를 통해서도 확인한 것처럼 ‘-길래’와 자연스럽게 결합해 쓰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62나)는 선행절에 ‘-을 것이-’와 ‘-겠-’이 ‘-길래’와 결합해 쓰여 비문이 되지는 않았지만 두 문법 형태의 의미는 문맥상 다르게 나타난다. 즉 ‘집에 가서 먹을 거길래 샀겠지’에서 ‘-을 것이-’는 ‘예정된 미래’를 의미하고, ‘집에 가서 먹겠길래 샀겠지’에서 ‘-겠-’의 의미는 ‘추측’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앞서 ‘-길래’ 의문문에서 나타나는 ‘-길래’의 결합 제약을 살펴보면서, ‘-을 것이-’의 ‘-을’이 ‘예정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포함된 ‘-을 것이-’라는 우언적 구성도 ‘예정된 미래’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장경희 1985: 128). 따라서 (62나)의 선행절인 ‘집에 가서 먹을 거길래’는 ‘곧 집에 가서 먹을 것이다’라는 곧 발생할 가까운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을 것이-’가 ‘예정된 미래’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길래’와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 진행된 논의를 통해 본고에서는 ‘-길래’ 평서문[2]의 선행절에 적용되는 결합 제약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즉 ‘-길래’ 평서문[2]에서 ‘-길래’는 ‘-더-’와 추측의 ‘-을 것이-’, 그리고 의지 표현과는 결합해 쓰일 수 없다.

### 3.4. 제약의 소멸

### 3.4.1. 선행절에서의 주어와 서술어 제약의 소멸

아래 (63가)~(63마)의 예문들은 모두 평서문이면서 후행절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길래'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63) 가. 내가 부족하길래 선생님이 꾸중하시겠지.
(안주호, 1998:215, 예문 (58) 인용)
나. 날더러 그만 돈을 달랄 만한 사람이길래 달라는 게**지(거겠지)**
(허웅, 1995: 810)
다. 뭔가 걸리는 일이 있길래 (네가) 전화했겠지.
라. (수현이가) 원하는 대로 됐길래 기분이 좋겠지.
마. 농구를 잘하길래 농구선수겠지.

위 (63)의 예문들은 같은 평서문이지만 앞서 살펴봤던 '-길래' 평서문[1]과는 다른 통사적 특성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먼저 각 예문들의 선행절의 주어가 '내가'의 1인칭, '그 사람'의 3인칭, '네가'의 2인칭, '수현이가'의 3인칭, '그 사람'의 3인칭으로 특별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절의 주어 인칭 양상은 같은 문형에 속하는 '-길래' 평서문[1]과는 다르다. 즉 '-길래' 평서문[1]에서는 선행절에 보통 2인칭이나 3인칭 주어가 출현하는 주어 인칭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길래' 평서문[2]는 위 예문(63)에서 확인했듯이 선행절에 2·3인칭 주어가 주로 오는 경향이 없다. 이처럼 선행절에 나타나는 주어의 양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길래'가 가지는 '지각'이라는 의미의 존재 여부로 인한 것이다. 즉 '-길래' 평서문[1]에서는 '-길래'가 나타내는 지각의 의미로 인해 선행절에 주로 2인칭이나 3인칭 주어가 오지만, '-길래' 평서문[2]에서는 후행절의 '-겠지'의 영향으로 '-길래'가 나타내던 '지각'의 의미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예문 (63)에서 제시된 문장들의 선행절에서 '화자가 직접 감각 기관을 거쳐 알게 된 것'이라는 '지각'의 의미가 읽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길래'의 지각의 의미가 소멸되면서 그로 인해 선행절의 2·3인칭 주어 경향도 없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길래' 평서문[2]에서 나타나는 '-길래'의 '지각'의 양태적 의미 소

멸 현상은 '-길래'가 자각의 의미를 드러낼 때에도 적용된다.

(64) 가. 반장이 피곤하길래 일찍 갔겠지.
나. 그 친구가 기억이 안 나길래 모른다고 했겠지.

위 예문 (64가)의 '-길래' 앞에 온 '피곤하다'라는 심리 형용사는 사실 발화 당사자만이 느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인칭 주어와만 공기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즉 '-길래'가 '화자가 자각한 상황'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선행절에 '1인칭 주어 필수 제약'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반장이'라는 3인칭 주어가 쓰였는데도 어색하지 않다. 이는 후행절의 '반장이 일찍 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화자가 그 이유를 추측했기 때문이다. 즉 선행절의 '-길래'가 후행절의 화자가 지각한 사건의 이유가 되는 '화자의 직접 자각'이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추측하는 이유'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에서 '자각'의 의미가 사라지고 '추측'의 의미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도 '-길래'가 결합된 선행절이 후행절에 온 추측의 선어말어미 '-겠-'의 의미 범주 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길래'가 나타내던 '화자의 직접 자각'이라는 의미가 희석되고, 추측의 의미가 더해져 '-길래' 평서문[2]에서 '-길래'는 '화자가 추측하는 이유'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길래'의 '화자의 직접적인 자각'이라는 의미의 소실은 그와 관련된 주어 제약도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위 예문 (64가)처럼 '-길래' 앞에 '피곤하다'라는 화자가 자각해야 하는 상태가 왔는데도 3인칭 주어가 허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예문 (64나)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다. 즉 '-길래' 앞에 온 '기억이 안 나다'라는 인식 상태도 발화 당사자만이 자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행절의 '-겠-'으로 인해 '-길래'의 자각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친구가'처럼 3인칭 주어가 와도 이 문장은 자연스럽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길래' 평서문[2]의 선행절에는 특정한 주어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안주호 1998: 214). 그런데 그 이유는 '-길래'가 나타내던 지각 및 자각의 의미 소실로 인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예문 (63)의 선행절에 온 서술어를 보면, 다양한 품사가 자유롭게 쓰이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63가)와 (63다)에는 '부족하다'와 '있다'의 형용사가, (63나)에는 '사람'의 명사가, (63라)와 (63마)에는 '되다'와 '잘하다'의 동사가 선행절의 서술어로 왔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길래'

평서문²의 선행절에 오는 서술어에도 특정한 품사 제약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65) 가. (내가) 그때 많이 좋아하길래 먼저 고백했겠지.
나.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불행하길래 헤어졌겠지.

위 예문 (65가)의 선행절에 온 '좋아하다'라는 서술어는 '-길래' 평서문²에서는 통사적으로 어색함 없이 사용되었지만 앞서 살펴본 '-길래' 평서문¹에서는 선행절에 올 수 없는 서술어에 해당한다. 즉 '좋아하다'라는 심리동사는 화자가 알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길래' 평서문¹의 선행절에 적용되는 '화자의 비의지 서술어 필수 제약'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길래' 평서문²의 선행절에는 허용된다. 이와 같이 '-길래 평서문¹의 선행절에는 허용되지 않던 서술어가 '-길래' 평서문²에서는 허용되는 이유는 앞서 여러 번 지적된 것처럼 '-길래'의 지각의 의미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아주 흡사한 경우가 (65나)에서도 바로 확인되는데, '불행하다'라는 화자가 순각적으로 자각하기 힘든 심리 형용사도 '-길래' 평서문¹과 달리 '-길래' 평서문²의 선행절에는 올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도 역시 '-길래'에서 나타나던 자각의 의미가 사라진 것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길래'가 의미하던 '지각' 및 '자각'의 의미가 소멸되면서 그로 인해 선행절의 서술어에 적용되던 '지각 및 순간적인 자각 가능 제약'도 사라진 것이다. 그러므로 '-길래' 평서문²의 선행절에 오는 서술어에도 주어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특정한 제약이 없다.

### 3.4.2. 후행절에서의 주어와 서술어 제약의 소멸

앞서 제시한 예문 (63)에서 후행절의 주어를 보면 (63가), (63나)에서는 '선생님이'와 '그 사람이'의 3인칭 주어가 온 것이 확인된다. 또한 (63다)에서는 '네가'의 2인칭 주어가, 그리고 (63라), (63마)에서는 '수현이가'와 '그 사람이'의 3인칭 주어가 왔는데, 이를 통해 (63)에서 제시된 '-길래' 평서문²의 후행절에 1인칭 이외의 주어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63나)~(63마)의 선·후행절의 주어가 3인칭, 2인칭, 3인칭, 3인칭으로 동일하다. 이와 같은 선·후행절의 주어 일치 양상은 같은 문장 유형에 속하는 '-길래' 평서문¹에서는 잘 찾

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길래' 평서문[1]에서는 선행절에 주로 2인칭이나 3인칭 주어가 오며, 후행절에는 1인칭 주어가 와야 한다는 주어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길래' 평서문[2]의 선행절에는 인칭 제약 없이 모든 주어가 위치하며, 후행절에는 앞서 예문 (63)을 통해 확인했듯이 2인칭이나 3인칭 주어가 온다. 따라서 '-길래' 평서문[1]과 '-길래' 평서문[2]의 후행절에 나타나는 주어 양상은 서로 상반된다. 이처럼 '-길래' 평서문[1]과 차이를 드러내는 '-길래' 평서문[2]의 주어 양상은 오히려 '-길래' 의문문과 흡사한 측면이 있다. 그 이유는 '-길래' 평서문[2]도 '-길래' 의문문과 동일하게 화자가 지각한 사실이 후행절에 오기 때문이다. 이는 예문을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즉 (63가)~(63마)의 후행절에 온 '선생님이 꾸중하시다', '(그 사람이) 달라고 하다', '(네가) 전화했다', '(수현이가) 기분이 좋다', '(그 사람이) 농구선수이다'는 화자가 지각한 사실인 것이다.

한편 이때 일반적으로 화자가 지각하게 되는 대상은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므로 후행절에 2인칭이나 3인칭 주어가 오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인칭 제약이 수반되는 이유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서경숙(2013: 503[168])의 지적처럼 화자가 추측하는 이유의 결과가 되는 상황이 후행절에 오기 때문이다. 즉 이때 화자가 추측하는 이유는 화자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화자가 알지 못하는 화자 이외의 상황에 대한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후행절에는 2인칭이나 3인칭 주어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이는 '-길래' 의문문의 후행절에 2·3인칭 주어가 주로 나타나는 경향과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즉 의문문에서도 일상적으로 화자 자신으로 인한 상황이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외부적인 상황에 대한 이유를 질문하기 때문에 후행절에 주로 1인칭 이외의 주어가 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길래' 평서문[2]에서 드물게 1인칭 주어가 허용되기도 한다.

(66) 가. ㉠: 너 어제 술값 다 네가 낸 거 알아?
㉡: 뭐? 취해서 또 누구 꼬임에 넘어갔길래 내가 냈겠지.
나. ㉠: 너 아침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어?
㉡: 내가? 글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길래 짜증이 났겠지.

168) 서경숙(2013: 503)에서는 '추측'의 '-길래' 평서문에서 후행절에 1인칭 주어가 잘 올 수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후행절에 1인칭 주어가 오면 화자가 감각 기관을 거쳐 인지하게 된 것을 다시 추측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서경숙 2013: 503).

위 두 예문에서 화자가 친구의 말을 듣고 알게 된 것은 자신이 어제 모든 술값을 냈다는 것과 아침에 짜증을 낸 사실이다. 그 후에 자신이 술값을 낸 이유와 짜증이 난 이유를 추측해서 '-길래' 선행절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길래' 평서문[2]는 화자가 어떤 사실을 지각한 후에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이유를 추측하는 의미 구조를 가진다. 그런데 (66가)와 같이 화자가 자신이 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한 이유를 다시 추측한다는 것은 어색하다. 왜냐하면 화자 자신이 한 행위의 이유는 화자인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추측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행위를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서야 알았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즉 화자가 술값을 낸 행동이 화자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자가 의도하지 않은 예상 밖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도 당연히 알 수 없으므로 (66가)처럼 '어제 술에 취해서 또 누군가 자신에게 술값을 내라고 하는 말에 넘어갔을 것이다'라고 이유를 추측한 것이다. 이는 (66나)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짜증이 나다'라는 화자 자신의 상태를 초래한 이유는 그 상태를 느끼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이유를 다시 당사자가 추측한다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66나) 예문의 경우처럼 미처 그 사실을 몰랐다가 타인의 말을 듣고 알게 된 경우에는 그때 자신이 그렇게 짜증이 났던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지각하게 된 예상 밖의 자신의 행위나 감정이나 상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에는 '-길래'를 통해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후행절에 1인칭 주어가 허용된다. 이와 같이 후행절에 1인칭 주어가 허용되는 상황은 앞서 살펴본 '-길래' 의문문의 경우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 이유로 '-길래' 평서문[2]와 '-길래' 의문문의 후행절이 가지는 공통점을 꼽을 수 있는데, 두 문형 모두 후행절에 화자가 지각하게 된 사실이 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길래' 평서문[2]의 후행절에도 선행절과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주어 제약이 없다(안주호 1998: 214). 물론 후행절에 1인칭 주어보다 2인칭이나 3인칭 주어가 자주 오는 것은 인정되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길래' 평서문[2]의 후행절 서술어에 어떤 제약이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63가~63마)의 후행절에 출현한 서술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꾸중하시다', '달라고 하다', '전화하다'의 동사와 '기분이 좋다'의 형용사, 그리고 '농구선수'의 명사가 후행절의 서술어로 쓰인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길

래’ 평서문[2]의 후행절에는 ‘-길래’ 평서문[1]과 달리 특정한 서술어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런데 이처럼 같은 문장 유형에 속하는 ‘-길래’ 평서문[2]와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 서술어 제약의 존재 여부가 다르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들의 후행절이 나타내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길래’ 평서문[2]의 후행절은 ‘화자가 지각한 사실’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은 ‘화자의 의지적 행위’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로 인해 ‘-길래’ 평서문[2]의 후행절에는 특정한 서술어 제약이 없지만,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에는 화자의 의지적 행동을 나타내야 하는 서술어가 오는 제약이 존재한다.

이상 ‘-길래’ 평서문[2]의 후행절에 오는 주어와 서술어의 통사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후행절의 주어와 서술어에도 선행절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제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선·후행절에 적용되던 주어와 서술어 제약이 존재하지 않게 된 이유는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선행절에 주어 및 서술어 제약이 존재하지 않게 된 이유는 ‘-길래’가 나타내던 지각 및 자각이라는 의미의 소멸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후행절에 적용되던 주어나 서술어 제약이 사라진 이유는 후행절의 의미로 인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처럼 ‘-길래’ 평서문[2]에 적용되는 주어와 서술어 제약이 없다는 것은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길래’ 의문문과 동일한 통사적 특징이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두 ‘-길래’ 구문 유형에서 같은 통사적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첫 번째는 두 유형이 모두 후행절에 화자가 지각한 사실이 온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선행절에서 ‘-길래’의 지각 및 자각의 의미 소실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다만 다른 점이라면 ‘-길래’ 의문문 선행절의 ‘-길래’가 지각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앞에 오는 의문사로 인한 것인데 반해, ‘-길래’ 평서문[2]는 그 이유가 후행절의 ‘-겠-’의 의미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진행된 논의들을 근거로 ‘-길래’ 평서문[2]의 선·후행절에는 특정한 주어와 서술어 제약이 없다[169]고 규정지을 수 있다.

---

169) ‘-길래’ 평서문[2]의 주어 제약을 논의한 선행연구에는 안주호(1998: 215), 김지혜(2009ㄴ: 147), 서경숙(2013: 503) 등이 있다. 먼저 안주호(1998: 215)는 ‘-길래’ 구문의 선행절이 ‘화자의 행위를 일으킨 외부적인 근거’를 의미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주어의 인칭 제약이 있고, 후행절에서 추측이나 질문의 화행이 이루어질 때에는 주어의 제약이 사라진다고 했다. 그런데 안주호(1998: 215)의 이와 같은 논의는 ‘-길래’ 의문문과 ‘-길래’ 평서문[2]의 선·후행절에 적용되는 주어 제약의 존재 여부만을 밝힌 것일 뿐, 이들이 ‘-길래’ 평서문[1]과 다른 주어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다루고 있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또한 서경숙(2013: 503)에서는 화자가 감각 경험을 통해 인식한 내용을 다시 추측하는 경우는 일상적으로 자주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후행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길래’ 평서문[2]의 통사적 특징을 후행절의 ‘-겠지’ 결합형의 의미 및 그로 인한 제약, 후행절의 시제 제약, 선행절에서의 ‘-길래’와 문법 표현과의 결합 제약, 주어 및 서술어의 제약 소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후행절에 ‘-겠지’ 수반 필수 제약이 있다.
둘째, 후행절에 미래 시제 불가 제약이 있다.
셋째, ‘-길래’에는 ‘-더-’, 추측을 나타내는 ‘-을 것이-’, 그리고 의지 문법 표현과의 결합 불가 제약이 있다.
넷째, 선행절과 후행절에 주어 인칭 제약이 없다. 그런데 후행절에는 주로 2·3인칭 주어가 오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선행절과 후행절에 서술어 제약이 없다.

## 4. ‘-길래’ 평서문[1]·의문문·평서문[2]의 공통 제약과 개별 제약

### 4.1. ‘-길래’ 구문의 공통 제약

본고에서는 이 장을 통해 바로 위에서 제시한 ‘-길래’ 평서문[2]의 통사적 특징을 포함하여 ‘-길래’ 평서문[1]과 ‘-길래’ 의문문에서 나타나는 통사적 특징을 적용되는 제약의 존재 여부 및 그 이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길래’ 평서문[1], ‘-길래’ 의문문, ‘-길래’ 평서문[2]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길래’가 나타나는 모든 문장에 적용되는 제약이므로 이를 ‘-길래’의 통사적 제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행절에 미래 시제가 올 수 없는 제약이 있다.
둘째, ‘-길래’에는 ‘-더-’, 추측을 나타내는 ‘-을 것이-’, 의지의 문법 표현과

---

절에 2인칭 주어나 3인칭 주어가 자주 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김지혜(2009ㄴ: 147)에서는 이들과 달리 화자가 후행절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이유를 추측하는 평서문에서도 후행절에 1인칭 주어만 허용되는 평서문의 주어 인칭 제약이 지켜진다고 보았다. 즉 추측의 ‘-길래’ 평서문에서 후행절의 표면적인 주어가 2인칭이나 3인칭이라고 하더라도 화자가 추측을 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후행절의 주어는 1인칭이라는 것이다.

결합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길래’의 결합 제약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자면, 우선 ‘-길래’가 ‘-더-’와 결합해 쓰일 수 없는 이유는 두 문법 형태가 가지는 양태적 의미로 인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길래’ 평서문[1]에서는 ‘-길래’와 ‘-더-’가 결합하게 되면 두 문법 형태가 나타내는 ‘화자의 직접 지각’이라는 의미가 중첩되기 때문에 ‘-더-’가 ‘-길래’와 결합한 형태가 선행절에 나타날 수 없었다. 그러나 ‘-길래’ 의문문이나 ‘-길래’ 평서문[2]에서는 선행절의 의미에 ‘-더-’의 양태적 의미가 어울리지 않아서 ‘-길래’와 결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몰라서 질문하는 이유나 몰라서 추측하는 이유가 화자 자신이 직접 지각한 것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길래’는 추측을 의미하는 ‘-을 것이-’와도 결합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는데 그 이유도 역시 그가 가진 양태적 의미 때문이었다. 먼저 ‘-길래’ 평서문[1]에서 ‘-길래’가 ‘-을 것이-’와 결합할 수 없는 이유는 ‘-길래’의 ‘화자의 감각 경험을 통해 인지한 새로운 정보’라는 의미가 ‘-을 것이-’의 ‘알고 있던 정보’라는 양태적 의미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길래’ 의문문에서 ‘-을 것이-’가 ‘-길래’와 결합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이유를 몰라서 청자에게 질문하는 화자가 그 이유를 ‘청자가 알고 있던 정보를 근거로 추측한 것’이라고 가정하고, ‘-을 것이-’라는 추측 표현을 사용해 질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질문하는 화자는 청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 추측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길래’ 평서문[2]에서 ‘-길래’와 ‘-을 것이-’가 결합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을 것이-’와 ‘-지’는 모두 ‘기지정보’라는 양태적 의미를 가지는데, ‘-길래’ 평서문[2]에서 ‘-을 것이-’와 ‘-길래’가 결합하게 되면, ‘-을 것이-’의 양태적 의미가 후행절의 ‘-겠지’에서 ‘-지’의 의미 범주 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구조적으로 ‘-을 것이-’의 양태적 의미가 반복되기 때문에 ‘-길래’와 결합해 쓰일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을 것이-’나 ‘-겠-’등의 표현도 ‘-길래’와 결합할 수 없었는데 우선 ‘-길래’ 평서문[1]에서 확인된 이유는 ‘-길래’가 나타내는 ‘지각’은 ‘의외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화자의 의지나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과는 어울려 쓰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길래’ 의문문과 ‘-길래’ 평서문[2]에서는 그 이유가 조금 다르게 나타났는데, 즉 화자가 몰라서 질문하는 이유와 몰라서 추측하는 이유가 화자의 의지에 의한 행

동일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정리해 보자면, 본고에서는 '-길래'가 나타내는 양태적 의미와의 중첩이나 충돌로 인해 혹은 선행절이 나타내는 의미에 해당 문법 표현의 의미가 어울리지 않아서 '-길래'가 '-더-', 추측의 '-을 것이-', 의지의 문법 표현과 결합할 수 없는 것으로 본 것이다.

'-길래'의 결합 제약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길래'의 후행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미래 시제 불가 제약이다. 그런데 이 제약은 '-길래' 평서문[1], '-길래' 의문문, '-길래' 평서문[2]의 후행절이 나타내는 의미로 인한 것이었다. 즉 이들의 후행절이 '화자가 진행 중이거나 끝낸 행위' 혹은 '화자가 지각한 사실'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중에서 특히 '-길래' 의문문이나 '-길래' 평서문[2]의 후행절에 오는 '화자가 지각한 사실'은 실제로 발생한 일이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의미하므로, '-길래' 평서문[1]과 마찬가지로 후행절에는 미래 시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와 같은 후행절의 시제 제약이 '-길래'의 서법 제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67) 가. 양말을 싸게 팔길래 많이{샀어요/*샀다!/*사세요/*삽시다/*샀어요?}
나. 냉면이 진짜 맛있길래 두 그릇{먹었어요/*먹었다!/*드세요/*먹읍시다/*먹었어요?}

예문 (67가)와 (67나)를 보면 '-길래'가 명령문, 청유문, 판정의문문, 감탄문에서 쓰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판정의문문에서 '-길래'가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논의했듯이 '-길래'가 가지는 지각이라는 의미 때문이었다. 즉 '-길래'가 판정의문문의 선행절에 쓰이면, 화자가 지각한 상황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화자와 무관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냐며 청자에게 이유를 확인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논리적인 발화 상황은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의문문에서는 '-길래'가 나타내는 지각의 양태적 의미를 소멸시키기 위해 반드시 선행절에 의문사가 와야 한다. 바로 이 의문사 수반 필수 제약으로 인해 '-길래'에는 설명의문문 서법 제약이 존재하는 것이다(안주호 1998: 218).

다음으로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 '-길래'가 쓰일 수 없는 이유는 이 두 문형이 상대방에게 앞으로의 행동을 요구하거나 같이 할 것을 제안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령이나 청유의 화행은 미래에 발생할

상황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래'의 후행절에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길래' 후행절의 미래 시제 불가 제약에 어긋나기 때문에 '-길래'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김승곤, 1981: 11~12[170]). 따라서 이와 같은 '-길래'의 명령문·청유문 서법 불가 제약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길래'의 후행절 시제 제약과 연관된 서법 제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특히 '-길래'의 후행절에 감탄형이 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보통 감탄이 '지각'의 양태적 의미와 그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보거나 듣는 등의 감각 기관을 수단으로 하는 행위를 통해 어떤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것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을 감탄의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길래'와 마찬가지로 '직접 지각'이라는 양태적 의미를 지닌 '-네(요)' 등의 문법 표현이 지각의 의미 외에도 감탄까지 나타낸다[171]는 특성을 가진다는 면에서 그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놀라움이란 예상하지 못한 것 즉 화자의 의지나 의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란 의미를 동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67가)의 예문에서 '-길래'의 후행절에는 '샀다!'라는 화자의 행위가 왔는데 그 행위는 화자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화자가 그것에 대해 감탄을 한다는 상황은 어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감탄문에 '-길래'가 사용되면 화자가 선행절의 상황을 지각하고 그것을 이유로 삼아 의도적으로 후행절의 행동을 한 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새삼 감탄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길래'는 감탄문에 사용될 수 없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길래'는 명령문이나 청유문, 감탄문 그리고 판정의문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인과 연결어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길래'의 서법 제약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길래'가 판정의문문에서는 쓰일 수 없으나 의문사가 있는 설명의문문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므로, 결국 '-길래'는 평서문, 설명의문문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서법 제약이 있는 것이라

---

170) 김승곤(1981: 11-12)에서는 단지 예문을 들어 '-길래'가 '-기에'와 마찬가지로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했고, 안주호(1998: 218)에서는 '-길래'가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쓰일 수 없는 이유를 '-길래'의 통사적 제약 중 하나인 후행절의 미래 시제 불가 제약으로 보았다.

171) (1) 와, 이거 정말 맵네요!
(2) 이 시간에는 차가 정말 많이 밀리네요!
위 두 예문에서 '-네(요)' 앞에 기술된 상황은 화자가 현재 직접 먹은 후에 그리고 직접 본 후에 인지하게 된 내용으로 그것에 대한 놀라움을 감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다(안주호 1998: 218). 이와 같은 '-길래'의 서법 제약에 대해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본고와 같은 논지를 전개[172]하고 있으나, 다만 채연강(1985: 97)과 정종수(2014: 282)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차이를 보였다. 즉 '-길래'의 후행절에 명령형이나 청유형 불가 제약이 있다는 것은 지적했지만, '-길래'가 판정의문문에서는 쓰이지 못하고 설명의문문에서만 실현된다는 서법 제약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까지 '-길래'가 실현되는 '-길래' 평서문[1], '-길래' 의문문, '-길래' 평서문[2]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제약을 살펴보았다. 그중에서 '-길래'의 후행절에 미래 시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약으로 인해 '-길래'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 사용될 수 없는 서법 제약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길래'와 결합해 쓰일 수 없는 '-더-', 추측을 의미하는 '-을 것이-', 의지를 표현하는 문법 형태 등은 그들이 나타내는 양태적 의미로 인해 '-길래'와 결합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 4.2. '-길래' 구문의 개별 제약

'-길래'는 이와 같은 공통 제약 외에도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에 따라 그에 따른 통사적 개별 제약을 가진다.

[표 11] '-길래' 평서문[1]·의문문·평서문[2]의 주어 및 서술어 제약

| 제약의 명칭 및 적용 범위 / '-길래'의 의미별 문장 유형 | 선행절에 적용되는 제약 | | 후행절에 적용되는 제약 | |
|---|---|---|---|---|
| | 1인칭 주어 필수 제약 | 지각 및 즉각적 자각 가능 서술어 필수 제약 | 1인칭 주어 필수 제약 | 의지적 행동 서술어 필수 제약 |
| '-길래' 평서문[1] | O | O | O | O |
| '-길래' 의문문 | X | X | X | X |

172) '-길래' 후행절의 서법 제약에 대해 본고와 같은 견해를 피력한 선행연구로는 안주호(1998, 1999ㄱ, 1999ㄴ, 2002ㄱ, 2002ㄴ, 2008), 오경진(2003), 진정란(2004), 성기철(2007), 김지혜(2009ㄱ), 임은하(2010), 민진영(2011), 염재일(2012), 김미숙(2015), 권미숙(2017), 성진영(2017), 박상숙(2019) 등이 있다.

| | | | | |
|---|---|---|---|---|
| ‘-길래’ 평서문[2] | X | X | X | X |

위 [표 11]의 내용은 ‘-길래’가 드러내는 의미별로 구분한 유형에서 달리 나타나는 주어와 서술어 제약의 존재 여부를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표의 내용을 보면 선행절과 후행절에 적용되는 통사적 제약이 두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길래’ 평서문[1]의 선·후행절에 나타나는 주어 및 서술어 제약이 ‘-길래’ 의문문이나 ‘-길래’ 평서문[2]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이들 간에 이와 같은 통사적 특성의 차이가 나타난 원인은 ‘-길래’가 가지는 지각 및 자각이란 의미의 존재 여부와 후행절의 의미 차이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길래’ 평서문[1]에서는 선행절의 ‘-길래’가 지각이나 자각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선행절에 ‘화자의 비의지 서술어 필수 제약’과 ‘즉각적인 자각 가능 서술어 필수 제약’이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길래’가 자각의 의미를 드러낼 때에는 선행절에 ‘1인칭 주어 필수 제약’이 적용되기도 한다. 반면에 ‘-길래’ 의문문이나 ‘-길래’ 평서문[2]에서는 선행절에서 ‘-길래’의 지각 및 자각의 의미가 소실되기 때문에 선행절에 적용되는 특정한 주어 제약이나 서술어 제약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은 ‘화자의 행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후행절의 ‘1인칭 주어 필수 제약’과 ‘의지적 행동 서술어 필수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길래’ 의문문 및 ‘-길래’ 평서문[2]의 후행절에는 화자가 지각한 사실이 오기 때문에, 선행절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적용되는 주어 제약이나 서술어 제약이 없었다. 다만 주로 후행절에 2·3인칭 주어가 출현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아주 유사한 통사적 특성을 보이는 ‘-길래’ 의문문과 ‘-길래’ 평서문[2]에서 두 유형 간에 차이가 나는 통사적 특징이 2개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첫 번째는 ‘-길래’ 의문문에는 선행절에 ‘의문사 수반 필수 제약’이 있지만, ‘-길래’ 평서문[2]에는 후행절에 “-겠지’ 수반 필수 제약’이 있다는 점이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바로 이들의 이 두 제약으로 인해 ‘-길래’ 의문문과 ‘-길래’ 평서문[2]에 쓰인 ‘-길래’가 지각 및 자각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즉 ‘-길래’ 의문문에서는 선행절에 온 의문사로 인해 그리고 ‘-길래’ 평서문[2]에서는 후행절에 온 ‘-겠지’의 표현으로 인해 ‘-길래’의 지각과 자각의 의미가 소멸되어 그와 관련된 선행절의 주어와 서술어의 제약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확인된 두 유형 간의 두 번째 통사적 차이점은 ‘-길

래’ 의문문에서는 ‘-길래’가 추측을 의미하는 ‘-겠-’과 결합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는 반면에, ‘-길래’ 평서문[2]에서는 이 제약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길래’ 평서문[2]와 달리 ‘-길래’ 의문문에서 ‘-길래’가 추측의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할 수 없었던 이유는 ‘-겠-’이 나타내는 양태적 의미 때문이었다. 즉 화자가 이유를 몰라서 청자에게 질문하면서, 그 이유를 ‘청자가 감각 행위를 통해 새로 알게 된 정보를 근거로 추측한 것’이라고 가정하고 ‘-겠-’을 사용해 질문한다는 의미가 어색하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길래’ 의문문과 ‘-길래’ 평서문[2]는 통사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보이지만, ‘의문사 수반’과 “-겠지’ 수반’이라는 다른 필수 제약이 각기 적용되고, ‘-길래’ 의문문에서만 ‘-길래’가 추측의 ‘-겠-’과 결합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는 차이점도 드러났다.

한편 이 장에서 ‘-길래’의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면서, ‘-길래’ 평서문[2]가 같은 문형에 속하는 ‘-길래’ 평서문[1]과는 통사적으로 확연히 차이가 나는 반면에, ‘-길래’ 의문문과는 유사한 통사적 특징을 가진다는 점은 예상 외의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길래’가 문장에서 드러내는 의미별로 구분하여 통사적 특징을 살펴본 본고의 의도 및 분석 방법에 타당성을 실어주는 결과이기도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와 같은 결과는 ‘-길래’라는 인과 연결어미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학습이 결코 쉽지 않은 문법 항목이겠다라는 예측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상 ‘-길래’가 출현하는 구문을 의미별로 나누어 그 세 가지 유형의 문장에서 나타나는 ‘-길래’의 통사적 특징을 자세하게 논의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지해야 할 점은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이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 학습자에게 교수되어야 할 ‘-길래’의 학습 정보를 구축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장과 3장을 통해 국어학적 관점에서 논의된 ‘-길래’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 중에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제시할 내용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그 기준은 ‘-길래’의 사용에 있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된 것이 된다. 이에 따라 학습자에게 제시할 ‘-길래’의 의미는 앞서 2장에서 그 타당성이 밝혀진 후행절의 화행에 따른 세 가지의 의미이다.

첫째, ‘-길래’는 평서문에서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화자의 의지적 행동을 초래한 화자의 지각 및 자각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둘째, ‘-길래’는 후행절에 ‘-겠지’가 쓰인 평서문에서 화자가 지각한 사실에 대해 추측하는 이유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셋째, '-길래'는 의문문에서 화자가 지각한 사실에 대해 의문이 생겨 질문하는 이유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와 더불어 '-길래'가 담화 상황에서 수행하는 담화 의미 기능은 앞서 '-길래'의 대표적 담화 의미 기능으로 꼽은 '변명', '비난', '핀잔'으로 제시한다. 이와 같이 대표적 담화 기능만을 제시하는 이유는 2장을 통해 분석된 '-길래'가 담화 맥락상 드러내는 적지 않은 담화적 기능을 학습자에게 모두 제시하게 되면 학습자의 이해에 부담을 주어 결과적으로 실제 사용에 있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길래'가 비격식적 상황의 구어 담화에 주로 사용된다는 화용 정보도 학습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길래'가 가지는 통사적 제약은 사용 빈도와 난이도를 고려해 '-길래' 평서문[1]과 '-길래' 의문문을 중심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길래' 평서문[2]는 우선 '-길래' 의문문과 통사적 특징이 유사하고 사용 빈도도 극히 낮으므로[173] '-길래'가 사용되는 추가적 표현으로 제시하는 것이 실질적인 교육에 있어 현실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먼저 '-길래' 평서문[1]을 교수할 때 제시해야 할 '-길래'의 통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절과 후행절에 모두 1인칭 주어 필수 제약이 있다.
단 선행절의 1인칭 주어 필수 제약은 선행절에 화자가 자각한 상황이 올 경우로 제한된다. 그리고 선행절에 화자가 지각한 상황이 오는 경우에는 선행절에 주로 2·3인칭 주어가 오는 경향이 있다.
둘째, '-길래'에는 '-더-', 추측을 나타내는 '-을 것이-', 의지 문법 표현과의 결합 불가 제약이 있다.
셋째, 후행절에 미래 시제 불가 제약이 있다. 보통 과거 시제가 주로 오는데 진행상의 현재 시제가 올 때도 있다.
넷째, 후행절 서술어에는 화자의 의지적인 행동 필수 제약이 있다.
다섯째, 후행절에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올 수 없다.

173) 안주호(1998, 1999ㄱ)에서는 연세대 사전편찬실에서 수집한 말뭉치 자료를 검색해 나온 용례로 7개의 '-길래' 평서문[2]의 '-길래'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국립국어원의 말뭉치 자료를 분석한 바로는 '-길래' 평서문[2]의 사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길래' 평서문[2]의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 중 특히 3장에서 논의된 선행절 서술어와 관련된 제약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그 제약이 '-길래'의 사용에 있어 필요한 실질적인 제약이 아니라 선행절에 쓰이는 서술어로의 허용 여부를 설명하는 이론적인 제약이기 때문이다. 즉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 서술어에는 일반적으로 서술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동사', '형용사', '명사'가 모두 허용되므로 학습자에게 이에 관련해 따로 제약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길래' 평서문[1]을 제시할 때 후행절에 허용되지 않는 서법을 제시하는 이유는 후행절의 서법 제약이 '-길래'의 주된 통사적 제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선 논의에서는 '-길래'가 감탄문에서도 쓰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도 위에서는 학습자에게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감탄문이 크게는 평서문에 속하기 때문이다. 즉 이익섭·채완(1999: 225)에 의하면 한국어의 서법은 크게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약속문과 감탄문은 평서문에 그리고 허락문은 명령문에 속한다고 했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제시할 서법 제약도 위에 언급된 네 가지의 유형과 관련해 제시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어서 '-길래'가 쓰인 의문문을 교수할 때 제시하여야 할 통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절에 의문사 수반 필수 제약이 있다.
둘째, 후행절에 미래 시제 불가 제약이 있다
셋째, '-길래'에는 '-더-', 추측을 나타내는 '-을 것이-' 및 '-겠-', 그리고 의지를 나타내는 문법 표현과 결합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넷째, 선행절과 후행절에 주어 인칭 제약이 없다. 그런데 후행절에는 주로 2·3인칭 주어가 오는 경향이 있다.

위에 제시된 내용 중에서 특히 의문문에는 선·후행절에 적용되는 주어 제약이 없는데도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길래' 평서문[1]의 통사적 제약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에는 주로 과거 시제가 오며 진행상이 올 경우에만 현재 시제가 용인된다는 것과 달리, '-길래' 의문문은 후행절에 미래 시제 이외에 과거와 현재 시제가 모두 자유롭게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추가 설명 없이 '미래 시제 불가 제약'만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 표현으로 제시할 '-길래' 평서문[2]에 적용되는 통사적 제약에 대한 교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후행절에 '-겠지' 수반 필수 제약이 있다.
둘째, 선행절과 후행절에 주어 인칭 제약이 없다. 그런데 후행절에는 주로 2·3인칭 주어가 오는 경향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길래' 평서문[2]는 다른 유형에 비해 사용 빈도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길래'의 추가 표현 정도로 제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그에 관련된 통사적 특징도 대표적인 것을 추려서 위와 같이 제시한 것이다. 그중에서 특히 후행절의 시제 제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길래' 평서문[2]를 통해 화자가 추측하는 이유를 발화할 때 그 추측이 발화 당시인 '현재'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길래' 평서문[2]는 후행절에 사건시의 시제와 발화시의 시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후행절의 시제 제약을 따로 제시한다면 오히려 학습자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길래' 평서문[2]는 '-길래'의 추가 표현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따르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에서처럼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제약과 실제적 사용에 필요한 제약을 두 가지로 정리해 제시한 것이다.

여기까지 정리한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 제시해야 할 '-길래'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은 '-길래'를 교수할 한국어 교사에게 그리고 '-길래'를 학습할 외국인 학습자에게도 모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 Ⅳ. 학습자 자료에 나타난 ‘-길래’의 오류 분석

앞서 2장과 3장에서는 ‘-길래’가 가지는 의미와 그로 인해 야기되는 통사적 특징을 ‘-길래’ 평서문[1], ‘-길래’ 의문문, 그리고 ‘-길래’ 평서문[2]로 나누어 논의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특히 ‘-길래’ 평서문[1]에서 ‘-길래’가 가지는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화자의 행동을 초래한 화자가 직접 지각한 사실’이라는 의미가 선·후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 선·후행절의 서술어 제약 및 서법이나 시제 제약을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길래’ 의문문과 화자가 이유를 추측하는 ‘-길래’ 평서문[2]에서는 화자가 지각한 사실이 후행절에 위치하게 되어 오히려 ‘-길래’ 평서문[1]과는 상반된 주어 출현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길래’ 평서문[1]에서도 만일 선행절에 화자만이 자각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선행절에 오히려 1인칭 주어만을 허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길래’의 복잡하면서도 난이도가 있는 통사적 특성은 한국어를 익히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길래’의 의미와 통사적 제약 등을 잘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장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외국인 학습자의 학습자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는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174]에서 ‘-길래’를 검색해 나온 말뭉치 자료를 대상으로 그 사용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는 대학 기관의 4급에서 한국어를 이수 중인 학습자의 시험 자료를 대상으로 ‘-길래’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4급 학습자의 문법 시험 자료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4급에서 ‘-길래’를 배운 지 얼마 안 된 학습자가 ‘-길래’를 어느 정도 이해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통사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데 유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길래’의 사용에 대해 학습자 말뭉치 자료를 통한 포괄적인 분석과 4급 학습자 시험 자료를 통한 집중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두 학습자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꼽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립국어원의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서 ‘-길래’를 검색해 확보한 용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대학 기관에

174)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의 말뭉치 구축 개요에 따르면,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자료는 2015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5년 8개월 동안 구축된 것으로 총 139개국의 92개 언어권 학습자들의 문어와 구어 자료인데, 원시 말뭉치의 총 표본 수는 29,940이며 총 어절 수는 4,389,460에 이른다고 한다.

서 4급에 재학 중인 학습자의 시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앞선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와 관련된 혹은 논의할 만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의 '-길래' 습득 및 사용에 있어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국립국어원의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 말뭉치에서 검색된 '-길래'의 용례는 총 104건이었지만 그 중 드라마 제목을 인용한 경우, 그리고 구어 자료를 전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발음에 의한 오기[175]등 9개를 제외하면 실제로 인과 연결어미인 '-길래'가 쓰인 용례 수는 95건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길래'를 사용한 학습자의 국적을 확인해 본 결과 총 15개국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2] '-길래'를 사용한 학습자의 국적 분포

| 국가명 | 중국 | 일본 | 말레이시아 | 타이 | 홍콩 | 베트남 | 대만 | 러시아 | 합계 |
|---|---|---|---|---|---|---|---|---|---|
| 학습자수 | 49 | 20 | 5 | 3 | 3 | 2 | 2 | 2 | 86 |
| 분포 | 52.6% | 21.5% | 5.2% | 3.1% | 3.1% | 2.1% | 2.1% | 2.1% | 91.8% |

위 표에서 나타나듯이 '-길래'를 사용한 학습자는 중국인이 49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인이 20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는데, 두 국적의 학습자가 전체의 7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길래'의 사용이 특정 국적의 학습자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전체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서 중국인과 일본인 학습자의 자료가 차지하는 순위 및 비중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즉 전체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서 중국인의 자료가 3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일본인의 자료였는데 12.3%로 조사된 것이다. 또한 위 표에서 제시된 8개의 나라 외에도 우즈베키스탄, 미국, 대한민국,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싱가포르, 파나마의 7개국에서 각각 한 명씩의 학습자가 '-길래'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길래'를 쓴 총 학습자 수는 93명이 된다[176].

175) 드라마 제목은 '사랑이 뭐길래'를 그대로 인용한 경우이며, 잘못된 발음으로 인한 오기는 '사귈래'를 '사길래'로 옮겨 적은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길래’를 사용한 [표 12]의 학습자들의 한국어를 학습하는 목적을 아래의 표로 정리했다.

[표 13] ‘-길래’를 사용한 학습자의 학습 목적

| 종류 | 진학 | 취업 | 취미 | 기타 | 합계 |
|---|---|---|---|---|---|
| 학습자수 | 52명 | 17명 | 15명 | 9명 | 93명 |
| 분포 | 55.9% | 18.3% | 16% | 9.8% | 100% |

학습자들은 ‘진학’이나 ‘취업’, 혹은 ‘취미’나 그 외의 목적을 가지고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취업이나 취미보다는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가 월등히 많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주된 원인은 ‘-길래’를 사용한 중국인 학습자의 영향으로 보인다. 즉 앞서 [표 12]에서 ‘-길래’를 사용한 학습자 중에서 압도적으로 49명을 차지한 중국인 학습자 중에서도 41명이 ‘진학’을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표 14] ‘-길래’를 사용한 학습자의 한국어 급수

| 급수[177]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합계 |
|---|---|---|---|---|---|---|---|
| 학습자수 | 0명 | 0명 | 4명 | 28명 | 58명 | 3명 | 93명 |
| 분포 | 0% | 0% | 4.2% | 30.1% | 62.5% | 3.2% | 100% |

또한 과연 몇 급의 학습자들이 ‘-길래’를 사용했는지를 살펴본 결과 초급인 1급과 2급의 학습자들은 ‘-길래’를 사용하지 않은 반면에,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이 ‘-길래’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62.5%로 5급의 학습자들이 ‘-길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4급의 학습자들이 30.1%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교재가 ‘-길래’를 4급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178]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김지혜(2009ㄱ: 481)[179]도

176) ‘-길래’의 용례 수는 총 95개지만 그중 한 학습자가 2개의 용례에서 ‘-길래’를 사용한 경우가 2건이 발견되어 총학습자 수는 93명을 기준으로 했다.

177) 국립국어원에 확인해 본 결과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 표기된 학습자의 급수는 학습자 스스로 기재한 것으로, 국내에서 수집된 경우에는 국내 한국어 학습 기관에서 학습자가 속한 급수를 기재한 것이며 국외에서 수집된 자료일 경우에는 ‘TOPIK’시험에서 획득한 자격 급수를 기재한 것이라고 했다.

178) 이지선(2017: 326-327)에 따르면 5급에서 제시한 연세대의 교재와 3급에서 제시한 성균관대의 교재를 제외한 이화여대, 경희대, 외대, 고려대의 교재에서는 ‘-길래’를 모두 4급에서 제

주장한 것처럼 외국인 학습자들이 미학습 문법 항목을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즉 주로 4급에서 '-길래'를 학습한 학습자들이 그 이후부터 '-길래'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4급과 5급의 학습자들이 '-길래'를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한편 대학 기관의 4급 학습자들의 자료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자면, 4급 학습자의 시험 자료는 2021년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수집된 것[180]이다. 1학기에는 32명, 그리고 2학기에는 41명으로 총 73명의 75개[181]의 학습자 자료에 해당한다. 이 학습자들의 국적을 확인해 본 결과 1학기에는 8개국으로 2학기에는 13개국으로 조사되었는데, 2학기에 학습자의 국적이 더 다양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의 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표 15] 1학기 4급 학습자의 국적 분포

| 국가명 | 중국 | 대만 | 일본 | 카타르 | 프랑스 | 홍콩 | 헝가리 | 말레이시아 | 합계 |
|---|---|---|---|---|---|---|---|---|---|
| 학습자수 | 22 | 4 | 1 | 1 | 1 | 1 | 1 | 1 | 32 |
| 분포 | 68.7% | 12.7% | 3.1% | 3.1% | 3.1% | 3.1% | 3.1% | 3.1% | 100% |

[표 16] 2학기 4급 학습자의 국적 분포

| 국가명 | 중국 | 일본 | 대만 | 홍콩 | 독일 | 폴란드[182] | 합계 |
|---|---|---|---|---|---|---|---|
| 학습자수 | 17 | 6 | 5 | 3 | 2 | 1 | 34 |
| 분포 | 41.5% | 14.6% | 12.2% | 7.3% | 4.9% | 2.45% | 82.95% |

시하고 있었다고 했다.

179) 김지혜(2009ㄱ: 481)는 문법 항목을 학습자들이 발화 시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미학습을 들면서 교실에서 반복적으로 학습된 문법 항목이라면 학습자들에 의해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180) 4급 학습자의 시험 자료는 국내 S 대학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이수 중인 학습자의 자료로 1학기에는 총 6개 반이 2학기에는 총 5개 반이 개설되었는데, 수집된 자료는 그중 일부인 각각 3개 반과 4개 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181) 수집한 4급 학습자의 자료 합계는 학습자 수 73명에 2개가 더해져 총 75개였다. 그 이유는 두 문제의 답안을 '-길래'로 작성한 경우가 2건 있었기 때문이다.

182) 2학기에는 이외에도 카타르, 러시아, 체코, 이탈리아, 칠레, 브라질, 방글라데시 국적의 학습자들이 각각 1명씩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총학습자 수는 41명이 된다.

위 [표 15]를 보면 중국 국적의 학습자가 1학기에는 3개 반 학습자 32명의 68.7%를 [표 16]의 2학기에는 4개 반 학습자인 41명의 41.5%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어 학습자가 특정 국적의 학습자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분석 결과는 앞서 살펴본 '-길래'의 학습자 말뭉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던 사실이기도 하다. 또한 한편으로 이와 같은 결과는 이 논문이 '-길래'의 제시 방안의 제안에 있어 그 대상을 중국인 학습자로 한다는 것에 대한 집필 의도에 타당성을 실어주는 근거로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4급 학습자의 1학기와 2학기 시험 자료에서 '-길래'의 사용을 확인하는 문제를 살펴본 결과, 질문에 대답을 하는 유형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제시된 6개의 문법 항목을 각각 사용해 주어진 6개의 담화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답을 완성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였다. 그중에서 '-길래'와 관련된 문제는 동일하게 명시적으로 '왜'라는 의문사로 이유를 질문하고 있었는데, 질문 내용이 "(너는) 왜 회식 요일을 바꿨어요?"와 "(너는) 왜 친구에게 화를 냈어요?"로 대답을 하게 될 청자가 한 행동의 이유를 묻고 있었다. 따라서 학습자는 제시된 6개의 문법 항목 중 유일한 인과 연결어미인 '-길래'를 사용해 통사적 제약을 준수하면서 화자의 행동을 초래한 이유를 기술해야 하는 문제였다[183]. 이와 같은 문제는 목표 문법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 유형에 속한다.

## 1.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 나타난 '-길래'의 사용 양상 분석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특정 문법 항목이 필요한 담화 상황에서도 사용에 있어 오류를 피하기 위해 사용을 기피하는 '회피' 현상이 발견된다. 이정희(2003: 106-107)에서는 이를 학습자가 써야 할 문법 항목을 쓰지 않고 일부러 '누락'시키는 전략으로 보기도 했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회피' 현상을 특정 국적 학습자들의 '-길래'의 사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

183) 본고에서 살펴볼 대학 기관의 4급 학습자 자료의 '-길래'에 대한 시험 문제는 아래와 같다.
(1) 가: 왜 회식 요일을 바꿨어요?
나: 직원들이 _____
(2) 가: 왜 친구에게 화를 냈어요?
나: _____
(S대학 어학당 4급 2021년도 1·2학기 기말고사 문법 1,6번 문제)

[표 17] 학습자의 말뭉치 자료와 '-길래'가 사용된 말뭉치 자료의 국적 비교

| 구분 | 학습자의 국적별 학습자 자료 분포 | | | | | | 합계 |
|---|---|---|---|---|---|---|---|
| 전체 학습자 자료 | 중국 (39%) | 일본 (12.3%) | 베트남 (8.4%) | 홍콩 (4.3%) | 대만, 미국 (3.3%) | 기타 (32.7%) | 100% |
| '-길래' 사용 학습자 자료 | 중국 (52.6%) | 일본 (21.5%) | 말레이시아 (5.2%) | 타이, 홍콩 (3.1%) | 베트남 (2.1%) | 대만 러시아 (2.1%) | 91.8[184] % |

위 표를 보면 학습자 말뭉치의 전체 자료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이어 베트남 국적 학습자들의 자료가 8.4%로 세 번째로 많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길래'를 사용한 학습자의 말뭉치 자료에서는 말레이시아 학습자들의 자료가 중국과 일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베트남 학습자들은 2.1%로 '-길래'를 사용한 학습자의 분포에서 5위로 밀려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적별로 학습자가 '-길래'를 사용한 비율을 학습자의 자료가 학습자 말뭉치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중국과 일본 국적의 학습자들이 '-길래'를 쓴 비율은 오히려 두 국적의 학습자들의 자료가 전체 자료에서 차지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고, 홍콩이나 대만 국적의 학습자들은 두 자료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베트남 학습자의 학습 자료만이 전체 자료에서 차지한 비율인 8.4%에서 '-길래'를 사용한 비율은 2.1%로 현격히 하락한 것이 눈에 띈다. 혹시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가 '-길래'의 미학습으로 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베트남 학습자들의 해당 급수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길래'가 주로 제시되는 4급에는 18.9%, 그 이후인 5급에는 12.34%, 그리고 6급에도 4.93%의 학습자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4급과 5급의 학습자 급수 분포는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적의 학습자들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185].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보면 베트남 학생들은 '-길래'

184) 표에 제시된 8개의 나라 이외에 우즈베키스탄, 미국, 대한민국,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싱가포르, 파나마의 7개국에서 각각 한 명씩의 학습자가 '-길래'를 사용한 것까지 포함시키면 100%가 된다.

185)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의 말뭉치 유형별 구축 세부 현황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학습자들 중 4급은 17.99%, 5급은 18.59%이며, 일본 국적의 학습자들은 4급은 20.19%, 5급은 18.63%였고, 홍콩 국적의 학습자들의 경우는 4급은 20.46%, 5급은 15.67%로 조사되었다고 했다.

를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하나 더 논의해야 할 점은 학습자들이 쓴 '-길래' 구문에서 화자가 인지하게 된 사실을 초래한 이유를 추측하는 평서문을 단 하나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길래'를 의문문에서 사용한 경우가 3건 있었다는 조사 결과와 관련지어 추정해 보면, 이유 추측의 '-길래' 구문은 학습자들에게 제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이유 추측의 '-길래' 평서문[2]을 제시한 한국어 교재가 전무하다는 점[186]에서도 그 타당성이 입증된다.

다음으로 '-길래'를 사용한 학습자들의 말뭉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길래'가 가지는 통사적 제약을 잘 준수하면서 적합한 담화 상황에 잘 사용하고 있는 문장이 95건 중 13건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전체 사용에서 13.68%의 비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동시에 '-길래'의 사용에 있어 오류를 일으키는 비율이 86.32%나 된다는 것을 말해 주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역시 '-길래'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있어 빈번한 오류를 일으키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법 항목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길래'를 오류 없이 사용한 문장을 담화 상황, 국적, 급수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표 18] '-길래'를 오류 없이 사용한 학습자의 국적 및 급수와 문장 수

| 비격식적 문어 | | | | | | 비격식적 구어 | |
|---|---|---|---|---|---|---|---|
| 학습자 국적 | 중국 | | 일본 | | 타이 | 일본 | 베트남 |
| 급수 | 4급 | 5급 | 4급 | 5급 | 4급 | 4급 | 4급 |
| 문장 수 | 4 | 1 | 2 | 1 | 1 | 3 | 1 |
| 총 문장 수 | 9 | | | | | 4 | |

'-길래'는 앞서 2장에서 지적한 바대로 문어보다는 주로 구어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된다는 화용적 기능을 가진다. 그런데 만일 '-길래'가 문어에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안주호(1998: 210-211)의 지적

186) 이지선(2017: 351)에 따르면 한국 측에서 출판한 7종의 교재와 중국 측에서 출판한 4종의 교재를 분석한 결과 그 어디에서도 후행절의 상황을 일으킨 이유를 화자가 추측하는 평서문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처럼 비격식적 문어에 쓰인다는 화용적 특성이 있다[187]. 즉 읽는 상대방에 대한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개인적인 내용이나 체험을 기술한 일기나 편지 혹은 수필 등에서는 '-길래'가 쓰여도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따라서 '-길래'의 이러한 화용적 기능을 학습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한 담화 상황에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한 '-길래'의 사용에 있어 오류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길래'를 사용한 학습자들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개인적인 경험을 쓴 비격식적인 문어체[188]에서 '-길래'를 잘 사용하고 있는 용례가 9건이었고, 구어에서는 4건이 확인되었다. 이를 각각 학습자 '-길래' 구문이 속한 문어 자료와 구어 자료의 총 용례 수인 88개와 7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비율을 따져보면, 문어 자료에서는 10.22% 그리고 구어 자료에서는 57.14%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문어보다는 구어에서 학습자들이 '-길래'를 오류 없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구어보다 문어에서 학습자의 '-길래'의 사용이 두드러진 것은 학습자들의 말뭉치 자료가 쓰기의 문어체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길래'를 잘 사용한 학습자의 급수를 보면 4급이 11명이고 5급은 2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기관에서 교수하는 대부분의 교재에서 '-길래'를 4급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이정희(2003: 169)는 학습자들의 단기 기억 장치에 저장된 문법 항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면 오류를 일으키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곧 문법 항목을 학습한 시간이 가까울수록 그 사용에 있어 오류를 일으킬 확률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4급에서 '-길래'를 학습하면서 그 올바른 쓰임을 익힌 뒤 바로 사용했기 때문에 4급의 학습자들이 5급에 비해 '-길래'를 정확하게 사용한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길래'의 의미 및 문법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담화 상황에서 정확하게 '-길래'를 잘 사용한 경우에 비해 앞에서도 잠깐 지적한 바대로 '-길래'의 사용에 있어 오류를 보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187) 안주호(1998: 210-211)는 노대규(1996: 33-35)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길래'의 화용적 기능은 '구어'라는 언어 환경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격식체'에서 쓰이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즉 구어에서 주로 비격식적 상황에서 '-길래'가 쓰이는 것처럼 문어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서술하는 편지 및 일기, 수필 그리고 독자와 친밀한 관계 설정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동화 등에서는 비격식체의 '-길래'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188) '-길래'를 쓴 학습자의 말뭉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기술한 비격식적인 문어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 '나의 나쁜 생활 습관' 등이 있었다.

확인되었다.

(1) 가. 왜냐하면 긔것들을 가지고 평생을 사**길래** 선택할 때 잘 생각하는 게 필요한다.

(19775_카자흐스탄, 카자흐어, 5급, 문어[189])

나. 인터넷을 중요하**길래** 매일 사용해야 한다.

(9587_중국, 중국어, 5급, 문어)

위 (1)의 용례는 학습자가 쓴 문장으로 비문이다. 그 이유는 이 문장들은 '-길래'의 통사적 제약에서 어긋나 있는 데다가 그 외에도 여러 유형의 오류들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오류의 현상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 왜냐하면 *긔(√그)[190]것들을 가지고 평생을 *∅사(√살)**길래** 선택할 때 잘 생각하는 게 필요*한(√하)다.

나.′ 인터넷*을(√이) 중요하**길래** 매일 사용해야 한다.

먼저 (1가′)의 용례에서는 '그'를 '긔'로 잘못 쓴 맞춤법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길래' 앞에 동사나 형용사가 결합할 때는 어간에 '-길래'가 바로 결합하면 되는데도 받침 'ㄹ'을 생략했다. 게다가 '필요하다'는 형용사이므로 어떤 종결어미와의 결합 없이 그대로 기술하면 되는데, 문어체 현재형의 동사에 결합되는 '-ㄴ/는다'의 형태와 결합 시켜 잘못 쓰는 바람에 오류를 일으켰다. 그리고 (1나′)의 용례에서는 주격 조사를 써야 하는데 대신 목적격 조사를 잘못 써서 발생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학습자가 일으키는 다양한 오류들 중에서도 이 장에서는 '-길래'의 사용 측면에서 학습자가 일으키는 오류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오류들은 논외로 두기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자의 '-길래'의 사용 측면에서 발생한 오류를 보면, 용례 (1가)에서는 '-길

189) 이 장에서 제시하는 용례들은 대부분 국립국어원의 학습자 말뭉치에서 검색된 '-길래' 구문들이다. 그에 대한 학습자 자료 정보는 '표본번호', '국적', '모국어', '한국어 급수', '언어 형식'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190) 용례의 오류 표기와 수정은 이정희(2003)의 것을 따랐는데, '*'표기는 오류임을 나타내고 오류가 발생한 표현 앞에 붙이며, ( ) 안의 '√'표기 뒤에 올바른 표현을 썼다. 그리고 '∅'표기는 '누락' 오류를 의미하는데 즉 써야 할 표현을 쓰지 않은 오류를 말한다.

래’의 선행절에서 발생한 결합 오류와 선·후행절의 주어 인칭 오류 그리고 후행절의 서술어 제약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동사나 형용사가 ‘-길래’와 결합할 때는 ‘-길래’가 용언의 어간에 바로 결합해야 하는 규칙이 있다. 그러나 학습자는 ‘살다’라는 동사에서 받침을 생략하고 ‘-길래’와 결합 시킨 오류를 범했다. 또한 ‘-길래’는 평서문[1]에서 후행절에는 반드시 1인칭 주어가 와야 하고, 선행절에는 화자가 지각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보통 2·3인칭 주어가 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1가)의 용례에서는 선행절에 화자를 포함한 단어인 ‘우리는’이라는 선행절에 올 수 없는 주어가 온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후행절에는 ‘생각하는 게(것이)’의 3인칭 주어가 와서 후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을 어기고 있다. 덧붙여 ‘-길래’의 후행절에는 화자의 의지가 읽히는 서술어가 와야 하는데도 (1가)의 용례에서는 ‘필요하다’라는 형용사가 와서 오류가 된다. 그런데 이는 용례 (1나) 후행절의 서술어에도 해당되는 오류이다. 즉 서술어가 ‘사용하다’로 동사이기는 하지만 그 뒤에 ‘-아/어/여야 하다’의 ‘당위’ 표현이 오게 되면 이는 화자가 의지를 가지고 했거나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후행절의 서술어 제약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용례 (1가)는 선·후행절의 주어 인칭 오류 및 후행절의 서술어 오류를 일으켰으며, 선행절의 결합에서도 오류가 발생해 비문이 된다. 또한 (1나)는 후행절의 서술어 제약을 어긴 오류가 발생해 비문이다.

이와 같은 ‘-길래’의 사용에 있어 학습자들이 일으키는 오류를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는데 그 분석 기준은 ‘-길래’의 의미, 통사적 규칙, 화용적 기능의 세 가지 범주였다. 또한 그 분석 대상은 인과 연결어미인 ‘-길래’를 잘 쓴 13개의 문장[191]을 제외한 82개의 비문이 해당된다[192]. 그 결과 다른 문법 표현 대신에 ‘-길래’를 잘못 사용한 오류를 비롯해, ‘화용적 기능 오류’, ‘주어 인칭 오류’, ‘후행절의 서술어·시제·서법 오류’, ‘선행절의 결합 및 서술어 오류’, “-길래’ 의문문 오류’의 9가지 유형의 오류가 확인되었다. 이에 학습자들이 많이 일으킨 오류 빈도 순위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191) 이 장에서는 앞에서도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학습자들이 쓴 ‘-길래’ 구문에서 나타난 오류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에 발생한 오류들은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길래’를 오류 없이 잘 쓴 13개의 문장 중에는 그 외 발생한 오류로 인해 정문이 아닌 비문인 경우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확인해 본 결과 ‘-길래’를 잘 사용하면서도 다른 오류가 없어 정문인 경우는 13개 중에서 6개에 불과했다.

192) 그 결과로 확인된 오류는 총 175개였다. 그 이유는 ‘-길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비문은 모두 82개였지만, 한 개의 문장에서 두 개 이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그 각각을 해당하는 오류 유형에 포함시켜 계산했기 때문이다.

## 2.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 나타난 '-길래'의 오류 분석

### 2.1. 화용적 기능 오류

학습자들의 '-길래'의 사용에서 드러난 9가지의 오류 유형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한 오류는 의외로 부적합한 담화 환경에 '-길래'를 사용한 '-길래'의 '화용적 기능'에 관계된 것이었다.

(2) 가. 요즘 자연이나 인간 활동으로 인해 소실되거나 훼손한 문화재가 많아지길래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5079_중국, 중국어, 6급, 문어)
나. 요즘 이 티셔츠가 유행이라고 하길래 샀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14992_베트남, 베트남어, 4급 문어)

'-길래'는 주로 사적·친밀한 관계의 비격식적 상황의 구어에서 쓰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주제에 대한 자신의 논점이나 의견을 기술하는 논설문이나 격식적인 상황의 항의글에서는 '-길래'의 사용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예로 든 (2)의 경우처럼 논설문이나 항의글[193]에서 '-길래'가 사용된 경우가 75건으로 확인되어, 가장 높은 오류율인 78.9%로 '-길래'가 어색한 담화 환경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의 '-길래'가 가지는 화용적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교사가 '-길래'를 교수 시 '-길래'의 화용적 기능을 강조해 교수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 기관의 4급 학습자 시험 자료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4급 학습자의 문법 시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길래'의 화용적 기능과 관련된 오류는 4건으로 총 75개의 4급 학습자 자료를 기준으로 5.33%의 낮은 오류율을 나타냈다. 이처럼 두 학습자 자료 간의 '-길래'의 화용적 기능에 관계된 오류의 격차가 70%가 넘는 이유는 각 자료의 유형 차이가

193) 학습자가 '-길래'를 사용한 격식적인 항의글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말한다.

빚어낸 결과로 추정된다. 즉 학습자 말뭉치 자료는 주제 작문이나 자유로운 형식의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4급 학습자 자료는 제한적 조건의 대화에서 질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는 문제 유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4급 학습자들이 '-길래'를 어색한 담화 환경에 사용해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급 학습자들이 진학을 위한 입학 면접시험이라는 격식적 상황에서 '-길래'를 사용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194]은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길래'의 화용적 기능을 학습자들에게 명확히 제시할 필요성에 또 다른 이유가 된다.

## 2.2. 주어 인칭 제약 오류

다음으로 살펴볼 오류는 주어 인칭 제약과 관련된 오류인데 총 39건이 확인되었으며, 전체 95개의 학습자가 쓴 '-길래' 구문을 기준으로 보면 41.05%의 오류율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오류에 관련된 '-길래' 평서문[1]의 주어 인칭 제약은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선행절의 2·3인칭 주어 제약이며 그리고 두 번째는 후행절의 1인칭 주어 제약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화자만이 자각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경우에 적용되는 선행절의 1인칭 주어 제약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특히 3장의 논의와 달리 선행절에 2·3인칭 주어가 빈도 높게 출현하는 경향을 제약으로 설정한 이유는 학습자들의 오류의 양상을 짚어내기 위해서이다. 즉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에는 화자가 지각한 상황이 위치하기 때문에 그 조건만 충족된다면 어떤 인칭이든지 주어로 허용된다는 점을 앞서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학습자들이 이와 같은 선행절의 주어 인칭과 관련된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지각한 상황에 어색한 주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특히 분석 결과 학습자들의 오류 중에서 화자 자신의 행동을 알아차린 지각의 경우에 관련된 오류는 1건도 없었고, 1인칭 이외의 주어가 쓰여야 하는데 1인칭 주어를 잘못 쓴 오류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선행절의 2·3인칭 주어

194) (1) 네, 심리과 정공하고 싶길레 지원했습니다.
(2) 네, 다른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길래 지원했습니다.
(S대학 어학당 4급 2학기 기말시험 답안지)
위에서 예로 든 답안은 '가: 우리 학과에 지원한 동기를 말해 주세요.'의 질문에 대해 4급 학습자가 작성한 것이다.

경향을 선행절의 주어 제약으로 설정하게 된 것이다.

[표 19] 학습자가 일으킨 '-길래'의 주어 인칭 제약 오류 유형 및 오류율

| 오류 유형 | 선행절 2·3인칭 주어 | 후행절 1인칭 주어 | 선행절 1인칭 주어 | 합계 |
|---|---|---|---|---|
| 개수 | 9개 | 29개 | 1개 | 39개 |
| 오류율 | 9.47% | 30.52% | 1.05% | 41.05% |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어 인칭'과 관련된 3가지 제약 중에서 학습자들이 가장 많은 오류를 일으킨 제약은 후행절에는 반드시 1인칭 주어가 와야 한다는 제약이다. 이 제약과 관련된 오류는 학습자들이 쓴 '-길래' 문장 전체 합계를 기준으로 하면 30.52%의 오류율에 해당하는 데다가, 39개의 주어 인칭 제약 관련 오류에서 차지하는 분포는 74.35%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가. 인터넷을 많이 발전하**길래** 우리의 생활도 많이 바꿨다.

(9424_중국, 중국어, 5급, 문어)

나. 예를 들면 어떤 중학생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상 주인공이 담배를 피우**길래** (어떤 중학생이) 한번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195]다.

(12072_중국, 중국어, 5급, 문어)

다. 부모님들 다 다른 사람 보고 아이들에게 시키**길래** 자기도 자지 아이한테 시키는 거예요.

(30015_중국, 중국어, 5급, 문어)

라. 사람들은 여가 시간이 많아지**길래** (사람들은) 가족 시간에다가 취미생활까지 다양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9366_중국, 중국어, 5급, 문어)

195) '-길래' 평서문[1]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건이 거의 유사한 시간에 일어난다는 제약을 가진다. 즉 화자가 선행절의 사건을 지각한 후에 바로 이어서 후행절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주로 후행절에는 과거 시제가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후행절의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할 때에는 후행절에도 현재 시제를 허용하게 된다. 그러나 (3나)의 용례는 과거의 한 사건을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후행절에는 과거 시제가 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길래'의 후행절의 시제 제약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고 뒤에서 따로 논의하려고 한다.

위 용례 (3)의 문장들은 여러 오류들로 인해 모두 비문이다. 그런데 이 문장들에서 목격되는 오류들 중에서도 '-길래'와 관련된 공통된 통사적 오류가 확인되는데 그것은 바로 후행절의 1인칭 주어 제약 오류이다. 즉 위에 제시한 용례 4개가 모두 '-길래' 평서문[1]임에도 불구하고 후행절의 주어가 모두 1인칭이 아닌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3가)의 후행절의 주어는 '우리의 생활'이며, (3나)의 주어는 '어떤 중학생'이고, 용례 (3다)의 주어는 '자기' 즉 '부모님들'이 되고 마지막으로 (3라)의 주어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모두 1인칭 주어가 아니라 3인칭 주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장들은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 1인칭 주어 제약을 어긴 비문이 된다.

그럼 다음의 용례들을 보자.

(4) 가. 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댄스에 관심하**길래** 나중에 댄스 선생님이 되고 싶다.

(23123_중국, 중국어, 5급, 문어)

나. 근데 (나는) 글쓰기를 매우 좋아하**길래** 신문이랑 광고홍보 전공을 선택했다.

(9422_중국, 중국어, 5급, 문어)

다. 그리고 (나는) 늦게 자**길래** 피로를 많이 들어와서 항상 수업이 집중을 할 수 없다.

(16588_말레이시아, 중국어, 4급, 문어)

라. 그래서 (저는) 어미님 말씀을 듣**길래** (저는)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습니다.

(9348_대만, 중국어, 5급, 문어)

마. 그 시절부터 아 (저는) 열심히 노력했**길래** (저는) 아 좋은 썽쩍글 아 받았습니다.

(32521_파나마, 스페인어, 4급, 구어)

위 (4가~4라)의 용례들은 학습자의 문어 자료이고, (4마)의 용례는 구어 자료인데 공통적으로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와서 비문이 된 경우들이다. 즉 '-길래' 구문의 선행절에는 '-길래'의 지각의 의미로 인해 보통 화자 이외의 2인칭이나 3인칭 주어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4)의 용례에서처럼 선행절에 '나'라는 1인칭 주어가 오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4)에서 제시된

예문들의 선행절에 온 화자의 행동은 화자가 지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행절에 어색한 주어를 사용해 일어난 오류는 총 9건으로 전체 주어 인칭 제약 오류를 기준으로 보면 23.07%의 비율이었다.

하지만 만일 선행절에 화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나 상태 등의 형용사나 '생각이 나다', '짜증이 나다', '자신이 생기다' 등의 자동사 등이 오면 선행절의 주어는 오히려 1인칭으로 제한된다.

(5) 다들 평일에 회사에서 일을 많이 했어 힘들**길래** (다들) 운동을 하기가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9597_중국, 중국어, 5급, 문어)

위 용례 (5)에서 선행절을 보면 '다들'이라는 3인칭 주어가 왔지만, 이 문장은 선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을 어긴 경우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선행절에 온 '힘들다'라는 서술어로 인한 것이다. 즉 이 문장에서 선행절에 온 '힘들다'라는 서술어의 주어는 '다들'의 3인칭 주어인데, 앞서 지적한 바대로 '힘들다'라는 상태는 화자인 1인칭 주어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절에는 1인칭 주어만을 허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아니라 용례 (5)와 같이 3인칭 주어가 오게 되면, '힘들어하길래'처럼 '힘들다'를 '힘들어하다'로 동사화시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화자인 내가 보고'의 의미가 드러나게 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길래'가 나타내는 '자각'의 의미로 인한 선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습자들은 위 (5)의 용례와 같은 오류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위 (5)의 용례에서 하나 더 지적해야 할 점은 선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 외에도 또 다른 주어 인칭 제약 오류를 동시에 일으켰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후행절의 1인칭 주어 제약 오류이다. 즉 후행절의 주어가 선행절과 동일하게 '다들'의 3인칭인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용례는 선·후행절에서 동시에 주어 인칭 제약을 어긴 보기 드문 오류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학습자들이 '-길래'를 사용할 때 일으키는 '-길래' 평서문[1]의 주어 인칭 제약과 연관된 오류를 분석해 보았는데, 앞서 지적한 바대로 학습자들은 후행절에서 주로 오류를 일으킨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에게 '-길래' 평서문[1]의 주어 인칭 제약을 교수할 때 특히 후행절의 주어 제약에 대해서 더욱 강조해서 설명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준다. 사실 후행

절의 1인칭 주어 필수 제약은 앞서 2장에서 논의한 바대로 '-길래'가 가지는 의미로 인한 것으로, '-길래' 구문의 후행절은 화자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행동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길래' 평서문[1]의 주어 인칭 제약을 교수 시 이러한 의미와 연관된 후행절의 1인칭 주어 제약을 성인 학습자들에게 논리적으로 풀어 이해시킨다면 현재와 같은 30.52%라는 높은 오류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대학 기관의 4급 학습자 시험 자료에서 나타난 주어 인칭 제약과 관련된 오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류율이 6.67%로 학습자 말뭉치 자료보다 훨씬 적기는 하지만, 4급 학습자 자료에서는 주어 인칭 오류가 후행절에서만 발생했기 때문이다[196]. 먼저 두 자료의 주어 인칭 제약과 관련된 오류율을 보면, 41.05%와 6.67%로 자료 간 격차가 6배 이상 크게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대로 학습자 자료 간의 유형 차이로 인한 것이다. 즉 4급 학습자 자료는 후행절에 발생한 상황을 초래한 이유를 묻는 유형으로 문제 자체에 학습자가 대답으로 기술해야 하는 선행절과 후행절에 올 주어가 제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료에서 확인된 주어 인칭 제약과 관련된 공통적인 오류 양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후행절의 주어 인칭 오류가 선행절에 비해 두드러진다는 점이었다. 즉 후행절에 1인칭 이외의 주어를 사용해 발생한 오류가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서는 주어 인칭 제약 오류의 74.35%를 차지했고, 4급 학습자 자료에서는 10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바로 학습자의 선행절보다는 후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에 대한 인지가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교사의 이 통사적 제약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강조가 요구된다.

## 2.3. 후행절의 서술어와 시제 오류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에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서술어만이 허용되는 제약이 있다. 그런데 학습자들은 후행절에 통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서술어

196) 4급 시험 자료에서 확인된 후행절에서 발생한 주어 인칭 오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 빙빙 씨는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데 시험 성적이 괜찮네요.
(1) 나: 맞아요, (빙빙 씨가) 열심히 공부하길래 (빙빙 씨가) 시험을 잘 봤어요.
(2) 나: 맞아요, (빙빙 씨가) 사실 학원에 가길래 성적이 좋아졌어요.
(S대학 어학당 4급 1학기 기말시험 답안지)

를 쓰면서 총 27건의 오류를 일으켰는데 이러한 27건의 후행절의 서술어에서 확인된 오류의 유형을 정리한 것이 바로 아래의 표이다.

[표 20] 학습자가 일으킨 '-길래'의 후행절 서술어 제약 오류 유형 및 오류율

| 오류유형 | 비의지 서술어 | | 비의지를 나타내는 표현과 결합한 경우 | | | | | | 합계 |
|---|---|---|---|---|---|---|---|---|---|
| | A | N+이다 | 가능성 | 피동 | 당위 | 당연한 결과 | 변화 | 희망 | |
| 개수 | 7 | 1 | 5 | 4 | 5 | 1 | 2 | 2 | 27 |
| 오류율 | 7.36% | 0.1% | 5.26% | 4.21% | 5.26% | 0.1% | 2.1% | 2.1% | 28.4% |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학습자들이 후행절에 허용되지 않는 서술어나 표현을 사용하는 오류를 일으키는 비율은 '-길래'가 쓰인 전체 문장의 28.4%였는데, 결코 적지 않은 오류율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오류를 일으킨 유형을 들여다 보면, 그중에서도 후행절에 [-동작성]의 형용사를 사용한 서술어 제약 오류를 가장 많이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후행절에서 동사에 의지를 나타내지 않는 표현을 결합 시킨 경우로 6가지의 모든 유형을 합치면 20%에 가까운 오류율을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후행절에 서술어로 명사에 지정사인 '이다'가 결합한 형태가 온 경우로 1건의 오류가 확인되었다.

(6) 가. 어디든지 친구나 가족하고 전화할 수 있**길래** 편해요.

(12242_일본, 일본어, 5급, 문어)

나. 학교가 영어 기말 시험지를 좀 어렵게 만들**길래** 아이의 영어 공부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2852_중국, 중국어, 6급, 문어)

다. 요즘 자연이나 인간 활동으로 인해 소실되거나 훼손한 문화재가 많아지**길래**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5079_중국, 중국어, 6급, 문어)

라. 시험이 많**길래** (나는) 여가 시간에 다름 곳을 갈 수 없다.

(12079_중국, 중국어, 5급, 문어)

마. 주변 부모님들은 다들 학원을 보내**길래** 나도 빨리 조기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264_중국, 중국어, 5급, 문어)

바.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오**길래** 길이 엄청 막힌다.

(4230_중국, 중국어, 4급, 문어)

사. 어렸을 때부터 동화 이야기를 좋아하**길래**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

(21350_중국, 중국어, 3급, 문어)

아. 또 명절 때 보통 여자만 일해야 했**길래**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난리다.

(4051_우즈베키스탄, 러시아어, 4급, 문어)

위에서 예로 든 (6)의 '-길래' 평서문[1]들은 '-길래'의 통사적 제약의 측면에서 보면 (6라)와 (6마) 이외에는 모두 2개 이상의 '-길래'가 가지는 통사적 제약을 어긴 비문들이다. 즉 (6가~6다), 그리고 (6바)의 경우는 후행절의 1인칭 주어 제약과 서술어 제약을 어기고 있다. 또한 (6사)는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왔고 후행절에도 허용되지 않는 서술어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아)에서는 선행절에서 '-었-'첨가로 인한 결합 오류가 일어났고, 후행절에서는 1인칭 주어 제약 오류 및 서술어 제약 오류가 발생했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대로 (6)의 이 모든 용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길래' 평서문[1]의 통사적 오류는 바로 후행절의 서술어 오류이다.

그 오류 유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면, (6가)의 '-길래' 평서문[1]에서는 후행절에 형용사가 왔고, (6나)의 용례에서는 후행절에 동사가 오긴 했지만 그 뒤에 당연한 결과를 나타내는 'V/A-(으)ㄹ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와서 서술어 오류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형용사나 당연한 결과의 내용에는 화자의 의지나 의도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6다)의 용례에서는 후행절에 '강구하다'라는 동사 뒤에 '-아/어/여야 하다'의 당위의 표현이 와서 그리고 (6라)의 용례에서는 동사 뒤에 가능성이 없음을 말하는 '-을 수 없다'의 표현이 왔기 때문에, 또한 (6마)의 용례에서는 '시작하다'라는 동사 뒤에 '-게 되다'라는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 와서 후행절에서 서술어 오류가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6바)에서는 후행절에 '막히다'라는 피동사가 위치해서 또한 (6사)의 용례에서는 동사 뒤에 '-고 싶다'라는 희망의 표현이 왔기 때문

에, 그리고 (6아)에서는 명사에 지정사인 '이다'가 결합한 형태의 서술어가 와서 이 문장들은 '-길래'의 서술어 제약에서 벗어난 비문이 되었다.

이와 같은 8개의 용례를 통해서 외국인 학습자가 후행절의 서술어에서 다양한 형태의 오류를 일으킨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주지해야 할 점은 그 오류율이 '-길래'가 쓰인 문장 전체의 거의 30%에 육박한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특히 후행절의 용언에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표현들이 결합해서 발생한 오류가 후행절의 서술어 오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37%나 된다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학습자들에게 후행절의 서술어 제약을 교수할 때는 후행절에 [+동작성]의 서술어가 온다는 사실 이외에도 후행절에 서술되는 내용에서 화자의 의지나 의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표에서 제시한 형용사나 피동사 및 '명사+이다'의 형태 이외에도 화자의 의지를 감추는 '가능성, 당위, 희망, 변화' 등의 표현들이 쓰인 비문들을 학습자들에게 노출시켜야 한다. 그와 동시에 이 문장들이 왜 비문인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후행절에 오는 서술어가 가지는 의미자질을 완전하게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근본적으로 학습자들이 후행절에서 일으키는 서술어 제약 오류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또한 학습자들이 후행절에서 일으키는 오류가 서술어 이외에도 시제와 관련된 것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 11건으로 전체 문장을 기준으로 보면 11.6%의 오류율에 해당한다.

(7) 가. 다음 신청 기간이 9월 초에 시작하**길래** (나는) 이번에는 반드시 신청을 한다.

(23271_대한민국, 일본어, 4급, 문어)

나. 친구가 하고 있**길래** 나도 같이 이 직업이 한다.

(31939_홍콩, 중국어(광둥어), 5급, 문어)

다. 내 아이가 쉽게 외국어를 배우**길래**[197] (나는) 아이에게 일찍 외국어 교육을 시킬 거다.

(29773_중국, 중국어 5급, 문어)

197) 이 문장은 사실 이유를 나타내는 인과 연결어미인 '-길래'가 아니라 목적의 표현이 와야 하지만 '-길래'가 대신 쓰여 '대치' 오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이 오류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위 용례 (7)은 공통적으로 후행절에 허용되지 않는 시제가 와서 비문이 된 경우들이다. 즉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에는 미래 시제가 올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용례에서 (7다)는 '-을 것이-'의 미래 시제가 와서 후행절의 시제 제약을 어긴 경우가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해야 할 점은 후행절에 현재 시제가 허용되는 경우는 후행절의 사건시와 발화시가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다. 즉 화자가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을 야기한 화자가 지각한 사실을 이유로 직접 말하는 경우에만 후행절에 현재 시제가 올 수 있다. 하지만 위 (7가)와 (7나)의 후행절의 화자의 행동은 위 문장들을 쓸 때 하고 있던 행동이 아니라 과거에 선행절의 사건을 지각했을 당시에 바로 이어서 한 행동이므로 후행절에는 모두 과거 시제가 와야 한다. 따라서 (7가)의 용례에서는 '신청을 한다'를 '신청을 하기로 했다'로 (7나)에서는 '한다'를 '선택했다'로 시제를 과거형으로 수정하면 '-길래'의 사용에 있어서는 통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문장으로 바뀌게 된다.

위와 같이 학습자들이 문어체에서 후행절의 시제 제약 오류를 일으킨 것은 앞서 지적한 바대로 구어에서 현재 시제가 용인되는 경우와 문어는 다르다는 점을 학습자들이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문어체에서 '-길래' 구문의 현재형이 비문이 되는 이유는 학습자가 글을 쓰고 있는 당시에 어떤 상황을 지각해서 그것을 근거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서술한다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학습자의 문어 자료는 어떤 주제 혹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개인적인 경험을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거를 '-길래'로 제시할 때에는 그 근거가 모두 화자가 과거에 지각한 내용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길래' 구문의 후행절의 사건시와 문장을 쓰는 발화시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문어에서 '-길래'를 사용할 때 후행절의 시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어와 달리 문어에서는 후행절에 현재 시제가 오기 어렵다는 특성을 학습자에게 별도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2.4. '-길래'를 잘못 사용한 오류

여기에서 살펴볼 오류는 다른 문법 표현 대신 '-길래'를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모두 11건으로 학습자들이 '-길래'를 쓴 총 95개의 문장을 기준으로 보면

11.57%의 비율에 해당한다.

[표 21] 학습자가 일으킨 '-길래'의 대치 오류 유형 및 오류율

| 유형 | 역접·대조 | 목적 | 가정 | 동시 진행 | 발견 | 합계 |
|---|---|---|---|---|---|---|
| 개수 | 3 | 4 | 2 | 1 | 1 | 11 |
| 오류율 | 3.15% | 4.22% | 2.1% | 1.05% | 1.05% | 11.57% |

위 표를 통해서 보면 학습자가 '목적'을 나타내는 문법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데 인과 연결어미인 '-길래'를 잘못 사용한 경우가 4건으로 총 11건의 '-길래' 대치[198] 오류에서 36.4%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역접'이나 '대조'의 문법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데 '-길래'를 잘못 사용해서 오류를 일으킨 경우가 3건 발견되었다. 그 외에도 '가정'의 문법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데 '-길래'를 대신 사용해서 어색한 문장을 만든 경우가 2건으로 나타났고, '동시 진행'이나 '발견'의 표현 대신 '-길래'를 잘못 쓴 경우가 각각 1건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길래' 대치 오류의 양상을 다음의 용례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한다.

(8) 가. 생활이 편하게 되**길래** 처음에는 우리도 모르게 환경오염은 진행됐다.

(6904_일본, 일본어, 4급. 문어)

나. 요즘 조기 외국어 교육에 대한 지지한는 사람이 많**길래** 나는 원래는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싶지 않으니까 반대했는데 요즘에는 지지한다.

(30014_중국, 중국어, 5급, 문어)

위 두 용례는 '역접' 혹은 '대조'의 문법 표현과 '이유'를 나타내는 '-길래'의 대치 오류가 일어난 경우들이다. 즉 이 두 문장의 선행절과 후행절에 기술된

198) 이정희(2003: 83-84)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오류 유형을 논의하면서 특히 학습자들이 오류를 일으킨 결과물을 기준으로 두고 오류 현상을 분류해 보면 '대치', '누락', '첨가'의 오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다. 먼저 '대치'는 써야 할 표현을 안 쓰고 다른 표현으로 잘못 쓴 경우이며 '누락'은 써야 할 표현을 안 쓴 것, 마지막으로 '첨가'는 불필요한 표현을 더 쓴 경우를 말한다(이정희, 2003:83). 이에 본고에서는 이정희(2003: 83)가 제시한 오류 유형에 대한 용어의 개념을 수용해 학습자들의 '-길래' 구문에서 나타난 오류를 논의하고자 한다.

내용은 인과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역접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가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면 한결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8) 가.′ **생활은 편해졌지만** 처음에는 우리도 모르게 환경오염은 진행됐다.

나.′ 요즘 조기 외국어 교육에 대한 지지한는 사람이 많＊**길래(√지만)** 나는 원래는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싶지 않으니까 반대했는데 요즘에는 지지한다.

(8가′)의 용례는 '-길래'와 결합된 변화의 표현에도 오류가 있어 그것까지 수정하고 인과 연결어미인 '-길래' 대신 '-지만'의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를 사용해서 선행절을 고친 문장이다. (8나′)의 용례에서도 '-길래' 대신 '-지만'의 연결어미를 사용했더니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가 자연스러워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길래'의 대치 오류가 일어난 원인은 학습자가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와 동시에 이는 '-길래'가 이유를 표현하는 연결어미라는 기본적인 의미조차 학습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과로도 비춰질 수 있다.

(9) 가. 우리 사회가 발전하＊**길래(√려면)** 과학 실력이 높아야 한다.
(19765_중국, 중국어, 5급, 문어)

나. 다리가 아프지 않＊**길래(√으려면)** 좋은 운동 방법을 찾은다.
(9593_중국, 중국어, 5급, 문어)

(9가)와 (9나)의 용례는 선행절에 '목적'을 나타내는 문법 항목 대신 '이유'를 나타내는 '-길래'가 쓰여 대치 오류를 일으킨 경우들이다. 그러므로 위 용례들처럼 '-길래'를 '-(으)려면'으로 대치하면 앞서 살펴본 용례들과 마찬가지로 선·후행절의 문맥이 자연스러워진다. 그런데 사실 모국어 화자와 달리 한국어 학습자들은 위 용례들의 경우처럼 '원인'과 '결과' 그리고 '목적'과 '조건'의 관계를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의 이와 같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길래'를 교수 시 '이유'와 '목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해 주는 것도 학습자가 '-길래'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어지는 (10)의 용례들은 '조건' 혹은 '가정'의 문법 표현을 사용해야 상황에서 '-길래'를 잘못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10) 가. 한국 친구가 많이 사귀*__길래(면)__ 한국말 연습을 잘 수 있어요.

(997_중국, 중국어, 3급, 문어)

나. 그리고 현대인들은 인터넷이 없*__길래(으면)__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다.

(29797_중국, 중국어, 5급, 문어)

(10가)의 용례에서는 선행절을 후행절의 결과에 대한 조건 혹은 가정으로 볼 수 있고, (10나)의 용례에서 선행절은 가정이 된다. 그런데 학습자들이 이렇게 선행절에 '가정' 혹은 '조건'의 연결어미를 써야 하는 상황에 '-길래'를 사용한 것은 후행절에 오는 내용이 결과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선행절에 인과 연결어미가 쓰이는 경우에는 후행절에 그에 따른 결과가 오게 되는데, 조건 혹은 가정의 연결어미가 쓰인 후행절에도 그와 연관된 결과가 오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후행절에 동일하게 결과가 온다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학습자들이 이 두 연결어미 사용에 혼란을 일으킨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앞서 학습자들에게 '-길래'를 제시할 때 목적과 이유의 차이에 대해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듯이, 후행절의 결과에 대해 다른 의미를 가지는 선행절의 '이유'와 '조건'에 대해서도 학습자들에게 그 의미 차이를 별도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11) 가. 현대 사회를 급변하*__길래(√면서)__ 우리의 생활 속도도 많이 빨라졌다.

(774_중국, 중국어, 4급, 문어)

나. 그리고 (내가) 현대 사람의 구매 수준 늘어나는 결과를 보*__길래(√니까)__ 과학 발전은 세게 나라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32367_중국, 중국어, 5급, 문어)

위 (11가)의 용례에서는 선행절에 '-길래'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상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 쓰이는 연결어미인 '-(으)면서'가 쓰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또한 (11나)의 용례에서도 인과 연결어미 '-길래'가 아니라 화자가 선행절의 행동을 한 후에 후행절의 사실을 발견하게 된 상황에서 쓰이는 연결어미 '-(으)니까'가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은 '동시 진행'이나 '발견'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를 써야 할 상황에 '-길래'를 잘못 사용하는 대치 오류를 일으키고 있었는데 각각 1건씩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특히 '발견'의 의미를 나타내는 '-(으)니까' 대신 '-길래'를 잘못 쓴 것은 '-(으)니까'가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인과 연결어미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인과 연결어미인 '-(으)니까'가 '발견'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는 '-길래'도 '-(으)니까'와 같이 '발견'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착각했을 수 있다. 그로 인해 '발견'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표현을 써야 하는 상황에 '-길래'를 쓴 오류를 일으킨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길래'의 의미를 제시할 때 다른 인과 연결어미와의 비교를 통해 구별되는 '-길래'의 의미적 특성을 강조해 줄 필요가 있다.

### 2.5. 선행절의 결합 오류

'-길래'는 선행절에서 '-더-'를 제외한 선어말어미나 '-을 듯하다'나 '-을 것 같다' 등의 추측의 표현 등 다양한 형태와 결합이 가능한데, 이때 '대치', '첨가', '누락' 등의 오류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서 '대치'는 써야 할 표현을 안 쓰고 다른 표현으로 잘못 쓴 경우이며, '누락'은 써야 할 표현을 안 쓴 것, 마지막으로 '첨가'는 불필요한 표현을 더 쓴 경우를 가리키는 오류의 유형이다(이정희 2003: 83). 이와 같은 선행절의 결합 오류는 총 8건으로 전체 '-길래' 구문의 용례에서 8.42%를 차지하는 오류율이었다. 또한 이외에도 '-길래'와 결합할 수 없는 서술어가 쓰여서 발생한 오류도 2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2] 학습자 '-길래' 구문의 선행절 결합에서 나타난 오류 유형 및 오류율

| 오류유형 | 대치 | 첨가 | | | 누락 | | 서술어 | 합계 |
|---|---|---|---|---|---|---|---|---|
| | 추측 표현 | '르' | '-었-' | '-고' | '르' | '-었-' | | |
| 개수 | 2 | 1 | 1 | 1 | 1 | 2 | 2 | 10 |

| 오류율 | 2.1% | 1.05% | 1.05% | 1.05% | 1.05% | 2.1% | 2.1% | 10.52% |
|---|---|---|---|---|---|---|---|---|

위 표에서 제시한 것처럼 학습자들이 선행절에서 '-길래'와 서술어를 결합할 때 발생한 오류의 유형은 총 7가지로 분류된다. 그런데 그중에서 2건의 대치 오류를 제외하면 나머지 6가지는 모두 '-길래'에 관한 결합 정보를 잘못 파악해서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 용례들로 살펴보고자 한다.

(12) 가. 북촌에서 한복을 입거나 한옥을 보고 싶다고 하**실길래** 우리 가족은 북촌 안을 산책했다.

(5979_일본, 일본어, 4급, 문어)

나. 또 명절 때 보통 여자만 일해야 **했길래**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난리다.

(4051_우즈베키스탄, 러시아어, 4급, 문어)

다. 하지만 친구 중에서 엄마가 대학교에 좋다**고길래** 자기 한국에 오는 친구 많다.

(32362_중국, 중국어, 5급, 문어)

위 용례 (12)는 모두 선행절에서 '-길래'가 문법 표현과 결합할 때 불필요한 형태를 더 사용해서 발생한 오류 즉 '첨가' 오류의 경우에 해당한다.

(12가)는 '하시다'에 '-길래'가 결합하게 되면 '하시길래'가 되는데 학습자는 여기에 'ㄹ'을 더 첨가해서 오류를 일으킨 문장이다. 이러한 오류를 일으킨 원인으로 학습자가 '-길래'의 결합 정보를 '-(으)ㄹ길래'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또한 (12나)의 용례에서는 선행절에서 앞서 '보통'이라는 부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 '일해야 했길래'가 아니라 '일해야 하길래'로 '하다'의 현재형과 '-길래'가 결합해야 했다. 하지만 학습자는 '-었-'이라는 완료형 선어말어미를 더 사용해서 첨가 오류를 일으켰다. 다음으로 용례 (12다)는 간접화법과 '-길래'가 결합한 형태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즉 '좋다고길래'가 아니라 '좋다길래'로 '-다고 하길래'를 줄여 말할 때는 '-다길래'로 써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습자는 '-고'를 덧붙여 사용해서 선행절의 결합 오류를 일으켰다. 이어서 살펴볼 선행절

결합에서 발생한 오류의 현상은 필요한 표현을 쓰지 않은 '누락'이다.

(13) 가. 왜냐하면 긔것들을 가지고 평생을 사**길래** 선택할 때 잘 생각하는 게 필요한다.

(19775_카자흐스탄, 카자흐어, 5급, 문어)

나. 제 주위의 친구가 SNS를 시작**하길래** 저도 시작해봤다.

(15717_일본, 일본어, 5급, 문어)

(13가)와 (13나)의 용례들은 앞서 살펴본 3건의 용례들과 달리 오히려 사용해야 할 형태를 쓰지 않아 발생한 오류의 경우에 해당한다. 먼저 (13가)는 동사인 '살다'와 '-길래'가 잘못 결합한 경우인데, '-길래'가 동사나 형용사와 결합할 때는 용언의 어간에 직접 결합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침인 'ㄹ'을 생략해서 오류를 일으켰다. 또한 (13나)에서는 선행절이 이미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서술어 '시작하다'에는 '-길래'에 완료형 선어말어미 '-었-'을 결합시켜 '-었길래'가 결합해야 한다. 하지만 학습자는 '-었-'을 사용하지 않고 '-길래'만을 결합시켜 선행절 결합에서의 오류를 일으켰다.

(14) 가. 가족들은 내가 혼자 여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생각하**길래** 이야기하지 않았다.

(12722_말레이시아, 말레이어, 3급, 문어)

나.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 하는 언니에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더 힘들더라도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겠다고 하길래** 저도 다시 한번 일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1990_일본, 일본어, 5급, 문어)

위 (14)의 용례들은 필요한 표현 대신 다른 표현을 잘못 써서 오류를 일으킨 경우들에 해당한다. 우선 (14가)에서는 선행절의 내용이 화자가 가족에게 혼자 여행을 간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를 화자가 추측한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생각하길래**'가 아니라 '반대**할 것 같길래**'로 기술해야 했다. 그러나 학습자는 '-(으)ㄹ 것 같다'의 추측 표현 대신 '-다고 생각하다'로 잘못 써서 대치 오류를 일으켰다. 다음의 (14나)도 선행절에 추측의 표현을 잘못 쓴

경우에 해당하는데 '일을 할 수 있**겠**다고 하길래'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길래'로 '-겠-'이 아니라 '-을 것이-'의 추측의 표현이 사용되어야 한다.

한편 이 문장에서 학습자가 추측의 표현을 '-겠-'으로 잘못 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길래'가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해서 '-겠길래'의 형태로도 쓰인다는 것을 학습한 후에 지각한 상황이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모든 상황에 '-겠-'을 사용하는 학습자의 '과잉 일반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14나)의 용례에서 선행절은 화자가 감각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을 근거로 어떤 상황을 추측한 것이 아니라 화자가 다른 사람이 추측한 말을 들은 것이다. 그런데 이때 다른 사람이 어떤 사실을 현장에서 보거나 듣고 그것을 근거로 하는 추측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혹은 일반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하는 추측이기 때문에 '-을 것이-'라는 추측의 표현이 사용되는 것이 자연스럽다[199]. 그러므로 학습자에게 '-겠길래'의 형태를 노출시킬 때에는 반드시 화자가 지각한 상황이 '화자가 감각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근거로 해서 하는 추측'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교수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7개의 용례를 통해 학습자가 선행절에서 '-길래'를 문법 표현과 결합시킬 때 일으키는 다양한 오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학습자들은 주로 '-길래'의 결합 정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에 관련된 오류를 일으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전체 선행절 결합 오류에서 60%의 비율에 해당한다. 따라서 '-길래'의 결합 정보를 학습자에게 설명할 때에는 용언의 어간에 '-길래'가 직접 결합한다는 기본적인 정보 이외에도, 선어말어미 '-겠-'이나 '-었-', '-시-' 혹은 그 외 추측의 표현과 결합하는 다양한 형태를 제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시를 통해서 이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높여 준다면 학습자의 선행절에서의 결합 오류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선행절에서의 '-길래'의 결합에 대한 제약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살펴볼 오류는 선행절의 서술어에 관련된 오류이다. 즉 선행절에는 화자가 지각 가능한 서술어가 와야 한다는 제약이 있는데, 이 오류는 이 제약에서 어긋난 서술어가 온 경우에 해당한다.

---

199) 박진호(2011: 18)에서는 감각 기관을 거쳐 인지하게 된 정보를 근거로 추측할 때에는 추측의 선어말어미 '-겠-'이 그리고 일반적인 지식을 토대로 추측할 때에는 '-을 것이-'가 선택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15) 가. 요즘은 교통이 **발달하길래** 걷기는커녕 차전거도 타지 않다.
(5825_일본, 일본어, 4급, 문어)
나. 과학을 **발전하길래** 사람들 다 집에만 있으니 사교 능력이 없어지단 말이다.
(19665_대만, 중국어, 5급, 문어)

위 용례 (15)의 선행절에 온 '요즘은 교통이 발달하다'와 '과학이 발전하다'의 '발달하다'와 '발전하다'라는 서술어는 화자가 어느 순간에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즉 '발달하다'나 '발전하다'라는 상황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화자가 몰랐다가 어느 한순간 그것을 지각하거나 깨닫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다. 덧붙여 논의하자면 '-길래'가 가지는 '지각'이라는 의미는 '감각 기관을 통해 알게 됨'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는 '발견'이라는 의미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200]. 즉 '알려지지 않았거나 몰랐던 사실을 어떤 것을 계기로 알게 됨'이라는 의미가 '-길래'가 가지는 '지각'의 의미 자질과 겹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위 두 용례의 선행절의 내용을 화자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 역시 부자연스러운 해석이 된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위 두 용례의 선행절에 온 서술어는 화자가 지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용에 있어 오류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학습자들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길래'가 가지는 '화자가 어느 한순간 지각한 것'이라는 의미와 그와 관련된 서술어 제약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 2.6. 후행절의 서법과 의문문 오류

앞서 3장에서 '-길래'의 통사적 제약에 대한 논의에서 지적했던 바대로 '-길래'는 후행절에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오지 못하는 서법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는 모든 '-길래' 구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후행절의 '미래 시제 불가 제약'으로 인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이후의 행동을 요구하거나 제안하는 명령형이나 청유형은 후행절에 오기 어려운 것이다.

200) 『한국어 교육 문법 자료편(2016: 170)』에서는 '-기에'에 비해 '-길래'가 '우연한 발견'의 의미가 더 두드러진다고 했다.

이 장에서 살펴보고 있는 학습자들의 '-길래' 구문 말뭉치 자료들은 대부분 어떤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논지를 기술하는 문어 자료들이다. 따라서 후행절의 용언에 명령형이나 청유형 종결어미를 사용한 오류는 다행히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주지해야 할 점은 '-길래' 구문이 허용되지 않는 문형이 하나 더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판정 의문문이다.

(16) 가. 사람들이 왜 명품을 많이 사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명품을 많이 사**길래** 나도 사야 하는 생각인가?
(31353_홍콩, 중국어(광둥어), 5급, 문어)

위 용례의 학습자가 쓴 '-길래' 구문에서는 후행절 서술어에 '-(이)ㄴ가?'라는 문어체의 의문형 종결어미[201]가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하지만 이는 '-길래'의 서법 제약에서 벗어난 오류에 해당한다. 즉 '-길래'는 기술된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를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판정 의문문에는 사용될 수 없는데 다만 선행절에 의문사가 수반되면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길래' 구문은 비록 상대방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묻는 자문의 내용이라고 해도 선행절에 의문사가 동반되지 않은 의문문이다. 따라서 '-길래'의 서법 제약에서 벗어난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가 쓴 '-길래' 구문에서 이와 같은 '-길래' 의문문과 관련된 오류가 하나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6) 나. 직업은 도대체 뭐**길래** 사랑을 빠져서 즐기면서 계속 일한다.
(32378_중국, 중국어, 5급, 문어)

학습자들이 쓴 '-길래' 의문문은 총 3개로 확인되었는데 그중에서 오류 없이 잘 쓴 문장이 1개 있었고[202] 오류를 일으킨 경우가 2건이었다. 그런데 2개의 오류문 중에서 선행절에 의문사를 사용하지 않아 '-길래'의 서법 제약에 어긋

201)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서는 '-는/(으)ㄴ/(이)ㄴ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묻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주로 문어체나 혼잣말에 쓰인다고 했다. 그런데 만일 구어에서 사용되면 '하게체'로 쓰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2009: 1075, 1338, 4867).

202) 인간에게 무슨 권리가 있**길래**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4213_일본, 일본어, 5급, 문어)

난 것으로 분석된 경우가 그 경우 중 하나로 바로 위 (16가)의 용례였다. 나머지 하나의 경우가 바로 (16나)의 용례이다. 이 학습자는 선행절에 '뭐'라는 의문사를 사용해서 '-길래'가 의문문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하지만 후행절에 의문형 종결어미가 아니라 '-ㄴ/는다'의 평서형 종결어미를 사용해서 평서형 종결어미와 의문형 종결어미의 대치 오류를 일으켰다. 따라서 이 문장은 비문이 된다. 만일 이 '-길래' 의문문을 수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될 것이다.

(16) 나.′ 직업*은(√이) 도대체 뭐길래 사랑*을(√에) 빠*져서(√진 것처럼) 즐기면서 계속 일*∅한다(√하게 하는 걸까?).

위 '-길래' 의문문에서는 학습자가 일으킨 여러 형태의 대치 오류가 목격된다. 즉 주격 조사 대신 보조사를 사용했고, 부사격 조사를 써야 하는데 목적격 조사로 잘못 썼으며, 비유의 표현을 써야 하는데 인과 연결어미를 잘못 사용한 오류 등을 일으킨 것이다. 그중에서도 '-길래' 의문문과 연관된 오류는 바로 의문형 종결어미 대신 평서형 종결어미를 잘못 쓴 '대치' 오류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길래' 의문문의 후행절에 자주 출현하는 특정 종결어미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2장에서 '-길래'가 의문문에 쓰일 때에는 구어에서는 '-니?' 혹은 '-냐?'의 그리고 문어에서는 '-을까(요)?'나 '은/는가?' 등의 의문형 종결어미와 호응하는 경향이 있다[203]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길래' 의문문을 교수 시 바로 이와 같은 의문문의 특성을 제시한다면 학습자들이 이와 관련한 오류 없이 적합한 문장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학습자들이 쓴 총 3개의 '-길래' 의문문에서 2개가 비문으로 확인되어 66.66%의 오류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길래' 의문문에 대한 미학습과 학습자들의 이해 부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학습자들이 쓴

203) 2장에서 '-길래' 의문문을 통해 '-길래'가 수행하는 담화적 의미 기능을 논의할 때 제시한 것처럼, '-길래'가 문어 담화에서 '이유에 대한 궁금증'의 담화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을까(요)'나 '-은/는가'의 특정 종결어미가 자주 출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길래'가 구어 담화에서 '핀잔'의 담화 의미 기능을 나타낼 때에는 후행절에 '-니' 혹은 '-냐'의 종결어미가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같은 특성은 '-길래' 의문문이 문어에 쓰일 때에는 '-을까(요)'나 '-은/는가'와 호응해 쓰이고, 구어에 쓰일 때는 '-니' 혹은 '-냐'의 의문형 종결어미와 공기해 쓰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총 95개의 ‘-길래’ 구문에서 의문문이 고작 3개에 불과하다는 점은 ‘-길래’가 설명 의문문에서도 사용된다는 사실을 학습자들이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추정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한편 ‘-길래’ 의문문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에 있어 오류율이 70%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학습자들이 ‘-길래’ 의문문의 특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길래’를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때는 평서문과 함께 의문문에서 ‘-길래’가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반드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길래’가 의문문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실제로 빈번히 목격되며,[204] 2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그때 담화 상에서 ‘-길래’가 가지는 여러 의미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학습자들이 어색한 문장들을 만들어 내거나 발화를 하는 사례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학습자 말뭉치 자료의 학습자들이 쓴 95개의 ‘-길래’ 구문을 분석해 본 결과, 74.1%로 중국과 일본의 학습자들에게 그 쓰임이 편중되어 있으며, 학습자 급수 역시 특정 급수의 학습자들에게 ‘-길래’의 사용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92.6%로 ‘-길래’가 제시된 이후의 4급과 5급의 학습자들이 압도적으로 ‘-길래’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길래’의 문법적 난이도 때문인지 베트남 학습자들에게서는 ‘-길래’의 사용을 회피하는 현상이 확인되기도 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점은 예상대로 ‘-길래’가 가지는 여러 방면의 제약으로 인해 학습자들이 ‘-길래’의 사용에 있어 오류를 일으키는 경향이 심각하다는 사실이었다. 즉 학습자의 95개의 ‘-길래’ 구문에서 단 13개만이 ‘-길래’가 가지는 통사적 제약 및 화용적 기능 등에 적합한 문장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길래’가 쓰인 문장 합계를 기준으로 13.68%에 불과한 비율이었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길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문장에서 관련된 오류가 일어난 경우는 86.32%로 나타났다. 모두 9가지 유형의 오류가 발생했는데 각 유형의 오류가 발생한 개수와 오류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3]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 나타난 ‘-길래’ 사용의 오류 유형 및 오류율

204) 본고에서 세종 코퍼스의 말뭉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길래’가 의문문에서 사용된 경우가 ‘-길래’ 구문의 총 용례 수의 40.3%에 달했다.

| 오류 유형 | '-길래' 대치 | 화용 기능 | 주어 인칭 | 후행절 | | | 선행절 | | 의문문 |
|---|---|---|---|---|---|---|---|---|---|
| | | | | 서술어 | 시제 | 서법 | 결합 | 서술어 | |
| 개수 | 11 | 75 | 39 | 27 | 11 | 1 | 8 | 2 | 1 |
| 오류율 | 11.6% | 78.9% | 41% | 28.4% | 11.6% | 1.05% | 8.42% | 2.10% | 1.05% |

위 표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뜻밖에도 나머지 86% 정도의 비문에서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인 것은 격식적인 문어체에 '-길래'를 사용해 일으킨 '-길래'의 화용적 기능에 관련된 오류였다.

그 외의 오류는 주로 '-길래' 평서문[1]의 통사적 제약과 관련된 오류였는데, 선행절과 후행절로 나누어 보면, 후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 오류를 포함한 후행절에 관련된 오류율은 71.58%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 오류를 포함한 선행절에 관련된 오류율은 21.05%로 확인되었다. 이는 '-길래'가 선행절에 비해 후행절에 관련된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학습자들의 오류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사적 제약에 관련된 오류 중에서 '주어 인칭 제약'으로 인한 오류가 41.05%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길래'를 학습한 학습자들이 통사적 제약 중에서도 특히 '주어 인칭 제약'에 대한 이해가 가장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후행절에 반드시 1인칭 주어가 와야 한다는 제약을 학습자들이 잘 인지하지 못해 가장 많은 오류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다른 유형의 자료인 대학 기관의 4급 학습자 시험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이 제약에 대한 교수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또한 후행절에 적용되는 통사적 제약과 관련된 오류도 주어 인칭 제약 오류와 동일한 41.05%의 오류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후행절에서는 시제나 서법보다도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 서술어가 사용되어 오류가 발생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논의해야 할 점은 학습자들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를 잘못 파악해 오류를 저지르는 대치 오류이다. 즉 '-길래'는 '-길래' 평서문[1]에서 화자의 행위를 초래한 이유를 표현하는 인과 연결어미임에도 불구하고, '역접'이나 '목적' 혹은 '가정' 등을 표현하는 연결어미를 사용해야 하는 문맥에서 '-길래'를 사용해 오류를 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학습자들에게 '-길래'의

통사적 제약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제약을 유발하는 '-길래'가 가지는 의미 또한 명확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이와 같은 '-길래'의 의미로 인한 학습자들의 오류에는 선행절에 화자의 순간적인 지각이 불가능한 서술어가 와서 발생한 오류도 2건 있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길래'가 가지는 '순간적인 지각'이라는 의미 및 관련 통사적 제약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앞서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서 논의할 점은 학습자가 쓴 95개의 '-길래' 구문에서 의문문은 3개에 불과하고, 화자가 인지하게 된 상황에 대한 이유를 추측하는 평서문은 단 하나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비록 수집된 학습자 말뭉치 자료가[205] 문어 자료 중심이기 때문에 '-길래'가 쓰인 의문문과 화자의 이유 추측의 평서문이 나타나기 어려운 언어 환경이라는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와 같은 결과는 '-길래' 의문문과 이유 추측의 평서문을 학습자들이 학습하지 못했거나 학습했을 가능성이 아주 낮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판정 의문문에 '-길래'를 쓴 학습자의 오류는 학습자가 '-길래'의 서법 제약 혹은 '-길래' 의문문에 적용되는 '의문사 수반 필수 제약'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또한 이 오류를 포함해 '-길래' 의문문을 잘못 쓴 오류율이 무려 70%에 육박한다는 결과도 학습자가 의문문을 학습했더라도 그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또 다른 근거로 볼 수 있었다.

## 2.7. 기타

앞서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서 검색된 '-길래' 용례를 중심으로 학습자들이 일으킨 오류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그 외에도 '-길래'를 사용한 학습자들이 일으킨 오류에 관해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점들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

205)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의 말뭉치 구축 개요에 따르면, 문어의 표본 수는 27399개이며 구어의 표본 수는 2541개라고 했는데, 이를 통해 문어 자료의 수가 구어 자료 수의 10배 이상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비슷한 비율로 '-길래' 구문의 문어 자료는 88개이고 구어 자료는 7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2.7.1.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 나타난 중국인 학습자의 '-길래' 사용 오류 분석

앞서 학습자 말뭉치에서 '-길래'를 사용한 학습자 중 중국인이 총 49명으로 '-길래'의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서 52.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실은 전체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서 중국인의 자료가 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는 사실과 연관된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이는 본고가 '-길래'의 제시에 있어 그 대상을 중국인 학습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더해주는 결과임이 분명하다. 즉 현재 한국어를 가장 많이 학습하고 있는 학습자는 중국 국적의 학습자들이므로 사용 분포 면에서 우선 순위를 매긴다면 그들을 위한 '-길래'의 제시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길래'의 제시에 있어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길래'의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 나타난 중국인 학습자의 '-길래' 사용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서 파악된 중국인 학습자가 쓴 '-길래' 구문 총 49개에서 오류 없이 정확하게 쓴 문장은 5개로 조사되어, 오류율이 89.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인을 제외한 국적의 학습자들이 '-길래'를 사용 시 일으킨 오류율인 82.60%[206]보다 6% 정도 높은 비율이었다. 그 구체적인 오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4]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 나타난 중국인의 '-길래' 사용의 오류 유형 및 오류율

| 오류 유형 | '-길래' 대치 | 화용 기능 | 주어 인칭 | 후행절 | | | 선행절 | | 의문문 |
|---|---|---|---|---|---|---|---|---|---|
| | | | | 서술어 | 시제 | 서법 | 결합 | 서술어 | |
| 개수 | 9 | 43 | 31 | 19 | 11 | 0 | 2 | 1 | 1 |
| 오류율 | 18.4% | 87.8% | 63.3% | 38.8% | 22.5% | 0% | 4.08% | 2.04% | 2.04% |

위 표에서 확인되듯이 중국인 학습자는 '-길래'를 사용할 때 후행절의 서법 제약 오류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오류를 일으켰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국인

206) 중국인 이외의 학습자가 쓴 '-길래' 구문은 총 46개인데 그중 오류가 없었던 문장이 8개였다. 따라서 비문이 38개가 되어 오류율이 82.6%가 된 것이다.

학습자에게 ‘-길래’의 의미 및 통사적 제약 그리고 화용적 기능 등 ‘-길래’의 특성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인 학습자 자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오류는 ‘-길래’를 어색한 담화 환경에 사용한 ‘화용적 기능’과 관련된 오류였다. 다음으로는 선·후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을 어겨서 발생한 오류로 전체 자료에서 63.3.%나 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주어 인칭 제약과 관련된 오류 중에서도 후행절에 1인칭 이외의 주어를 사용해 발생한 오류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주어 인칭 제약 오류 31개 중 25개로 86.65%의 분포를 보인 것이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인 학습자들은 후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 오류와 후행절의 서술어 제약 오류를 동시에 일으키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총 12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후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 오류 25건의 48%, 그리고 후행절의 서술어 제약 오류 19건의 63.16%에 해당하는 비율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중국인 학습자에게 특히 후행절에 적용되는 두 제약을 강조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주어 인칭 제약 오류 다음으로는 후행절의 서술어 제약 오류, 후행절의 시제 제약 오류, 그리고 다른 문법 표현 대신 ‘-길래’를 잘못 사용한 오류 등의 순으로 오류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길래’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때에는 ‘-길래’의 화용적 기능에 대한 정보는 물론 후행절에 적용되는 1인칭 주어 필수 제약 및 의지적 행동 서술어 필수 제약과 미래 시제 불가 제약, 그리고 ‘-길래’의 의미적 특성 등을 더욱 강조해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지적해야 할 점은 ‘-길래’의 사용에 있어서 위와 같은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이 전체 학습자의 오류 양상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이다. 즉 ‘-길래’의 전체 학습자의 자료에서도 ‘화용적 기능 오류’> ‘주어 인칭 제약 오류’> ‘후행절의 서술어 제약 오류’> ‘후행절의 시제 제약 오류’ 및 “-길래’ 대치 오류’> ‘선행절의 결합 오류’> ‘선행절의 서술어 제약 오류’> ‘후행절의 서법 제약 오류’ 및 “-길래’ 의문문 오류’ 순으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길래’의 학습자 말뭉치 자료의 오류 양상이 중국인 학습자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2.7.2. 교사의 채점 오류

학습자 말뭉치 자료를 중심으로 학습자들이 ‘-길래’를 사용할 때 9가지 유형의 다양한 오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앞서 논의한 바 있다. 그런데 학습자들이 이와 같은 오류를 일으킨 이유의 하나로 교사의 ‘-길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미제시 혹은 설명 부족을 들 수 있다.

본고는 대학 기관에서 이수 중인 4급 학습자의 시험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길래’에 대한 답안을 채점하면서 보인 몇몇 경우의 오류를 발견했다. 이와 같은 채점 오류는 단순한 교사의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법 항목에 대한 교사의 이해 부족으로도 판단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이러한 측면은 교사를 통한 학습자 교육 과정에서 학습자의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본고에서 확인한 교사의 채점 오류는 모두 8개로 파악되는데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의 용례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17) 가. 직원들이 월요일에 너무 피곤하길래 금요일로 바꿨어요.
나. 친구가 2시간에 늦길래 내가 화를 냈어요.
다. 친구가 아무 말도 없고 제 물건을 가져가길래 제가 화를 냈어요.
(S대학 어학당 4급 1·2학기 기말시험 문제 답안지)

위에서 예로 든 (17가)는 비문이다. 왜냐하면 선행절의 주어가 ‘직원들이’로 3인칭이므로 ‘피곤하다’라는 화자만이 자각할 수 있는 형용사가 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곤하다’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올 경우에는 ‘피곤하다’를 ‘피곤해하다’로 동사화시켜 발화하는 화자가 지각할 수 있는 서술어로 바꿔 줘야 한다. 하지만 교사는 이 문장을 정문으로 판단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가 2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교사가 선행절에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올 경우에는 1인칭 주어가 허용된다고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즉 ‘선행절에 감정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는 서술어가 오면 1인칭 주어가 허용된다’가 아니라 1인칭 주어만이 허용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술어에 따라서 선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이 달라지는 것이다. 물론 이는 ‘-길래’가 나타내는 ‘지각’과 ‘자각’의 의미 차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즉 ‘-길래’가 화자만이 감지할 수 있는 감정이나 상태를 인지하는 ‘자각’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선행절에 1인칭 주어만이 올 수 있다. 그런데 만

일 용례 (17가)의 경우처럼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서술어일 때 1인칭 이외의 인칭이 선행절에 주어로 오게 되면 이 서술어를 통사적으로 동사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과연 교사가 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다.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이 대학 기관이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길래'에 대한 설명 자료와 교사를 위한 교수 지침서에서 선행절에 관한 제약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학생에게 제공하는 PPT 자료에서는 '선행절에 보통 2·3인칭 주어가 오지만 화자의 몸 상태나 화자가 의도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1인칭 주어가 가능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교수 지침서에서도 위에 언급한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다. 즉 '선행절에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주어로 오지만 단 몸 상태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어가 오게 되면 1인칭 주어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교사는 '화자만이 자각 가능한 서술어가 오게 되면 1인칭 주어가 사용된다'라는 제약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상태를 지각했을 경우에는 서술어에 '-아/어/여하다' 등을 결합시켜 '화자가 지각했다'라는 의미를 드러내 줘야 한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 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완료형 선어말어미 누락을 포착해 내지 못한 경우와 완료형 선어말어미를 누락했다고 잘못 파악한 경우를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각각 5건과 1건이 확인되었다. 우선 (17나)의 용례를 보면, '-길래'의 사용에 있어 비문이 됨을 알 수 있다. 후행절 사건 시에 앞서 선행절이 완료된 상황이므로 통사적으로 완료형 선어말어미를 '-길래' 앞에 결합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는 이와 같은 선어말어미 누락 오류를 읽어내지 못하고 학습자가 이 문장에서 '-길래'를 제대로 사용했다고 보았다. 이와 반대로 용례 (17다)의 경우는 교사가 선행절에서 '-었-'이 누락된 것으로 평가했는데, 본고에서는 이 문장이 '-길래'의 사용에 있어서는 통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즉 화자가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친구에게 화를 내었다면, 다시 말해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건이 거의 동시에 발생한 것이라면 (17다)와 같은 문장도 허용되는 것이다. 이처럼 (17나)와 (17다)의 용례에서 확인되는 교사의 채점 오류를 통해 완료형 선어말어미 사용과 관련된 '-길래'의 특성이나 '-길래'가 가지는 '지각'이라는 양태적 의미에 대해서 교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추정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근거로 앞서 진행했던 방식대로 이 대학 기관의 학생용 PPT 자료

나 교사용 교수 지침서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위에 언급된 '-길래'의 두 가지 특성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이 대학 기관의 4급 학습자가 '-길래'를 사용 시 발생한 오류 양상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4급 학습자들이 일으킨 몇몇 오류가 이와 관련된 '-길래'에 대한 교사의 미제시 혹은 설명 부족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선행절에 3인칭 주어가 왔는데도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쓴 오류가 4건, 그리고 선행절이 이미 완료된 상황인데도 '-길래' 앞에 '-었-'을 누락 시킨 오류가 13건이나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결과는 후행절에 앞선 선행절의 완료 상황이나 '-길래'가 가지는 '지각'의 의미 및 그로 인한 통사적 제약 등에 대한 교사의 이해 부족이 학습자들에게 이와 관련된 통사적 제약에 대한 미제시 혹은 설명 부족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길래'에 대한 설명 제시를 교사의 역량에 맡기는 부분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2.7.3. 4급 학습자 시험 자료에 나타난 선행절 결합 오류

아래의 [표 25]는 4급 학습자들이 제한적인 조건의 문제 유형에서 1학기에는 60.6%, 그리고 2학기에는 69.04%의 오류[207]를 일으켜 평균 64.82%의 오류율을 보인 '-길래' 사용 시 나타난 오류의 양상을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표 25] 4급 학습자 자료에 나타난 '-길래' 사용의 오류 유형 및 오류율

| 오류 유형 | 대치 | 화용 기능 | 후행절 | | | 선행절 | 담화 맥락 부적합 |
|---|---|---|---|---|---|---|---|
| | | | 주어 | 서술어 | 시제 | 결합 | |
| 용례 수 | 12 | 4 | 5 | 10 | 1 | 20 | 3 |
| 오류율 | 16% | 5.3% | 6.7% | 13.3% | 1.3% | 26.7% | 4% |

207) 한국의 S 대학 기관에서 한국어를 이수 중인 4급 학습자의 시험 자료 수는 1학기에는 33개 그리고 2학기에는 42개였는데, 이 중에서 오류 없이 '-길래'를 잘 쓴 문장은 각각 13개씩이었다.

4급 학습자의 시험 자료에서 확인된 오류의 유형은 학습자 말뭉치 자료와 달리 모두 7개로 파악된다. '-길래'의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서 확인된 '후행절의 서법 제약 오류'와 '선행절의 서술어 제약 오류'가 4급 학습자 시험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또한 4급 학습자 자료에서는 '-길래'의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 나타난 '의문문 오류' 대신 '담화 맥락 부적합 오류'가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두 자료 간에 이와 같은 오류 유형 차이를 불러온 주된 원인은 앞서 누차 지적된 대로 자료 간의 유형 차이다. 즉 질문에 대한 대답을 평서문으로 기술해야 하는 4급 학습자 자료에서 '-길래'의 서법 제약이나 '-길래' 의문문과 관련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4급 학습자 시험 자료에서 분석된 오류를 보면,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바로 선행절에서 서술어가 '-길래'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였다.

다음으로는 '-길래' 대신 다른 표현으로 잘못 쓰거나 다른 표현 대신 '-길래'를 잘못 사용한 경우인 '대치'가 16%의 오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행절과 관련된 제약에서 후행절에 허용되지 않는 서술어를 사용하거나 시제가 와서 발생한 오류가 14.6%로 나타났다. 이어서 후행절의 1인칭 주어 필수 제약을 어겨서 발생한 오류가 6.7%, 그리고 '-길래'가 사용되면 어색한 담화 상황에서 '-길래'를 사용한 화용적 기능 오류가 5.3%였다. 마지막으로는 질문에 어울리지 않는 대답을 한 오류를 '담화 맥락 부적합'으로 보았는데, 이 오류는 4%의 오류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특히 4급 학습자 자료에서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인 것은 선행절에서 '-길래'와 서술어가 결합할 때, 서술어 앞에 '-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었-'을 쓰지 않은 오류였다. 총 13건으로 전체 용례에서 17.33%에 해당하는 오류율[208]을 나타냈다.

(18) 가. 직원들이 다른 약속 * ∅하(√했)길래 회식 요일을 바꿨어요.
나. 친구가 1시간 늦 * ∅(√었)길래 화를 냈어요.

208) [표 26] 4급 학습자 '-길래' 구문의 선행절 결합에서의 오류 유형 및 오류율

| 오류 유형 | 대치 | 누락 | | 합계 |
|---|---|---|---|---|
| | 서술어 | '-었-' | 간접화법 표현 | |
| 개수 | 5 | 13 | 2 | 20 |
| 오류율 | 6.67% | 17.33% | 2.67% | 26.67% |

(S대학 어학당 4급 1·2학기 기말시험 문제 답안지)

위 (18가)와 (18나)의 학습자 답안에서는 '-길래' 앞에 공통적으로 선어말어미 '-었-'을 누락시켜 오류가 발생했다. 즉 (18가)에서 화자가 회식 요일을 바꾼 이유는 직원들이 다른 약속을 했기 때문이지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해 회식 요일을 바꾸기 전에 선행절의 사건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선행절의 '-길래' 앞에 반드시 완료형 선어말어미 '-었-'이 결합해야 한다. 이는 용례 (18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8나)는 "왜 친구에게 화를 냈어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친구가 1시간 늦어서 그 사건 이후에 화를 낸 것이기 때문에 '늦길래'가 아니라 '늦었길래'로 답안을 작성해야 했다. 이와 같이 후행절에 앞서 이미 완료된 상황이 선행절에 온 경우에 선어말어미 '-었-'을 누락시켜 오류를 일으키는 경향이 4급 학습자에게서 특히 두드러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즉 4급 학습자들에게 선행절 상황의 완료와 관계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부족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짚어보아야 할 점은 앞서 살펴본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서는 선행절에서의 '-었-' 누락이 단 2건 발생하여 2.1%의 오류율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S 대학 기관의 4급 학습자 자료에서는 선행절에서의 '-었-' 누락 오류가 17%를 넘어 4급 학습자가 일으킨 오류 중 가장 높은 오류율을 나타냈다. 이처럼 특히 특정 대학 기관의 4급 학습자 시험 자료에서 '-었-' 누락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이유의 하나로 바로 앞서 지적한 교사의 미제시 혹은 설명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대학 기관의 학생에게 제공하는 '-길래'에 관한 설명 자료 및 교사를 위한 교수 지침서에서 관련된 설명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그에 대한 설명이 교사에게 일임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교사의 채점 오류에서 학습자의 완료형 선어말어미 누락을 포착해 내지 못한 경우가 62.5%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교사가 이 통사적 규칙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인해 학습자에게 이 문법적 규칙을 설명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대학 기관의 4급 학습자들이 '-었-' 누락 오류를 가장 많이 일으키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19) 가. 직원들이 바꾸길래 회식 요일을 조정했어요.
나. 직원들이 월요일에 너무 피곤하길래 금요일로 바꿨어요.

위 (19가)와 (19나)의 용례는 사용해야 할 문법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일어난 오류에 해당한다. 즉 (19가)에서는 '-자고 하다'의 간접화법 표현이 그리고 (19나)에서는 '-다고 하다'의 간접화법 표현이 '-길래' 앞에서 누락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9가)에서는 후행절에서 회식 요일을 조정한 이유를 '직원들이 바꾸길래'가 아니라 '직원들이 바꾸자고 하길래'로 기술해야 하며, (19나)에서는 회식을 금요일로 바꾼 이유를 '직원들이 월요일에 너무 피곤하길래'가 아니라 '피곤하다고 하길래'로 써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19나)의 간접화법 표현 누락 오류는 서술어 오류로도 판단이 가능하다. 즉 '피곤하다'는 발화 당사자인 화자만이 자각할 수 있는 서술어이므로 주어가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화자가 지각할 수 있는 서술어인 '피곤해하다'가 와야 하는 것이다.

한편 (19)의 용례에서 확인된 학습자의 간접화법 누락 오류 양상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 대학 기관의 4급 학습자들이 '-길래'가 제시되기 전에 간접화법과 '-기에'나 '-길래'와 결합한 '-다/자/라/냐기에' 혹은 '-다/자/라/냐길래'의 형태를 학습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학습자들이 이 문법 항목을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학습자의 이해 부족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그러한 학습자의 이해 부족에 영향을 미친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 제시 방식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즉 이 대학 기관이 PPT를 통해 학습자에게 제시한 '-다길래' 등의 설명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이 뒤 문장의 이유나 근거이며, '-기에'는 주로 문어에서 '-길래'는 주로 구어에서 사용된다. 후행절에 명령형이나 청유형을 허용하지 않고, 선행절에는 2·3인칭 주어 제약이 그리고 후행절에는 1인칭 주어 제약이 있다"라고 하고 있었다. 마치 '-기에'와 '-길래'가 화용적 기능의 차이만을 제외하면 동일한 특성을 가진 문법 항목인 것처럼 제시했다는 오류는 있지만, 위에 제시된 내용은 모두 '-길래' 평서문[1]에 적용되는 '-길래'의 통사적 제약에 속한다. 다만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에 관련된 서술어 및 시제 제약은 이후에 '-길래'를 제시할 때 추가로 다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뒤 문장을 초래한 화자가 들은 이유'로 제시되는 '-다길래' 등의 문법 항목과 '-길래'를 학습자들이 별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길래'에는 '화자가 직접 감각 기관을 통해 인지한 사실'이라는 의미가 존재한다. 따라서 화자가 선행절에서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이 이유가 되어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길래'로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다길래' 등의 형태로 사용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앞서 2장에서도 논의했듯이 '-길래'가 정보의 획득 경로를 밝히는 '증거성'의 관점에서 '직접 증거 표지'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은 '-길래'만으로 그 정보의 출처를 나타낼 수 없다. '-길래'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기관의 교재에서는 '-길래'에 대한 추가 표현으로 '-다/자/라/냐길래'를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길래'가 간접화법 표현과 결합해 쓰일 수밖에 없는 의미적 특성과 그로 인한 사용 경향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길래'를 제시할 때 교사가 '-다길래' 등의 형태와 관련된 이와 같은 의미적 특성을 한번 더 강조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확인해 본 결과 그 어디에도 관련된 설명 제시는 없었다. 이는 곧 이에 대한 제시가 교사의 재량에 맡겨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 더 지적할 점은 이 기관에서 '-다길래'에 관련된 설명을 제시할 때 후행절과 관련된 통사적 제약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길래' 평서문[1]와 마찬가지로 '-다길래' 류가 쓰인 평서문의 후행절에는 화자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행동이 와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제시가 이루어졌다면 학습자는 '-다길래' 류의 문법 항목과 관련된 '-길래'의 특성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내재화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특정 대학 기관의 4급 학습자들이 용례 (19)와 같은 오류를 일으킨 것을 보면, 학습자들은 '-길래'와 '-길래'의 의미로 인한 확장 표현인 '-다길래' 류의 특성 및 두 문법 표현 간의 연관성 등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학습자에게 '-길래'를 설명할 때, '-다길래' 류와 관련된 설명을 같이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 준다. 즉 화자의 행동을 초래한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상황일 경우에는 반드시 간접화법 표현과 결합한 '-다길래' 류로 발화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특정 대학 기관의 4급 학습자가 가장 많이 일으킨 선행절에서의 결합 오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 학습자에 의해 '-었-'이나 간접화법 표현 누락 오류가 발생한 이유 중 하나로 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문법 항목에 대한 제시가 교사의 역량에 맡겨져 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학습자의 오류를 양산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므로 그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 외국인 학습자들이 '-길래'를 어느 정도 이해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

는지를 두 가지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정확히 사용하는 경우보다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었다. 즉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서 확인된 오류율은 86.32%였고, 4급 학습자 시험 자료에서는 64.82% 정도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동시에 학습자들의 '-길래'에 대한 이해 부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길래'의 학습자 말뭉치 자료를 대상으로 오류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이 '-길래'의 통사적 혹은 화용적 제약 및 의미 등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오류를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길래'를 어색한 담화 환경에 사용하거나 후행절에 적용되는 주어 제약이나 서술어 제약으로 인한 오류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학습자들의 '-길래'의 오류 양상을 통해 학습자들의 '-길래'에 대한 이해 양상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는 '-길래'의 화용적 기능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
둘째, 학습자는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에 적용되는 1인칭 주어 필수 제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향이 있다.
셋째, 학습자는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에 적용되는 의지적 행동 서술어 필수 제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학습자의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위에서 언급된 '-길래'의 화용적 기능 및 통사적 제약에 관한 명확한 제시 및 효과적인 교육 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와 더불어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특정 대학 기관에서 한국어를 이수 중인 4급 학습자의 시험 자료를 통해서 학습자가 일으킨 오류가 교사의 미제시 혹은 설명 부족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문법 항목의 제시 방법에 있어 교사의 역량에 맡기는 부분을 줄이고, 문법 항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학습자들에게 전달할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 Ⅴ. 한국어 교재에서의 ‘-길래’의 제시 양상

앞서 4장에서 학습자들의 ‘-길래’ 구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이 ‘-길래’를 사용할 때 오류를 일으키는 경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오류 유형을 나누어 학습자의 ‘-길래’ 구문에서 드러난 다양한 오류 양상을 살펴본 바 있다. 서론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와 같이 학습자들이 ‘-길래’를 사용할 때 오류를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학습하지 않은 것 혹은 학습했다고 하더라도 ‘-길래’의 특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추정이 학습자의 선행절에서의 ‘-었-’ 누락이나 간접화법 표현의 누락 오류 등을 분석하면서 근거 있는 추정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러한 추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교재이다. 즉 교재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재를 통해 두 가지를 분석해 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교재에서의 ‘-길래’의 제시 여부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과 미학습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교재에서 ‘-길래’를 어떻게 어떤 특성까지 제시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라 학습자들의 ‘-길래’에 대한 이해 정도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현재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출판된 몇 종의 교재를 포함하여 ‘-길래’의 제시 여부와 제시하고 있다면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안주호(2008), 김미숙(2015), 성진영(2017), 박상숙(2019) 등에서도 한국어 교재에서의 ‘-길래’의 제시 양상에 대해 다룬 것이 확인된다. 이들은 모두 ‘-길래’에 대한 교수법을 제안하면서 그 과정의 하나로 교재에서 ‘-길래’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 경우이다. 우선 안주호(2008: 202-207)는 고려대 등의 6개 대학 기관 교재를 대상으로 ‘-길래’의 제시 여부와 ‘-길래’가 사용된 평서문과 의문문의 제시 순서 및 설명 내용 등을 예문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길래’가 쓰인 의문문을 다룬 고려대와 연세대에서 고려대는 연세대와 달리 의문문을 먼저 제시했으며, 이들을 포함한 ‘-길래’를 제시한 4개의 교재 중에서 ‘-길래’의 의미와 통사적 제약에 관한 설명이 그나마 이루어진 것은 연세대와 이화여대의 두 교재뿐이었다고 했다(안주호 2008: 204). 다음으로 경희대 등의 5개 대학 기관에서 출간한 교재에서의 ‘-길래’에 대한 설명을 분석한 김미숙(2015: 41-42)은 대부분의 교재에

서 원인이나 이유라는 '-길래'의 표면적인 의미를 제시했고, 통사적 제약을 다룬 교재는 경희대 교재뿐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길래'에 대한 제시가 부분적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김미숙 2015: 42). 그리고 성진영(2017: 191-194)에서는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 대학 기관에서 출판된 5개의 교재에서 다루어진 '-길래'와 '-기에'의 제시 단계와 관련 설명 내용 등을 간단히 비교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상숙(2019: 121)은 6개의 대학 기관 교재에서의 '-길래'가 실현되는 평서문과 의문문에 대한 제시 여부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했는데 살펴본 어느 교재에서도 발생한 상황에 대한 이유를 추측하는 평서문을 다룬 교재는 없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는 저명한 대학 기관에서 출판된 교재에서 '-길래'에 대한 제시가 많이 미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2017년에 소논문을 통해 위에서 살펴본 대략적으로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교재에 나타난 '-길래'의 제시 양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세하게 분석한 바 있다. 그때 그 분석의 대상이 된 교재는 한국에서 출간된 대학 기관의 교재뿐만 아니라 중국 대학 기관에서 출간된 교재까지 포함하여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대규모의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저명한 대학 기관에서 교수되고 있는 한국에서 출판한 7종의 교재와 중국 현지 대학의 한국어 전공자를 대상으로 중국에서 출판한 4종의 교재[209]가 이에 해당된다. 이지선(2017: 325)에 따르면 특히 중국 현지에서 발간한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당시

209)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로는『배우기 쉬운 한국어 1-6』,『서울대 한국어 1-6』,『연세 한국어 1-6 』,『이화 한국어 1-6』,『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초·중급 1,2』,『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6』,『재미있는 한국어 1-6』이 해당되며, 중국에서 출판된 교재로는『韩国语 1-4』,『标准韩国语 第一册～第3册』,『新编 初级·中级·高级 韩国语〔上,下〕』,『大學 韩国语 1-6』이 있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 출판된 교재 중에서 위 4종의 교재를 선정한 이유는 중국 현지 대학의 한국어 전공자들에게 가장 많이 교수되는 교재라는 점 때문이다. 원효설(2015: 27)에 따르면 북경대학교 조선 문화 연구소에서 편찬한『韩国语 1-4』는 현재 중국 현지 대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교재인데, 한 학기에 한 권씩 교수되어 총 4학기 즉 1학년부터 2학년까지의 전공 교재로 쓰인다고 하였다. 진정란(2011: 274)도 한국어 전공을 개설한 중국 현지 20개 대학에서 사용되는 교재를 조사한 결과 13개의 대학에서『韩国语 1-4』를 쓰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유일하게 한·중이 합작해 편찬해 낸『标准韩国语』는『韩国语 1-4』가 편찬되기 전인 1996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거의 모든 대학에서 精讀 교재로 사용되었는데, 김향란(2019: 86)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중국 동북 지역과 산동 지역에서 이 교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또한『新编 初级·中级·高级 韩国语〔上,下〕』와『大學 韩国语 1-6』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체계적으로 기획된 교재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총 6학기 동안 사용되는 교재라는 점에서 다른 교재들과 차이를 보인다고 기술했다(원효설 2015: 27).

한국의 대학 기관에서 한국어를 이수하거나 대학에 진학한 외국인 학습자 중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10]. 게다가 이 논문이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길래'의 바람직한 제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중국 현지에서 출간된 교재에서의 '-길래'의 제시를 다시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 하겠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그 소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당시 살펴보지 못했던 교재와 그 이후에 새롭게 출판된 교재를 추가로 해서 그 분석 범위를 확대해 각 교재에서 '-길래'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를 더 추가해서 분석하게 된 교재는 한국 측 14종과 중국 측 4종으로 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7]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한국 측과 중국 측의 한국어 교재

| | 교재 명 | '-길래'가 제시된 교재 명 |
|---|---|---|
| 1 | 경희 한국어 초·중·고급 1,2 문법 | 경희 한국어 중급 2 |
| 2 | 다문화 가정과 함께 하는 즐거운 한국어 초·중급 1,2 | 다문화 가정과 함께 하는 즐거운 한국어 중급 2 |
| 3 | 배우기 쉬운 한국어 1-6 | 배우기 쉬운 한국어 3 |
| 4 | 서울대 한국어 1-6 | X |
| 5 | 선문 한국어 초·중급 Ⅰ,Ⅱ,Ⅲ, 고급 Ⅰ,Ⅱ | 선문 한국어 중급 Ⅲ |
| 6 | 성균 한국어 1-6 | 성균 한국어 4 어휘·문법 |
| 7 | 연세 한국어 1-6 | 연세 한국어 5 |
| 8 |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1-6 |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4-1 |
| 9 | 이화 한국어 1-6 | 이화 한국어 4 |
| 10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초·중급 1,2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중급 2 |
| 11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6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4 |
| 12 | 재미있는 한국어 1-6 | 재미있는 한국어 4 |
| 13 | 함께 배우는 건국 한국어 1-6 | 함께 배우는 건국 한국어 4 |
| 14 | 홍익 한국어 1A·B, 2A·B, 3A·B, 4A·B | 홍익 한국어 4B |

210) 2020년 7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국제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체류자격별 입국자 추이에서 '유학·일반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중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중국인 유학생이 21600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했다.

| | | |
|---|---|---|
| 15 | 韓國語 1-4 | 韓國語 3 |
| 16 | 標准韓國語 第1冊~第3冊 | 標准韓國語 第3冊 |
| 17 | 新編 初級·中級·高級 韓國語 〔上,下〕 | 新編 高級 韓國語 〔上〕 |
| 18 | 大學 韓國語 1-6 | X |

위 표에서 '-길래'의 제시 유무 측면에서 교재들을 살펴보면 한국 측 그리고 중국 측에서 각각 한 종의 교재에서 '-길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측에서는 『서울대 한국어[211]』이며 중국 측에서는 『大學 韓國語』가 해당된다. 하지만 나머지 총 16종의 한국 측 그리고 중국 측 교재에서 '-길래'를 제시하고 있어서 이러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길래'의 제시 양상을 살펴볼 교재는 한국 측 13종과 중국 측은 3종으로 정리된다. 이에 먼저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를 대상으로 교재에서 '-길래'를 제시한 급별로 각 교재에서 '-길래'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여러 방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1. 한국 출간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길래'

여기에서 살펴볼 분석 대상이 되는 한국어 교재는 한국에서 간행된 교재 13종이다. 이들을 분석할 분석 기준은 우선 의미가 달리 나타나는 '-길래' 구문 유형을 모두 제시했는지의 여부이다. 즉 앞서 3장에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길래'는 평서문, 의문문, 그리고 화자의 추측의 화행을 실행하는 평서문에서 그 의미가 각기 달리 실현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통사적 제약도 다르게 드러나는 특성이 있다[212].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유형의 '-길래' 구문을 모두 제시했는지의 여부는 그 결과가 외국인 학습자들의 이 유형들에 대한 학습 여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의 기준은 '-길래'가 가지는 '의미, 통사적 특징, 결합 정보, 화용 정보,

211) 2012년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출간한 『서울대 한국어』의 1권부터 6권을 모두 살펴본 결과 '-길래'의 제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서울대 한국어 5』의 'Ⅵ 한국 탐구'의 주제에 속하는 '1. 한국인 이해하기'에서 'A/V-기에'의 형태로 '-기에'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지선 2017: 326).

212) 안주호(1999: 103)에서도 필자와 같은 관점으로 평서문, 화자가 발생한 상황의 근거를 추측하는 평서문 그리고 의문문을 각각 '-길래$_1$', '-길래$_2$', '-길래$_3$'로 구분해 제시한 바 있다.

담화적 의미'를 모두 제시했는지의 여부이다. '의미'와 '통사적 특징' 및 '결합 정보' 등은 목표 문법 항목을 익히고 사용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교재에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화용 정보'는 '-길래'가 실제적으로 어떤 담화 상황에서 쓰이는지에 대한 것으로 '-길래'가 주로 구어의 비격식체에 사용된다는 점을 말하는데 교재에서 이 정보를 기술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분석 기준은 '담화적 의미'로 이는 '-길래'가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에게 교수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담화적 의미 기능'은 단순한 문장 단위에서 드러나는 의미를 벗어나 화·청자 간의 담화 상황 등에서 '-길래'가 화자의 어떤 발화 의도를 수행하는가에 대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실제로 앞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길래'는 화자에게 불리한 담화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변명'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의문문의 형식으로 청자를 '비난' 및 '핀잔'하거나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드러내는 여러 담화적 기능[213]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급 이상의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러한 담화 상에서 드러나는 '-길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 항목도 분석 기준의 하나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할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 '-길래'를 기술하고 있는 각 교재의 급수 및 단원을 다음의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 28] 한국 출간 한국어 교재에서 '-길래'가 제시된 급수와 단원

| | 교재 명[214] | 급수 | 단원(총 단원 수) |
|---|---|---|---|
| 1 | 배우기 쉬운 한국어 3 | 3급 | 20과(총20과) |
| 2 | 경희 한국어 중급 2 문법[215] | 4급 | 41과(총50과) |
| 3 | 다문화 가정과 함께 하는 즐거운 한국어 중급 2 | 4급 | 16과(총16과) |
| 4 | 선문 한국어 중급 III | 4급 | 6과(총10과) |
| 5 | 성균 한국어 4 어휘·문법 | 4급 | 13과(총16과) |
| 6 | 이화 한국어 4 | 4급 | 10과(총10과) |

213) 이지선(2021: 277)에서도 '-길래'가 담화 상에서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능을 '변명' 류와 '비난'류로 제시한 바 있다.

| | | | |
|---|---|---|---|
| 7 |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4-1 | 4급 | 7과(총8과) |
| 8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중급 2 | 4급 | 5과(총8과) |
| 9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4 | 4급 | 15과, 23과(총27과) |
| 10 | 재미있는 한국어 4 | 4급 | 3과(총15과) |
| 11 | 함께 배우는 건국 한국어 4 | 4급 | 11과(총16과) |
| 12 | 홍익 한국어 4B | 4급 | 22과(총30과) |
| 13 | 연세 한국어 5 | 5급 | 3과(총10과) |

위 표에서 교재별 '-길래'를 제시하고 있는 급을 살펴보면, 『성균관 1』과 『연세 1』를 제외하면 11개의 교재에서 모두 '-길래'를 4급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세 1』과 『고려』를 제외하면 각 급의 중·후반 이후에서 '-길래'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띈다. 이러한 사실은 '-길래'의 문법적 난이도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즉 앞서 3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길래'가 실현되는 문장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통사적 특성이 다르고 특히 '-길래' 평서문[1]에서 통사적인 제약이 많은 '-길래'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이해의 측면에서 보면 이에 관한 이해가 수월한 중·고급에서 학습되는 것이 비교적 타당하기 때문이다(이지선 2017: 327).

이와 관련해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길래'가 가지는 화자가 직접 감각 경험이라는 과정을 통해 인지하게 된다는 '지각'의 양태적 의미 특성에 관한 것이다. 즉 이러한 양태적 의미 특성은 이로 인해 주어의 인칭 제약을 야기하게 되는데 한국어 문법에는 이러한 특성을 지닌 또 다른 문법 항목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회상의 선어말어미 '-더-'가 쓰인 '-더니', '-던데', '-더라고(요)' 등의 '-더-'류의 문법 항목이나 '-네(요)'의 문법 항목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길래'와 유사한 통사적 제약을 가지기 때문에 난이도의 측면에서 의미가 달라지는 문형에 따라 다른 통사적 특징을 드러내는 '-길

214) 편의에 따라 각 교재 명을 교재를 편찬한 대학 기관명으로 혹은 기관명으로 바꿔서 지칭할 것이다.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는 위 [표 2]에서 제시한 순서대로 『성균관 1』, 『경희 2』, 『국립』, 『선문』, 『성균관 2』, 『이화』, 『연세 2』, 『경희 1』, 『외대』, 『고려』, 『건국』, 『홍익』, 『연세 1』라고 할 것인데 교재 명 뒤에 붙인 숫자 '1'은 같은 기관에서 먼저 나온 구교재를 숫자 '2'는 그보다 나중에 출판된 신교재를 구별하는 표시이다.

215) 『경희 한국어』는 초·중·고급으로 급을 나누고 문법 및 회화를 통합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각 영역을 '문법',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로 구분해 출판하였다. 이 장에서는 '-길래'를 교재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문법'의 영역을 선택해 교재를 분석하였다.

래’보다 먼저 제시된다면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습자들에게 화자의 직접적인 ‘지각’이 가져오는 주어 인칭 제약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다면, ‘-길래’의 이들보다 더 다양한 의미 및 통사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학습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착안하여 각 교재에서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재별로 ‘-더니’ 혹은 ‘-더라고(요)’를 제시한 급수를 ‘-길래’의 제시 급수와 비교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 29] 한국 출간 한국어 교재에서 ‘-더-’ 류와 ‘-길래’가 제시된 급수와 단원

| | 교재 명 | ‘-더니’, ‘-더라고(요)’ 류를 제시한 급수 및 단원 | ‘-길래’를 제시한 급수 및 단원 |
|---|---|---|---|
| 1 | 성균관 1 | 3급 11과(-더니) | 3급 20과 |
| 2 | 건대 | 3급 11과(-더니) | 4급 11과 |
| 3 | 경희 1 | 4급 1과(-더라고(요)),<br>4급 2과(-더니) | 4급 5과 |
| 4 | 경희 2 | 4급 23과(-더니) | 4급 41과 |
| 5 | 고려 | 4급 2과 (-더니) | 4급 3과 |
| 6 | 국립 | 4급 8과 이후<br>보충학습(-더니) | 4급 16과 |
| 7 | 선문 | 4급 7과(-더니) | 4급 6과 |
| 8 | 성균관 2 | 3급 5과(-더니),<br>3급 12과(-더라고(요)) | 4급 13과 |
| 9 | 이화 | 4급 1과(-더니) | 4급 10과 |
| 10 | 외대 | 4급 5과(-더니) | 4급 15과, 23과 |
| 11 | 홍익 | 3급 6과(-더라고(요))<br>3급 21과(-더니) | 4급 22과 |
| 12 | 연세 1 | 4급 2과(-더니[1]),<br>4급 5과(-더니[2])[216]<br>5급 4과(-더라고(요)) | 5급 3과 |
| 13 | 연세 2 | 4급 3과(-더니[1]: 4-1[217])<br>4급 6과(-더라고(요):4-1) | 4급 7과(4-1) |

216) 『연세』에서는 ‘-더니’를 의미에 따라 구분해서 ‘-더니[1]’과 ‘-더니[2]’로 제시했는데 전자는 화자가 지각한 것에 대한 결과를 질문하거나 이유를 나타내는 의미이고 후자는 상황에 대한 변화를 나타낸다고 했다.

위 [표 29]에서 보이는 것처럼 『선문』을 제외한 모든 교재에서 '-길래'에 앞서 '-더니'나 '-더라고(요)'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바대로 '-더니' 류가 가지는 의미적 속성으로 인한 주어 인칭 제약을 '-길래'와 연관 지어 문법 항목의 난이도에 따라 그 제시 순서를 배치한 집필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문법 항목의 배치 순서는 앞서 지적한 바대로 외국인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살펴본 거의 모든 교재에서 이와 같은 제시 양상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각 교재에서 '-길래'를 제시한 급수별로 인과 연결어미인 '-길래'를 어떻게 제시했는지 그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그 분석 기준은 앞서 논의한 대로 '-길래'가 실현되는 문형[218]을 모두 제시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길래'의 의미, 통사적 특징, 결합 정보, 담화적 의미 기능, 화용 정보의 5가지 항목을 모두 제시했는지의 여부이다. 물론 대학 기관 혹은 기관이 집필한 교재에는 그마다의 집필 의도를 바탕으로 한 각자 다른 문법의 제시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학습자들의 '-길래'의 사용에서 일으키는 오류의 원인을 '미학습' 혹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함'의 두 부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추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재에서 '-길래'에 관련된 특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총 7가지 항목을 그 분석 기준으로 삼았음을 밝혀 둔다.

그런데 13종의 한국에서 출간된 교재들을 분석한 결과, 4급에서 '-길래'를 제시한 교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길래'를 4급에서 제시한 교재들부터 순차적으로 그 제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1.1. 4급 교재의 '-길래'

---

217) 연세대학교에서 2020년에 새로 출판된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은 각 급이 책 2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는데, 각 권당 10과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4급도 교재가 4-1과 4-2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책에서는 '-더니[1]'과 '-더라고(요)'를 모두 4-1에서 제시하고 있었다.

218) 앞으로 '-길래'가 쓰인 3가지 유형의 구문을 3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길래' 평서문[1], '-길래' 평서문[2], '-길래' 의문문으로 지칭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길래' 평서문[1]은 화자의 행동의 근거로 쓰인 '-길래' 구문을 말하고, '-길래' 평서문[2]는 화자가 '-길래'를 통해 발생한 상황을 초래한 이유를 추측하는 평서문을 가리킨다.

첫 번째로 논의할 교재는『고려』이다.

[표 30]『재미있는 한국어 4』에서 제시한 '-길래(이지선 2017: 337)'

| 급수/과, 쪽수 | 4급 3과, 65쪽 |
|---|---|
| 예문 | ㉠저녁에 비가 온다고 하길래 우산을 가지고 나왔다.<br>㉡딸기가 맛있어 보이길래 사 왔다.<br>㉢ (1)가: 무슨 손수건을 그렇게 많이 샀어요?<br>나: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길래 여기저기 선물 좀 하려고요.<br>㉣ (2)가: 아이가 우네요.<br>나: 하도 말을 안 듣길래 야단을 좀 쳤거든요.<br>㉤ (3)가: 수미 씨는 만났어요?<br>나: 30분을 기다려도 안 오길래 그냥 왔어요.<br>㉥ (4)가: 웬일로 영화를 다 보러 갔다 와요?<br>나: _____ |
| 관련 설명 | (1) '-길래'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데,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명사+-이다' 뒤에 붙는다[219]. '-기에'는 유사하게 사용되지만 '-기에'가 전형적인 문어체에 사용되는 반면 '-길래'는 구어체에 자주 사용된다[220].<br>(2) '-길래'는 뒤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다.[221]<br>(3) '-길래'는 말하는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상태로 인한 것임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후행절의 주어는 1인칭 단수여야 한다[222]. |

『고려』는 본 교재와 함께 워크북이 따로 있는데 본 교재에서 목표 문법에 대한 예문 및 설명이 제시되고, 워크북에서는 이 문법 항목에 대한 연습이 이루어진다. 본 교재를 살펴보면, 평서문에서 화자의 행동의 이유를 나타내는 '-길래'의 경우만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문 제시에 있어, 문장의 형태와 대화체에서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다양하게 제시해 고무적인데, 이러한 예문 제시 방법은 이 교재에 제시된 다른 문법 항목의 기술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제시 방식은 그 의미에 대한 서술이 없더라

219) -길래 indicates a reason or a cause followed by a verb, an adjective and a 'noun+-이다'(『재미있는 한국어 4』, 2010: 65).

220) -기에 is similarly used but it is a classic written expression whereas -길래 is a often used in spoken discourse(『재미있는 한국어 4』, 2010: 65).

221) -길래 cannot be used after an imperative or a propositive sentence(『재미있는 한국어 4』, 2010: 65).

222) -길래 indicates the speaker's behavior that is caused by another behavior or state, so the subject of the latter clause should be the 1st person singular(『재미있는 한국어 4』, 2010: 65).

도 예문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드러나는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예문 중 ㉤에서만 '웬일로'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유를 질문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예문에서는 모두 이유를 질문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이를 '-길래'를 제시한 급이 4급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다양한 표현에 대한 대답으로 '-길래'를 사용해서 이유를 설명하는 예문을 제시하려는 교재의 의도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설령 그러한 집필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장 첫 예문에서는 명시적으로 '왜'라는 의문사를 사용해 질문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길래'를 통해 대답을 한 후에 단계적으로 위 예문과 같은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길래'로 이유를 나타냈더라면 '-길래'의 의미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도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길래'의 제시 내용을 분석 기준에 근거해 살펴보면, '-길래'의 담화적 의미, 그리고 '-길래'가 의문문 및 화자의 이유 추측을 나타내는 '-길래' 평서문[2]에서도 쓰인다는 것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길래'의 의미, 후행절에는 1인칭 주어만이 허용된다는 주어 인칭 제약과 후행절의 서법 제약의 통사적 특징, 화용 정보, 결합 정보를 대부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통사적 특징에서 후행절에 관련해 명령형이나 청유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법 제약은 제시했으면서, '의지적 행동 서술어 제약'이나 '미래 시제 불가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은 기술하지 않았다. 또한 결합 정보에서 '-길래'가 완료된 상황에 쓰이는 '-었길래'나 추측의 선어말어미인 '-겠-'과 결합한 형태인 '-겠길래' 등도 제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주어 인칭 제약을 제시할 때 "'-길래'는 말하는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상태로 인한 것임을 나타내는데 그래서"라고 해서 '-길래'의 의미와 연관된 주어 인칭 제약을 설명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주어 제약을 모두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즉 '-길래' 평서문[1]에서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로 인한 후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을 제시했을 뿐 선행절에 대체로 1인칭 주어가 오지 못한다는 통사적 특징은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통사적 특성을 제시하지 않고 의미와 연관시켜 제시했다는 점은 학습자의 이해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이라 하겠다. 그런데 인상적인 점은 본교재에서는 '-길래' 의문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으면서, 워크북에서 제시한 6개의 문제 중에서 마지막 문제로 '-길래' 의문문의 쓰임을 확인하는 연습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223]. 워크북에서라도 '-길래' 의문문을 노출시킨 것은 의의가 있지만, 과연 이 연습 문제만으로 학습자가 '-길

래’ 의문문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교재는 『이화』이다.

[표 31]『이화 한국어 4』에서 제시한 ‘-길래(이지선 2017: 329)’

| 급수/과 , 쪽수 | 4급 10과, 182쪽 |
|---|---|
| 예문 | ㉠날씨가 덥길래 창문을 열었어요.<br>㉡친구가 제주도로 여행 간다고 하길래 나도 같이 갔어요. |
| 관련 설명 | ‘A/V+길래’는 말하는 사람이 한 행동의 원인이나 이유, 근거를 나타낸다.<br>이유나 근거는 말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상황으로 인한 것이 된다. |

『이화』는 ‘의사소통 중심교재’라는 취지를 표방하여 출판된 교재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교재와 달리 ‘-길래’를 제시할 때에도 ‘-길래’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피하고 ‘-길래’가 사용되는 담화 상황을 먼저 제시한 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그림과 대화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입 과정은[224], 학습자가 스스로 ‘-길래’의 의미와 그로 인해 야기되는 통사적인 제약 등을 추측해 낼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려는 교재의 집필 의도로 파악된다. 또한 한편으로 문법 항목에 대한 이러한 제시 방식은 한국어 학습자가 대부분 논리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성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이지선 2017: 329). 특히 도입의 “신발을 살 생각이 없었는데 세일을 하기 때문에 샀습니다((『이화 한국어 4』, 2011: 182).”라고 해서 신발을 산 이유가 ‘화자 자신이 의도한 바가 아님’을 넌지시 던지면서 뒤이어 “자신이 한 행동의 이유가 다른 상황이나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할까요(『이화 한국어 4』, 2011: 182)?”라고 ‘-길래’의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후자의 의미 설명이 앞서 살펴본『고려』에서 제시한 의미와 아주 흡사[225]해서 눈에 띈다. 즉 이와 같은 의미 설명은 ‘후행절의 결

---

223) (1) 가: 영진 씨, 도대체 밤에 뭘 _____ 대낮에 그렇게 하품을 해요?
나: 요즘 인터넷 게임에 푹 빠져서 밤마다 잠을 못 자거든요.
(『재미있는 한국어 워크북 4』 2010: 41, 1번의 (6)번 문제 인용)

224) 신발을 살 생각이 없었는데 세일을 했기 때문에 샀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의 이유가 다른 상황이나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할까요?
A: 사라 씨, 또 신발 샀어요?
B: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길래 하나 샀어요. 예쁘지 않아요?
(『이화 한국어 4』, 2011: 182)

225) 『고려』에서는 ‘-길래’의 의미를 “말하는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상태로 인한 것임을 나타냄”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과를 초래한 이유'라는 인과 연결어미로서의 '-길래'의 기본적인 의미에서 더 나아가 '-길래'가 가지는 이유의 의미 자질을 더 구체화해서 제시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후행절의 완료한 행동을 초래한 이유는 화자가 아닌 외부적인 요소라는 다른 인과 연결어미와 구별되는 '-길래'의 고유한 의미를 밝혀 제시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재에 나타난 '-길래'의 구체적인 제시 양상을 살펴보면, 『이화』는 'N'에 지정사 '이다'가 결합한 형태인 'N이다'의 경우를 제외하고, '-길래'의 앞에 형용사나 동사가 온다는 결합 정보를 제시한 뒤, '-길래'가 평서문에서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예문은 단 2개를 들었는데 형용사와 '-길래'가 결합한 경우와 동사가 간접 인용 화법과 결합한 '-ㄴ/는다고 하길래'로 확장해 쓰인 경우였다. 그리고 문법 연습 문제 4개가 제시되는데 질문에 대해 '-길래'를 사용해 이유를 대답하는 형식이다. 정리해 보자면 『이화』에서는 '-길래'의 '결합 정보'와 '의미'만을 제시하고, '-길래'의 통사적 제약, 담화적 의미 기능, 화용 정보, '-길래'가 다른 의미로 나타나는 '-길래' 의문문과 '-길래' 평서문[2]는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화』는 본 교재 외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언어권 별로 참고서가 따로 있는데 이 참고서에서는 각 단원 별로 새 어휘와 본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문법 항목의 통사적 특징을 더 다양한 예문과 함께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루어진 '-길래'에 대한 기술 내용을 아래 〔표 31-1〕에 정리하였다.

[표 31-1] 『이화 한국어 참고서 중국어판 4』에서 제시한 '-길래(이지선 2017: 330-331)'

| 급수/과, 쪽수 | 4급 10과, 118-119쪽 |
|---|---|
| 예문 | ㉠A: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br>B:날씨가 좋길래 가족들과 소풍을 갔어요.<br>㉡A:사라 씨, 옷이 정말 예쁘네요.<br>B:어제 백화점에 갔는데 세일을 하길래 하나 샀어요.<br>㉢A:서류를 내러 학교까지 직접 갔어요?<br>B:네, 전화를 계속 했는데 안 받길래 직접 가서 제출했어요.<br>㉣A:이게 웬 케이크예요?<br>B:오는 길에 빵집에 들렀는데 싸게 팔길래 하나 샀어요.<br>㉤A:아이가 시험을 잘 봤어요?<br>B:네, 지난번보다 성적이 많이 올랐길래 칭찬해 줬어요. |

| | |
|---|---|
| | ⓗA:학교까지 잘 찾아왔네요. 처음이라 찾기 힘들지 않았어요?<br>B:아니요, 오다가 길을 몰라서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이 학교 학생이길래 학교까지 따라왔어요. |
| 관련 설명 | (1) '-길래'는 후행절의 원인, 이유나 근거를 말할 때 사용하는 문형으로 이 이유나 근거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한 것이며 동사와 형용사와 결합하고 명사와 결합할 때는 '명사(이)길래'의 형태로 표현된다[226].<br>(2) '-길래'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는 달라야 하며 선행절의 주어는 1인칭을 쓸 수 없다[227].<br>예) 동생이 아프길래 (내가) 약을 사 줬어요. (O)<br>동생이 아프길래 동생이 약을 사 줬어요.(X)<br>(그러나 뒷문장의 동생은 아마도 다른 동생일 것이다[228].)<br>내가 아프길래 동생이 약을 사 줬어요.(X)<br>(3) '-길래'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쓰일 수 없다[229].<br>예) 친구가 감기에 걸렸길래 약을 사 왔어요.(O)<br>친구가 감기에 걸렸길래 약을 사 주세요.(X)<br>예) 날씨가 좋길래 친구와 같이 공원에 갔어요.(O)<br>날씨가 좋길래 같이 공원에 갑시다.(X)<br>(4) '-길래'와 간접 인용 화법은 자연스럽게 결합한다[230].<br>예)<br>A:마틴 씨, 어제 놀이공원에 갔다 왔다면서요?<br>B:네, 여자 친구가 갑자기 가자고 하길래 다녀왔어요.<br>예)<br>A:히로 씨, 어디 아파요?<br>B:네, 어제 친구가 이사를 간다고 좀 도와 달라길래 이삿짐 옮기는 것을 도와줬더니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네요.<br>(5) '-길래'가 선행절의 의문사 '얼마나, 무엇, 언제, 왜' 등과 결합할 때 형용사의 과거형과도 결합할 수 있다[231].<br>예)<br>A:유키 씨, 어디가 그렇게 아팠길래 일주일이나 병원에 입원 했어요?<br>B: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더니 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이나 입원하게 됐어요.<br>예)<br>A:항상 밝던 수진 씨가 아이를 낳은 후에 우울증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대요.<br>B:얼마나 힘들었길래 우울증까지 걸렸대요? 그동안 수진 씨에게 너무 무심했네요. 앞으로 자주 연락해야겠어요. |

226)'-길래'是在说后文的原因。理由或根据时使用的句型，在此的理由或根据不是说话人的，而是别人或因外在情况所产生的，与动词和形容词结合，与名词结合时用'名词(이)길래'的形态来表达. -(『이화 한국어 참고서 중국어판 4』, 2011: 118)

설명이 중국어로 제시되어 있어서 표의 내용은 필자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인데, 각주 231번까지

이 참고서에서는 먼저 '-길래'가 '-길래' 평서문[1]에서 나타내는 의미를 설명한 후에 '-길래'가 어떤 품사와 결합 가능한지에 대한 결합 정보를 제시했다. 그리고 대화로 진행되는 총 6개의 예문을 들어 '-길래'가 형용사, 동사, 명사 그리고 동사의 완료형 등과 결합해 다양한 형태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평서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예문 뒤에 이어서 '-길래'가 가지는 통사적인 제약 및 특징을 그와 관련된 예문과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예문 이외의 설명은 앞서 언급했던 영어 등의 외국어로 제공된다. 참고서를 활용한 이러한 설명 제시 방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논의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교사에 따라 달라지는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 제시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세히 말하자면 교재에서 명확하게 문법 항목의 의미나 통사적 특징 등이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설명은 전적으로 교사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교사의 역량에 따라 '-길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도 그리고 교사마다 전달한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자에게 제시한 내용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참고서의 제시는 학습자들에게 문법 항목에 대한 동일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의 도움 없이 교재만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이와 같은 참고서는 문법 항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준다는 점에서 그들을 배려한 바람직한 사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이지선 2017: 332).

다음으로 '-길래'에 대해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길래'의 의미, 통사적 제약, 결합 정보, '-길래'가 '-길래' 평서문[1]과 '-길래' 의문문에서 실현되는 경우를 제시했다. 하지만 '-길래'가 담화 상에서 가지는 담화적 기능과 화용 정보, 화자의 이유 추측의 화행을 수행하는 '-길래' 평서문[2]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

해당된다.

227)'-길래'的前文与后文的主语必须不同，而且前文的主语不能用第1人称.
(『이화 한국어 참고서 중국어판 4』, 2011: 118)

228) 但是，后文的弟弟有可能是别的弟弟.
(『이화 한국어 참고서 중국어판 4』, 2011: 118)

229)'-길래'无法与命令句或劝诱句一起使用来表达.
(『이화 한국어 참고서 중국어판 4』, 2011: 119)

230)'-길래'与间接引用法自然地结合.
(『이화 한국어 참고서 중국어판 4』, 2011: 119)

231)'-길래'与前文的疑问词'얼마나, 무엇, 언제, 왜'等结合时，也可与形容词的过去式结合.
(『이화 한국어 참고서 중국어판 4』, 2011: 119)

조금 더 자세히 ‘-길래’의 통사적 특징을 제시한 내용을 보면, 선·후행절의 비동일 주어 제약, 선행절의 2·3인칭 주어 제약과 후행절의 서법 제약을 제시했지만, 후행절에 관련된 제약인 서술어 제약 및 시제 제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길래’ 평서문[1]의 주어 제약에 대한 설명에서 선·후행절의 주어가 같을 수 없고, ‘선행절의 주어로는 1인칭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앞서 3장의 논의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즉 화자가 지각했을 경우에는 선행절에 1인칭 주어도 허용되며, 만일 자각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1인칭 주어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선·후행절의 주어가 1인칭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이화 참고서』의 ‘-길래’ 평서문[1]에 적용되는 주어 인칭 제약에 관한 기술은 명백한 오류이며 수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길래’의 통사적 제약에 관한 이와 같은 잘못된 기술은 바로 학습자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살펴본 교재와 달리 이 참고서에서는 처음으로 ‘-길래’가 의문문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 선행절에 필수적으로 의문사를 동반해야 한다는 제약을 기술하지 않고, 다만 의문사를 수반한 의문문에서 ‘-길래’가 형용사의 과거형과 결합 가능하다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 제시는 ‘-길래’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서는 앞서 설명했던 바대로 평서문과 같이 동사의 현재형이나 완료형, 형용사, 명사와 결합 가능하지만, 형용사의 완료형은 ‘-길래’와 결합하지 못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길래’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서는 쓰이지 못한다는 통사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는 ‘-길래’의 사용에 있어 중대한 오류를 양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길래’ 의문문이 가지는 통사적 제약 즉 선행절에 의문사를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제약과 후행절에 2·3인칭 주어가 자주 출현한다는 주어 경향, 그리고 ‘-길래’ 평서문[1]과 마찬가지로 후행절에 미래 시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약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 책은 어휘와 문법 영역에 대해서 본 교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충해서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고려』에 비하면 비교적 상세히 ‘-길래’가 가지는 통사적 특징을 기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래’가 ‘-길래’ 평서문[1]과 ‘-길래’ 의문문에서 가지는 통사적 제약의 일부만을 제시하거나 잘못 전달했다. 또한 ‘-길래’가 중급 이상에서 교수되는 문법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비격식체의 구어에 주로 사용된다는 화용 정보나 실제적인 담화 상황에서 수행되는 의미 기능 등은 기술하지 않았다.

그러나 참고서는 본 교재와 달리 학습자들에게 목표 문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능한 모두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야 한다. 학습자들은 교재에서 미학습된 부분을 참고서를 통해 학습하게 되어 '-길래'에 관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길래'의 정확하고 유창한 사용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길래'는 구현되는 문장의 유형에 따라 의미와 통사적 특징이 달리 나타나는 만큼 '-길래' 평서문[1], 이유 추측의 '-길래' 평서문[2], '-길래' 의문문을 모두 제시하여 '-길래'를 통해 학습자들이 정확하고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길래'에 관련된 정보의 전반적인 제시 방법은 명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기대하는 참고서에 대한 학습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기도 할 것이다(이지선 2017: 332).

세 번째로는『경희 1』과 『경희 2』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두 교재를 같이 살펴보는 이유는『경희 1』은 2012년도에 출판되었고,『경희 2』는 2020년도에 출판되어 편찬된 시기의 차이가 있는 만큼 '-길래'의 제시에 있어서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비교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에 의해서이다.

[표 32]『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중급 2』에서 제시한 '-길래(이지선 2017: 333)'

| 급수/과, 쪽수 | 4급 5과, 88쪽 |
|---|---|
| 예문 | A/V-길래<br>㉠가:라이언 씨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대요.<br>나:그래요? 요즘 수업에 안 오길래 무척 궁금했었어요.<br>㉡가:음식을 이렇게나 많이 사왔어?<br>나:맛있어 보이길래 사 왔지. |
| 관련 설명 | 없음 |

『경희 1』은 '-길래'에 관한 아무런 설명 없이 'A/V-길래'로 '-길래'의 결합 정보를 간단히 보여주고, 대화 상황에서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대답으로 평서문에서 쓰인 2개의 예문을 들어 '-길래'를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질문을 보면 앞서『고려』에서의 제시와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이 예문을 통해 '-길래'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명시적인 질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V-길래'로 '-길래'가 형용사나 동사와 결합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시했으면서도 '오길래', '보이길래'와 같이 '-길래'가 동사와 결합한 형태만을 기술하고 있어 결

합 정보와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예문 제시에 일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목표 문법에 대한 결합 정보를 일일이 모두 기술하지 않더라도 예문 제시에서 그보다 다양한 결합 형태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제시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경희 1』의 경우처럼 동일한 품사나 선어말어미와 결합한 형태를 중복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앞선 교재와 달리 '-길래'에 대한 문법 연습에서 상대방의 질문이나 추궁에 '-길래'를 사용해 대답을 하도록 하는 유형 이외에도 주어진 상황에서 학습자 스스로 담화 맥락에 적절한 대답을 하도록 하는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232]이러한 연습 유형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가 '-길래'의 기본적인 의미와 그에서 파생된 담화 상에서 수행되는 담화적 기능을 유추하도록 한 교재의 집필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나 '-길래'의 문법적 난이도를 고려할

---

232) 1. 다음 질문에 대한 이유를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1) "오후에 도서관에서 공부하자고 했으면서 왜 안 왔어?"
(보기) "미안해, 갑자기 방으로 친구가 찾아왔길래 얘기하다가 보니 깜박했어. 다음엔 꼭 갈게."
<친구 2> _____

2. 다음 이야기를 읽고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민정 씨는 친구와 5시에 명동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출발해서 3시에 명동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혼자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영화를 다 본 후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질문했어요. "왜 혼자 영화를 봤어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중급 2』, 2012: 88-89)

『경희 1』에서는 '-길래'에 대한 문법 연습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 전자는 3개를 후자는 4개를 제시했다. 특히 두 번째 유형의 연습은 교수 대상이 4급인 학습자라는 점에서 보면 청자의 질문에 대해서 담화적 맥락을 파악해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대답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두 번째 연습 유형의 질문에 적합한 대답을 추리해 본다면, ① "명동에 도착했는데 3시밖에 안 됐길래 혼자 영화를 봤어요." 나 ② "명동에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길래 혼자 영화를 봤어요."란 대답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②번의 대답은 혼자 영화를 본 이유가 예상 밖으로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즉 화자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길래'의 의미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지만, 평서문에서의 주어 제약에서는 벗어나 있다. 즉 선행절에는 보통 2인칭이나 3인칭 주어가 오며, 후행절에는 1인칭 주어만이 허용된다는 제약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문장은 화자가 일찍 도착했다는 사실을 지각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점 때문에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허용되어 비문은 아니지만, 아직 '-길래'의 의미 및 통사적인 제약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학습자에게 이처럼 예외적인 경우를 첫 번째 문제로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마지막에 연습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이지선 2017: 334).

때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 되지 않고 위에서 언급된 유형의 연습을 진행한다면 학습자들에게 과연 이 연습이 유의미한 연습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어서 『경희 2』에서 제시된 '-길래'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표 33]『경희한국어 중급 2 문법』에서 제시한 '-길래'

| 급수/과, 쪽수 | 4급 15과, 114쪽 |
|---|---|
| 예문 | ㉠가:밤이 늦었는데 어디 갔다 왔냐?<br>나:잠이 안 오길래 잠깐 산책 나갔다 왔어.<br>㉡가: 이번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청한다면서요?<br>나:아니요. 신청하려다가 자격 조건이 좀 까다롭길래 그냥 포기했어요.<br>㉢학생 식당 문이 닫혔길래 다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br>㉣김 과장님께서 판매 현장에 나간다고 하시길래 저도 따라갔다 왔어요.<br>㉤가:스마트폰으로 뭘 보길래 그렇게 웃고 있냐?<br>나:이거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인데 진짜 웃겨. 너도 같이 볼래?<br>㉥가:와, 저 댄스 공연 팀 대단하네요. 준비를 얼마나 했길래 저렇게 잘할까요?<br>나:그러게요. 정말 프로 댄스 팀과 비교해도 실력이 부족하지 않네요. |
| 관련 설명 | (1) '동사 길래'는 앞에 화자가 직접 보거나 들은 것, 느낀 것을 이유로 하여 뒤에 자신이 어떤 일을 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며 구어에 쓴다.<br>(2) '누구, 무엇, 무슨, 어디, 얼마나, 어떻게' 등과 같은 말과 함께 쓰여 궁금한 점을 구체적으로 질문할 때도 사용한다. 뒤에는 '이렇게/그렇게/저렇게' 표현이 자주 온다. |

『경희 2』는 지금까지 살펴본 교재들과 달리 목표 문법과 어휘를 중심으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영역을 통합적으로 연습시키는 교재가 아니라 문법을 중점적으로 다룬 교재[233]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교재보다 '-길래'에 대한 연습이 다양하고 체계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본교재에서 문법 항목에 대한 연습을 단계적으로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었다. 먼저 그 의미와 문법적 특성을 이해시키고, 마지막에는 이 목표 문법이 담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활동'으로 연습

233) 『경희 2』는 각 영역을 '문법',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로 나누어 초급부터 고급까지 각각 1, 2로 구분해 2020년에 출판했다.

시키는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음으로 교재에서의 '-길래'에 대한 제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대화체의 담화 상황으로 '-길래'를 제시하는 도입 부분에 이어 '-길래'의 의미와 화용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 후에 '-길래' 평서문[1]에서 쓰인 '-길래'를 4개의 예문으로 들고 있다. 이때 예문은 대화 형식과 문장 형태 각각 2개씩이다. 그런데 도입 부분에서 담화 상황을 제시해 학습자로 하여금 '-길래'의 의미를 추측하도록 하는 방식은 긍정적이지만, 질문에서 '-길래'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즉 앞서 살펴본 『고려』, 『경희 1』 등과 마찬가지로 '왜' 등의 의문사를 사용해 '-길래'의 의미가 화자의 행동을 초래한 '이유' 혹은 '근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길래'가 '-길래' 평서문[1]에서 가지는 의미를 "앞에 화자가 직접 보거나 들은 것, 느낀 것을 이유로 하여 뒤에 자신이 어떤 일을 함을 나타냄"이라고 제시해서 '-길래'가 가지는 '지각'의 의미와 그로 인한 화자의 행동이라는 결과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의미 설명은 선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과 후행절의 1인칭 주어 제약 및 의지적 행동 서술어 제약을 동시에 드러내는 의미 설명 방식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길래'가 '지각'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선행절에 2·3인칭 주어가 빈도 높게 출현하지만, '자각'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오히려 1인칭 주어만이 허용된다는 '-길래'의 '지각'과 '자각'의 의미와 연관된 주어 제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역시 아쉬운 측면이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의미 설명만으로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에 복잡하게 적용되는 주어 제약을 학습자들이 유추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희 2』에서는 결합 정보를 직접 설명하지 않고 예문에서 동사, 형용사, 동사의 완료형, 동사와 간접화법이 결합한 형태로 다양하게 '-길래'의 결합 양상을 제시했다. 그런데 특히 '-길래' 의문문의 의미와 통사적인 의문사 수반 제약, 그리고 의문문에서 '-길래'와 자주 공기하는 표현 등을 설명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앞서 『이화 참고서』에서 의문문을 제시하긴 했지만 학습자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형용사 완료형과의 결합 가능 정보만을 제시한 것에서 진일보한 설명 내용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문에서 후행절에 '이렇게' 류가 자주 수반된다고 설명하면서도 '-길래'가 선행절의 의문사 및 후행절의 '이렇게' 류의 표현과 자주 공기하여 담화 상황에서 두 번째 예문에서도 제시한 것처럼 '감탄' 등의 화자의 발화 의도 즉 담화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더 논의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길래' 평서문[1]과 '-길래' 의문문에 관한 설명 및 예문 제시 뒤에 이어지는 '연습' 문제 1에서 "~'-더라고(요)'. 그래서"를 '-길래'로 바꿔 쓰도록 하는 연습[234]을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연습 문제 유형이 '-길래'의 선행절의 주어 인칭 경향 및 제약과 의미를 동시에 익히도록 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기 때문이다. 즉 앞에서 논의했던 바대로 '회상'의 선어말어미 '-더-'가 결합된 '-더라고(요)', '-던데(요)' 류는 '-길래'와 마찬가지로 '화자의 직접적인 감각 경험을 통해 인지하게 된 정보'라는 의미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주어 제약도 '-길래'와 동일하게 나타난다.『경희 2』는 바로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더라고(요)' 류 뒤에 접속부사 '그래서'를 수반해서 '-길래'의 의미가 '후행절의 결과를 초래한 이유'인데, 이 이유는 '화자가 직접 지각한 것임'이라는 사실을 학습자에게 인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그와 동시에 의미와 관련된 선행절의 주어 인칭 경향 및 제약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집필 의도가 '연습' 문제 1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습 방식은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이 문제를 연습하면서 '-길래'의 의미 및 통사적 제약을 스스로 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평가된다. 같은 맥락에서 '연습 3'에서 '-길래'를 통해 '변명'이나 '핀잔'을 하는 담화 상황을 제시[235]하기도 하고, 활동에서는 부득이하게 약속을 취소해야 하는 담화 상황에서 '-길래'를 사용해 그 이유를 묻고 '해명'하는 의문문과 평서문에서 쓰이는 '-길래'의 활용 연습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다른 기관의 교재와 달리 '-길래'가 실제 담화에서 어떤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지까지 확장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법 항목을 중점적으로 다룬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길래' 평서문[1]에서의 통사적 제약, 결합 정보, 담화적 의미를 제시하지 않았고, '-길래'로 발

---

234) 1) 마트에 갔다가 싱싱한 바닷가재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 사 왔어요.
⇒
(『경희 2』, 2020: 179)

235) 2) 가: 지하철역에서 여기까지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
나: 미안해. 오다가 할머니 한 분이 _____ 도와드리느라고 늦었어.
(『경희 2』, 2020: 180)
위 대화에서 '가'는 많이 늦은 이유를 '나'에게 추궁하고 있고 '나'는 '가'에게 그 이유를 변명하고 있다. '연습 3'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담화 상황을 5개로 제시해 '-길래'를 통해 단순히 질문에 이유를 대답하는 것에서부터 '변명' 등의 담화 맥락상 의미를 수행하는 것까지 확장 연습을 제공하고 있다.

생한 상황을 유발한 이유를 추측하는 '-길래' 평서문[2]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길래' 의문문에서는 반드시 의문사를 수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고, '-길래' 평서문[1]과는 다르게 후행절에 2·3인칭 주어가 자주 오는 경향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물론 다양한 예문과 연습 문제를 제시해 학습자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유도했다는 측면은 인정되지만, 학생 간의 이해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서든 부록의 형식으로든 '-길래'의 통사적 제약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같은 기관에서 나온 두 교재를 비교해 보자면, 먼저『경희 1』에서는 결합 정보 이외에 '-길래'에 관한 어떤 설명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경희 2』는 '-길래'의 의미, 화용 정보, 그리고 '-길래' 평서문[1]뿐만 아니라 '-길래' 의문문에서 쓰이는 '-길래'를 다양한 예문 및 연습을 통해 제시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제시 양상의 차이는 교재의 집필 의도나 편찬 시기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경희 1』은 '듣기', '말하기' 등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통합 교재인데 반해,『경희 2』는 문법 중심 교재라는 점이 그러하다. 그러므로『경희 1』이 통합 교재의 특성 상 본교재에서 '-길래'에 관한 설명 제시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반면에,『경희 2』는 '문법' 영역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교재에서 '-길래'가 가지는 문법적인 특성 등을 제한 없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 방면에서 연구된 '-길래'에 관한 연구물이『경희 1』이 출판된 2012년도 이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반영한『경희 2』는 전자에 비해서 '-길래'의 다양한 측면을 교재에 담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추정된다.

네 번째로는『외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34]『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4』에서 제시한 '-길래(이지선 2017: 334-335)'

| 급수/과, 쪽수 | 4급 15과, 114쪽 |
|---|---|
| 예문 | AV았/었/였길래, N(이)길래, V길래, V다/냐/자/라길래<br>㉠가:왜 혼자 밥을 먹었어?<br>나:다들 벌써 **먹었길래** 혼자 먹었지.<br>㉡가:무슨 옷을 그렇게 많이 샀어요?<br>나:세일 **기간이길래** 많이 사게 됐어요.<br>㉢가:어제 왜 그렇게 일찍 가셨어요? |

| | |
|---|---|
| | 나:**피곤하길래** 일찍 퇴근했어요.<br>㉣가:왜 이렇게 늦었어? 지금 몇 시야?<br>나:길이 **막히길래** 지하철로 갈아타느라고 늦었어. 미안해. |
| 관련 설명 | '-길래'는 선행절에서 후행절에 이어지는 말하는 사람의 행동에 대한 이유나 원인을 나타낸다. 1인칭 주어는 선행절에 나타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선행절은 의도하지 않은 원인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반대로 1인칭 주어는 후행절에 사용되지만 제안이나 명령에는 사용될 수 없다[236]. |

[표 34-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4』에서 제시한 '-길래(이지선 2017: 335)'

| 급수/과, 쪽수 | 4급 23과, 172쪽 |
|---|---|
| 예문 | 의문사 V았/었/였길래, 의문사 N(이)길래, 의문사 V길래<br>㉠가:거기가 **어디길래** 내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예요?<br>나:콘서트장에 와 있으니까 나중에 통화해요.<br>㉡가:**어떻게 공부했길래** 한국어가 이렇게 유창해요?<br>나:다 한국 친구들 덕분이죠.<br>㉢가:미안하지만 얘기해 줄 수 없어요.<br>나: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얘기를 못 해요?<br>㉣가:오늘 **누구를 만나길래** 하루 종일 거울만 봐요?<br>나:그냥 알고 지내는 친구를 만날 뿐이에요. |
| 관련 설명 | '(의문문에 쓰이는)길래'는 이상한 일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를 물을 때 사용된다[237]. |

『외대』는 위 [표 34, 34-1]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길래'가 '-길래' 평서문[1]과 '-길래' 의문문에서 쓰이는 경우를 15과와 23과로 분리해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다른 교재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제시 양상이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길래' 구문을 이렇게 나누어 제시하는 방식은 '-길래' 평서문[1]과 '-길래' 의문문에서 '-길래'가 가지는 의미와 통사적 특징이 다르다

236) '-길래' is used to express a reason or cause in the first clause for the speaker's action in the following clause, The first person is not allowed to appear in the first clause, only an unintended cause is shown. On the contrary, the first person may be used in the second clause, but suggestion or commands may not be used(영어로 설명이 된 것을 필자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인데 아래 각주 237번도 해당됨).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4』, 2016: 114)

237) '(interrogative)길래' is used when you ask the cause or reason of something unusual.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4』, 2016: 172)

는 점에서 합리적인 제시라고도 볼 수 있다(이지선 2017: 335).

먼저 15과에서 제시한 '-길래' 평서문[1]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길래' 평서문[1]에서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 및 통사적 제약을 영어로 기술하고, 결합 정보를 예문과 함께 제시했다. 그런데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길래'가 의도하지 않은 원인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며 '-길래'의 의미와 연관시켜 설명한 것이 인상적이다. 왜냐하면 통사적 제약의 제시에 있어 이와 같은 설명 방식은 일방적인 통사적 제약의 전달보다 학습자의 이해에 있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앞에서도 지적했던 바대로 한국어 학습자가 대부분 성인 학습자에 해당하므로 학습 내용에 대해 논리적인 판단을 통한 이해를 선호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외대』에서는 후행절에 1인칭 주어만이 허용되는 이유는 선행절의 주어 제약의 설명 방식처럼 의미와 연관지어 설명을 제시하지 않아 아쉬운 측면이 있다. 즉 후행절의 1인칭 주어 필수 제약이 '후행절에 이어지는 말하는 사람의 행동에 대한 이유나 원인'이라는 '-길래'의 의미로 인한 것임을 앞서 의미를 설명할 때 같이 기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사적 제약에서는 선·후행절의 주어 제약과 후행절의 서법 제약만을 제시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점은 『외대』에서는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앞서 『이화』에서도 논의했던 것처럼 1인칭 주어가 오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잘못된 기술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와 통사적 제약에 이어 대화 상황에서 '-길래'가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사용된 '-길래' 평서문[1]의 예문을 4개 들었는데, 동사의 현재형과 완료형, 형용사, '명사+이다'와 '-길래'가 결합해 쓰이는 경우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던 교재들과 달리 '왜'라는 의문사를 사용해서 질문하고 '-길래'를 통해 대답하는 활용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길래'가 이유를 의미하는 인과 연결어미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다음으로 '-길래' 의문문은 23과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길래' 평서문[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 설명을 영어로 제시하고 결합 정보를 간단히 언급한 후에 대화 형식의 예문을 들었다. 하지만 '-길래'가 의문문에서 쓰일 때 "이상한 일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를 물을 때 사용된다"라는 '-길래' 의문문의 의미 및 용법을 설명했을 뿐, '-길래' 평서문[1]과 달리 '-길래' 의문문이 가지는 문법적 제약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설명과 관련된 예문을 보면 [표 34-1]의 ㉡

에서 '-길래' 의문문은 '한국어가 유창한 것'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화자의 '감탄'이나 '칭찬'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워크북의 관련 연습 문제에서는 친구에게 궁금했던 것을 질문해 보라며 '-길래' 의문문으로 대화를 만드는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238]. 즉 의문문에서 '-길래'가 '이상한 일에 대해 질문하는 이유'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설명을 제시했으면서, 그와 다른 의미를 드러내는 예문을 제시하고, 연습에서는 궁금한 것을 질문할 때 '-길래' 의문문으로 질문하는 연습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외대』에서는 '-길래' 의문문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앞서 2장에서 논의했던 바대로 '-길래'가 쓰인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화자가 지각한 사태에 대해 의문을 느껴 이유를 질문함'이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담화 맥락에 따라 '비난'이나 '핀잔', '부정적 감정 표현' 등의 다양한 화자의 발화 의도를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외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모호한 의미 설명은 학습자의 이해에 혼란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길래'를 통한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소지가 충분하다는 측면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정리해 보자면,『외대』는 '-길래' 평서문[1]과 '-길래' 의문문을 각각 다른 단원에서 나누어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른 교재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다른 교재들과 공통적으로 '-길래' 평서문[2]를 제시하지 않았고, '-길래' 평서문[1]과 '-길래' 의문문을 제시하긴 했으나 그에 대한 부분적인 제시만이 이루어졌다. 즉 제시한 '-길래' 평서문[1]에서는 의미와 결합 정보, 부분적인 통사적 특징만을 그리고 '-길래' 의문문에서는 결합 정보와 '-길래' 의문문이 나타내는 의미 혹은 용법만을 제시한 것이다. 한 가지 더 지적할 점은 '-길래' 의문문에서 '-길래'의 결합 정보를 기술할 때 각 결합 형태 앞에 '의문사'를 제시한 것은 바람직

238)『외대』워크북에서는 '-길래' 의문문에 대해 두 가지 유형으로 연습 문제를 제시했다. 하나는 제시된 문장을 연결하는 형태 연습이고, 다른 하나는 '-길래' 의문문으로 질문을 하고 적절한 대답을 해서 하나의 담화 상황을 구성하는 연습이다.

(1) 거기가 어디예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거기가 어디길래 이렇게 시끄러워요?

(2) 보기와 같이 대화를 만드십시오. 친구에게 궁금했던 것을 질문하세요.

| (보기) 가: 이 음료수가 얼마나 맛있길래 매일 마셔요?<br>나: 특별히 맛있지는 않지만 싸서 매일 마셔요.<br>가: 얼마길래 그래요?<br>나: 500원이에요. |
|---|

가: _____

나: _____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워크북 4』, 2016: 114, 문제 1의 (2)번과 문제 2 인용)

하다고 평가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의문사 수반 제약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즉 이러한 '-길래' 의문문의 문법적 제약을 강조했다면 학습자들에게 판정 의문문에서는 '-길래'가 쓰일 수 없는 인과 연결어미라는 점이 인지되어 사용에 있어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논의할 교재는 『건국』이다.

〔표 35〕『함께 배우는 건국 한국어 4』에서 제시한 '-길래'

| 급수/과, 쪽수 | 4급 11과, 156쪽 |
|---|---|
| 예문 | ㉠아이가 숙제를 베껴서 쓰길래 야단을 쳤어.<br>㉡새로 산 옷에 얼룩이 묻어 있길래 환불했습니다.<br>㉢아이가 다쳤길래 서둘러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br>㉣엄마가 위가 아프다고 하시길래 약이랑 죽을 사 왔어요. |
| 관련 설명 | 의미: 앞부분의 예상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계획에 없던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사용한다[239]. |

『건국』에서는 '-길래' 평서문[1]에서의 '-길래'의 의미를 설명한 후에 4개의 문장으로 예문을 제시했다. 이때 예문에서 '-길래'가 동사의 현재형과 완료형, 형용사, 간접화법과 결합해 쓰이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길래'의 결합 정보를 직접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다. 뿐만 아니라 '-길래'가 가지는 문법적 제약, 문어보다는 구어의 비격식체에 쓰인다는 화용 정보, 실제적인 대화에서 나타나는 담화적 의미, 그리고 '-길래'의 의문문과 이유 추측의 '-길래' 평서문[2]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길래'의 의미와 예문에 이어서 제시한 대화에서 '왜'라는 의문사로 질문하는 상대방에게 '-길래'로 그 이유를 대답함으로써 '-길래'가 앞서 교재에서 설명한 대로 예상 외의 상황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된 상황에서 사용되는 인과 연결어미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담화 제시 방법은 '-길래'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인 예시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길래'의 의미 제시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교재에

239) 『건국』에서는 각 단원에서 3개의 문법 항목과 1개의 관용어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책 뒤에서 부록 형식으로 각 단원 별로 그 의미를 중국어로 번역했다. 아래는 '-길래'의 의미를 중국어로 번역한 내용이다.
因前面没有预料到的情况而做出后面的行动时使用。
(『함께 배우는 건국 한국어 4』, 2016:287)

서는 제시하지 않은 후행절의 화자의 행동에 대한 새로운 설명이 더해져서 인상적이다. 즉 '-길래'의 선행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나 상황으로 인한 것'이나 '의도하지 않은 원인' 등의 화자의 '의지'나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 많이 이루진 데 반해, 후행절에 대해서는 '화자의 행동'으로만 일관되게 제시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건대』에서는 후행절의 행동은 선행절의 뜻밖의 상황이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행동 또한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는 후행절의 결과가 가지는 의미적 특성을 유일하게 제시하고 있다. 사실 인과 연결어미가 쓰인 구문에서 선행절로 인한 결과가 되는 후행절은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선행절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선행절의 의미와 연관시킨 후행절의 의미 설명 방식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학습자의 이해라는 측면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하지만『건대』가 제시한 후행절 결과의 의미 설명은 학습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존재한다. 즉 후행절에 위치하는 결과에 대해 '계획에 없던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칫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의 이와 같은 해석은 후행절의 행동에 화자의 의지나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것이라는 착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계획에 없던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 설명에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기술을 보면 '-게 되다'는 상황의 변화나 피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들이 더해지면 후행절의 행동에 있어 행동 주체의 의지 개입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지는 것이다. 게다가『건대』에서는 후행절의 행동을 하게 되는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술도 없어서 후행절의 주어가 1인칭 이외일 수도 있다는 여지까지 주고 있다. 따라서 '-길래' 평서문[1]의 의미에 대한 이 두 가지 기술적 문제로 인해 학습자가 '-길래'를 사용 시 후행절의 주어 및 서술어 제약과 관련된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길래'의 의미를 기술할 때는 학습자의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가능한 명료하게 의미를 기술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길래'에 대한 연습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면, 교재에서 '-길래'에 관한 문법 연습은 2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첫째는 제시한 그림을 보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유추해서 대화로 이야기하는 연습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원의 마지막에서 같은 단원에서 설명한 다른 문법 항목까지 포함하여 담화 상황에 맞는 문법 항목을 써 넣는 포괄적인 연습 유형240)이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학습자가 '-길래'의 활용을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과

제 활동 등이 제시되지 않아 '-길래'에 대한 연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홍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36]『홍익 한국어 4B[241]』에서 제시한 '-길래'

| 급수/과, 쪽수 | 4급 22과, 118쪽 |
|---|---|
| 예문 | A/V-길래<br>㉠평소에 갖고 싶었던 물건을 홈쇼핑에서 **판매하길래** 바로 주문을 했어요.<br>㉡날씨가 **춥길래** 양말을 두 켤레나 신었어.<br>㉢친구를 만나러 교실에 갔는데 수업 **중이길래** 밖에서 기다렸어요.<br>㉣가: 무슨 화장품을 이렇게 많이 샀어요?<br>나: 3만원 이상 사면 사은품을 **준다길래** 이것저것 샀어요. |
| 관련 설명 | 없음 |

『홍익』은 다른 교재들과 달리 '말하기 1, 2'로 '-길래'에 관한 연습을 먼저 제시하고 'A/V-길래'로 간단히 결합 정보를 명시한 후에 관련 예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길래'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있다. 즉 화자의 행동을 일으킨 이유를 설명하는 '-길래' 평서문[1]만을 제시했을 뿐, '-길래'가 나타나는 의문문 및 '-길래' 평서문[2]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길래'의 문형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와 통사적 제약, 담화 맥락에 따라 다르게 수행되는 담화적 기능, 비격식체의 구어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화용 정보 등 '-길래'에 관한 특성을 그 어느 것도 교재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특히 '-길래'의 제시에 있어 도입

240) 01. (보기)에서 알맞은 문법을 찾아 대화를 완성해 봅시다.

| (보기) | -던데 | 이나 이나 할 것 없이 | -길래 |
|---|---|---|---|

(1) 가: 요즘 사람들이 이 드라마가 ①_____ 한번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나: 저는 본 적은 없지만 내용을 대충 알아요. 동생이 ②_____ 하루 종일 그 드라마 이야기만 하거든요.
다: 배우가 연기를 되게 잘해요.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함께 배우는 건국 한국어 4』, 2016: 161)

241)『홍익』에는 본교재와 별도로 문법과 표현을 연습하는 'WORK BOOK'이 따로 있는데 '-길래'에 관한 연습은 두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첫째는 제시된 두 문장을 '-길래'를 사용해 하나로 연결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그림을 보고 '-길래'를 사용해 질문에 대답하는 유형이었다.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말하기 1'을 보면, '보기'에서 선행절의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과 "마음에 드는 게 없길래 안 사고 그냥 왔어요."라는 문장을 제시하면서 연습 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그 후에 그림을 보고 '-길래'를 사용해 선행절을 채워서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242]을 시키고 있다. 그런데 과연 '-길래'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습자들이 이 문제들의 답안을 채우면서 '-길래'의 의미나 통사적 제약 등을 추측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하지만 '말하기 2'에서는 이와 달리 '-길래'에 대한 연습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즉 결과와 이유의 문장을 제시하고 대화로 그 문장들을 사용해 결과에 대한 이유를 묻고 대답하는 것에서 시작해 교재에서 제시한 이유에 혹은 결과에 적합한 결과 및 이유를 학습자 스스로 생각해서 대화를 완성하는 연습[243]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차라리 '말하기 2'에서의 초반 연습과 같이 제시한 결과와 이유의 문장을 사용해 그 문장들로 이유를 묻고 대답하는 연습을 '말하기 1'에 배치했더라면 학습자들이 '-길래'의 의미와 용법을 유추하고 이해하는 데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길래'의 결합 정보와 예문을 기술한 뒤에 제시한 연습에 대해서이다. 이 연습은 "그림을 보고 그 후에 한 행동을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연습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후에 이어진 연습을 통해 '-길래'가 보거나 들은 후에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인과 연결어미라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이해시키고 있다. 즉 '-길래'가 화자가 지각한 것으로 인해 후행절의 행동을 하거나 한 상황에서 쓰이는 인과 연결어미라는 '-길래'의 의미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교사의 추가적인 설명 없이 이러한 연습만으로 학습자들이 '-길래'가 나타내는 '지각'이라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길래'의 '지각'이라는

---

242) (1) _____ 한 송이 사 왔어요.
(2) 기다려도 _____ 전화했어요.
(3) _____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가 봤어요.
(『홍익 한국어 4B』, 2017: 117, '말하기 1' 인용)

243) 2. 다음 <보기>과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 <보기> |
| --- |
| 비싼 구두를 그렇게 많이 사다/50% 할인하다 |
| 가: 왜 비싼 구두를 그렇게 많이 샀어요? 나:50% 할인하길래 샀어요. |

(1) 카드를 여러 장 만들다/카드마다 혜택이 다르다
(3) 에바 씨하고 같이 안 오다/_____
(4) _____/건강에 좋다고 하다
(『홍익 한국어 4B』, 2017: 118, 2번 문제 인용)

의미 속성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연습 유형은 유의미하다고 평가된다.

다음은 『선문』이다.

[표 37] 『선문 한국어 중급 Ⅲ[244]』에서 제시한 '-길래'

| 급수/과, 쪽수 | 4급 6과, 180-181쪽 |
|---|---|
| 예문 | 없음 |
| 관련 설명 | [동/형]길래<br>(1) 뒤에 오는 문장의 원인이나 이유, 근거를 나타낸다.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같으면 안 되는데, 주로 앞 문장의 주어는 1인칭(나)이고 뒤 문장의 주어는 2인칭이나 3인칭이 되다. 또한 평서문의 경우 뒤 문장에는 항상 동사만 써야 한다.<br>(2) 과거일 경우, '-았/었/였길래'의 형태로 쓴다.<br>(3) 의문문의 경우에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같거나 달라도 되고 뒤 문장에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 쓸 수 있다. |

『선문』은 '듣고 말하기' 다음에 '문법 연습'에서 '동/형 길래'라고 표제를 붙이고 '-길래'에 관한 연습 문제를 6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단원의 모든 활동을 다 진행한 후에 마지막 단계인 '정리해 보기'의 '문법 정리'에서 '-길래'에 대한 설명을 제시했다. 즉 '-길래'의 결합 정보, '-길래' 평서문[1]에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의미, 주어 인칭 제약 및 후행절의 서술어 제약에 관련된 통사적 제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길래'가 쓰였지만 '-길래' 평서문[1]과는 달리 주어 인칭 제약과 후행절의 서술어 제약에서 자유로운 '-길래' 의문문의 통사적 특성도 기술하고 있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교재들 중에서 '-길래' 의문문을 제시한 교재들은 있었지만 '-길래' 평서문[1]과는 다르게 드러나는 '-길래' 의문문의 문법적 특징을 기술한 교재는 『선문』이 유일하다. 하지만 다른 교재와 달리 '-길래'에 관한 설명을 진행할 때, 그와 관련된 예문을 제시하지 않고 제시한 설명과 관련된 문장 단위의 연습 문제를 제시하고 있

244) 『선문』은 2018년에 출판된 통합 교재인데 초급부터 중급은 3단계로 고급은 2단계로 나누어져 총 8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1-6단계로 구성되어 각 단계가 1-6급의 학습자 대상임을 나타내는 다른 교재와 차이가 나는 점이어서 『선문 한국어 중급 Ⅲ』이 몇 급에 해당하는 것인지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 교재가 '중급'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 착안하여 4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라고 보고 4급에서 논의하게 되었다. 참고로 '-길래'가 제시되는 6과를 보면 총 25쪽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른 단원과 마찬가지로 '준비학습-듣고 말하기-문법 연습-듣기 본문-과제 활동 1-읽고 말하기-과제 활동 2-쉬어 가기-정리해 보기'의 순서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길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단원의 마지막 단계인 '정리해 보기'에서 제시되고 있었다.

다.[245] 하지만 이러한 설명 제시 방법에 도대체 어떤 집필 의도가 반영된 것인지 짐작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길래'의 설명 기술에 앞서 제시한 '문법 연습'에서 '-길래'가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라는 점만을 유추 가능한 유형의 문제들을 제시하고, 이후 활동들에서도 '-길래'의 고유한 의미나 통사적 특징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길래'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정리해 보기'에서는 그에 관한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길래'에 관한 설명 이후에 설명된 '-길래'의 특성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문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과거일 경우' 선어말어미 '-았/었/였-'과 결합해 '-았/었/였길래'의 형태로 쓰인다고 설명한 후에, 굳이 문어체의 문장을 문제로 출제한 것[246]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길래'가 어떤 담화 상황에서 쓰이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문어에 쓰인 경우를 문제로 제시하면 자칫 '-길래'가 완료형과 결합해 쓰일 경우에는 문어에서 쓰인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았/었/였길래'로 쓰이는 경우에 대한 설명도 정확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즉『선문』에서는 '과거일 경우'에 완료형 선어말어미가 '-길래'와 결합해 쓰인다고 했지만, 사실은 과거가 아니라 선행절이 완료된 상황인 경우에 '-았/었/였길래'로 쓰인다는 것이다[247]. 게다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길래' 평서문[1]에서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 제약을 설명할 때, 선행절에는 주로 1인칭 주어가 후행절에는 2·3인칭 주어가 나타난다고 한 점이다. 그러나 앞서 3장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길래' 평서

---

245) (1) 도밍고 씨가 노래를 _____ 노래방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2) 친구가 거짓말을 _____ 화를 내었다.
(3) 지난주에 얼마나 _____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선문 한국어 중급 Ⅲ』, 2018: 180-181)
『선문』에서는 '정리해 보기'의 '2. 문법 정리'에서 '-길래'의 의미 및 통사적 특성을 설명한 후에 위와 같은 문제를 각 설명 아래에 2개 혹은 3개로 제시했다. 그런데 (3)번의 '-길래' 구문에서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하지 않은 상대방을 핀잔하고 있는 화자의 발화 의도가 읽히는데 이러한 '-길래' 의문문의 담화적 기능은 교재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246) 아들이 장학금을 _____ *칭찬해 주었다.*
친구가 거짓말을 _____ *화를 내었다.*
(『선문 한국어 중급 Ⅲ』, 2018: 180)

247) (1) 갑자기 비가 <u>오길래</u> 우산을 샀어요. (과거)
(2) 친구도 학교에 일찍 <u>왔길래</u> 같이 숙제를 했어요.(과거)
(2)번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선행절이 후행절에 앞서 완료된 상황에서 '-길래' 앞에 완료의 선어말 어미인 '-았/었/였-'이 오게 된다.

문[1]에서는 선행절에는 주로 2·3인칭 주어가 후행절에는 반드시 1인칭 주어가 자리하게 된다. 그러므로『선문』에서 기술한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과 후행절에 적용되는 주어 제약은 명백한 오류이다. 물론 교사를 통해 교실에서 그 오류가 수정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교재에 직접적으로 기술된 오류는 학습자들의 발화 오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점이다.

결론적으로『선문』은 '-길래' 평서문[1]과는 다른 '-길래' 의문문의 문법적 특성을 다루었다는 의의는 있지만, '-길래' 평서문[2]를 제시하지 않았고, 제시한 '-길래' 평서문[1] 및 '-길래' 의문문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길래' 의문문에서의 의문사 수반 제약 및 '-길래'의 후행절의 서법과 시제 제약을 기술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의사소통 시 '-길래' 구문에서 나타나는 담화적 의미 기능, 화용 정보 등도 교재에서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길래' 평서문[1]에서의 선·후행절의 주어 제약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였다.

다음으로 살펴볼 교재는 『성균관 2』이다.

〔표 38〕『성균 한국어 4 어휘·문법』에서 제시한 '-길래'

| 급수/과, 쪽수 | 4급 13과, 238쪽 |
|---|---|
| 예문 | ㉠친구가 도서관에 가길래 책을 반납해 달라고 부탁했어요.<br>㉡사람들 불만이 많길래 약속 장소를 바꿨어요.<br>㉢다음 주부터 시험 기간이길래 다음 주 모임을 취소했어요.<br>㉣가: 이 접시 빙빙 씨가 직접 만든 거예요?<br>나: 네, 친구가 만들길래 저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때요? 괜찮아요?<br>㉤가: 선생님이 추천한 책 읽어 보셨어요?<br>나: 읽어보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내용이 너무 어렵길래 포기했어요. |
| 관련 설명 | 동사-길래, 형용사-길래<br>(1)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표현<br>(2) 구어적인 상황에서만 쓴다. |

『성균관 2』는 '동사-길래', '형용사-길래'로 결합 정보를 명시하고, '-길래'가 인과 연결어미로서 기본적으로 가지는 의미와 화용 정보를 간단히 설명했다. 그런데 4급의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길래'가 어떤 품사와 어떤 형태로 결합하는지를 예시를 들며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인상적이다. 이어 앞에서

설명한 '-길래'의 결합 정보를 실제로 적용시킨 예문을 문장 형태 3개와 대화 형식 2개로 들고 있었다. 하지만 '동사', '형용사', '명사'와의 기본적인 결합 형태만 제시했을 뿐, 완료나 추측의 선어말어미인 '-었-' 혹은 '-겠-'과 결합한 형태까지 확장해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교재가 초급의 학습자가 아니라 중급 후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길래'의 기본적인 결합 정보를 상세히 제시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즉 '-길래'는 회상의 선어말어미인 '-더-'와 추측 및 의지 표현인 '-을 것이-'를 제외하고 결합에 있어 제약이 없는 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설명을 길게 늘어놓기보다는 '-길래' 평서문[1]에서 나타나는 '-길래'의 까다로운 통사적 제약 등을 설명하는 것이 '-길래'를 학습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길래'의 결합 정보에 대한 제시 방식은 교재의 전체적인 구성 틀에 따른 것이겠지만 초급과 중급의 학습자는 한국어 문법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문법 항목에 대한 제시 방식도 그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음으로는『성균관 2』에서 제시된 연습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하는데 '-길래'의 의미, 화용 정보, 결합 정보를 기술한 후에 3가지 형태로 연습 문제가 제시되고 있었다. 첫째는 대화에서 제시된 문장으로 '-길래'를 사용해 후행절의 결과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연습이고[248], 두 번째는 두 개의 그림을 보고 '-길래'로 이유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로 인한 결과의 문장을 만드는 연습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담화 상황을 제시하고 '-길래'를 사용해 상대방과 담화 맥락에 적합한 대화를 하는 활동[249]이다. 전체적으로 그 구성을 살펴보면, 우선은 '-길래'의 활용 형태를 연습하는 것에서부터 담화를 구성하는 것까지 단계적으로 연습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연습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교재에서 기술하지 않은 '-길래'의 남다른 의미와 그로 인한 통사적 제약, 그리고 담화에서 수행되는 고유한 의미 기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

---

248) (1) 가: 회사를 그만두었다면서요? 왜요?
나: _____(일이 적성에 안 맞다) 그만두었어요.
(『성균 한국어 4 어휘·문법』, 2019: 239)

249) (상황 2) 어제 내린 눈 때문에 길이 미끄러워 지하철을 이용했다.
가: 오늘은 왜 지하철을 타고 오셨어요? 매번 차를 타고 오시잖아요.
나: _____
가: _____
나: _____
(『성균 한국어 4 어휘·문법』, 2019: 240)

는 잘 모르겠다. 또한 하나 더 지적해야 할 점은 '-길래'의 화용 정보를 "구어적인 상황에서만 쓴다"라고 기술했는데, 앞서 2장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길래'가 문어에서 쓰이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250]하므로 이러한 기술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길래'는 구어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그 사용 경향을 지적하는 것이 '-길래'의 화용적 기능에 대한 더 정확한 제시가 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성균관 2』는 인과 연결어미로서의 '-길래'의 표면적인 의미와 부정확한 화용 정보, 결합 정보만을 제시했다. 그러나 '-길래'가 가지는 통사적인 제약, 담화적 기능, '-길래'가 '-길래' 평서문[2]와 '-길래' 의문문에서도 나타나며 그때는 '-길래' 평서문[1]과 다른 의미로 실현된다는 정보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성균관 2』가 '어휘와 문법'만을 다루고 있는 교재라는 점이다. 이러한 교재의 특성에서 보자면 '-길래'에 관한 설명 제시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교재에서는 직접적으로 기술을 하는 방식으로든 간접적으로 연습을 통해 제시하는 방식으로든 그 어떤 방면에서도 '-길래'에 관한 정보 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다음으로 논의를 이어갈 교재는 위에서 살펴본 『성균관 2』와 동일하게 '어휘와 문법'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세 2[251]』이다.

『연세 2』에서는 '주제 대화', 그와 관련된 '어휘' 다음에 '문법'에서 '-길래'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길래'와 관한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5개의 상황을 제시한 후에 '-길래'를 사용해 그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이야기하는 연습을 시키고 있었다[252]. 물론 교사로부터 '-길래'가 가지는 의미 및 통사적

---

250) 며칠 전 딸아이가 교육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내보이길래 훑어보던 중 시선이 딱 멈춰진 곳이 있었다. 어머니의 직업란에 수필가라고 쓰여진 것이다.
(수필공원 94년 봄호, 한국수필문학진흥회, 1994, 한샘출판사: 세종 코퍼스 말뭉치 자료에서 내용을 발췌한 것임)

251) 『연세 2』는 '새 연세한국어' 시리즈에 속하는 교재로 '새 연세한국어'는 1-6급까지 각 급 교재가 한국어 학습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 '어휘와 문법', 이해 능력에 속하는 '듣기와 읽기', 표현의 기능에 속하는 '말하기와 쓰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급의 교재는 '1, 2' 두 권으로 구성된다.

252) (보기) '강아지가 길을 잃은 것 같다. 경찰서에 데리고 가야겠다.'
⇒ 골목길에 길을 잃은 강아지가 있길래 경찰서에 데리고 갔어요.
(1) 가: 주말에 이사를 할 거야.
나: 내가 가서 도와줄게.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4-1』, 2020: 81)

특성 등을 학습한 후에 이 활동을 진행한다면, '-길래'가 제시된 그림처럼 화자가 보거나 들어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로 인한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쓰이는 인과 연결어미라는 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제시 없이 교재에서 기술한 것처럼 "존 씨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존이 되어서 (보기)와 같이 이야기하십시오"라는 지시문에 따라 연습을 진행한다면 '-길래'가 다른 사람을 돕는 담화 상황에서 사용되는 연결어미라는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즉 '문법'에서 연습을 안내하는 지시문이 '-길래'에 관한 연습 활동에 대한 적절한 내용이 아닌 것이다. 만일 지시문의 내용을 '존 씨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존이 되어서 (보기)와 같이 이야기하십시오'라고 기술했더라면 학습자들이 이 연습을 통해 '-길래'의 의미와 통사적 제약까지도 충분히 이해 및 숙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연습 뒤에 이어진 '-길래'와 같은 항에서 제시된 문법 항목과 같이 통합적으로 진행된 활동에서는 '-길래'의 감각 기관을 통한 인지라는 '지각'의 의미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연습[253]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올리비아 씨가 경험한 일입니다. (보기)와 같이 이야기하십시오"라고 지시한 후에, '화자가 어떤 사실을 보거나 듣고 후행절의 행동을 했다'라는 경험 내용을 제시하고, '-길래'를 사용해 담화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길래'의 의미 속성을 담은 활동은 앞선 연습과는 달리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한 연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세 2』는 다른 교재와 달리 교재 뒤편의 '부록'에서 문법 항목에 대한 문법 설명과 연습 문제를 따로 제시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표 39]와 같다.

〔표 39〕『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4-1』에서 제시한 '-길래'

| 급수/과, 쪽수 | 4급 7과, 129쪽 |
|---|---|
| 예문 | ㉠아침에 비가 많이 오길래 큰 우산을 가지고 나왔다.<br>㉡친구가 집에서 게임만 하길래 산책을 하러 공원에 가자고 했다. |

253) (보기) 경험: 여행사 홈페이지에 싼 여행 상품이 있는 것을 보고 예약한 후에 다녀왔다.
결과: 생각보다 숙소가 깨끗하고 좋았다.
⇒ 올리비아: 지난봄에 여행사 홈페이지에 싼 여행 상품이 있길래 예약한 후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윤아: 여행 상품은 좋았어요?
올리비아: 생각보다 숙소가 깨끗하고 좋던걸요.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4-1』, 2020: 83)

| | |
|---|---|
| | ㉡날씨가 춥길래 목도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br>㉢룸메이트가 음식 준비를 해 놓았길래 퇴근하자마자 맛있게 밥을 먹었다.<br>㉣가: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br>나: 길이 너무 막히길래 다른 길로 왔는데 그 길도 막혀서 늦었어요.<br>㉤가: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어요?<br>나: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부장님이 추천하시길래 읽고 있어요. |
| 관련 설명 | (1)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뒤 문장과 같은 행동을 한 이유를 나타낸다.<br>(2) 이미 완료된 사실을 말할 때에는 '-었길래'를 쓴다. |

교재에 기술된 '-길래'에 관한 문법 설명을 보면, 우선 결합 정보와 의미를 제시하고 선행절에서 '동사의 현재형 및 완료형, 형용사,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등과 결합해 쓰이고 있는 '-길래' 평서문[1]의 예문들을 문장과 대화로 들고 있다. 그 후에는 선행절의 사실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완료형 선어말어미인 '-었-'이 '-길래' 앞에 온다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었길래'가 쓰이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술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선문』과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그런데 위 [표 39]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길래'가 제시된 4개의 문장이 모두 문어체이다. 더군다나 '-길래'의 화용적 기능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재에서의 이와 같은 예문 제시는 학습자들에게 '-길래'가 문어에 주로 사용되는 인과 연결어미라는 잘못된 이해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러한 점이 '-길래'가 쓰인 예문을 제시할 때 신중해야 할 이유의 하나가 된다. 즉 가능한 '-길래'의 의미와 통사적 제약, 다양한 활용 형태, 대표적인 담화적 기능, 그리고 화용 정보가 잘 어우러져 담긴 전형적인 예문을 교재를 통해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의 '-길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사용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점이라 하겠다.

다음에 이어지는 '연습 문제' 편에서는 제시된 문장을 연결하는 '-길래'의 형태 활용 연습과 '-길래'를 사용해 대화를 완성하는 비교적 단순한 연습이 제시되었다. 여기까지 살펴본『연세 2』의 '-길래'에 대한 설명 제시를 분석해 보면, 기술한 '-길래'의 결합 정보에서 '-길래'가 명사와 쓰이는 경우는 설명에서도 그리고 관련된 연습에서도 제시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게다가 문법 중심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부록 편에서조차 '-길래'의 통사적 제약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용 정보,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수행되는 담화적 기능, '-길래' 의문문과 '-길래' 평서문[2]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미흡한 설명 제시 양상은 같은 문법 중심 교재를 표방하는 『성균관 2』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 점이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이 두 교재가 문법 중심 교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4급에서 '-길래'를 제시한 교재로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교재는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즐거운 한국어』와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정확한 한국어[254)]』이다. 이 교재들은 다른 교재들과 달리 대학 기관에서 출간한 교재가 아니라 정부 기관인 국립국어원이 기획한 교재로 책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결혼 이민을 한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이 교재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다. 즉 학문이나 취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와 한국 사회에 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라는 교재의 학습 대상 차이가 '-길래'의 제시 양상에서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 40]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즐거운 한국어』에서 제시한 '-길래'

| 급수/과, 쪽수 | 4급 16과, 170쪽 |
|---|---|
| 예문 | ㉠한국말을 잘하길래 한국에 오래 산 줄 알았어요.<br>㉡아침에 날씨가 춥길래 좀 많이 입었어요. |
| 관련 설명 | (형태)<br>-길래: 가길래, 팔길래 |

『국립 1』에서는 16과의 '준비 ③'에서 예문 및 '-길래'의 결합 정보, 그리고 '-길래'가 사용된 대화 상황을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길래'의 결합 정보에 대한 설명에서 '동사'와의 결합 형태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예문에서는 동사 및 형용사와 결합한 두 가지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 '-길래'가 동사와 결합한 형태만을 제시한 것을 용언 어간의 받침 유무와 관계된 '-길래'의 결합 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의도로 이해할 수도 있다. 즉 [표 40]에서 '가다'와 '팔다'를 들어 동사 어간의 받침 유무에 관계 없이 '-길래'가 직접 어간에 결합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는 동사로 다

254) 이후에는 편의에 따라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는 『국립 1』로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정확한 한국어』는 『국립 2』로 지칭하겠다.

른 하나는 형용사로 예를 들어 '-길래'의 어간의 받침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결합 정보를 제시했더라면 결합 정보와 예문 제시에 있어 통일성을 갖출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길래'를 사용하는 실제적인 상황을 연습한다는 '활용'을 보면 한국인의 질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길래'를 사용해 발화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 4가지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로 인해 화자가 어떤 생각을 했다'라는 연습 형태는 "청각'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인해 화자가 '생각'이라는 행동을 하게 됨'이란 '-길래' 구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고무적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 및 후행절의 서술어 제약까지도 동시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재에서 '-길래'의 의미와 문법적 특성에 대한 언급 없이 도입에서 제시한 '대화[255]'에서도 그리고 예문과 '-길래'의 결합 정보 설명에 이어진 '활용' 연습과 '말하기' 활동에서도 '활용'의 한 가지 상황을 제외하면 '-길래'가 화자가 착각이나 오해한 상황에서 쓰이는 경우만을 제시[256]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즉 이러한 대화 제시 및 연습 이후에 학습자들은 '-길래'가 화자가 오해나 착각을 한 담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결어미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명백한 오류이기 때문이다. 앞서 2장에서 논의했던 바대로 '-길래'는 '-길래' 평서문[1]에서 '화자의 행동을 초래한 화자가 직접 감각 기관을 거쳐 알게 된 사실'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길래'는 이와 같은 문장 단위에서의 의미와 함께 담화 맥락에 따라 '변명' 혹은 '비난'이나 '핀잔' 등의 담화적 의미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착각이나 오해한 상황에서 '-길래'가 쓰이는 경우는 '-길래'가 쓰이는 담화 상황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길래'의 주된 쓰임으로 이해하는 것은 '-길래'를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덧붙여 이 교재에서 착각의 표현으로 사용한 '-은/는 줄 알았다'와 관련하여 하나 더 지적할 점은 '변명'이라는 '-길래'의 담화적 의미 기능에 대한 것이다. 즉 '-길

255) 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결석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나: 계속 수업에 안 오길래 고향에 돌아간 줄 알았어요.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 2019: 170 , 도입의 대화 인용)

256) (활용)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들어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2) 한국인의 말: "어디 가요?"
그때 했던 생각: 만날 때마다 어디 가냐고 묻다/ 나한테 관심이 많은 줄 알았다.
알게 된 사실: 인사말 중 하나이다.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 2019: 170)

래’가 ‘변명’의 담화적 기능을 수행할 때는 자신이 한 행동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후행절에 ‘-은/는 줄 알았다’의 ‘착각’의 표현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이지선 2021: 252). 따라서 ‘-길래’의 ‘활용’ 연습이나 ‘말하기’ 활동에서 ‘-길래’를 사용해 변명하는 담화 상황을 반영해 제시했더라면 ‘-길래’가 가지는 담화적 기능까지 익힐 수 있는 연습이나 활동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국립 2』에서 ‘-길래’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길래’에 관해서는 ‘문법 ③’에서 2가지의 유형으로 연습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국립 1』과 유사하게 ‘-길래’에 관한 그 어떤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 연습 문제는 주어진 문장을 내용에 알맞게 연결하고 ‘-길래’로 한 문장으로 연결해 쓰게 하는 유형과, 주어진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의 표현 중에서 대화에 알맞은 것을 골라 ‘-길래’를 사용해 선행절을 완성하게 하는 유형[257]이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립 2』는 『국립 1』에서 제시한 어휘와 문법을 중점적으로 익히는 워크북 정도의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교재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국립』의 2종의 교재를 분석한 결과 ‘동사’와의 결합 정보만을 제시했을 뿐 ‘-길래’의 의미와 통사적 제약, 담화적 의미 기능, 화용 정보, ‘-길래’ 의문문과 ‘-길래’ 평서문²는 모두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과는 본고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즉 『국립 1, 2』는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집필된 교재이기 때문에 교사 없이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가능성이 큰 교재라는 점에서 교재에 ‘-길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기술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앞서 살펴본 대학 기관의 교재들과 다름없이 통합 교재로서 교사 없이는 학습이 어려운 교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 각 기관의 4급 교재에서는 ‘-길래’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앞에서 제시한 7개의 분석 기준에 근거해 그 양상을 각 교재 별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결과 놀랍게도 살펴본 모든 교재에서 화자가 지각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초래한 이유를 추측하는 ‘-길래’ 평서문²는 다루어지

257) (연습 2)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 공사 중이다 | 물어보다 | 졸리다 | 덥다 | 세일하다 |
|---|---|---|---|---|

(2) 가: 좀 늦었네요.
나: 네, 항상 다니던 길이 _____ 다른 길로 돌아왔거든요.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정확한 한국어』, 2019: 150)

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길래'가 담화 상황에서 화자의 어떤 발화 의도를 전달하는지를 보여주는 '담화적 기능' 또한 그 어떤 교재에서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반면에 '-길래'가 '-길래' 평서문[1] 이외에도 '-길래' 의문문에서 쓰인 경우를 제시한 교재는 총 11종[258]에서 4종이 있었는데『이화 참고서』,『경희 2』,『외대』,『선문』이 그 경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교재에서 '-길래' 평서문[1]의 결합 정보와 의미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합 정보를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교재는『경희 2』,『건대』가 있었고, 의미를 제시하지 않은 교재는『성균관 1』,『경희 1』,『홍익』,『국립』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살펴본 11종의 교재에서 4종만이 '-길래'의 통사적 제약을 기술했다는 점은 다소 의외였다. 같은 맥락으로 '-길래'가 실제로 어떤 언어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말해주는 '화용 정보'도 3종의 교재에서만 제시되고 있었다. 전자에는『고려』,『이화 참고서』,『외대』,『선문』이 해당되고, 후자에는『고려』,『경희 2』,『성균관 2』가 해당된다.

### 1.2. 3급 교재의 '-길래'

분석한 한국에서 출간된 교재 중에서 3급에서 '-길래'를 기술한 교재는『성균관 1』이 유일하다.

[표 41]『배우기 쉬운 한국어 3』에서 제시한 '-길래(이지선 2017: 327-328)'

| 급수/과, 쪽수 | 3급 20과, 254쪽 |
|---|---|
| 예문 | ㉠옆 사람이 공부하길래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br>㉡친구가 너무 맛있게 먹길래 나도 같이 먹었어요.<br>㉢꽃이 하도 예쁘길래 한 다발을 사 가지고 왔어요.<br>㉣배가 너무 고프길래 쉬는 시간에 편의점에 다녀왔다.<br>*Vst·Ast-다고 하길래<br>㉤공연이 있다고 하길래 손을 씻고, 공연장으로 들어갔다.<br>㉥영화배우가 왔다길래 사인을 받으러 뛰어나갔어요.<br>㉦그 영화가 너무 재미있다길래 어제 저녁에 심야 극장에 갔어요. |
| 관련 설명 | 없음 |

258) 『이화 참고서』는 본교재인『이화』에 부속된 부교재이므로 두 교재를 1종의 교재로 보았다.

『성균관 1』은 '-길래' 평서문[1]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각'의 의미를 지닌 '-더-'와 결합한 형태인 '-더니' 혹은 '-었더니'를 '-길래'보다 앞서 11과에서 기술하고, '-길래'는 20과에 배치한 것이 확인된다. 이를 '-길래'가 가지는 '화자가 직접 오감(五感)을 통해 인지한 것'이라는 '지각'의 양태적인 의미를 고려해 '-길래'를 배치한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길래'가 사용되는 빈도와 '-길래' 평서문[1]에서 가지는 문법적 난이도를 따져 봤을 때 3급에서의 '-길래'의 제시는 역시 너무 이르다고 판단된다(이지선 2017: 328).

구체적으로 '-길래'를 교재에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길래' 평서문[1]만을 제시했고, '-길래' 의문문이나 '-길래' 평서문[2]는 기술하지 않았다. 또한 '-길래'의 의미나 통사적 특징, 담화적 기능, 화용 정보도 모두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명시적으로 결합 정보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먼저 예로 든 4개의 예문에서 '-길래'가 동사 및 형용사와 결합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길래'가 간법화법과 결속해 쓰이는 형태의 결합 정보를 'Vst·Ast-다고 하길래'로 간단히 제시했다. 그런데 '-길래'가 간접 인용 화법과 결합한 형태의 결합 정보를 'Vst·Ast-다고 하길래'로 제시했으면서 예문에서는 형용사와 결합한 형태, 그리고 동사의 완료형과 결합한 형태를 제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결합 정보의 제시와 실제 활용의 예시인 예문의 제시에 일관성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예문 제시에 있어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대화 형식이 아니라 문장으로만 '-길래'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즉 '-길래'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만일 '-길래'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유를 묻고 대답하는 대화체의 예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 대략적인 의미를 짐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예문 제시 형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성균관 1』은 위에서 제시한 예문들처럼 제시된 7개의 예문이 모두 문장으로 제시되어 학습자의 자발적인 이해에 전혀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또한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 1.3. 5급 교재의 '-길래'

5급에서 '-길래'를 다루고 있는 교재는 『연세 1』뿐이다.

『연세 1』에서는 주제 대화와 어휘, 그 다음으로 문법 항목을 제시하는데, 문법 항목을 제시할 때에는 그에 대한 설명은 없이 연습 문제만이 제공된다. 그리고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단원이 끝나는 부분에서 한 단원에 제시된 4개의 문법에 대해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길래'도 이러한 교재의 체계에 따라 64쪽에서 연습 문제를 제시하고 86쪽에서 '-길래'에 관련된 설명과 예문을 들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표 42]과 같다.

[표 42]『연세 한국어 5』에서 제시한 '-길래(이지선 2017: 339)'

| 급수/과, 쪽수 | 5급 3과, 86쪽 |
|---|---|
| 예문 | ㉠자명종 소리를 듣고도 안 일어나길래 흔들어 깨웠다.<br>㉡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길래 외우라고 단어장을 만들어 주었어요.<br>㉢아이가 울길래 달래 주었습니다.<br>㉣뒤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길래 뒤를 돌아보았다. |
| 관련 설명 | 앞 내용은 뒤 내용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낸다. 말하는 이가 의도적으로 한 행동에 대하여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때는 '-는 것을 보고'의 뜻이다. 말하는 사람이 다른 것의 사실 또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상태를 보고 그것 때문에 뒤의 내용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

『연세 1』에서는 '-길래'가 '-길래' 평서문[1]에서 나타내는 의미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의미 설명이 다른 교재에 비해 상세한 편인데, 특히 앞서 살펴본『경희 2』와 같이 '지각'이라는 양태적 의미를 도입해 '-길래'를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연세 1』에서는 '화자가 발생한 상황을 보고 그로 인해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됨'이라는 의미를 '-길래' 평서문[1]이 가진다고 하면서 이때 '-길래'는 '-는 것을 보고'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뒤이어 제시한 예문에서 ㉣을 보면 "뒤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길래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때 후행절의 화자가 뒤를 돌아본 이유가 되는 선행절의 내용은 화자가 '본 것'이 아니라 '들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은 교재에서 제시한 '-길래'에 대한 의미 설명에 부합되지 않는 예문인 것인데, 이러한 양상은 이 교재의 '-길래'에 대한 의미 설명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물론 '-길래'가 가지는 '우연한 발견[259]'이라는 의미 속성에 따라 화자가 발생한 상황을 시각을 통해 목격하는

259)『한국어교육 문법자료편』에서는 '-기에'와 '-길래'의 비교에서 '-길래'에서 '우연한 발견'이라는 의미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기술했다(『한국어교육 문법자료편』, 2016: 170).

경우가 듣거나 느끼는 경우보다 많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시각' 이외의 '청각', '미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 인지하게 된 사실을 '-길래'를 통해 이유로 발화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므로 '-길래'의 의미를 '-는 것을 보고'로 한정해 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정된 의미 제시는 제한된 '-길래'의 쓰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시한 4개의 예문에서 모두 '-길래'가 동사와 결합한 형태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예문 제시를 통해 학습자들은 '-길래'가 동사와만 결합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교재에서 '-길래'가 어떤 품사와 혹은 어떤 선어말어미 등과 결합 가능한지 혹은 불가능한지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기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논의할 점은 4개의 예문 중에 2개는 문어이고 나머지 2개는 구어라는 점이다. 게다가 구어에 해당하는 예문에서 ㉢은 '-습니다'의 격식체로 격식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경우이다. 이러한 제시 또한 '-길래'의 화용적 기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이 '-길래'가 구어나 문어에 그리고 격식적·비격식적 상황에 모두 구애 없이 사용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길래'는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되고 주로 구어에서 쓰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앞서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교재에서 직접 '-길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예문 제시에 있어 더더욱 학습자들의 잘못된 이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연세 1』도 『외대』나 『홍익』 등처럼 어휘와 문법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부교재가 있는데, '-길래'에 대한 두 번째 연습 문제가 본 교재에서는 제시하지 않은 '-길래' 의문문에 대한 연습이어서 논의할 만하다. 즉 제시한 '-길래' 의문문들 중에서 선행절과 후행절로 적합한 문장을 서로 연결해 한 문장으로 쓰는 연습[260]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비록 '-길래' 의문문의 의미나 통사적 특성 등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더라도 '-길래'가 쓰이는 의문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은 제시된 '-길

260) 6. 관계있는 것을 연결하고 '-길래'를 사용해 한 문장으로 만드십시오.
(1) 도대체 사랑이 뭘까? ＼ 그렇게 시끄러워? 전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2) 저 사람이 누굴까? ／ 평생을 잊지 못하며 사는 걸까요?
⇒ (1)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평생을 잊지 못하며 사는 걸까요?
(2) _____
(『연세 한국어 활용연습 5-1』, 2013: 45)

래’ 의문문이 ‘질문’이나 ‘의문’의 의미 외에도 ‘비난’이나 ‘핀잔’의 담화적 의미를 담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지만, 이 연습 문제를 통해 ‘-길래’ 의문문이 이러한 담화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특성을 학습자들이 유추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교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부교재에서 제시하면서 확장해 연습시키는 방식은 학습자들에게 있어 어느 정도는 문법 항목에 대한 이해 및 사용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연세 1』은 ‘-길래’ 평서문[1]에서의 ‘-길래’의 의미와 ‘-길래’가 의문문에서도 나타난다는 것만을 제시했을 뿐, 그와 관련된 통사적 제약, 담화 맥락상 드러나는 의미, 화용 정보, 결합 정보, 그리고 ‘-길래’ 평서문[2]는 다루지 않았다.

## 1.4. 한국 출간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길래’ 제시의 문제점

4급에서 ‘-길래’를 제시한 『고려』부터 시작해서 5급에서 ‘-길래’를 다루고 있는『연세 1』을 끝으로 한국에서 출판된 각 교재에서 ‘-길래’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모두 살펴보았는데, 그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3]과 같다.

〔표 43〕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들의 ‘-길래’ 제시 양상[261]

| 교재 명 | 결합 정보 | 의미 | 통사적 제약 | 담화적 기능 | 화용 정보 | ‘-길래’ 의문문 | ‘-길래’ 평서문[2] |
|---|---|---|---|---|---|---|---|
| 성균관 1 | O | X | X | X | X | X | X |
| 고려 | O | O | O | X | O | X | X |
| 이화 | O | O | X | X | X | X | X |
| 이화 참고서 | O | O | O | X | X | O | X |
| 경희 1 | O | X | X | X | X | X | X |
| 경희 2 | X | O | X | X | O | O | X |
| 외대 | O | O | O | X | X | O | X |
| 건대 | X | O | X | X | X | X | X |
| 홍익 | O | X | X | X | X | X | X |
| 선문 | O | O | O | X | X | O | X |

| | | | | | | | |
|---|---|---|---|---|---|---|---|
| 성균관 2 | O | O | X | X | O | X | X |
| 연세 2 | O | O | X | X | X | X | X |
| 국립 | O | X | X | X | X | X | X |
| 연세 1 | X | O | X | X | X | X | X |

위 [표 43]의 분석 내용은 ‘결합 정보, 의미, 통사적 제약, 담화적 기능, 화용 정보, ‘-길래’ 의문문, ‘-길래’ 평서문[2]’의 7개의 항목을 각 교재에서 제시했는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앞서 교재를 분석하기 전에 밝힌 것처럼 이 7개의 항목을 제시 여부의 기준으로 설정한 이유는 ‘-길래’를 익히고 실제 의사소통에서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요소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선 ‘결합 정보’는 ‘-길래’가 품사 중에서 ‘동사, 형용사, 명사’와 모두 결합 가능한데, 명사일 경우에는 ‘명사(이)길래’의 형태로 쓰인다는 것, 그리고 ‘완료’, ‘추정’,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혹은 추측의 표현인 ‘-(으)ㄹ 듯하다’나 ‘-(으)ㄹ 것 같다’ 등과도 자주 결합해 쓰인다는 것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길래’가 ‘-더-’ 및 추측의 ‘-을 것이-’, 혹은 의지의 문법 표현과 결합해 쓰이지 못한다는 ‘-길래’의 ‘-더-’, 추측의 ‘-을 것이-’, 의지의 문법 표현 결합 불가 제약을 제시했는지도 ‘-길래’의 결합 정보 제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

다음으로 ‘의미’는 ‘-길래’가 인과 연결어미로서 가지는 ‘후행절의 원인이나 이유’라는 기본적인 의미 외에 ‘-길래’가 나타내는 독자적인 의미까지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즉 ‘-길래’ 평서문[1]에서 ‘-길래’가 가지는 ‘이유’라는 의미 외에도 ‘화자가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행동을 일으킨 화자 외적인 이유’ 혹은 ‘화자의 행동을 초래한 이유가 되는 화자가 직접 지각한 사실’이라는 의미 중에서 어떤 내용이든 교재에서 기술하고 있다면 제시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 다음의 분석 항목인 ‘-길래’의 ‘통사적 제약’은 앞서 언급한 ‘-길래’의 의미가 초래한 주어 인칭 제약, 후행절의 서술어 및 서법과 시제 제약이 해당된다. 우선 주어 인칭에 대한 제약으로는 ‘선·후행절의 1인칭 주어 필수 제약’이 있다. 그런데 이외에도 제약은 아니지만 선행절에는 주로 2·3인칭 주어가 오

261) 이지선의 소논문(2017: 340-341)에서 [표9]와 [표9-1]을 참고하여 분석 항목을 추가 및 변경해 작성한 것이다.

는 경향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후행절에 관련된 제약으로는 후행절에 화자의 의지적 행동만이 허용되는 '서술어 제약' 및 미래가 허용되지 않는 '시제 제약', 명령형과 청유형이 올 수 없는 '서법 제약'이 있다. 역시 앞의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관련된 제약을 하나라도 기술했다면 '통사적 제약'을 제시한 것으로 보았다.

이어서 담화적 기능은 '-길래'의 문장 단위에서의 의미에서 파생된 실제 담화 상황에서 수행되는 '변명', '비난', '핀잔' 등의 의미를 말한다. 하지만 위 표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그 어떤 교재에서도 '-길래'가 가지는 담화적 기능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화용 정보' 항목은 '-길래'가 비격식적인 담화 상황에서 쓰이는 제약과 구어에 주로 사용되는 경향을 가리킨다. 더불어 '변명'의 기능으로 쓰일 때는 후행절에 '-(으)ㄴ/는 줄 알았다' 등의 표현과 의문문에서는 후행절에 '이렇게' 류나 '도대체' 등의 표현과 자주 공기하는 화용적인 경향을 가진다는 것도 '-길래'의 '화용 정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길래' 의문문과 '-길래' 평서문[2]의 항목은 '-길래'가 쓰인 '의문문'이나 '-길래' 평서문[2]의 유형이나 의미, 통사적 제약 등을 제시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길래' 의문문은 4종의 교재에서 제시된 반면, 화자가 어떤 상황을 지각한 후에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이유를 추측하는 '-길래' 평서문[2]는 어떤 교재에서도 제시된 바가 없었다. 그런데 항목에 '-길래' 의문문과 '-길래' 평서문[2] 외에 '-길래'가 실현되는 다른 유형인 '-길래' 평서문[1]을 별도로 넣지 않은 이유는 앞서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길래' 평서문[1]을 다루고 있는 교재를 대상으로 '-길래'의 제시 양상을 분석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위 [표 43]에서 나타난 '-길래'의 제시 양상을 살펴보면, '결합 정보'는『경희 2』,『건대』,『연세 1』을 제외한 모든 교재에서, 그리고 '의미'는『성균관 1』,『경희 1』,『홍익』, 『국립』을 제외한 모든 교재에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먼저 '-길래'의 '결합 정보' 제시 양상을 보면 가장 다양한 결합 정보를 기술한 교재는『외대』로 'V/A/N[262]' 및 'V/A'의 완료형 그리고 간접 인용 화법과도 결합해 쓰인다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교재에서 '-길래'가 간접 인용 화법과도 결합해 쓰인다는

262) 교재에서는 'N(이)길래'와 'V길래'로만 제시해 'A'를 따로 명시하시는 않았으나 예문을 보면 형용사와 결합한 형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도 제시한 것으로 보고 본문에 'V/A/N'로 서술하였다.

정보를 직접 기술하거나 예문을 통해 제시한 반면에,『경희 1』,『선문』,『성균관 2』,『연세 1』,『연세 2』,『국립』의 6종의 교재에서는 간접 인용 화법과 관련된 결합 정보를 그 어떤 방식으로도 제시하지 않았다. 하나 더 논의할 점은 '-길래'가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와도 결합한다는 것을 예문으로나마 제시한 교재가 있었다는 것인데, 『경희 2』,『건국』,『연세 2』가 그에 해당된다. 하지만 '-길래'에 대한 모든 결합 정보를 제시한 교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3장에서 밝혀진 것처럼 '-길래'가 회상의 선어말어미 '-더-'나 추측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을 것이-'의 문법 표현과는 결합할 수 없다는 제약을 제시한 교재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길래'의 서술어 및 문법 표현과의 결합에 관련된 제약의 미제시는 그로 인한 학습자들의 오류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어서 '-길래'의 의미 제시 양상을 들여다보면, 그 양상이 의외로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의미를 제시한 총 9가지의 교재에서 인과 연결어미로서 '-길래'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후행절의 이유나 원인'으로만 그 의미를 기술하고 있는 교재가 있었는데『고려』,『선문』,『성균관 2』의 3종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은 '-길래'가 쓰인 '-길래' 평서문[1]에 적용되는 복잡한 통사적 제약을 설명할 수 없는 의미 제시이므로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즉 '-길래'의 통사적 규칙과 연관된 그의 고유한 의미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나머지 6종의 교재에서는 모두 '-길래'가 '후행절의 화자가 한 행위를 초래한 이유'라는 점을 밝혀 기술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가 두 번째에 해당된다. 세 번째로는 그중에서도 후행절의 화자의 행동을 일으킨 이유가 외부적인 상황 혹은 화자가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교재가 확인되었는데, 그 교재들은 『연세 2』를 제외한 나머지 5종의 교재였다. 그런데 특히 화자의 감각 기관을 통해 인지한 것이 이유가 된다는 점을 제시한 교재가 있어 논의할 만한데, 이 경우가 마지막인 네 번째 의미 제시 양상으로 바로 『경희 2』와『연세 1』이 그에 해당된다. 비록『연세 1』에서 '-는 것을 보고'라며 '-길래'의 의미를 한정한 오류가 발견되기는 했지만, '지각'이라는 양태적 의미를 도입한 '-길래'의 의미 설명은 상당히 바람직한 의미 제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2장에서 '-길래' 평서문[1]에서 '-길래'가 나타내는 가장 타당한 의미를 '지각'으로 논의하기도 했지만,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제한되는 경향이나 혹은 1인칭 주어만이 허용되는 상황[263]을 가장 타당하게 설명하는 의미 제시 방법이기도 하

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언급할 내용은 후행절의 화자의 행위에 대한 특성을 설명한 교재가 있었다는 점인데, 바로『건대』와『연세 1』이었다.『건대』에서는 '-길래'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선행절의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화자가 후행절의 계획에 없던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며 벌어진 상황으로 인해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후행절의 행동을 하게 된 것임을 밝혀 기술하고 있다. 반면에 『연세 1』에서는 후행절의 행동을 '화자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고 기술했다. 이러한 설명 제시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선행절과 관련한 해석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즉『건대』에서는 선행절의 외부적인 혹은 화자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해석하여 그로 인한 결과도 '화자가 계획 혹은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기술한 듯하다는 것이다. 반면에『연세 1』은 화자가 어떤 상황을 목격하고 그로 인해 후행절의 행동을 했지만, 선행절과 달리 그 행동에는 화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 것이다. 특히 이러한 후행절의 의미 제시 차이는 통사적으로 후행절에 허용되는 서술어의 범위에[264]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미 제시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통사적 제약은 『고려』,『이화 참고서』,『외대』,『선문』의 4종의 교재에서만 제시했는데 각 교재에서 어떤 통사적 제약을 기술하고 있는지를 다음의 [표 44]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44]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들의 '-길래'에 대한 통사적 제약 제시 양상

| '-길래' 평서문[1]의 통사적 제약 | | | | | |
|---|---|---|---|---|---|
| 주어 인칭 제약 | | | 후행절의 제약 | | |
| 선·후행절 | 후행절 | 선행절 | 서술어 | 서법 | 시제 |

263) (1) 갑자기 비가 오길래 뛰어왔어.
(2) (나는) 심심하길래 나와서 산책 좀 하고 있어.
'-길래' 평서문[1]은 일반적으로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제한되지만 예문 (2)와 같이 기분이나 상태 등을 화자가 자각하는 경우에는 선행절에 반드시 1인칭 주어가 와야 한다.

264) (1) 초인종이 울리길래 깜짝 놀랐어.
'깜짝 놀라다'는 화자의 행동이지만 이 행동은 화자가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연세 1』의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에 관한 의미 제시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 반면에『건대』가 제시한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에 관한 의미 설명인 '계획에 없던 행동'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위 예문의 후행절의 행동은『건대』의 의미 설명에는 해당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후행절에 관한 의미 제시 차이는 후행절에 허용 가능한 서술어의 종류 및 범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 비동일 주어[265] | 1인칭 주어 | 2·3인칭 주어 | 제약 | 제약 | 제약 |
|---|---|---|---|---|---|
| 이화 참고서<br>선문 | 고려<br>외대 | 이화 참고서<br>외대 | 선문 | 고려<br>이화 참고서<br>외대 | X |

위 [표 44]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길래' 평서문[1]의 통사적 제약에서 '주어 인칭 제약'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교재는 위에 언급한 4종의 교재가 모두 해당된다. 이렇게 4종의 교재가 모두 '주어 인칭 제약'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 교재들이 이 제약을 '-길래'의 대표적인 통사적 제약으로 보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중에서 '-길래'의 선·후행절의 주어가 달라야 한다며 '선·후행절 비동일 주어 제약'을 제시한 교재는『이화 참고서』와『선문』이었다. 그리고 선행절에 2·3인칭 주어가 와야 한다는 제약은『이화 참고서』와『외대』에서, 또한 후행절에 1인칭 주어만을 허용하는 제약은『고려』와 『외대』에서 제시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길래'의 주어 인칭 제약을 모두 기술하고 있는 교재는『이화 참고서[266]』와『외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짚어보아야 할 점은 『이화 참고서』와『선문』이 제시한 '선·후행절의 비동일 주어 제약'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제약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에는 예외 없이 1인칭 주어만이 허용되지만, 선행절에는 주로 2인칭이나 3인칭 주어가 오는데 이는 선행절에 화자가 지각한 상황이 온다는 내용적 특성으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선행절에 화자가 감각 기관을 통해 지각 가능한 상황이나 화자만이 감지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선행절에도 1인칭 주어가 허용되거나 필수적으로 요구된다.[267] 이에 따라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는 1인칭으로 동일해진다. 그러므로 위 두 교재에서 기술한 선·후행절의 주어가 달라야 한다는 제약은 '-길래' 평서문[1]의 주어 제약에 대

265) 앞서 3장에서 논의한 바대로 '-길래' 평서문[1]에서 선·후행절의 주어가 달리 나타나는 양상은 출현 빈도가 높은 경향이지 제약이 아니다. 그런데 교재 등에서 이 경향을 제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오류이긴 하나 주어 제약의 제시 여부 분석을 위해 교재를 따라 '선·후행절의 비동일 주어'로 표기한 것임을 밝힌다.

266) 선·후행절의 비동일 주어 제약을 설명한 후에 이어서 선행절에 1인칭 주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기술한 것은 선행절에 2·3인칭 주어가 오고 후행절에는 1인칭 주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술에 오류가 있기는 하나『이화 참고서』에서 '-길래' 평서문[1]의 선·후행절의 기본적인 주어 인칭 제약을 모두 다루었다고 보았다.

267) (1) (내가)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길래 주변을 둘러보고 있어요(지각한 상황).
(2) (나는) 좀 출출하길래 라면 끓여 먹었어요(자각한 상황).

한 정확한 기술이 아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자리하는 상황과 관련된 기술 오류가『이화 참고서』와『외대』에서 발견되었다. 즉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언한 것이다. 그러나 누차 강조되는 내용이지만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에는 1인칭 주어가 오는 경우 혹은 반드시 와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행절의 주어로 2인칭이나 3인칭이 오는 경향과 그 이유를 기술하면서 다만 화자만이 자각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1인칭 주어가 와야 하는 제약을 언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많이 제시된 통사적 제약은 후행절의 서법 제약으로『고려』,『이화 참고서』,『외대』의 3종의 교재에서 다루어졌다. 이외에 후행절의 서술어 제약은『선문』에서만 제시되었는데, 후행절에 미래 시제가 올 수 없는 시제 제약을 기술한 교재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덧붙여 '-길래' 평서문[1]의 통사적 제약 제시에 대해 마지막으로 논의해야 할 점은『선문』에서 기술한 내용 중에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즉 과거에서 '-었길래'가 사용된다고 한 점과 선행절과 후행절에 적용되는 주어 인칭 제약을 반대로 제시한 점이다. 하지만『연세 2』에서도 기술한 것처럼 '-었길래'는 과거가 아니라 선행절이 후행절에 앞서 완료된 상황에서 쓰인다. 또한『선문』에서 제시한 것과 반대로 일반적으로 선행절에는 2·3인칭 주어가 오는 경향이 있고, 후행절에는 '1인칭 주어 필수 제약'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통사적 제약에 대한 잘못된 제시는 직접적으로 학습자의 발화 오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길래' 평서문[1]에서의 '-길래'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 교재는 총 13종 중에서 9종인데 반해, 통사적 제약을 제시한 교재는 4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에서 기술한 내용 중에 오류가 발견된 교재도 있었으며, 또한 '-길래'가 가지는 4가지의 통사적 제약을 모두 제시하고 있는 교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길래'의 제시 양상은 '의미'와 '통사적 제약'이 '-길래'라는 문법 항목의 특성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직접적인 기술이든 예문 제시 혹은 연습 문제 등의 간접적인 방식이든 교재에서 '-길래'의 의미와 통사적 제약에 대한 올바른 제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습자들이 이를 통해 '-길래'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길래'로 발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류 없이 의사소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논의해야 할 항목은 '화용 정보'인데 이 항목을 제시한 교재는『고

려』,『경희 2』,『성균관 2』로 3종의 교재에서 모두 '-길래'가 구어에 쓰인다고 기술했다. 그런데 『경희 2』,『성균관 2』는 '-길래'가 구어에 혹은 구어적 상황에서만 쓰인다고 하며 그 쓰임을 구어로 한정한 반면에,『고려』에서는 구어에 자주 쓰인다며 그 사용 경향을 기술해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앞서 『성균관 2』를 분석할 때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길래'는 문어보다는 구어에 더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지 구어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길래'의 화용적 기능에 대한 부정확한 기술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경희 2』에서는 다른 교재들과 달리 의문문에서 '-길래'가 후행절에 '이렇게' 류를 수반하여 선행절의 의문사와 함께 공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길래' 의문문의 특정 표현 수반 경향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의문문에서 '-길래'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화용적 경향을 밝혀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항목은 '-길래' 의문문인데 '-길래'가 의문문에서 가지는 의미와 통사적 제약 등을 제시하고 있는 교재는 모두 4종으로 밝혀졌다. 『이화 참고서』,『경희 2』,『외대』,『선문』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이중 '-길래' 의문문의 의미를 제시한 교재는『경희 2』와『외대』였는데, 특히 오로지『경희 2』에서만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에서만 '-길래'가 쓰일 수 있다는 통사적 제약을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선문』은 이 교재들 중 유일하게 '-길래' 평서문[1]과 달리 선·후행절의 비동일 주어 제약과 후행절의 서술어 제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길래' 의문문의 통사적 특징을 언급했다. 하지만 '-길래' 의문문도 후행절에 미래 시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제약과 후행절에 2·3인칭 주어가 주로 온다는 설명을 제시한 교재는 없었다.

정리하자면 총 13종의 교재를 분석한 결과 교재의 분석 기준으로 삼은 7개의 항목을 모두 제시한 교재는 없었다. 특히 상대방과의 실질적인 담화 상황에서 전달되는 '-길래'가 가지는 담화적 의미 기능이나 화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이유를 추측하는 '-길래' 평서문[2]는 13종의 모든 교재에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길래' 평서문[2]는 엄연히 한국인 화자들에게 실제로 발화되는 문장이다. 따라서 만일 이에 대한 외국인 학습자들의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화자의 이유 추측의 '-길래'가 사용되었을 경우, 학습자들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로 인해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거나 담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발화를 하게 되어 어색한 담화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는 '-길래'의 담화적 기능을 파악하지 못

한 경우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길래'의 담화 맥락에 따라 다르게 드러나는 여러 담화적 의미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가 아니라면 직감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길래'의 통사적 제약을 제시한 4종의 교재에서 '-길래' 평서문[1]과 관련된 4가지 제약을 모두 기술한 교재도 없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길래' 평서문[1], '-길래' 의문문, '-길래' 평서문[2]268)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후행절의 상황시와 관련된 시제 제약을 기술한 교재가 하나도 없다는 점도 비교적 큰 문제라고 판단된다. 더군다나 예문에서도 "~추천하시길래 읽고 있어요"로 『연세 2』에서만 후행절에서 현재 시제를 제시했고, 나머지 12종의 모든 교재에서는 예문에서 '-길래'의 후행절에 과거형이 온 경우만을 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길래' 의문문을 제시한 『경희 2』와 『외대』에서는 '-길래' 의문문의 예문에서 현재형만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예문 제시로 인해 '-길래' 의문문에서는 현재 시제 필수 제약이라는 통사적 제약이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반면에 『이화 참고서』는 '-길래' 의문문에서 '-길래' 평서문[1]과 같이 후행절에 과거 시제가 온 경우만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처럼 후행절의 상황시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이 '-길래' 평서문[1] 혹은 '-길래' 의문문의 예문에서 과거 시제만을 제시하거나 '-길래' 의문문의 예문에서 현재 시제만을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후행절 시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로 지적된 점은 '-길래'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 제약을 반대로 제시하거나 선행절에는 1인칭 주어가 올 수 없다며 주어 제약을 잘못 설명한 교재가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후행절에는 1인칭 주어만이 허용되고 선행절에는 주로 2·3인칭 주어가 오는 선·후행절의 주어 양상을 선·후행절의 비동일 주어 제약으로 잘못 파악하고 있는

---

268) (1) 나한테 실수한 걸 알길래 연락도 못하는 거겠지.
(2) 뭔가 걸리는 일이 있길래 전화했겠지.
위 예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길래'가 화자가 지각한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초래한 이유를 추측할 때는 후행절의 시제는 현재로 한정된다. 즉 '-길래' 평서문[2]는 안주호(1998: 223)도 지적한 것처럼 지각한 상황에 대해 화자가 그 순간 직접 그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추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화시가 바로 후행절의 시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화자의 추측을 표현하는 '-겠지'의 결합형 앞에 오는 후행절의 상황시는 '-길래' 평서문[1]이나 '-길래' 의문문과 같이 현재 시제나 과거 시제만이 허용되는데, 본고에서 서술한 '-길래'가 나타나는 세 유형의 후행절에 관련된 시제 제약의 공통점은 바로 이 후행절의 상황시에서 보이는 특성을 지적한 것이다.

교재도 있었다. 그중 하나인 『이화 참고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을 모두 다루긴 했으나 제대로 기술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구어에서만 '-길래'가 사용된다는 잘못된 화용 정보를 기술한 교재도 있었다.

이처럼 교재에서 '-길래'에 대한 정보가 모두 다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잘못 다루어지게 되면 그 결과는 학습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있어 한국어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되는 교재를 통해 '-길래'의 의미, 통사적 제약, 담화적 기능, 화용 정보 등의 특성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두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직접적인 방식은 지금까지 논의의 기준이 된 7개의 분석 항목을 교재에서 직접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가르키고, 간접적인 방식은 예문을 통해 제시하거나 혹은 연습 문제나 과제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 같은 제시는 '-길래'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으로 이어져서 필요한 담화 상황에서 '-길래'를 선택해 정확하고 유창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2. 중국 출간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길래'

여기에서는 13종의 한국 측 교재에 이어 중국에서 출판한 교재에서는 '-길래'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에서 출간된 4종의 교재를 대상으로 '-길래'의 제시 여부를 살펴본 결과, 3종의 교재에서 '-길래'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그 내용을 아래의 [표 45]로 정리했다. 그런데 중국 측 교재들과 한국 측 교재들은 교수 대상의 차이로 인해 교재의 구성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 한국 측 교재와 같은 기준으로 '-길래'를 제시한 교재의 단계를 따지기가 어려웠다. 즉 중국 측의 교재들은 대학의 한국어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기에 맞추어 한 학기에 한 권의 책을 학습하도록 하는 내용과 구성으로 교재가 이루어져 있다. 반면에 한국 측 교재들은 대부분 1년 반, 즉 6학기 동안 1급부터 6급의 체계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내용과 구성으로 교재가 짜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 표에서와 같이 '교재 명' 다음에 '급수' 대신 '-길래'가 교수 되는 '학년'으로 '-길래'를 기술한 교재 정보를 제시하게 되었다.

[표 45] 중국 측 한국어 교재에서 '-길래'가 제시된 학년과 단원

| | 교재 명[269] | 학년 | 단원(총 단원 수) |
|---|---|---|---|
| 1 | 韓國語 3 | 2학년 | 10과(총15과) |
| 2 | 標准韓國語 第3冊 | 3학년 | 10과(총25과) |
| 3 | 新編 高級 韓國語 〔上〕 | 3학년 | 부록편(총10과) |

위 [표 4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길래'는 2학년과 3학년에서 즉 중·고급의 단계에서 학습되는 문법 사항이다. 이지선(2017: 344)에 의하면 이는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 점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국 측 교재들에서도 '-길래'의 사용 빈도 및 통사적 난이도를 고려해 '-길래'를 중·고급의 단계에서 제시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럼 먼저 2학년 한국어 전공자들이 학습하는 『韓國語』를 필두로 교재에서 '-길래'가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를 앞서 제시했던 분석 기준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1. 2학년 교재의 '-길래'

2학년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는 『韓國語』가 유일하다.

[표 46] 『韓國語 3』에서 제시한 '-길래(이지선 2017: 345)'

| 학년/과, 쪽수 | 2학년 10과, 115-116쪽 |
|---|---|
| 예문 | ㉠한국에 있을 때 뭘 <u>했길래</u> 이렇게 얼굴이 탔어?<br>在韩国期间干什么了，脸晒成了这个样子？<br>㉡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u>있길래</u>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가 말입니다.<br>你和我有什么关系啊，这么事事处处挑刺.<br>㉢이 꽃 받아. 오늘 네가 우울해 <u>보이길래</u> 사 왔어.<br>收下这花吧，看你今天有些闷闷不乐给你买.<br>㉣아이가 하도 <u>조르길래</u> 어쩔 수 없이 하나 사 주었다.<br>孩子央求得太厉害了，没办法只好给他买了一个. |
| 관련 설명 | 원인, 이유나 근거의 뜻을 나타내는데 구어에 자주 쓰인다[270] |

269) 앞으로는 편의상 교재 명을 『韩国语』, 『标准』, 『新编』으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韓國語』에서는 먼저 본문을 제시한 후에 어휘에 이어 문법 항목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길래'의 의미와 화용적 기능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관련된 예문을 4개로 들었는데 먼저 한국어로 제시하고 이어 그 내용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싣고 있다. 그런데 이 예문을 보면 '-길래'가 의문문에서 실현된 경우와 '-길래' 평서문[1]에서 사용된 경우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길래' 평서문[1] 이외에 '-길래' 의문문을 제시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제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설명을 보면, '-길래'만의 고유한 의미가 아니라 인과 연결어미가 나타내는 기본적인 의미와 '-길래'의 화용 정보만을 제시했다. 하지만 과연 학습자들이 이와 같은 미흡한 설명으로 예문에서 드러나는 '-길래'의 여러 특성을 읽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비록 학습 대상자들이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2학년 학생이라고 해도 '-길래'가 '-길래' 평서문[1]에서 가지는 의미와 까다로운 통사적 제약들 및 그와는 다른 '-길래' 의문문의 통사적 특성과 담화적 의미 등을 위와 같은 예문 제시와 뒤에 이어지는 단순한 '-기에'와의 대치 연습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4개의 예문을 살펴보면, 먼저 의문문을 1개 제시하고 이어 '-길래' 평서문[1]에서 '-길래'가 사용된 경우를 들었는데 이러한 예문 제시 순서는 자칫 '-길래'가 의문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과 연결어미라는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길래'는 의문문보다는 평서문에 쓰이는 경향[271]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시 순서는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예문으로 든 '-길래' 의문문은 '-길래'가 단순히 후행절의 이유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도 '핀잔'의 담화적 의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한 바대로 '-길래'의 의미 설명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과연 이러한 의미들을 예문에서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더 큰 문제로 보이는 것은 '-길래' 의문문은 '-길래' 평서문[1]과 달리 선·후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 및 후행절의 서술어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데, 교재에서 제시된 4개의 예문을 통해 학습자들은 '-길래' 평서문[1]과 '-길래' 의문문의 통사적 제약 및 그 차이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나 이 교재는 한국어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공 교재이므로 최소한 '-

270) 중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을 필자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表示原因，理由或根据，常用于口语中.
(『韩国语 3』, 2000: 115)

271) 본고에서 말뭉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길래'는 평서문에서 59.7%, 그리고 의문문에서는 40.3%가 쓰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길래'가 다른 인과 연결어미와 구별되는 의미와 통사적 특징에 대한 자세한 제시는 교재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다고 본다. 하지만 이 교재는 인과 연결어미로서 나타내는 단순한 의미와 구어에 쓰이는 경향을 언급한 화용 정보, 그리고 예문을 통해 '-길래' 의문문만을 기술했을 뿐, '-길래'의 결합 정보, 통사적 제약, 담화적 기능, '-길래' 평서문[2]는 제시하지 않았다.

덧붙여 마지막으로 논의할 점은 '-길래'에 대한 연습으로 제시된 문제에 대한 것이다. 즉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설명과 예문 뒤에 제시되는 '연습'에서 인과 연결어미 '-기에'를 '-길래'로 대치해 쓰도록 하는 문제[272]를 4개 제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연습 문제 유형은 '-기에'를 '-길래'로 모두 대치해 쓸 수 있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에'와 달리 '-길래'는 '-길래' 평서문[1]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4가지의 문법적 조건[273]이 충족되어야 하는 즉 그 쓰임이 제한적인 인과 연결어미이다. 그러므로 통사적으로 '-길래'를 '-기에'로 바꾸어 사용해도 비문이 되지는 않지만, 반대로 '-기에'를 '-길래'로 대치하면 비문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학습하지 못한 학습자들은 연습 문제를 통해 '-길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어 결국은 '-길래'의 사용에 있어 오류가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 문제 유형은 수정되어야 한다.

## 2.2. 3학년 교재의 '-길래'

3학년 한국어 전공자를 대상으로 기술된 교재는 2종류가 확인되었는데, 먼저『標准』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표 47]『標准韓國語 第3冊』에서 제시한 '-길래(이지선 2017: 346-347)'

---

272) (보기) 도대체 누가 뭐라고 했기에 입이 이렇게 한 자나 나와 있니?
→ 도대체 누가 뭐라고 했길래 입이 이렇게 한 자나 나와 있니?
(2) 나보고 도와 달라고 하기에 도와준 것뿐이에요.
→ _____
(『韩国语 3』, 2000: 119)

273) 4가지의 통사적 조건은 첫째, '-길래'가 '자각'의 의미를 띌 경우의 선행절의 1인칭 주어 필수 제약, 둘째, 후행절의 1인칭 주어 필수 제약, 셋째, 후행절의 의지적 행동 서술어 필수 제약, 넷째, 후행절의 미래 시제 불가 제약을 말한다.

274) 중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을 필자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 학년/과, 쪽수 | 3학년 10과, 99-100쪽 |
|---|---|
| 예문 | ㉠ㄱ: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어요?<br>今天为什么这么早就回来了？<br>ㄴ:머리가 아프길래 일찍 왔어요.<br>因为头痛，早回来了.<br>㉡ㄱ:어제 모임에 왜 안 왔어요?<br>怎么昨天没参加聚会？<br>ㄴ:비가 오길래 귀찮아서 안 갔어요.<br>因为下雨，觉得烦就没去.<br>㉢ㄱ:수미 씨 왔어요?<br>秀美来了吗？<br>ㄴ:꼭 온다고 하길래 세 시간이나 기다렸는데 결국 안 왔어요.<br>她说一定来，所以等了三个小时，可是也没有来.<br>㉣ㄱ:이 선생님 담배 너무 많이 피우지요?<br>李先生抽烟太多了吧？<br>ㄴ:하루에 두 갑 정도 피우길래 좀 줄이라고 했어요.<br>每天抽两盒左右，所以让他少抽点<br>㉤ㄱ:아침에 제가 보내라고 한 우편물을 보냈습니까?<br>早晨让你寄的邮件寄了吗？<br>ㄴ:네, 아까 택배 회사 직원이 왔길래 그 사람 편에 보냈습니다.<br>是的，刚才快递公司的职员来了，就让他捎走了.<br>㉥ㄱ:영준이가 하루 종일 시무룩해 있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br>英俊一整天都不高兴，有什么事吗？<br>ㄴ:거짓말을 했길래 야단을 좀 쳤더니 그런가 봐요.<br>可能因为他说谎，训了他几句，就这样了. |
| 관련 설명 | 동사나 형용사 뒤에 오며, 이유를 나타낸다. 즉 제1인칭 주어가 제2인칭이나 제3인칭이 어떤 행동을 했거나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본 후에,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했거나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다. 과거 시제의 문장에서만 쓰인다. 구어에서 자주 쓰인다[274]. |

『標准』도 『韓國語』와 유사하게 구어와 문어의 본문을 제시한 후에 발음 및 어휘 다음에 문법 항목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길래'에 대한 결합 정보, 의미, 통사적 제약, 화용 정보를 설명하고 관련된 예문을 대화 형식으로 6개를 제시했는데 모두 '-길래'가 '-길래' 평서문[1]에서 쓰이는 경우였다.

본격적으로 '-길래'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보면, 통사적 제약과 결합 정보를 더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韓國語』보다는 자세하다고 할 수 있다.

---

接动词或形容词后，表示理由.即第一人称主语在看到第二人称或第三人称做了某种行动或处于某种状态之后，决定做某事或做出某种反.只用于过去时的句子中.常用于口语.
(『标准韩国语 第3册』, 1996: 99)

그러나 결합 정보에서는 명사와도 결합한다는 사실을 예문을 통해서도 설명하지 않았고, 통사적 제약 설명에서는 '-길래'가 과거 시제의 문장에서만 쓰인다며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길래'는 후행절에 미래 시제만을 허용하지 않을 뿐 과거 시제를 비롯해 진행상의 현재 시제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연결어미이다. 이를 통해 이 교재에서는 '-길래'에 대해 미흡한 결합 정보와 잘못된 통사적 제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길래'의 의미를 "제1인칭 주어가 제2인칭이나 제3인칭이 어떤 행동을 했거나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본 후에,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했거나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비록 『연세 1』과 마찬가지로 '시각'에 한정된 제시라는 한계는 있지만 '-길래'가 가지는 '지각'이라는 양태적 의미를 주어 인칭 제약과 연관 지어 제시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앞서『경희 2』에서도 지적했듯이, '-길래'의 통사적 제약을 담고 있는 이와 같은 의미 제시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길래'의 의미가 잘 전달되기만 한다면, 그 후에 이어지는 통사적 제약 설명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므로 그에 대한 습득 또한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제시한 예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예문에서 '웬일로'와 '왜'라는 의문사를 사용해 한 질문에 대해 '-길래'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유형의 예문 제시는 그 제시만으로도 '-길래'가 이유를 나타내는 인과 연결어미라는 의미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제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예문에서의 '-길래'의 다양한 결합 형태 제시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즉 교재에서는 '-길래'가 동사나 형용사와 결합한다는 정보만을 기술하고 있으나, 예문에서는 그 외에도 '-길래'가 간접화법이나 동사의 완료형과 결합해 쓰이는 형태까지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지선(2017: 347)도 지적했던 것처럼 이렇게 예문을 통해 '-길래'의 결합 정보를 확장해 제시하는 방식은 이 교재의 학습 대상이 중급 이상의 학습자라는 점에 비춰 보면 교재에서 결합 정보를 자세히 기술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리고 예문 제시에 이어서 논의할 점은 그 뒤에 이어지는 연습인데 두 가지 유형으로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첫 번째 문제는 '-길래'를 사용해 이유를 설명하라는 지시문 다음에 6개의 질문이 '왜'라는 의문사를 통해 제시된 유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시된 6개의 문장에서 '-길래'를 잘못 사용한 문

장을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유형의 문제이다. 우선 두 번째 연습 문제 유형을 보면, 그중 첫 번째 문제는 선행절에 1인칭 주어만이 허용되는 상황을 확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선행절에 화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피곤하다'라는 서술어가 왔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시작으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 후행절의 시제 제약을 확인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연습 문제에서라도 '-길래'의 통사적 제약을 유추 및 이해할 수 있는 제시를 하는 것은 학습자 입장에서 상당히 유익하다.

하지만 첫 번째 연습 문제에서는 이와 달리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발견되어 자세히 논의해 보고자 한다. 즉 첫 번째 유형의 연습 문제 6번에서는 "왜 여자(남자) 친구가 저렇게 기뻐해요?"라고 질문을 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앞서 제시한 문제들과 달리 상대방이 한 행동에 대한 이유를 질문하는 것[275] 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을 초래한 이유를 상대방에게 묻는 것이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글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여자(남자) 친구가 저렇게 기뻐할까요?"라는 대답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 입장에서는 앞선 문제들에 대한 대답과 같은 유형의 '-길래' 평서문[1]을 사용해 대답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후행절에 3인칭 주어가 오게 되어 후행절의 1인칭 주어 필수 제약을 어긴 비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로 하여금 비문을 만들어 내게 하는 이러한 연습 문제 제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재에서 '-길래'에 대한 제시를 보면, '-길래'의 화용 정보와 '-길래'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설명만이 충분히 제시됐을 뿐, 결합 정보 제시에서 부족한 면이 확인되었고, 통사적 제약의 기술에서는 오류가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길래'가 담화에서 드러내는 담화적 의미 기능이나 '-길래' 의문문 및 '-길래' 평서문[2]도 제시하지 않았다. 덧붙여 교재에서의 간접적인 제시 방식에 속하는 연습 문제에서 '-길래'의 통사적 특성을 유추할 수 있는 제시를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비문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중국 측 교재는『新編』이다.

---

275) 3. (1) 왜 (너는)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2) 왜 (너는) 지난 주말에 열린 체육대회에 안 왔어요?
위 예문에서 '(너는)'은 필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적으로 삽입해 넣은 것이다.
(『标准韩国语 第3册』, 1996: 102)

[표 48]『新編 高級 韓國語 [上]』에서 제시한 '-길래(이지선 2017: 348)'

| 학년/과, 쪽수 | 3학년 부록편, 253, 256쪽 |
|---|---|
| 예문 | ㉠모두들 이 책이 좋다고 하길래 나도 한 권 샀어요.<br>(大家都说这本书好，所以我也买了一本)<br>㉡내일 비가 온다고 하길래 휴식하기로 했습니다.<br>(据说明天下雨，所以决定休息了)<br>㉢어디에 갔길래 전화도 안 했니?<br>(你去了哪儿？连个电话都没有) |
| 관련 설명 | (1) 원인을 나타낸다.<br>※이 경우에 '-길래' 대신 '-기 때문에', '-기에', '-므로', '-아서/어서/여서'를 바꿔 쓸 수 있다.<br>(2) 이유를 나타낸다.<br>※이 경우에 '-길래' 대신 '-기 때문에', '-기에', '-므로', '-아서/어서/여서'를 바꿔 쓸 수 있다.<br>(3) '-길래' 뒤에는 의문문이 오는 경우가 많고 구어에서 잘 쓰인다. |

『新編』은 다른 교재와 달리 본문에서는 '-길래'를 다루지 않고, 1과에서 10과의 내용이 모두 제시된 후에 이어진 '부록 1'의 '상용 조사, 어미의 의미와 용법' 편에서 '-길래'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제시한 내용을 보면, 의미를 설명하고 예문을 제시한 후에 대치 가능한 유사 문법 항목들을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뒤 256쪽에서는 교재에서 제시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인과 연결어미의 통사적 제약이나 화용 정보 등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우선 '-길래'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기 전에 그보다 앞서 제시한 '-기에'에 대한 설명 제시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예문과 (2)번의 의미 설명에서 대치 가능한 유사 표현을 제시한 내용 중에 '-므로'가 없는 것만 제외[276]하면 '-길래'와 '기에'에 대한 설명이 거의 같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짐작하면, 이 책에서는 '-기에'와 '-길래'를 같은 의미를 가진 인

276) 25. 연결어미 '-기에'
(1) 원인을 나타낸다.
　　이 옷이 값이 싸기에 한 벌 샀다.
　※이 경우에 '-기에' 대신 '-기 때문에', '-길래', '-므로', '-아서'를 바꿔 쓸 수 있다.
(2) 이유를 나타낸다.
　　애가 서점에 가자고 하기에 서점에 가는 길이에요.
　※이 경우에 '-기에' 대신 '-기 때문에', '-길래', '-아서/어서/여서'를 바꿔 쓸 수 있다.
(『新编 高级 韩国语〔上〕』, 2002: 253)
'-기에'에 대한 제시를 '-길래'의 제시 내용과 비교해 보면 예문과 (2)번의 의미 설명에서 대치 가능한 표현에 '-므로'가 빠진 것을 제외하면 제시한 내용이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과 연결어미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길래'는 '-기에'로부터 분화되어 '전문화' 및 '탈범주화' 등의 여러 문법화 단계[277]를 거쳐(안주호 1999: 115-117), '후행절의 화자의 행동을 초래한 화자의 지각'이라는 특유한 의미와 그로 인한 통사적 제약을 가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에'가 평서문에서 '-길래'와 같은 통사적 조건에서 쓰인 경우에만 '-기에'를 '-길래'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즉 '-길래'의 의미와 '-기에'의 의미는 그 범주가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교재에서 '-기에'와 '-길래'를 어떤 상황에서든 대치 가능한 같은 의미를 가진 인과 연결어미로 제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길래'에 대한 설명을 보면, '-길래' 평서문[1]에서 '-길래'가 가지는 의미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왜 굳이 "원인을 나타낸다"와 "이유를 나타낸다"로 의미를 나누어 제시한 것인지 그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만일 이 교재에서 원인과 이유의 의미에 차이를 두고 제시한 것이라면 덧붙여 제시한 대치 가능한 유사 표현에도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비교해 본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도를 읽을 수 없는 이러한 애매한 의미 설명은 학습자들이 '-길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예문의 '-길래' 평서문[1]에서 '~좋다고 하길래', '~온다고 하길래'로 '-길래'가 간접 인용 화법과 결합해 쓰이는 형태만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시는 '-길래'가 화자가 들은 내용을 이유로 말할 때만 사용된다는 오해를 양산할 수도 있다. 물론 '-길래'는 감각 기관을 통한 직접적인 지각이라는 의미 특성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이유가 될 때에는 간접 인용 화법과 결합해 쓰일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적인 쓰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편향된 예문 제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한 가지 더 논의해야 할 점은 '-길래' 대신 '-기에' 및 '-어서', '-기 때문에' 이외에, '-므로'와도 교체해 쓸 수 있다고 교재에서 기술한 부분이다. 그러나

277) 문법소는 일반적으로 의미적 그리고 통사적 변화 및 발전에 여러 단계의 문법화 과정이 개입된다. 이성하(2016: 190,193)에 따르면 그 문법화 과정에서 '분화'는 같은 어원에서 유래된 여러 가지 형태의 문법소가 의미적인 측면에서 혹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하며, '전문화'란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문법소 중에서 어느 특정 문법소가 의미가 일반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해당 문법 기능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문법소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고 했다. 또한 '탈범주화'는 문법화 과정에서 문법화된 문법화소가 어원소의 의미 및 통사적인 고유 특징에서 벗어나 그와 구분되는 별개의 부차적 범주의 특징을 얻어가는 변화를 일컫는다고 했다(이성하, 2016: 198-199).

일반적으로 '-므로'는 문어[278]에 그리고 격식체에 주로 쓰이는 인과 연결어미로 그 화용적 기능이 '-길래'와 상반되기 때문에 만일 교체해서 사용했을 경우 어색한 문장이나 발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기에'에도 해당되는 바다. 즉 '-기에'와 '-길래'는 유사한 의미로 실현될 경우 화용적으로 상보적인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격식체의 문어에는 '-기에'가 비격식체의 구어에는 '-길래'가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화용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길래'를 '-기에' 등으로 대치 가능하다는 제시를 하는 것은 비록 문법적으로 비문은 아니더라도 담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발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화용적 기능의 차이 이외에도 '-길래'와 대치 가능한 유사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길래'와 의미 차이가 존재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유해준(2015: 226)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즉 유해준(2015: 226)에 따르면 '-길래'와 '-기에'는 92.3%로, 그리고 '-기 때문에'는 '-기에', '-어서', '-으므로', '-은 결과', '-으니까'와 84.6%로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 결과를 보더라도 '-길래'가 '-기에'와 의미가 비슷한 것은 인정되지만, '-길래'가 '-어서', '-기 때문에', '-므로'와 의미가 유사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재에서 타당한 근거 없이 막연하게 '-기에' 이외에 '-길래'와 대치 가능한 인과 연결어미를 제시하는 것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의해야 할 점은 256쪽에서 제시한 '-길래'의 통사적 제약에 대한 기술에서 오류를 발견했다는 점이다. 이 교재에서는 253-254쪽에서 '-길래'의 의미를 설명한 후에 256쪽에서 '-길래'가 의문문에서 그리고 구어에 자주 쓰이는 경향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길래'가 의문문에서도 쓰인다는 점과 '-길래'에 관한 화용 정보를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길래'가 의문문에서 쓰이기 위해서는 선행절에 의문사를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제약과 '-길래' 평서문[1]과는 다른 통사적 특성 등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더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느라고' 등의 인과 연결어미의 후행절의 서법 제약을 설명하면서, '-길래'가 후행절에 명령형이나 청유형을 허용한다고 제시한 점[279]이다. 이와 같은 '-길래'의 통사적 제약에 대한 잘못된 제시

278) 김강희(2019: 342)에 따르면 '-길래'는 비격식적인 구어에 그리고 '-므로'는 문어나 격식적인 상황에 쓰이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279) 1) '-느라고', '-므로', '-아서/어서/여서' 뒤에는 청유나 명령을 나타내는 문장이 오지 못한다.

그들이 곧 오기에(길래/기 때문에/니/니까) 좀 더 기다리자. (O)

그들이 곧 오므로(아서/느라고) 좀 더 기다리자.(X)

는 직접적으로 학습자들의 발화 오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정리하자면『新編』은 '-길래'가 의문문에서도 쓰인다는 점과 구어에 자주 쓰인다는 화용 정보를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애매하고 부족한 의미 설명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 또한 결합 정보, 통사적 제약, 담화적 기능, 이유 추측의 '-길래' 평서문[2]는 교재에서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특히 잘못된 통사적 정보와 대치가 가능한 유사 표현에 대한 부정확한 제시는 시급히 수정이 필요한 점이었다.

## 2.3. 중국 출간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길래' 제시의 문제점

이상 중국 현지에서 출판되어 대학에서 전공 교재로 쓰이고 있는『韓國語』, 및『標准』, 그리고『新編』에서 '-길래'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에 그 분석의 기준이 되는 7개의 항목을 중심으로 제시 여부에 대한 결과를 아래의 [표 49]로 나타내고자 한다.

[표 49] 중국에서 출판된 교재들의 '-길래' 제시 양상[280]

| 교재명 | 결합 정보 | 의미 | 통사적 제약 | 담화적 기능 | 화용 정보 | '-길래' 의문문 | '-길래' 평서문[2] |
|---|---|---|---|---|---|---|---|
| 韩国语 | X | O | X | X | O | O | X |
| 标准 | O | O | O | X | O | X | X |
| 新编 | X | O | X | X | O | O | X |

위 [표 49]에서 제시된 7개의 분석 항에 대한 제시 여부 판단은 앞서 한국 측 교재 분석에 적용했던 기준과 동일하다. 즉 각 항목에 속하는 내용 중 하나라도 기술했다면 교재에 제시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본격적으로 교재에서의 각 분석 항목의 제시 여부를 비교해 살펴보면, 3종

---

(『新编 高级 韩国语〔上〕』, 2002: 256)

위 예문에서 제시한 바와 달리 '-길래'는 후행절에 명령형이나 청유형을 허용하지 않는 서법 제약을 가지는데, 이는 '-기에' 및 '-기 때문에'에도 해당되는 제약이다.

280) 이지선의 소논문(2017: 350)에서 [표13]과 [표13-1]을 참고하여 분석 항목을 추가 및 변경해 작성한 것이다.

의 교재에서 모두 제시하고 있는 항목과 제시하지 않은 항목이 눈에 띈다. 전자는 '의미'와 '화용 정보'를 말하고, 후자는 '담화적 기능'과 '-길래' 평서문[2]가 해당된다. 그러나 '-길래'가 제시된 교재들의 학습 대상이 주로 3학년인 한국어 전공자라는 점에서 보면, '-길래'가 담화에서 드러내는 '변명' 등의 의미 기능이나 화자가 알게 된 사건에 대해 그 이유를 추측하는 '-길래' 평서문[2]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다. 이는 '-길래'를 사용해 수준 있고 유창한 담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학습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중·고급 이상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그 수준에 걸맞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히나 한국어 전공자에게는 '-길래'의 의미나 통사적 제약 등의 기본적인 정보 이외에도 담화 상황에 걸맞게 '-길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길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모두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교재에서 '의미'를 제시한 내용을 보면 『標准』을 제외하고 『韓國語』와 『新編』에서는 '-길래'의 의미를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낸다고 간단히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 설명은 '-길래'의 다른 인과 연결어미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기대하는 학습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에 앞서 지적한 바대로 『標准』에서는 '-길래' 평서문[1]이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시각'에 한정시킨 오류는 있지만 '지각'의 양태적 의미와 그로 인한 화자의 행동으로 설명함으로써, 선·후행절의 주어 제약과 후행절의 서술어 제약까지 연관 지어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화용 정보'에 대해서는 세 교재 모두 '-길래'가 구어에서 자주 쓰인다며 그 사용 경향을 기술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결합 정보'와 '통사적 제약'은 『標准』에서만 기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결합 정보'에 대한 설명에서도 그리고 예문에서도 명사와 '-길래'가 결합한다는 정보는 제시되지 않아 아쉬운 면이 있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교재에서 제시한 예문에서도 명사와 '-길래'가 결합한 형태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 이유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標准』에서만 '-길래'의 통사적 제약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제시한 후행절의 시제 제약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과거 시제만을 허용한다고 기술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학습자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 전달은 『新編』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즉 '-길래'가 '-기에' 및 '-므로' 등의 유사 표현과 교체해

쓸 수 있다고 설명한 것과 후행절에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올 수 있다고 제시한 점이 그렇다. 앞서 『新編』을 분석할 때도 이미 지적했던 바대로 '-길래'와 '-기에'의 의미 영역이 겹칠 경우에 서로 대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주로 두 연결어미는 상보적인 화용적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통사적으로 비문은 아니지만 화용적으로는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격식체의 문어에 주로 쓰이는 '-므로'에도 해당되는 바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중국 측 교재들은 '-길래'의 통사적 제약을 제시하지 않거나 설령 통사적 제약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누차 반복되는 바이지만 이 교재들은 고학년의 한국어 전공자를 대상으로 교수되는 전공 도서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교재에서 오류가 확인되는 것은 '-길래'에 대한 학습자들의 제대로 된 이해 및 사용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로 이 점이 교재에서 제시되는 문법 항목에 대한 엄격한 검증 과정이 필요한 이유이며, 이는 중국 측 교재에서 제시된 '-길래'에도 시급히 적용되어야 하는 바다.

그런데 중국 측 교재들에서 발견된 긍정적인 측면은 『韓國語』와 『新編』에서 '-길래'가 쓰인 의문문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韓國語』에서는 한 개의 예문으로만 제시한 반면에, 『新編』에서는 '-길래'가 의문문에서도 자주 쓰인다는 설명과 함께 한 개의 예문도 같이 제시했다. 물론 이러한 제시만으로도 의의는 있다. 하지만 '-길래' 의문문이 가지는 의문사 수반 제약이나 '-길래' 평서문[1]과 동일하게 후행절에 미래 시제는 허용되지 않는 통사적 제약 및 제시한 예문에서 읽혀지는 '핀잔'이나 '따짐'의 담화적 기능 등을 더불어 설명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결론적으로 한국 측 교재와 마찬가지로 중국 측 교재에서도 본고에서 분석 기준으로 세운 7개의 항목을 모두 제시하고 있는 교재는 없었다.

## 3. 한국 출간 교재와 중국 출간 교재의 '-길래'의 제시 양상 비교

앞서 한국에서 출판한 한국어 교재 13종과 중국에서 출판한 한국어 교재 3종에서 보이는 '-길래'의 제시 양상을 7개 항목의 제시 여부에 따라 그 내용을 분석해 본 바 있다. 이에 지금부터는 그 결과에 근거해 한국 측 교재와 중국 측 교재에서 나타나는 '-길래'의 제시 양상을 비교 및 대조의 방식을 통해 논

의해 보고자 한다.

우선 논의할 점은 한국 측 교재와 중국 측 교재의 학습 대상의 차이 및 그로 인한 학습 목적의 차이다. 즉 한국 측 교재는 어학연수나 유학 혹은 한국 사회에 빠른 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생이나 결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중국 측 교재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한국어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재의 구성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길래'를 제시하고 있는 교재의 단계를 서로 대응해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국 측에서는 '-길래'가 주로 4급 교재에서 제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중국 측에서는 주로 3학년의 전공 교재에서 제시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측 모두 '-길래'를 주로 중·고급 혹은 고학년 이후에 제시하는 공통점을 보였는데, 이는 '-길래'의 사용 빈도 및 통사적 난이도를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둘째, 한국 측 교재에서는 모든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길래'의 분석 항목이 없는 반면에, 중국 측 교재에서는 '의미'와 '화용 정보'의 두 항목을 3종의 모든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어 차이를 보였다. 이런 점을 통해 보면 중국 측 교재에서는 '-길래'의 의미와 '-길래'가 구어에서 주로 쓰인다는 화용적 기능을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 측 교재에서는 모든 교재가 다루고 있는 항목은 없었지만, 그중에서 10종의 교재가 '결합 정보'를, 그리고 9종의 교재는 '의미'를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짐작하면 한국 측 교재는 '-길래'의 문법적 활용 형태와 의미를 중시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양측의 교재에서 모두 중시된 것으로 분석된 '의미' 항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길래'의 '후행절의 이유나 원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기술한 교재부터 '후행절의 행동을 초래한 화자가 시각을 통해 알게 된 것'이라는 '-길래'가 가진 독자적인 의미를 기술한 교재까지 양측에 모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길래'는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미각 등의 모든 감각 기관을 통해 인지한 내용을 이유로 나타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한적인 의미 제시는 학습자의 '-길래'를 통한 제한적인 쓰임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해당하는 한국 측 교재로는『연세 1』이 중국 측 교재로는『標准』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모든 교재 중에서 한국 측의『경희 2』에서는 '-길래'가 가지는 '지각'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해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길래'의 의미에

대한 제시에서 한국 측에서는『고려』,『선문』,『성균관 2』의 3종의 교재를 제외하고, 나머지 6종의 교재에서 '-길래'만의 특유한 의미를 밝혀 기술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3종 중 오직 1종인『標准』에서만 다른 인과 연결 어미와 구별되는 '-길래'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지선(2017: 353)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길래'의 의미에 대한 제시에 있어 한국에서 출판한 교재들이 중국에서 출판한 교재들에 비해 '-길래'의 의미와 통사적 제약의 연관성을 한층 더 깊이 다루고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중국 측 교재에서 모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 '-길래'의 화용적 기능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중국 측 교재에서는 '-길래'가 구어에서 사용되는 경향을 모두 잘 기술한 반면에, 한국 측 교재에서는 '-길래'가 구어에서만 사용된다며 잘못된 화용 정보를 제시한 교재가 확인되었다. 이에는『성균관 2』와『경희 2』가 해당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국 측 교재에서는 '-길래'의 올바른 화용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 측 교재에서는 그렇지 못한 교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점은 한국 및 중국의 양측의 모든 교재에서 '-길래'의 결합 정보를 설명할 때, '-길래'가 '-더-'나 추측의 '-을 것이-', 그리고 의지의 문법 표현과는 결합할 수 없다는 제약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약이 '-길래'가 쓰인 모든 문장에 적용되는 공통된 제약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재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셋째, 한국 측에서는 13종의 교재 중에서 4종만이 '-길래'의 통사적 제약을 제시한 반면에, 중국 측에서는 3종 중 단 1종인『標准』에서만 '-길래'의 통사적 제약을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길래'에 적용되는 4가지의 통사적 제약을 모두 설명하고 있는 교재는 없었다. 즉 주어 인칭 제약과 후행절의 서술어 및 서법 제약까지는 다루어진 반면에, 후행절의 시제 제약은 그 어떤 교재에서도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통사적 제약을 제시한 한국 측의『고려』,『이화 참고서』,『외대』,『선문』에서 모두 '-길래' 평서문[1]에 적용되는 '주어 인칭 제약'에 속하는 제약을 기술하고 있었다는 점과 양측 교재의 통사적 제약의 기술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먼저 논의해야 할 점은 통사적 제약을 제시한 한국 측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주어 인칭 제약과 관련된 제약을 다루었다는 것이다. 이는 '-길래'의 통사적 제약 중 바로 이 제약을 가장 중시하는 교재들의 집필 관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잘못된 통사적 정보를 제시한 경우는 선·후

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을 반대로 제시하거나, 과거 시제에서 '-길래'의 선행절에 '-었길래'가 온다고 기술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교재는 바로 한국 측의『선문』이었다. 또한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실현될 수 없다며 선행절의 주어 제약에 관한 기술 오류를 일으킨 교재도 있었는데, 이에는『이화 참고서』와『외대』가 해당된다. 덧붙여『이화 참고서』와『선문』은 선행절에는 2·3인칭 주어가 자주 출현하고, 후행절에는 1인칭 주어가 와야 하는 '-길래' 평서문[1]의 선·후행절 주어 양상을 선·후행절의 비동일 주어 제약으로 잘못 제시한 교재이기도 했다. 그리고 유일하게 통사적 제약을 명시적으로 기술한 중국 측의『標准』에서도 후행절에 과거 시제만을 허용한다고 기술해서 오류를 드러냈다. 이외에도『新編』에서는 '-느라고'의 후행절의 서법 제약을 설명하면서, '-느라고'와 달리 '-길래'의 후행절에는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허용된다며 잘못된 서법 정보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 측과 중국 측 교재에서 모두 '-길래'의 통사적 제약에 대한 기술에서 오류가 나타났다는 문제점이 밝혀졌다. 그런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 측 교재에서 '-길래'에 대한 통사적 제약이나 특성에 대해 제시한 내용이 모두 오류이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앞서 밝힌 것처럼 이 교재들이 한국어 전공 교재라는 점에서 그 문제성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한국 측 교재에서는 13종 중 4종에서 '-길래'가 쓰이는 의문문을 제시한 반면에, 중국 측 교재에서는 3종 중 2종에서 '-길래' 의문문을 제시해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제시 양상을 통해 중국 측 교재에서는 '-길래' 의문문의 사용 경향을 중시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 근거로 특히『新編』에서는 '-길래' 의문문이 많이 쓰인다며 그 사용 빈도를 지적해 밝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韓國語』에서는 예문을 제시할 때 '-길래' 의문문을 먼저 배치함으로써 '-길래' 평서문[1]보다 '-길래' 의문문이 더 자주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는 점도 또 다른 근거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중국 측 교재에서는 '-길래' 의문문의 사용 경향을 제시했을 뿐 '-길래' 의문문에 적용되는 통사적 제약은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한국 측 교재인『경희 2』와『선문』에서는 '-길래' 의문문에서 드러나는 통사적 제약을 기술해 차이를 보였다. 전자에서는 '-길래' 의문문의 의문사 수반 제약을, 후자에서는 '-길래' 의문문이 '-길래' 평서문[1]과 달리 선·후행절의 비동일 주어 제약이나 후행절의 서술어 제약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길래' 의문문에

서도 '-길래' 평서문[1]과 마찬가지로 후행절에 미래 시제가 올 수 없다는 제약이나 후행절의 주어로는 보통 2·3인칭 주어가 오게 된다는 경향에 대한 기술은 어느 교재에서도 확인된 바가 없었다.

다섯째, 한국 측이나 중국 측의 그 어느 교재에서도 '-길래'가 담화 맥락에 따라 드러내는 담화적 의미 기능이나 화자가 발생한 사건을 지각한 후에 그 사건에 대한 이유를 추측하는 '-길래' 평서문[2]를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양측 교재를 대상으로 분석의 기준으로 제시한 7개의 항목을 모두 기술하고 있는 교재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 한국 측 교재와 중국 측 교재에서 '-길래'에 관해 어떤 항목을 어떻게 제시했는지를 비교 및 대조의 과정을 통해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확인되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은 양측에서 모두 '-길래'가 가지는 '지각'이라는 의미와 그와 관련된 주어 인칭 제약이라는 통사적 제약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비록 선행절의 주어 제약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의미 설명 방식은 학습자로 하여금 논리적으로 그리고 수월하게 그와 연관된 통사적 특성을 이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측 교재에서 확인된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길래'의 담화적 의미 기능 및 '-길래' 평서문[2]를 양측의 모든 교재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둘째, '-길래'가 가지는 통사적 제약을 모두 다룬 교재는 없었다.

셋째, '-길래' 의문문에 적용되는 후행절의 시제 제약이나 후행절에 보통 2·3인칭 주어가 온다는 후행절의 주어 인칭 경향을 기술한 교재는 없었다.

넷째, '-길래'가 '자각'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와야 한다는 제약을 제시한 교재는 없었다.

다섯째, '-길래'의 '-더-', 추측의 '-을 것이-', '의지 문법 표현'과의 결합 불가 제약을 제시한 교재는 없었다.

여섯째, '-길래'의 화용 정보나 통사적 제약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시한 교재가 있었다.

위와 같은 6가지의 부정적인 분석 결과는 학습자로 하여금 '-길래'를 사용해 제한적인 발화만을 하게 하거나 발화 시 심각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5장의 연구 목적은 시작에서도 밝힌 것처럼 학습자들이 '-길래'의 사용에서 일으키는 오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길래'에 대한 미학습 혹은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이 추정의 타당성을 밝히기 위해서 교재에서의 '-길래'의 제시 여부와 '-길래'를 제시하고 있다면 어떻게 어디까지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길래'의 제시 양상에 대한 분석이 그 목적이 된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한국어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필자가 이유로 추측한 내용의 타당성을 밝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교재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 측과 중국 측의 총 16종의 교재를 분석한 결과 그 어떤 교재에서도 본고가 분석 기준으로 설정한 7개의 항목에 해당하는 '-길래'가 가지는 모든 제약 및 특성을 다루고 있지 않았고, 심지어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교재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고가 학습자들이 '-길래'의 사용 오류를 일으키는 이유로 본 '-길래'가 가지는 특성에 대한 미학습이나 그 특성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는 추정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되는 결과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익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는 교재에는 기술되는 문법 항목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이 필요한 모든 특성이 올바르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재를 통해 직접적인 기술이든 아니면 연습 문제나 과제 등을 활용한 간접적인 제시이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길래'가 가지는 모든 특성 및 그에 관한 정보를 올바르게 제시해야 한다. 하나 더 지적할 점은 교재를 통해 제시되는 '-길래'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엄격한 검증을 통해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재에서 이와 같은 제시가 이루어진다면 학습자들은 '-길래'에 대한 정확한 특성을 완벽하게 숙지하게 되어 필요한 담화 상황에서 적합하게 그를 사용해 자신의 발화 의도를 유창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필자는 학습자의 '-길래'의 정확하고 유창한 사용에 도움이 되는 '-길래'에 대한 바람직한 제시 모형을 바로 6장에서 이어 제안하고자 한다.

# Ⅵ. ‘-길래’ 관련 문법 활용 교재 구성

앞서 4장에서 학습자 자료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길래’를 사용할 때 오류를 일으키는 경향이 심각하며, 그 오류 양상도 다양하다는 분석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이에 5장에서는 학습자들이 이렇게 오류를 일으키는 이유를 ‘-길래’의 의미적 그리고 통사적 특성을 충분하게 그리고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로 한국 측과 중국 측의 교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예상대로 양측의 교재에서 ‘-길래’가 가지는 특성을 모두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교재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필자는 이 장에서 중국인 학습자를 고려한 ‘-길래’의 바람직한 제시 방안으로 ‘문법 활용을 위한 교재’를 제안하려고 한다. 본고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문법 활용을 위한 교재’는 ‘-길래’의 의미 및 통사적 특성, 그리고 담화적 기능 등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적절한 사용을 익히는 문법 중심 교재 및 자료집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길래’처럼 의미에 따라 통사적 제약이 변칙적으로 적용되고, 상황별 다른 담화적 의미를 드러내는 문법 항목을 습득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하지만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길래’의 이해에 필요한 ‘-길래’에 대한 학습 정보를 기존 교재들에서는 대부분 부분적으로만 제시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다루어져야 할 ‘-길래’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다양한 연습 유형을 제안하는 학습 자료를 교재 모형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교재 모형은 실제 문법 수업에서 교육 현장 여건이나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이러한 형태의 교재 모형의 필요성은『Korean Grammer in Use』등의 문법서가 출간된 사실이 그 근거가 된다. 이 문법서는 학습자나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재와 달리 문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그에 대한 연습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문법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학습자의 입장이나 문법 항목 교수에 필요한 교수 자료를 준비하는 교사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길래’처럼 난이도로 인해 학습자가 부담스러워하는 문법 항목의 경우 이해에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형식의 교재가 더욱 유의미하고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본고에서 이와 유사한 형식의 교재 모형을 제안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한편 그 대상을 중국인 학습자로 선정한 이유는 대학 진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길래'의 사용에 있어서도 사용 빈도만큼이나 오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281].

이때 '-길래'의 제시에 관한 교재 모형 제안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앞서 5장에서 주장했던 바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길래'에 관한 모든 특성을 다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거론되는 '-길래'에 대한 특성은 앞서 3장에서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 교수해야 할 '-길래'의 학습 정보로 선별해 제시했던 내용이 된다. 또한 이와 같이 학습되어야 할 '-길래'의 특성을 모두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은 제안되는 교재의 대상이 되는 중국인 학습자가 4장에서 확인된 것처럼 '-길래'의 의미, 통사적 제약 그리고 화용적 기능 등 '-길래'와 관련된 모든 방면에서 오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도 그 타당성이 입증된다. 이와 관련해 이정희(2003: 286)에서도 '-길래'로 모의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습자들이 모두 '-길래'를 어려워하는 걸로 조사되었는데,[282] 수업 후에 다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길래'의 통사적 제약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업 중 진행한 게임보다 '-길래'에 대한 교사의 직접적인 설명이 더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를 보더라도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은 목표 문법 항목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누차 강조했던 바대로 교실 안에서의 교사의 역량에 기대어 '-길래'를 제시하는 방식은 예상 외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즉 교사의 이해 정도에 따라 학습자의 이해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특히 그로 인해 학습자의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역량에 기댄 방식보다는 학습자들에게 교재를 통해 체계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교재에서 '-길래'에 관한

281) 본고의 4장에서 국립국어원의 학습자 말뭉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길래'를 사용한 학습자의 52.6%가 중국인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들이 일으킨 오류율도 전체 용례 수의 45.3%로 가장 높았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가 쓴 '-길래' 구문 총 49개에서 오류 없이 정확하게 쓴 문장은 5개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중국인 학습자의 89.79%가 '-길래'를 잘못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282) 이정희(2003: 286)에 따르면 설문 조사 대상자 총 17명의 '-길래'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어렵다'고 대답한 학습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금 어렵다'고 대답한 학습자가 3명 그리고 '아주 어렵다'고 대답한 학습자가 1명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모든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길래' 평서문[1]과 '-길래' 의문문에서 나타나는 '-길래'의 의미와 대표적 통사적 제약, 결합 정보, 화용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이외의 담화적 기능[283] 등의 특성들은 예문이나 연습, 활동 등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택하고자 한다.

# 1. 교재 구성의 개요

## 1.1. 제시 급수와 교재 구성 이론

'-길래'는 2장과 3장을 통해 논의된 것처럼 '지각' 및 '자각'이라는 의미의 발현 여부에 따라 선행절에 적용되는 주어 인칭 제약 및 서술어 제약의 존재 여부가 결정되고, '지각'과 '자각' 중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에 따라 선행절에 적용되는 주어 및 서술어 제약이 달라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후행절의 의미에 따라 주어 및 서술어 제약의 존재 여부가 달라지며, 담화 상황에서 맥락상 화자의 다양한 발화 의도를 전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문맥 및 담화 맥락에 따라 드러나는 다양한 의미와 복잡하게 적용되는 통사적 제약을 근거로 하면, '-길래'는 중급 단계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수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는 4급 이상에서 '-길래'를 제시할 것을 제안하는 바다. 상황에 따라 드러나는 '-길래'의 '지각' 및 '자각'의 의미와 그에 관계된 통사적 제약에 대한 난이도를 고려할 때, '-길래'와 유사한 통사적 특성을 보이는 '-더-'가 쓰인 표현들의 제시 급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된다. 즉 선어말어미 '-더-'와 결합한 문법 표현들이 5장에서 분석한 교재들에서는 주로 '-길래'보다 앞서 3급 후반이나 4급 초반에 제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데[284], 이는 두 문법 표현의 유사성과 난이도를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는 것이다. '-더-'도 역시 '-길래'와 마찬가지로 '화자의 직접 지각'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길래'와 유사한 통사적 특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난이도 측면에서 문맥상 나타내는 의미가 다르고 그에 따라 통사적 제약의 차이를

283) 이지선(2021: 240)에서는 '-길래'의 대표적 담화적 기능을 '변명', '핀잔', '비난'의 3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284) 앞서 5장에서 '-길래'를 제시한 한국에서 출간된 13종의 교재를 분석한 결과 3급 후반에서 '-더니'를 제시한 교재는 4종, 그리고 4급에서 제시한 교재는 9종이었다.

보이는 ‘-길래’보다 ‘-더-’가 학습이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길래’를 제시한 13종의 한국에서 발간된 교재 중 12종의 교재가 바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더니’ 혹은 ‘-더라고(요)’ 류의 표현을 ‘-길래’에 앞서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더니’ 류의 표현을 통해 ‘지각’의 양태적 의미 속성과 그에 연관된 통사적 특성을 익힌 후에 흡사하지만 더 복잡한 통사적 특징을 가진 ‘-길래’를 제시해 학습자가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길래’를 학습하도록 하려는 목적에 의한 배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길래’를 ‘-더니’ 류의 표현 이후에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데 가장 적절한 급은 4급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김강희(2019: 348-350)의 논의도 그 근거의 하나가 되는데, 그는 ‘사용 빈도’, ‘교재 및 사전에서 다루어지는 중복도’, ‘현 교재에서 제시된 급수’, ‘의미 및 기능의 분화와 복잡도’를 기준으로 삼고 인과 관계 연결 표현의 제시 순서를 제안한 바 있다. 그 결과로 ‘-길래’를 중급에서 제시했는데, 그의 이와 같은 제시의 근거는 ‘-길래’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 자질과 복잡한 통사적 제약으로 분석된다. 즉, 김강희(2019: 349)는 ‘-어서’와 같이 객관적이고 사용 제약이 적을수록 초급에서 제시되는 것이 타당[285]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 따르면 ‘-길래’는 비록 구어에서 주로 쓰이는 표현이기는 하나, [+주관적] 인과 관계에 사용되고 사용 제약도 큰 표현이기 때문에 중급 이상에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길래’의 사용 빈도와 문법적 난이도를 고려한다면 중급에서도 후반 단계에 속하는 4급 이상에서 ‘-길래’를 제시하는 것이 합당하다[286]. 그러나 ‘-길래’에 대한 모든 특성을 한꺼번에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인지적 부담감을 줄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즉 4급 이상에서 2번에 나누어 제시가 가능

285)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어서’로 ‘-어서’는 가장 많은 인과 관계 표현과 교체가 가능하고, [+객관성] 자질의 인과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가장 중립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인과 관계 연결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김강희 2019: 349).

286) 그런데 ‘-길래’의 제시 급수에 대해 정종수(2014)는 본고와는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즉 정종수(2014: 284)는 ‘-길래’를 3급에서 교육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 근거로 주어 제약, 서술어 제약, 선어말어미 제약, 문장 유형 제약의 4가지 제약을 기준으로 ‘-길래’의 용이도를 살펴본 결과, ‘‘-더-’결합 불가 제약’과 ‘명령·청유·약속 화행 불가 제약’의 2가지 제약만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길래’ 평서문은 이외에도 ‘주어 제약’ 및 ‘후행절의 서술어 제약’이 존재하며, 또한 의문문에서 판정의문문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질문 화행 불가’의 제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가 제시한 4가지 유형의 제약에 모두 속하는 어려운 인과 연결어미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그의 논의(2014: 281-283)에 근거하면 제약이 4개 이상이고, 그중 1개의 제약 즉 ‘질문 화행 불가’의 제약은 여타 인과 연결어미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등급이 높은 제약에 속하므로 ‘-길래’를 4급 이상의 교육 순서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데, 우선 '-길래'의 사용 빈도가 높아[287] 대표적이라 볼 수 있는 '-길래' 평서문[1]에서의 '-길래'의 의미와 통사적 제약을 제시한다. 그 이후 '-길래'의 담화적 기능의 제시에 중점을 두고 '-길래' 평서문[1]의 '변명'과 '-길래' 의문문의 '비난' 및 '핀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단 '-길래'의 담화적 기능을 제시하기 전에 '-길래' 의문문의 의미 및 통사적 특성 등이 먼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덧붙여 '-길래' 의문문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때 '길래' 평서문[2]를 추가적 표현으로 제시한다. 그 이유는 이 문형이 '-길래' 의문문과 유사한 통사적 특성을 보이면서 출현 빈도가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288]. 이에 따라 '-길래'는 '-더니' 류가 제시된 다음인 4급 이후에 두 번에 걸쳐 나누어 제시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단 나누어 제시하는 시기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4급 초반과 후반이나 중반과 후반 혹은 4급 중반과 5급 초반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시기가 너무 멀지 않은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길래'에 대해 학습한 내용이 학습자의 기억에 남아 있을 때 관련된 내용을 다시 제시하는 것이 습득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급 단계에 해당하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유창성을 중시하는 '의사소통식 교수법[289]'을 도입하여 교재를 설계하려고 한다. 본고에서 제시되는 교재 모형은 '-길래'의 특성을 자세하고 온전하게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둔 문법 교재에 해당한다. 하지만 문법 항목에 대한 학습은 이해의 과정을 거쳐 적절한 사용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교재 모형은 '-길래'의 특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길래'를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래'의 활용까지를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의사소통식 교수

---

287) 본고에서 세종 코퍼스의 말뭉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길래'가 평서문에서 사용된 경우는 총 용례 수의 59.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길래'가 '-길래' 평서문[1]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88) 안주호(1998, 1999ㄱ)에서는 연세대 사전편찬실에서 수집한 말뭉치 자료를 검색해 나온 용례로 7개의 '-길래' 평서문[2]의 '-길래'를 제시한 바 있으나, 본고에서 국립국어원의 말뭉치 자료를 분석한 바로는 '-길래' 평서문[2]의 사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근거로 일어난 상황에 대해 화자가 추측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길래' 구문은 그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89) '의사소통식 교수법'은 실질적인 언어의 의사소통 기능 및 사용에 중점을 두는 교수법으로 언어의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보다는 의사소통을 위한 유창성을 중시한다. 또한 중간언어 이론을 받아들여 학습자가 일으킨 오류를 오류로 보지 않고 목표어의 규칙을 습득해 가는 과정으로 보는데, 특히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가지 언어 기능을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의 통합 과정으로 간주하였다(김재욱 외 2010: 96-103)

법’을 토대로 교재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목표어에 대한 유창성은 담화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자신의 발화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측면은 ‘-길래’의 특성을 고려한 제시에도 잘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길래’는 담화 상황에 따라 화자의 각기 다른 발화 의도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길래’의 특성을 학습자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 교재에 ‘-길래’의 복잡한 통사적인 제약과 다양한 의미, 그리고 담화적 맥락에 따라 달리 수행되는 담화적 기능을 내재화할 수 있는 ‘연습 단계’와 ‘활동 단계’가 포함될 것이다.

## 1.2. ‘-길래’ 제시의 단원 구성

‘-길래’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한 본고의 교재 모형에서 ‘-길래’를 제시할 단원의 제목은 ‘사과와 변명’이다.

［표 50］ 단원 구성

| 사과와 변명 | | | |
|---|---|---|---|
| **도입** | **문법 설명** | **연습** | **활동** |
| 상황제시, 이야기 | ‘-길래’ 평서문[1]<br>‘-길래’ 의문문 | 연습1:<br>‘-길래’ 평서문[1] 선행절 연습 | 듣기:<br>깜짝 생일 파티로 인한 사건에 대한 대화 |
| | | 연습2:<br>‘-길래’ 평서문[1] 후행절 연습 | 말하기:<br>‘비난’과 ‘변명’의 상황별 역할극 |
| | | 연습3:<br>‘변명’의 담화적 기능 연습 | 읽기:<br>멀어진 친구에게 전하는 편지글 |
| | | 연습4:<br>‘-길래’의 통사적 제약 확인 | 쓰기:<br>친구에게 변명하며 사과하는 편지 쓰기 |

‘-길래’를 제시할 단원의 제목을 ‘사과와 변명’으로 설정한 것은 ‘-길래’가 수행하는 담화 상의 의미 기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이다. 즉 5장의 교재

분석에서 밝혀진 것처럼 '-길래' 평서문[1]과 '-길래' 의문문에서 나타나는 문장 단위의 의미에 대해서는 교재에서 다루어지고 있었지만, '-길래'가 담화에서 맥락상 드러내는 의미 기능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제시한 교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안하는 '-길래'의 교재 모형에서는 '-길래'가 4급 이상의 학습자에게 교수되는 문법 항목이라는 점에서, 학습자의 유창한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문장 단위 이상에서 실현되는 '-길래'의 담화적 의미를 제시하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교재의 주제라 할 수 있는 제목 및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습이나 활동이 '-길래'가 가지는 담화적 기능을 이해하고 숙지해서 활용하는 내용으로 단원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본고 교재 모형의 기술 방향에 대해 정미진(2012)과 이준호(2018)의 논의가 타당성을 더해준다. 즉 정미진(2012: 21)에서는 문법 교육도 외국인 학습자의 실제적 언어 사용 능력의 함양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문법 항목의 담화적 의미 기능을 교재에서 직접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준호(2018: 120-121)도 외국인 학습자가 학습한 문법 항목이 실제로 적절하게 발화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지는 의미나 통사적 특성 외에도 어떤 상황에 선택되어 쓰이는가에 관한 화용 정보 및 화용적 의미가 교재에 기술되어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문법 항목이 가지는 담화적 기능의 기술 방식에 대한 틀을 논의하는데 그쳤다면, 본고는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길래'의 제시 단원의 주제를 '변명'의 담화적 기능으로 설정하고 전체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한 교재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문법 항목의 제시에 있어 앞으로의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점은 물론 이와 같은 '-길래'의 확장 기능은 먼저 그의 기본적인 의미를 습득시킨 후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듣기', '말하기' 등의 활동을 하기에 앞서 학습자들이 '-길래'의 의미 및 통사적 제약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충분한 연습이 제시될 것이다. 그 과정 이후에 제시되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가지 활동은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통일성 있게 제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쓰기' 활동 이후에 '자기 평가'를 제시해서 '-길래' 문법 항목의 형태, 의미, 화용적 기능, 담화적 의미 기능 등을 골고루 습득했는지를 학습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재 내용의 제시는 '도입→이야기→'-길

래’ 평서문→‘-길래’ 의문문→연습 1→연습 2→연습 3→연습 4→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도입’에서는 이 단원의 주제를 제시하고,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목표 문법인 ‘-길래’를 노출시키면서 그가 가지는 의미 및 담화적 기능 등을 학습자가 추측하도록 유도한다.

다음으로는 ‘-길래’ 평서문[1]에서의 ‘-길래’의 형태, 의미, 화용 정보, 통사적 제약을 먼저 제시한 후에, ‘-길래’ 의문문에서의 ‘-길래’의 특성을 유사한 내용과 순서로 설명하려고 한다. 그런데 ‘-길래’ 평서문[1]을 의문문보다 먼저 제시하는 이유는 ‘-길래’가 기본적으로 인과 연결어미라는 점과 의문문보다 평서문에서 많이 쓰인다는 사용 빈도[290]를 근거로 한 것이다. 또한 ‘-길래’ 의문문에 앞서 ‘-길래’ 평서문[1]을 제시할 때, 특히 교재에 ‘-길래’의 의미 및 화용 정보, 그리고 통사적 제약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와 관련된 오류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앞서 4장에서 학습자 말뭉치 자료를 대상으로 중국인 학습자가 쓴 ‘-길래’ 구문을 분석한 결과, 주로 5가지 정도의 오류가 확인된 것이다. 그 오류는 바로 ‘-길래’의 화용적 기능과 의미, 그리고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에 적용되는 주어 제약 및 서술어 제약과 시제 제약에 관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 교재가 중국인 학습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오류 발생 경향을 반영해 관련된 ‘-길래’의 특성을 교재에 직접 노출 시켜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제시 순서는 앞서 기술한 바대로 ‘-길래’가 쓰이는 형태 다음으로 ‘-길래’의 의미 및 화용 정보, 그리고 통사적 제약의 순인데, 특히 통사적 제약의 제시 순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오류 빈도 순에 따른다. 즉 후행절의 ‘1인칭 주어 필수 제약’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다음으로 ‘의지적 행동 서술어 필수 제약’과 ‘미래 시제 불가 제약’을 제시하려고 한다.

‘-길래’ 평서문[1]과 ‘-길래’ 의문문의 특성을 제시한 다음에는 4개의 연습을 단계적으로 제시해서 ‘-길래’ 평서문[1]의 의미 및 통사적 제약과 ‘변명’의 담화적 기능을 학습자들이 습득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되는 4개 영역의 활동은 ‘-길래’가 비격식적인 담화 상황에서 화자의 ‘변명’ 및 ‘비난’이나 ‘핀잔’의 발화 의도를 나타내는 기능적 특성을

290) 본고에서 세종 코퍼스의 말뭉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길래’가 평서문에서 사용된 경우는 총 용례 수의 59.7%, 의문문에서 사용된 경우는 40.3%였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보면 ‘-길래’는 의문문보다는 평서문에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인지하고 실질적인 의사소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만 교재에서는 '-길래'의 특성을 모두 다룰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 워크북을 같이 제안하기로 한다. 워크북에서는 '-길래' 평서문[1]과 '-길래' 의문문에서의 '-길래'의 통사적 제약과 의미, 담화적 기능 등을 유의미한 맥락에서 학습자를 연습시킴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관련 내용을 숙지하도록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워크북에서 3개의 문제가 제시되는데, 문제 1·2번은 '-길래' 평서문[1]에 관한 연습이며, 문제 3번은 '-길래' 의문문에 관한 연습이 된다. 이와 같은 워크북의 문제는 학습자들이 교재에서 제시된 4개의 연습 및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바탕이 되는 준비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워크북에서는 이외에도 '부록'의 형식으로 '듣기 지문'과 '모범 답안'이 제시되는데, 모범 답안은 듣기 문제, 연습 문제, 워크북 문제의 답안에 해당된다. 또한 '모범 답안' 이후에는 '문법 설명'을 추가로 제시하려고 한다. 여기에서는 교재에 싣지 못한 '-길래'의 더 확장된 결합 정보 및 그와 관련된 통사적 제약, 통사적 제약의 예외적인 적용의 경우, 이유 추측의 '-길래' 평서문[2], '-길래'가 담화 맥락상 수행하는 담화적 의미 기능 등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특히 이 교재 모형이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문법 설명'에서는 설명 내용을 중국어 번역본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와 같은 교재 모형으로 앞서 제안한 것처럼 '-길래'를 '-길래' 평서문[1]과 '-길래' 의문문을 포함해 '-길래'의 담화적 기능으로 나누어 교수한다면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입→이야기 1→'-길래' 평서문[1]→워크북 문제 1·2→연습 1→연습 2→연습 4

둘째, 이야기 2→'-길래' 의문문→워크북 문제 3→연습 3→듣기→말하기→읽기→쓰기

위에서 먼저 제시된 순서는 '-길래' 평서문[1]의 의미 및 통사적 특성을 익히고 연습하는 과정이다. 다음으로 제시된 순서는 '-길래' 의문문의 의미 및 통사적 특성과 '-길래' 평서문[1]과 '-길래' 의문문에서 나타나는 '-길래'의 담화적 의미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특히 두 번째 제시에서 '워크북 문제 3' 다음에 '연습 3'을 제시한 것은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길래' 평서문[1]의 '변

명'의 기능을 학습하면서 한번 더 '-길래' 평서문[1]에서의 '-길래'의 의미 및 통사적 제약 등을 되짚어 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 2. '-길래' 관련 교재 구성 제안

여기에서는 바로 위에서 논의한 제시 순서에 따라 교재에 구체적으로 기술될 '-길래'의 제시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언급해야 할 점은 앞서 시작에서 밝힌 것처럼 본고에서 제안하는 교재 모형에서는 학습자가 습득하여야 할 '-길래'에 대한 특성을 가능한 모두 제시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1〕 교재에 제시되는 '-길래'의 특성 및 단계

| '-길래'에 대해 제시되는 정보 | 교재 및 워크북 내용 | |
|---|---|---|
| | 제시되는 단계 | 수행되는 '-길래'의 담화적 기능 |
| 결합 정보 | 교재 본문, 예문, 부록의 문법 설명, 워크북 문제 1, 2 | |
| 의미 | 교재 본문 | |
| 통사적 제약 | 교재 본문, 부록의 문법 설명 | |
| | 연습 1, 연습 2, 연습 4 | |
| 담화적 기능 | 연습 3 | 상대방의 추궁에 변명하기 |
| | 워크북 문제 3 | 상대방을 핀잔 및 비난하기 |
| | 듣기 | 변명하기 |
| | 말하기 | 비난과 변명하기 |
| | 쓰기 | 변명하기 |
| | 부록의 문법 설명 | |
| 화용 정보 | 교재 본문<br>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 |
| '-길래' 의문문 | 교재 본문, 말하기 | 상대방을 비난하기 |
| | 워크북 문제 3 | 상대방을 핀잔 및 비난하기 |
| '-길래' 평서문[2] | 부록의 문법 설명<br>읽기 | |

위 표에서 제시한 교재 및 워크북 등에서 다루어질 '-길래'에 대한 정보는 앞서 5장에서 한국 및 중국 측에서 간행된 교재들을 분석한 기준이기도 하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가 아닌 외국인 학습자들은 설명 제시를 통한 학습이 전제되어야만 비로서 해당 문법 표현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 분석 기준을 모두 만족시킨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본고에서 교재 모형을 제안하게 된 만큼 위 7가지의 '-길래'와 관계된 특성을 교재를 통해 모두 제시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이와 같이 7가지로 꼽히는 '-길래'의 특성을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제시할지에 관한 대략적인 구성을 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제시 내용은 앞서 지적한 바대로 3장에서 논의된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 교수되어야 할 '-길래'에 대한 특성이다. 이에 그 자세한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 2.1. '-길래' 평서문[1]의 '-길래'의 결합 정보 제시

결합 정보는 '-길래'가 선행절에서 어떤 품사나 문법 표현과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5장을 통해 살펴본 16종의 교재 중에서 '-길래'에 대한 모든 결합 정보를 제시한 교재는 없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이는 '-길래'의 제한적인 쓰임만을 유도하거나 '-길래'의 결합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본고의 교재 모형에서는 가능한 '-길래'의 모든 결합 형태를 제시하고 학습자에게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길래'의 결합 정보를 교재의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기술하고자 하는데, 이때 '-길래' 평서문[1]에서의 '-길래'의 결합 형태를 먼저 노출시키고, 그 실질적인 활용 형태를 7개의 예문으로 제시할 것이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2] 교재에 제시되는 '-길래' 평서문[1]의 '-길래'의 결합 정보

| 구분 | 교재에서의 제시 내용 | 문법 설명에서의 추가 제시 내용 |
|---|---|---|
| 결합 정보 | V·A-길래, N(이)길래<br>V·A-았/었/였길래, N이었/였길래<br>V·A-다/냐/라/자고 하길래<br>V·A-다/냐/라/자길래 | V·A-겠/(으)시길래<br>V·A-(으)ㄹ 것 같길래<br>V·A-(으)ㄹ 듯하길래 |

| | |
|---|---|
| 예문 | 1) 가: 왜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br>나: 아침 출근 시간이라 길이 막히길래 지하철을 탔어요.<br>2) 가: 왜 그 사람을 차에 태워 준거예요?<br>나: 마침 우리 학교 학생이길래 태우고 온 거예요.<br>3) 다들 잘 먹길래 한 마리 더 주문했어.<br>4) 지나가는데 커피 향이 좋길래 들어왔어.<br>5) 오후에 비가 온다길래 우산을 샀어요.<br>6) 오늘 또 늦었길래 한마디 했어.<br>7) 나가면 쌀쌀하겠길래 카디건을 걸쳤어. |

결합 정보는 'V·A-길래', 'N(이)길래'의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제시한 뒤에 '-길래'가 완료형 선어말어미 및 간접 화법 표현과 결합한 형태를 제시할 것이다. 그 목적은 '-길래'의 선행절의 완료와 연관된 통사적 제약 및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이 이유가 될 때 사용되는 '-길래'의 형태를 학습자들이 익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길래'가 주체 높임과 추측의 선어말어미인 '-(으)시-'와 '-겠-', 그리고 추측의 표현인 '-(으)ㄹ 것 같다'와 '-(으)ㄹ 듯하다'와도 결합할 수 있다는 정보 및 결합 형태를 워크북의 부록 '문법 설명'에서 추가로 설명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연습은 앞선 [표 51]에서 제시된 것처럼 워크북 문제 1번과 2번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워크북 '문제 1'에서의 '-길래'의 결합 연습

**1. 다음 질문에 대해 '-길래'를 사용해서 대답해 보십시오.**

1) 가: 주말에 집에서 쉴 거라더니 여기에 어떻게 왔어요?
나: _____ 같이 왔어요.
(고향 친구가 동행을 부탁하다)

2) 가: 학교 축제에 오기 싫다고 했잖아. 왜 왔어?
나: _____ 왔어.
(문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6) 가: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더니 왜 빈손이야?
나: _____
(그 가게에 갔는데 여름휴가 기간이다)

위에서 제시한 워크북 1번 문제에서는 모두 6개의 문항이 단계별로 제시된다. 구체적으로 1)번과 2)번처럼 'V'나 'A' 그리고 6)번처럼 'N'와 '-길래'를 결합해 쓰는 연습을 시키는 것 이외에도, '-다고 하다'의 간접화법이나 '-을 것 같다' 및 '-고 싶다'의 추측이나 희망의 표현도 제시해 '-길래'의 결합 정보를 확장해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연습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2] 워크북 '문제 2'에서의 '-길래'의 결합 연습

**2. 보기에서 알맞은 내용을 골라 대답을 완성해 보십시오.**

(보기)

| | | |
|---|---|---|
| **비가 올 것 같다** | **폭탄 세일을 하다** | **마침 수업이 끝났다** |
| **친구가 같이 가자고 했다** | **출퇴근 시간에 길이 막히다** | **?** |

1) 가: 바나나를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나: _____.

2) 가: 왜 집에 안 가고 교실에 남아 있는 거예요?
나: _____.

앞선 워크북 1번 문제가 단순히 제시된 문장에 '-길래'를 결합시키는 연습 유형이었다면, 2번 문제는 이에서 더 나아가 학습자 스스로 '보기'에서 질문에 적합한 이유를 찾아 '-길래'를 결합시켜 대답을 완성하는 연습 유형에 해당한다. 즉 질문에 적합한 대답으로 선행절과 후행절을 모두 기술해야 하는 '-길래' 평서문의 확장 연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유형은 '-길래'의 사용 형태에 대한 연습뿐만 아니라 담화 맥락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하게 '-길래'를 사용하도록 하는 훈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통해 '-길래'의 형태·의미·통사적 제약에 대한 연습 및 그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역시 모두 6개의 문항이 제시되는데, '보기'에 선행절로 쓰일 상황을 5개만 제시해서 문항 제시의 차이를 두었다. 즉 앞서 1)~5)번 문항의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길래'의 형태 및 의미, 그리고 통사적 제약 등을 단계적으로 이해한 후에, 마지막 6)번의 답안은 학습자 스스로 후행절의 행동을

초래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서 '-길래'와 결합시켜 써야 하는 것이다.

## 2.2. '-길래' 평서문[1]의 '-길래'의 의미 제시

'-길래'는 평서문에서 다른 인과 연결어미와 구별되는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화자의 의지적인 행동의 이유가 되는 화자가 직접 지각한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5장에서 지적한 대로 '-길래'의 이와 같은 의미를 제대로 기술하고 있는 교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평서문에서 '-길래'가 가지는 '지각'의 의미를 유일하게 잘 포착해 낸 『경희 2』에서도 이 '지각'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화자의 행동이 화자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하는 '-길래'의 교재 모형에서는 '-길래' 평서문[1]에서 전달되는 '-길래'의 의미를 정확히 교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된다.

[표 53] 교재에 제시되는 '-길래' 평서문[1]의 '-길래'의 의미

| 구분 | 교재에서의 제시 내용 | 문법 설명에서의 추가 제시 내용 |
|---|---|---|
| 의미 | '-길래'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적인 행동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나 근거는 말하는 사람이 지각한 상황입니다. | '-길래'는 말하는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먹고, 손으로 만진 후에 순간적으로 알게 된 상황이 말하는 사람이 한 행동이나 하고 있는 행동의 이유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291]. |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는 그로 인한 특유의 통사적 제약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다. 즉 '-길래' 평서문[1]에서 '-길래'는 '화자가 의지적으로 하고 있거나 한 행동을 초래한 이유'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후행절에는 반드시 1인칭 주어가, 그리고 서술어로는 의지적 행동이 와야 하며, 미래 시제가 올 수 없다는 통사적 제약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후행절의 '미래 시제 불가 제약'은 '-길래'가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 사용될 수 없다는 서법 제약에 직접적으

291)'-길래'是指说话的人亲自用眼睛看，用耳朵听，用鼻子闻味道，用嘴吃，用手摸后瞬间才知道的情况，是说话的人做过的行动或者正在做的行动的理由或根据.
위 내용은 '문법 설명'에서 제시되는 '-길래' 평서문[1]에서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에 대한 설명을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부록의 '문법 설명'에서 제시되는 설명은 먼저 한국어로 기술되고 그 아래에 위와 같이 중국어 번역이 이어진다.

로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처럼 '-길래'의 통사적 제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길래'의 의미를 제대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교재 모형에서는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의 의미를 '말하는 사람의 의지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문법 설명'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한 행동이나 하고 있는 행동'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의 설명을 통해 학습자들은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의 주어·서술어·시제와 관련된 의미적 특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길래'의 후행절의 의미 외에도 2장에서 논의한 바대로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은 바로 '화자가 직접 지각한 상황'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교재에서도 '-길래'의 이 '지각'의 의미를 분명히 제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화자가 지각한 상황'이라는 의미는 그로 인해 '-길래'가 가지는 선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화자가 어떤 상황을 지각한 경우에는 보통 선행절에 2·3인칭 주어가 오는 경향이 있지만, 만일 화자가 어떤 상황을 자각했을 때는 선행절의 주어는 1인칭으로 한정되는 것이다. 즉 기분이나 상태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주체는 화자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길래'가 나타내는 가장 타당한 의미로 밝혀진 '지각'이라는 의미를 제시함으로써, 선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의 변칙적인 적용을 논리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한다. 그러므로 '문법 설명'에서 '-길래' 평서문[1]의 선행절이 나타내는 '지각'의 의미를 '말하는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먹고, 손으로 만진 후에 순간적으로 알게 된 상황'이라고 상세하게 제시했다. 이와 같은 '-길래'의 '지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2.3. '-길래' 평서문[1]의 '-길래'의 통사적 제약 제시

바로 앞서 논의한 것처럼 '-길래' 평서문[1]에서 '-길래'는 그 의미로 인해 선·후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과 후행절의 서술어·시제·서법 제약을 가진다. 하지만 앞서 교재 분석을 통해 분석 대상인 16종의 교재 중에서 '-길래'의 통사적 제약을 제시한 교재는 5종에 불과하다는 사실[292]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길

292) 이에 해당하는 교재로는 『고려』, 『외대』, 『선문』, 『이화참고서』, 그리고 『标准』이 있다.

래' 평서문[1]에서의 '-길래'의 통사적 제약을 모두 다루고 있는 교재는 없었으며, 특히 그 어떤 교재에서도 후행절의 시제 제약을 언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선문』에서는 '-었길래'와 선·후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른 유형에 비해 사용 빈도가 높은 '-길래' 평서문[1]의 사용에 있어 학습자의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본 교재 모형에서는 교재와 '문법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길래' 평서문[1]의 통사적 제약을 제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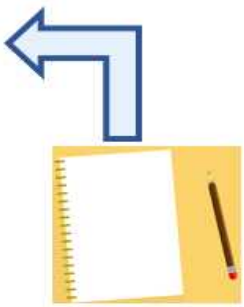
[그림 3] 교재에 제시되는 '-길래'의 통사적 제약

**1. 뒤 문장의 주어는 꼭 1인칭.**
예)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떠들길래 내가 주의를 줬어.

**2. 뒤 문장에 의지적 행동이 와야 함.**
예) 1) 네가 감기에 걸렸다길래 이 약을 샀어. (o)
2) 네가 감기에 걸렸다길래 내 마음이 아파. (x)

**3. 뒤 문장에는 미래가 올 수 없음.**
※ 주로 과거 시제가 많이 옴.
예) 가: 백화점에 가서 왜 그냥 왔어요?
나: 사람이 너무 많길래 그냥 왔어요.

**4. 명령형, 청유형은 올 수 없음.**
예) 1) 양말이 싸길래 많이 샀어요. (o)
2) 양말이 싸길래 많이 사세요. (x)
3) 양말이 싸길래 많이 살까요? (x)



[그림 4] '문법 설명'에서 추가 제시되는 '-길래'의 통사적 제약

1) 보통 앞 문장의 주어는 2인칭이나 3인칭이 옵니다[293].

예문)
-지나가는데 꽃이 예쁘길래 한 송이 샀어요.
-찌개가 짜길래 물을 더 넣었어.

2) 만일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 느끼거나 자신의 행동을 깨달아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앞 문장에 오면 앞 문장의 주어는 꼭 1인칭이어야 합니다[294].

예문)
-**(나는)** 어제 좀 피곤하길래 일찍 잤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길래 그냥 아무거나 썼어요.
-가: 손에 든 쇼핑백은 뭐예요?

나: **(내가)**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길래 근처에서 쇼핑 좀 했어요.

3)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태나 기분을 지각한 것이 화자의 행동의 이유가 될 때, '-길래' 앞의 서술어는 'A-아/어/여하길래'나 'A-아/어/여 보이길래'로 이야기해야 합니다[295].

☑ 친구가 피곤하길래 먼저 가라고 했어요. (X)
친구가 피곤해하길래 먼저 가라고 했어요. (O)

4) '-길래'의 앞 문장의 상황이 뒤 문장의 상황보다 먼저 끝났을 때에는 앞 문장의 '-길래' 앞에 꼭 '-았/었/였-'을 써야 합니다[296].

☑ 동생이 감기에 걸리길래 병원에 데리고 갔어. (X)
동생이 감기에 걸렸길래 병원에 데리고 갔어. (O)

5) 추측의 '-(으)ㄹ 것이다'와 회상의 '-더-', 그리고 의지의 '-(으)ㄹ 것이다' 및 '-겠-'은 '-길래' 앞에 올 수 없습니다[297].

| | | |
|---|---|---|
| ☑ -겠- | 이따가 비가 오겠길래 우산을 샀어요. | (O) |
| -(으)ㄹ 듯하다 | 이따가 비가 올 듯하길래 우산을 샀어요. | (O) |
| -(으)ㄹ 것 같다 | 이따가 비가 올 것 같길래 우산을 샀어요 | (O) |
| -(으)ㄹ 것이다 | 이따가 비가 올 거길래 우산을 샀어요. | (X) |
| -더- | 차가 밀리더길래 그냥 걸어서 왔어요. | (X) |

6) '-길래'의 뒤 문장에는 미래 시제가 올 수 없지만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말하는 'V-(으)려고 하다'는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위의 '-아/어/여야 하다'나 희망을 말하는 '-고 싶다'는 뒤 문장에 올 수 없습니다[298].

| | | |
|---|---|---|
| ☑ -(으)려고 하다 | 마셔 봤더니 너무 뜨겁길래 이따가 마시려고 해요. | (O) |
| -겠다 | 마셔 봤더니 너무 뜨겁길래 이따가 마시겠어요. | (X) |
| -아/어/여야 하다 | 마셔 봤더니 너무 뜨겁길래 이따가 마셔야 해요. | (X) |
| -고 싶다 | 맛있길래 내일 또 먹고 싶어요. | (X) |

293) 一般前句的主语是第2人称或者第3人称.

294)如果前句的谓语是说话的人自己感受到或新领悟到自己的行动的事实，那么前句的主语必须使用第1人称.

295) 说话人感知到别人的状态或心情成为说话的人行动的理由时，前句的谓语应该用 'A-아/어/여하길래'或者'A-아/어/여 보이길래'.

296)在一句话中'-길래'前已经产生的结果与'-길래'后的情况连接时,前面句子中'-길래'的前面一定要写'-았/었/였-'.

297) '-길래'的前面不能使用推测的'-(으)ㄹ 것이다'和回忆的'-더-'以及意志的'-(으)ㄹ 것이다'和'-겠-'.

298) '-길래'后面的句子中不能使用未来时态，但是可以使用说话人的意图 'V-(으)려고 하다'. 但是后面句子中不能使用必须做的'-아/어/여야 하다'或希望说的'-고 싶다'.

위에 제시된 '-길래' 평서문[1]에 적용되는 4가지 유형의 통사적 제약 중에서 그 첫 번째에 속하는 '주어 인칭 제약'에 대해서는 앞서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의 제시에서 논의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다시 다루지 않고 바로 후행절에 관한 제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길래'의 후행절에는 화자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행위가 오기 때문에 서술어로는 화자의 의지로 선택한 행동이 와야 하고 더불어 미래 시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미래 시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청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형이나 청유형도 후행절에는 올 수 없다. 이 중에서 후행절에 적용되는 4가지 제약을 본 교재에서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림 3]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후행절의 1인칭 주어 필수 제약, 의지적 행동 서술어 필수 제약, 미래 시제 및 명령형·청유형 불가 제약이다. 특히 이 제약 중 후행절의 주어·서술어·시제 제약은 본 교재의 대상이 되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오류 경향을 반영한 제시 내용 및 순서이기도 하다는 점을 재차 밝힌다. 이외에 '-길래'가 '자각'의 의미를 가질 때 적용되는 선행절의 1인칭 주어 필수 제약과 '지각'의 의미를 가질 때 선행절에 2·3인칭 주어가 오는 경향이 있다는 특성 및 다른 사람의 상태나 기분을 지각했을 때는 통사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등은 [그림 4]와 같이 '문법 설명'에서 추가로 설명을 진행하려고 한다. 또한 완료형 선어말어미 사용에 관련된 내용 및 미래 시제에 해당하는 'V-(으)려고 하다'가 후행절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황, 그리고 '-길래'가 선어말어미 '-더-', 추측의 문법 표현 '-을 것이-' 및 의지를 나타내는 문법 표현과 결합할 수 없다는 제약 등에 관련된 설명도 부록의 '문법 설명'에서 같이 다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특히 선행절의 이 결합 불가 제약은 후행절의 '미래 시제 불가 제약'과 마찬가지로 '-길래'가 쓰인 모든 문장에 적용되는 공통 제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재 분석 결과 이 제약을 제시한 교재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이 문제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본 교재 모형에서는 이 결합 불가 제약을 밝혀 기술하고자 한다.

교재에서의 제시에 이어 학습자가 '-길래'의 통사적 제약을 숙지할 수 있도록 연습 1과 2, 그리고 연습 4를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길래' 평서문[1]의 '-길래'의 통사적 제약을 연습시킬 것이다. 우선 연습 1, 2의 제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연습 1'에서의 '-길래' 평서문[1]의 통사적 제약 연습

연습 1 다음 질문에 어울리는 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보기

질문 예)
왜 이렇게
사과를
많이 샀어요?

대답 예)
너무 싸게 팔길래
샀어요.

1)

더운데 왜 뛰어
왔어요?

우선 '연습 1'은 질문에 '왜'라는 의문사를 사용해서 '-길래'를 통해 대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길래'의 인과 연결어미라는 기본적 의미 기능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길래' 평서문의 선행절 연습을 목표로 두고 있다. '연습 1'은 그림을 보고 '-길래' 앞의 선행절을 만들어 대답하면 되는 유형으로, 후행절의 문장은 질문 문장의 후행절을 인용하면 쉽게 완성할 수 있다. 이 연습을 통해 학습자는 후행절의 주어·서술어·시제 제약 및 선행절에 2·3인칭 주어가 오는 경향을 학습하게 된다. 다만 단계적으로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5개의 문항에서 1)~3)번에서는 선행절이 될 내용을 그림으로 제시한 반면, 4)번과 5)번은 학습자가 스스로 후행절 상황에 적합한 선행절의 내용을 구성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연습 2'는 '-길래'의 '화자의 지각으로 인한 행동'이라는 의미를 익히는 동시에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 연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림 6] '연습 2'에서의 '-길래' 평서문[1]의 통사적 제약 연습

연습 2 과거에 다음의 상황을 보고 듣고 어떻게 했어요?

보기 두 사람이 화를 내며 싸우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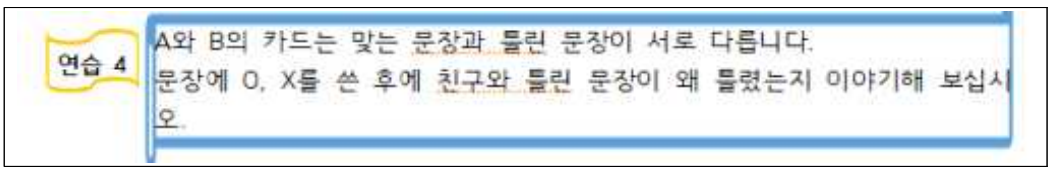
예) 두 사람이 싸우길래 저는 그들을 말렸어요.

| | | |
|---|---|---|
| 1) | 친구 2명과 같이<br>떡볶이를 먹으려고 사 왔는데<br>한 친구가 잠을 자고 있는 상황 | |

위 ‘연습 2’는 ‘(당신은) 과거에 다음의 상황을 보고 듣고 어떻게 했어요?’라는 질문에 주어진 6개의 상황을 ‘-길래’의 선행절로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한 행동을 학습자 스스로 만들도록 하는 문제 유형이다. 이 연습은 ‘-길래’로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길래’가 가지는 ‘지각’이라는 양태적 의미 및 그에 관계된 통사적 제약, 그리고 후행절의 의미와 그로 인한 통사적 제약을 습득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다음으로 제시되는 연습 4번은 짝 활동으로 학습한 ‘-길래’의 통사적 제약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유형이다. 이 연습에서는 ‘-길래’가 쓰인 문장이 A와 B로 나누어져 각각 10개씩 제시된다. 이때 A와 B에 제시되는 10개의 문장들은 각각 쌍을 이루는 것으로, 그 1쌍의 문장들은 기술된 내용은 같지만 통사적으로는 각각 정문과 비문에 해당한다. 즉 ‘-길래’의 통사적 제약을 준수한 문장과 제약에서 벗어난 문장을 교차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습은 우선 학생들 스스로 정문과 비문을 가려내도록 한 후에 문장의 비교를 통해 비문이 어떤 오류를 일으켰는지를 토론을 통해 찾아내도록 하는 활동이 된다.
이와 같은 활동은 학습자로 하여금 앞서 연습 문제 등을 통해 익힌 ‘-길래’의 통사적 특성을 스스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과정은 학습자가 ‘-길래’의 통사적 특성을 완전히 숙지하는 동시에 더 오래 기억하도록 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

[그림 7] ‘연습 4’에서의 ‘-길래’ 평서문[1]의 통사적 제약 연습



| A | | |
|---|---|---|
| 1 | 빙빙이 부르길래 저도 따라 부른 거예요. | |
| 2 | 소나기가 내리길래 그칠 때까지 기다릴까요? | |
| 3 | 친구가 감기에 걸렸길래 약을 사다 줬어요. | |
| 4 | 동생이 20분이나 늦게 도착하길래 그 이유를 물었어요. | |
| 5 | 그 수업이 재미있다길래 신청하기로 했어요. | |
| 6 | 내가 농구하고 있길래 민수가 같이 하자고 했어. | |
| 7 | 눈이 많이 오길래 데리러 가려고 해요. | O |
| 8 | 다들 너무 잘 먹길래 더 주문하겠어요. | |
| 9 | 후배가 피곤하길래 일찍 자라고 했어요. | X |
| 10 | 고향 친구가 서울에 온다길래 서울 여행 일정을 짰어요. | |

| B | | |
|---|---|---|
| 1 | 동생이 20분이나 늦게 도착했길래 그 이유를 물었어요. | |
| 2 | 친구가 감기에 걸렸길래 마음이 아팠어요. | |
| 3 | 민수가 농구하고 있길래 내가 같이 하자고 했어. | |
| 4 | 눈이 많이 오길래 데리러 가야 해요. | X |
| 5 | 피곤하길래 일찍 잤어요. | O |
| 6 | 소나기가 내리길래 그칠 때까지 기다렸어요. | |
| 7 | 빙빙이 부르길래 마이클도 따라 부른 거예요. | |
| 8 | 그 수업이 재미있다길래 신청할 거예요. | |
| 9 | 고향 친구가 서울에 온다길래 서울 여행 일정을 짜세요. | |
| 10 | 다들 너무 잘 먹길래 더 주문했어요. | |

덧붙여 한 가지 더 언급해야 할 점은 이 연습 문제에서 제시되는 '-길래'의 통사적 제약에 대해서이다. 이 연습 활동의 목적은 학습자의 '-길래'의 통사적 제약에 대한 이해도의 확인 및 재제시에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길래'의 통사적 제약을 골고루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을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연습 4'에서는 선·후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 후행절의 서술어·시제·서법 제약 및 완료형 선어말어미 사용에 관련된 통사적 규칙을 확인하는 문장을 제시했다. 여기에서 밝혀 둘 것은 특히 다른 통사적 제약에 비해 후행절의 '1인칭 주어 필수 제약' 및 '의지적 행동 서술어 필수 제약', 그리고 후행절의 '미래 시제 불가 제약'의 3가지 통사적 제약과 관련된 문장을 더 다루어서 각각 2개씩 기술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해당하는 문장은 위에서 제시한 '연습 4'의 'A1/B7'과 'A6/B3', 'A3/B2'와 'A7/B4', 그리고 'A5/B8'과 'A8/B10'이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서 이 제약들과 관련된 오류를 일으키는 경향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3가지 통사적 제약을 더 많이 제시한 것은 학습자들에게 한 번 더 이 제약들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길래'의 사용에 있어 이와 관련된 학습자들의 정확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또한 하나 더 지적해야 할 것은 3장에서 본고에 의해 밝혀진 '-길래'가 '자각'의 의미를 가질 때 적용되는 선행절의 '1인칭 주어 필수 제약'에 대한 연

습이 ‘A9’와 ‘B5’의 문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 문항을 통해 학습자가 ‘-길래’의 ‘지각’과 ‘자각’의 의미를 분별하고 그와 관련된 주어 인칭 제약을 인지하도록 하려는 의도에 의한 제시이다. 특히 선행절의 ‘1인칭 주어 필수 제약’에 대한 제시 및 연습이 분석한 교재들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본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으므로 이 교재의 모형에서 밝혀 제시했다.

### 2.4.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 제시

‘-길래’의 담화적 기능은 ‘-길래’가 담화에서 수행하는 맥락적 의미, 즉 화자의 발화 의도를 말한다. 그런데 ‘-길래’가 평서문이나 의문문에서 이와 같은 담화 의미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석 대상인 16종의 교재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학습자가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길래’가 필요한 담화 상황에서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교재 모형에서는 ‘-길래’의 대표적인 담화적 의미 기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이지선(2021: 240)에 의해 제시된 ‘변명’, ‘핀잔’ 및 ‘비난’이다. 이에 대한 명시적인 제시는 부록의 문법 설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 담화 의미 기능들과 자주 공기해 쓰이는 표현들도 같이 다루어질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8] ‘문법 설명’에 제시되는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

‘-길래’는 평서문에서 ‘변명’할 때 그리고 의문문에서는 상대방을 ‘핀잔’하거나 ‘비난’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변명할 때는 뒤에 ‘-은/는/인 줄 알았다’ 나 ‘-지’등이 자주 옵니다. 그리고 핀잔하거나 비난할 때는 앞 문장에는 ‘도대체’나 ‘대체’ 그리고 뒤 문장에는 ‘이렇게’나 ‘그렇게’ 등이 자주 옵니다[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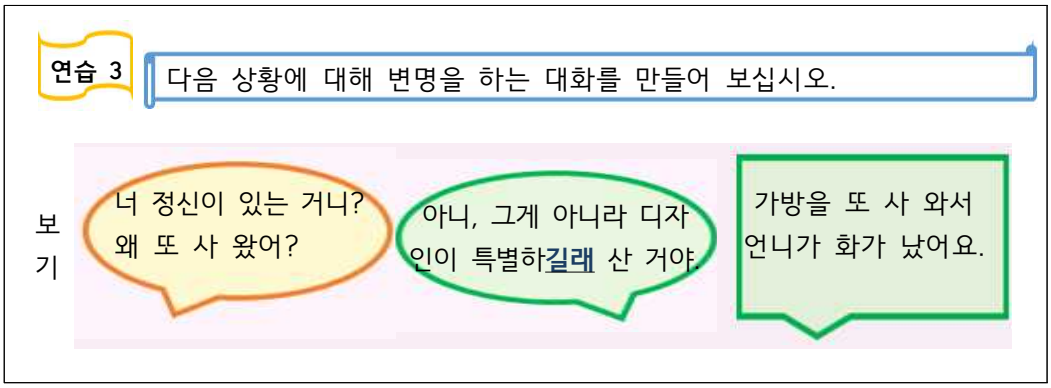
예문)
-가: 뭐야? 청소 또 안 했어?
나: 아니, 별로 더럽지 않길래 내일 하려고 했지.(변명)
-가: 얼마나 바쁘길래 얼굴 보기가 이렇게 힘들어?(핀잔)
나: 미안, 앞으로는 자주 연락할게.
-가: 도대체 집에서 뭐 하길래 아이 성적이 이래?(비난)

나: 그게 내 잘못이에요?

또한 그와 관련된 연습 및 활동은 교재의 '연습 3'과 '말하기', '듣기', '쓰기', 그리고 워크북 '문제 3'을 통해 진행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 '-길래'의 담화적 기능을 학습시키려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즉 '-길래'가 사용되는 담화적 상황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길래'의 담화적 기능에 대한 일방적인 제시의 단계를 넘어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이해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학습자들은 한층 더 효과적으로 '-길래'의 담화적 기능을 이해하고 나아가 이를 담화 상황에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다른 교재와 차별화되는 본고의 교재 모형의 특성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본 교재 모형이 추구하는 집필 의도 및 목적에 부합되는 점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먼저 '연습 3'과 '듣기'에서는 상대방의 추궁에 변명을 하는 담화 상황을 제시해 '-길래'의 '변명'의 담화적 기능을 학습시키려고 한다.

[그림 9] '연습 3'에서의 '-길래'의 담화적 기능 연습




299) '-길래'在陈述句中'辩解'时和在疑问句中'当面斥责'或者'深度指责'对方时经常使用.
辩解时，后面经常出现'-은/는/인 줄 알았다'或'-지'等. 还有，在当面斥责或深度指责的时候，前句经常出现'도대체'或'대체'等,还有后面的句子中经常出现'이렇게'或者'그렇게'等.

위에 제시된 '연습 3'은 '연습 1·2'를 통해 '-길래' 평서문[1]에 나타나는 '-길래'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담화 맥락 속에서 수행되는 '-길래'의 담화 기능 학습에 중점을 둔다. '연습 3'에서 제시된 4개의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연습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이 한 행동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때, 변호의 목적으로 '-길래'를 사용해 행동에 대한 변명을 하는 '-길래'의 담화적 기능을 습득할 수 있다. 그런데 본고의 교재 모형에서는 '-길래'로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어 학습자로 하여금 연습을 통해 스스로 '-길래'의 '변명'의 기능을 인지하게 하는 동시에, 변명을 하라는 지시문을 제시했다. 굳이 지시문에서 '변명'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이유는 이 교재가 문법 교재이므로 학습자에게 활동을 통해 연습되는 '-길래'의 담화적 기능이 '변명'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시는 학습자의 명확한 이해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다.

또한 '듣기'는 연인의 에피소드로 자신의 생일을 모른다고 오해해 남자친구에게 서운해해하는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에게 깜짝 생일 선물을 준비한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여자친구의 원망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길래'로 변명하는 내용의 담화 상황이 제시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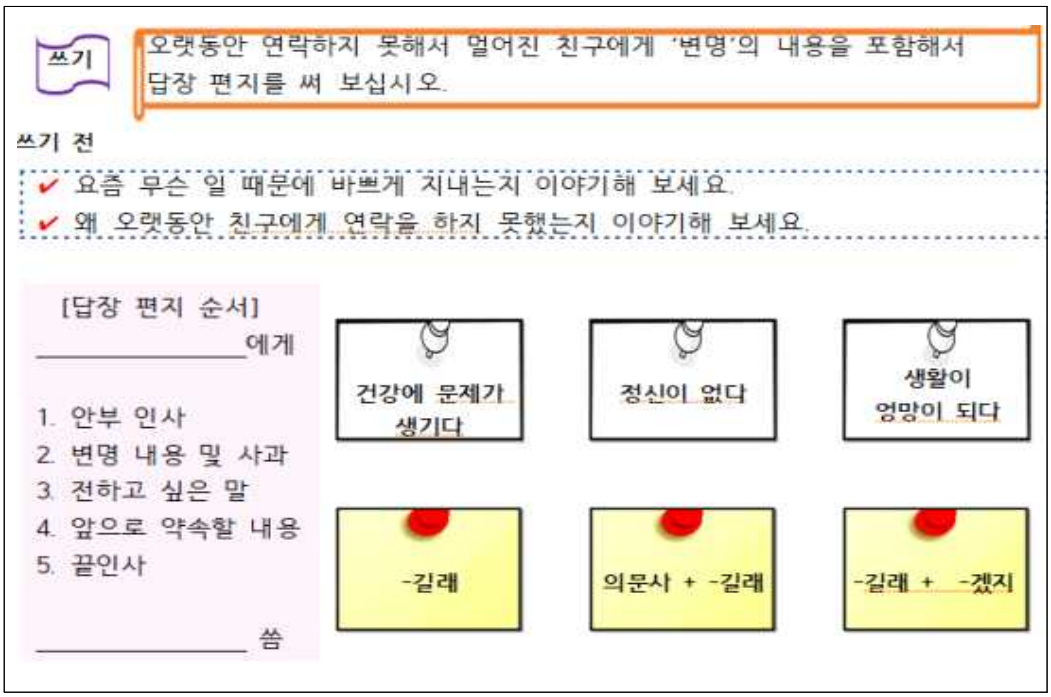
[그림 10] '듣기'에서의 '-길래'의 '변명'의 담화적 기능 제시

여: 뭐야?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진짜 내 생일인 거 몰랐어?
남: 어! 미안해. 요즘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깜빡했어.
여: 정말 실망이야. 네가 그럴 줄 몰랐어. 내 남자친구 맞아?
남: 정말 할 말이 없어. 다 내 기억력 탓이야.

근데 사실은 예전에 네가 겨울에 파티를 하자길래 그때가 생일인 줄 알았어.
여: 무슨 소리야. 네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길래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남: ('서프라이즈 말투로') 짜잔~~
하하. 네가 이렇게 실망할 것 같길래 미리 깜짝 선물을 준비했지.
여: ('기쁨의 감격' 목소리 반응) 어머!
도대체 깜짝 선물이 뭐길래 이렇게 시간을 끌었어?
남: ㅋㅋㅋ... 무슨 선물 같아? 지금 열어 볼래?

그리고 '쓰기'에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편지라는 비격식체의 글을 쓰게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그림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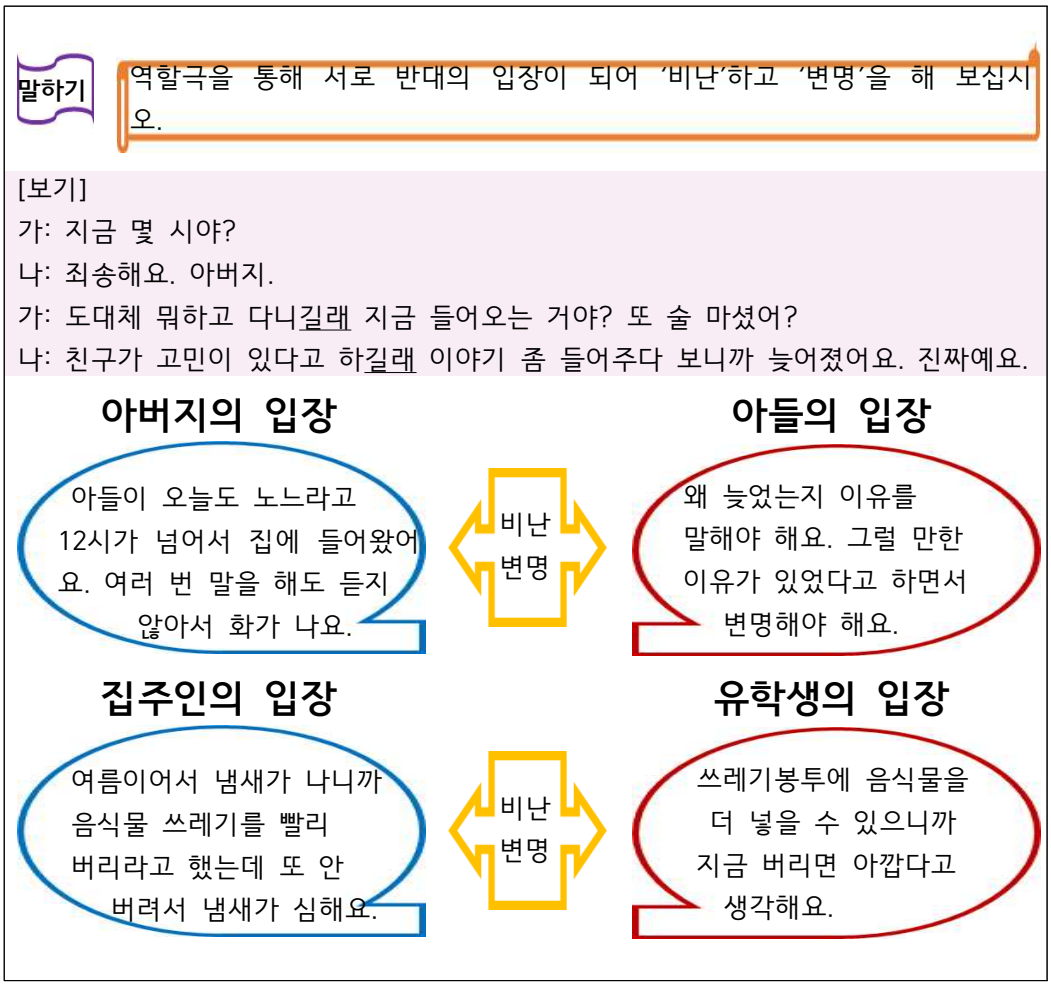
[그림 11] '쓰기'에서의 '-길래'의 '변명'의 담화적 기능 연습




한편 특히 '말하기'에서는 역할극 형태로 서로 반대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난을 들은 상대방은 그에 대해 변명을 하는 활동을 제시할 것이다. 그 목적은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비난'과 '변명'의 담화

적 의미 기능을 동시에 익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림 12] '말하기'에서의 '-길래'의 '비난'과 '변명'의 담화적 기능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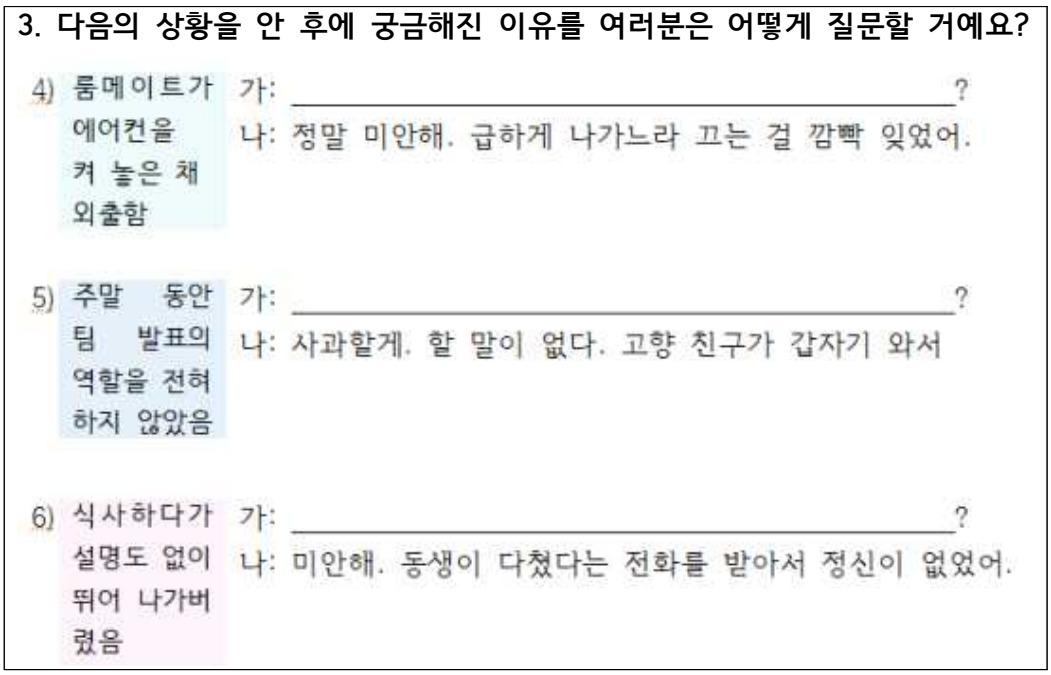



위에 제시된 상황들은 학습자들이 현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말하기'에서는 이와 같은 '실제 의사소통환경'과 유사한 상황들로 '-길래'가 가지는 '비난'과 그에 대한 '변명'의 담화적 기능을 충분히 연습시킨 후에 이어지는 마지막 상황은 학습자 스스로 구성하도록 했다. 그 목적은 친구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 및 상황 속에서의 대화를 학습자가 만들어 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실제 의사소통에서 '-길래'를 통해 자신의 '비난' 및 '변명'의 발화 의도를 전달해 보는 것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

이다.

마지막으로 워크북 '문제 3'을 통해서는 '-길래' 의문문으로 상대방을 핀잔하거나 비난하는 연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문항은 4)~6)번이다.

[그림 13] 워크북 '문제 3'의 '-길래'의 '핀잔' 및 '비난'의 담화적 기능 연습


3. 다음의 상황을 안 후에 궁금해진 이유를 여러분은 어떻게 질문할 거예요?

4) 룸메이트가 에어컨을 켜 놓은 채 외출함
가: _____?
나: 정말 미안해. 급하게 나가느라 끄는 걸 깜빡 잊었어.

5) 주말 동안 팀 발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음
가: _____?
나: 사과할게. 할 말이 없다. 고향 친구가 갑자기 와서

6) 식사하다가 설명도 없이 뛰어 나가버렸음
가: _____?
나: 미안해. 동생이 다쳤다는 전화를 받아서 정신이 없었어.

이 문제는 '-길래'가 쓰이는 의문문에 대한 연습으로 학습자가 문제에서 주어진 6개의 상황을 인지한 후에 그 상황에 대한 의문을 '-길래'를 사용해 질문하도록 하는 연습 유형이다. 앞서 1)~3)번은 '세미 스크립트 채우기' 유형에 해당하는데, 이 문항들을 통해 학습자가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선행절을 완성하는 연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후 단계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문장 전체 채우기' 연습이 진행된다. 그런데 특히 이 4)~6)번의 질문에 해당하는 '-길래' 의문문은 맥락상 상대방을 핀잔하거나 비난하는 '-길래'의 담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연습을 통해 학습자는 '-길래'가 의문문을 통해 '핀잔' 및 '비난'의 담화 의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 2.5. ‘-길래’의 화용 정보 제시

‘-길래’가 비격식체의 구어에 주로 쓰이는 경향성이 있지만 비격식체의 문어에 사용되기도 한다는 ‘-길래’의 화용적 기능을 교재에 직접 명시하려고 한다. 그 목적은 4장에서 밝혀진 것처럼 그 외의 담화 환경에 ‘-길래’를 사용해 일으킨 88%에 가까운 중국인 학습자의 화용적 기능 오류를 바로잡고자 함이다. 뿐만 아니라 분석 대상이었던 한국에서 출간된 13종의 교재에서『고려』,『경희 2』,『성균관 2』의 단 3종에서만 ‘-길래’의 화용 정보를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고려』를 제외한 2종의 교재에서 ‘-길래’가 구어에서만 사용된다며 제시 오류를 일으킨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길래’에 대한 정확한 화용 정보를 본 교재 모형에 제시하려고 한다. 교재에 기술되는 구체적인 ‘-길래’의 화용 정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4] 교재에 제시되는 ‘-길래’의 화용 정보

| |
|---|
| **+ ‘-길래’는 주로 비격식체의 말하기에서 사용합니다.<br>그리고 비격식체의 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재에서의 이와 같은 직접적인 기술 외에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모든 영역의 활동에서 이와 관련된 제시 및 연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즉 이 4가지 영역의 활동이 진행되는 담화적 환경이 모두 비격식적인 상황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듣기’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대화 상황이며, ‘말하기’도 친밀한 관계 및 사적 관계에서의 대화 상황에 해당된다. 또한 ‘읽기’도 편지글이라는 비격식체의 문어 형식으로 제시되고, 이어지는 ‘쓰기’ 활동도 학습자로 하여금 사과의 편지를 쓰게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활동들을 통해 학습자는 ‘-길래’가 사용되는 담화 환경 및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2.6. ‘-길래’ 의문문 제시

앞서 5장에서 진행된 교재 분석의 기준에서 “-길래’ 의문문 제시’는 ‘-길래’

가 의문문에서 쓰일 때 나타내는 의미 및 '-길래'의 결합 형태와 통사적 특성 등을 교재에서 다루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분석 결과 한국 측에서 4종, 그리고 중국 측에서 2종의 교재[300]에서 '-길래' 의문문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경희 2』와 『외대』에서만 '-길래'의 의미를 제시했는데, 그 중 『경희 2』에서만 '-길래' 의문문의 '의문사 수반 필수 제약'을 언급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길래' 의문문도 적지 않은 빈도로 사용된다는 점[301]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본고의 교재 모형에서는 '-길래' 의문문의 의미 및 통사적 특징 그리고 결합 정보 등을 '-길래' 평서문[1]에 이어 그와 유사한 형식으로 상세하게 제시하기로 한다.

우선 의문문의 선행절에서 이루어지는 '-길래'의 결합에 관련된 정보는 교재의 본문과 '문법 설명'에서 제시된다. 교재에서는 의문문에서 '-길래'가 'V' 및 'A', 그리고 'N'와 결합하는 형태를 먼저 노출시키고, 그와 관련된 활용 형태를 6개의 예문으로 바로 이어 제시할 것이다. 또한 '문법 설명'에서는 그 외에 '-길래'가 완료형 및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그리고 간접 화법 표현, 추측의 '-을 것 같-'이나 '-을 듯하-'와 결합한 형태로 결합 정보를 확대 제시하여 그에 대한 학습을 유도하려고 한다.

[표 54] 교재에 제시되는 '-길래' 의문문의 '-길래'의 결합 정보

| 구분 | 교재에서의 제시 내용 | 문법 설명에서의 추가 제시 내용 |
|---|---|---|
| 결합 정보 | 의문사 + V·A-길래, N(이)길래 | 의문사 + V·A-았/었/였길래,<br>N이었/였길래<br>의문사 + V·A-(으)시길래<br>의문사 + V·A-다/냐/라/자고 했길래,<br>의문사+ V·A-(으)ㄹ 것 같길래,<br>V·A-(으)ㄹ 듯하길래 |
| 예문 | 1) 가: 얼마나 아프길래 수업에 안 온 거야?<br>나: 몸살이 심해서 전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야.<br>2) 가: 그동안 내가 어떻게 했길래 다들 날 싫어하는 거지?<br>나: 이번 기회에 스스로 생각해 봐. | |

300) '-길래' 의문문을 부분적으로 다룬 한국에서 출간된 교재는 『경희 2』, 『외대』, 『선문』, 『이화참고서』이며, 중국에서 출간된 교재는 『新编』과 『韩国语』이다.

301) 본고에서 세종 코퍼스의 말뭉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길래'가 의문문에서 사용된 경우는 총 용례 수의 40.3%를 차지해 적지 않은 사용 빈도를 나타냈다.

| | |
|---|---|
| | 3) 어디에 가시길래 이렇게 서두르신대?<br>4) 제출이 언제길래 저렇게 여유로워?<br>5) 반장이 뭘 하자고 했길래 그렇게 짜증을 냈어?<br>6)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연락도 못 한거야? |

또한 '-길래'가 의문문에서 사용되면 '-길래' 평서문[1]과 달리 '화자가 지각한 상황에 대해 의문을 느껴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이유'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교재에 제시되는 의문문에서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그림 15] 교재에 제시되는 '-길래' 의문문의 '-길래'의 의미

| |
|---|
| 말하는 사람이 뒤 문장의 상황을 지각한 후에 의아해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된 이유나 근거를 묻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위와 같은 의미로 인해 의문문에서 '-길래'가 가지는 통사적 제약 및 특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본 교재에서 제시할 것이다. 그 내용은 첫째, '-길래' 의문문에 적용되는 통사적 제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선행절에 의문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길래' 의문문도 '-길래' 평서문[1]과 마찬가지로 후행절에 미래 시제가 올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길래' 평서문[1]과 달리 '-길래' 의문문의 후행절에는 보통 2·3인칭 주어가 오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제약이 아닌데도 이 후행절에 오는 주어에 대한 설명을 본 교재에서 다루고자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앞서 제시한 '-길래' 평서문[1]에서는 후행절에 1인칭 주어만이 허용되지만, '-길래' 의문문은 이와 달리 후행절에 화자가 지각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보통 1인칭 이외의 주어가 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차이를 학습자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길래' 의문문에서의 통사적 제약을 설명할 때 선행절에는 적용되는 주어 인칭 제약이 없다는 점도 학습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설명은 '-길래' 의문문의 후행절에 1인칭 주어가 오는 경우와 같이 '문법 설명'에서 진행하려고 한다. 이외에도 '-길래'가 선어말어미 '-더-', 추측의 문법 표현 '-겠-'이나 '-을 것이-', 그리고 의지를 나타내는 문법 표현과 결합할 수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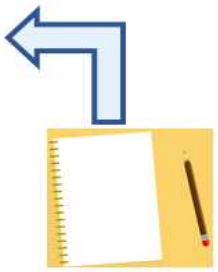
다는 제약을 제시할 것이다. 그런데 이 결합 제약에서 '-길래' 평서문[1]과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길래' 평서문[1]과 달리 '-길래' 의문문에서는 '-길래'가 추측을 나타내는 '-겠-'과도 결합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그림 16] 교재에 제시되는 '-길래' 의문문의 통사적 제약

**1. 뒤 문장의 주어는 보통 2인칭이나 3인칭.**
예) 어떤 면접이길래 네가 양복까지 산다는 거야?

**2. '길래' 앞에 꼭 의문사가 와야 함.**
예) 1) 무슨 사건이길래 다들 뉴스만 보고 있는 거죠?
2) 대체 품질이 어떻길래 바로 환불한 거니?

**3. 뒤 문장에는 미래가 올 수 없음.**
예) 1) 휴가가 언제길래 비행기표를 샀어? (o)
2) 휴가가 언제길래 비행기표를 살 거야? (x)



[그림 17] '문법 설명'에서 추가 제시되는 '-길래' 의문문의 통사적 제약

1. 보통 뒤 문장에는 2인칭 주어나 3인칭 주어가 오게 됩니다. 하지만 앞 문장에는 1인칭, 2인칭, 3인칭의 모든 주어가 올 수 있습니다[302].

예문)

| | |
|---|---|
| 누구 | -초대 손님이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인산인해야? |
| 무엇 | -성적이 대체 무엇이길래 3년 내내 공부에만 매달려야 하는 걸까? |
| 언제 | -소개팅이 언제길래 옷을 산다고 야단이니? |
| 어디 | -도대체 어디에 가길래 이렇게 새벽에 출발하는 거예요? |
| 어떻다 | -내가 대체 어떻길래 다들 나를 무서워하는 거야? |
| 어느+N |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길래 이렇게 다들 쉬쉬해? |
| 얼마나 | -얼마나 싸길래 그렇게 잔뜩 사 온 건지 궁금하다. |

2. 만일 뒤 문장에 말하는 사람이 느끼거나 자신의 행동을 깨닫게 된 상황이 오면 뒤 문장의 주어는 1인칭이 오게 됩니다[303].

| | |
|---|---|
| 뭐 | 예) 이별이 뭐길래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걸까? |
| 무슨+N | 예) 어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가** 너희 집에 있는 거야? |

3. 추측 및 의지를 나타내는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회상을 나타내는 '-더-'는 '-길래' 앞에 올 수 없습니다[304].

| | | | |
|---|---|---|---|
| ☑ | -(으)ㄹ 것 같다 | 성적이 얼마나 나쁠 것 같길래 이렇게 울상이야? | (O) |
| | -겠- | 성적이 얼마나 나쁘겠길래 이렇게 울상이야? | (X) |

| | | |
|---|---|---|
| -(으)ㄹ 것이다 | 성적이 얼마나 나쁠 거길래 이렇게 울상이야? | (X) |
| -더- | 성적이 얼마나 나쁘더길래 이렇게 울상이야? | (X) |

위와 같은 교재 및 '문법 설명'에서의 제시에 이어 워크북의 '문제 3'을 통해서 '-길래' 의문문의 통사적 제약 및 특징을 학습시키려고 한다. 또한 이 문제로 맥락상에서 나타나는 '핀잔' 및 '비난'의 담화적 의미까지 제시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습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길래'가 의문문을 통해 수행하는 담화적 기능의 하나인 '비난'에 대해 '말하기'에서 진행되는 연습은 앞서 담화적 의미 기능에서 살펴본 바 있다. 또한 '-길래' 의문문이 나타내는 '핀잔' 및 '비난'과 관련된 워크북 '문제 3'의 4)~6)의 문항도 앞서 같이 제시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1)~3)의 문항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로 한다.

[그림 18] 워크북 '문제 3'의 '-길래' 의문문 연습

**3. 다음의 상황을 안 후에 궁금해진 이유를 여러분은 어떻게 질문할 거예요?**

1)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음
가: _____길래 병원에 입원한 거야?
나: 맹장 수술했어. 지금은 괜찮아.

2) 반 친구가 갑자기 고향에 돌아가게 됨
가: _____길래 이렇게 갑자기 가는 거야?
나: 집에 일이 좀 있어서. 해결되면 다시 올 거야.

3) 축제 기간에 운동장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음
가: _____길래 이렇게 많이 모인 거야?
나: 너 몰라? BTX가 온대.

302)后面的句子主语一般使用第2人称或第3人称.但是前面的句子中可以用所有的第1人称，第2人称，第3人称当作主语.
303)如果后面句子中出現說話人感受到或領悟到自己的行動的情況下，后面的句子主語須使用第1人称.
304) '-길래'的前面不能使用表示推测及意志的'-겠-'和'-(으)ㄹ 것이다'以及表示回憶的'-더-'.

위에 제시한 워크북 '문제 3'의 1)~3)의 문항은 '-길래' 의문문의 의미와 통사적 특성을 익히는 유형에 해당한다. 학습자는 문제를 읽으면서 각 문항에 주어진 상황이 후행절에 위치하고 비어있는 선행절에서 '-길래'로 후행절을 초래한 이유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 즉 문제를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의 질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화자가 일어난 상황을 지각한 후에 그 이유가 궁금해져서 하는 질문'이라는 '-길래' 의문문의 의미 및 관련된 통사적 특징을 확인 및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 2.7. '-길래' 평서문[2] 제시

'-길래'는 화자가 지각한 상황에 대해 그 이유를 추측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하지만 앞서 5장에서 밝힌 것처럼 본고에서 분석한 '-길래'를 제시한 모든 교재에서는 이와 같은 '-길래' 평서문[2]의 '-길래'가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길래' 평서문[2]의 '-길래'도 엄연히 한국인 화자에 의해 발화되는 표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외국인 학습자들의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유 추측의 '-길래'가 사용되었을 경우, 학습자들은 상대방의 의사를 파악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본고에서는 '-길래'의 이 의미 및 형태 등도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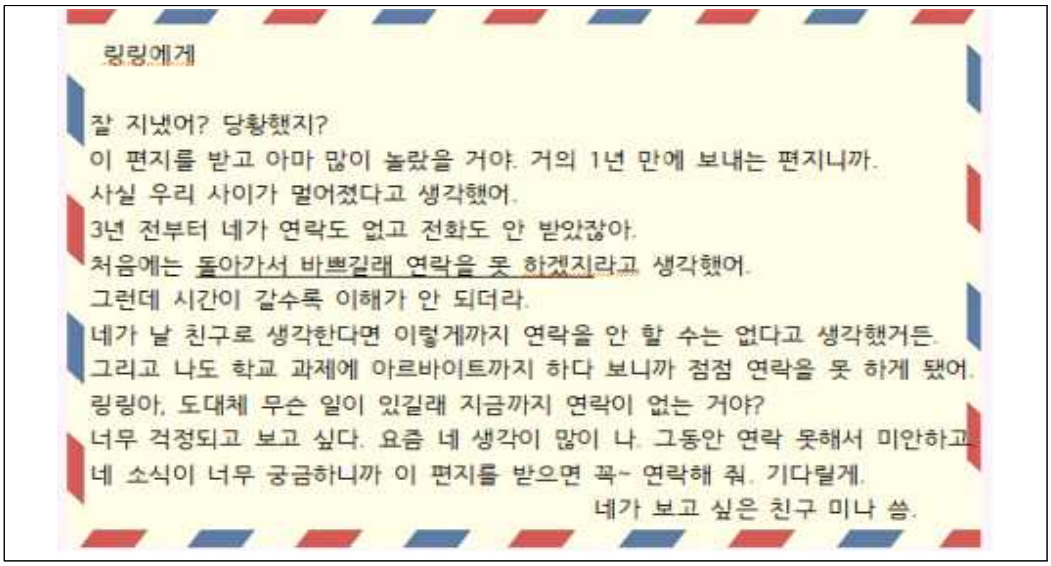
단 교재의 읽기 단계에서 그 형태를 살짝 노출시키고, 그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문법 설명'에서 다룰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길래' 평서문[2]의 '-길래'를 교재에서 '-길래' 평서문[1]이나 '-길래' 의문문과 같이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 이유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다른 '-길래' 문형에 비해 그 사용 빈도가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재에서는 활동 영역의 '읽기'에서 그 쓰임을 제시하고, 워크북 후반의 부록 '문법 설명'에서 '-길래' 평서문[2]의 '-길래'를 '-길래'가 사용되는 추가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9] '문법 설명'에서의 '-길래' 평서문[2] 제시 내용

**평서문에서 '-길래'는 말하는 사람이 지각한 상황의 이유를 추측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뒤 문장에 보통 2인칭이나 3인칭 주어가 오고, '-겠지'의 추측 표현이 뒤 문장에 같이 쓰입니다**[305].

예문)
-잘못한 걸 알길래 얼굴도 못 내밀겠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길래 그렇게 짜증을 냈겠지.

[그림 20] '읽기'에서의 '-길래' 평서문[2]의 제시




먼저 위 [그림 20]에서 제시한 것처럼 교재에서의 '읽기' 활동에서는 '-길래' 평서문[2]의 실제적인 활용을 학습자에게 구현하고자 한다. 관련 주제는 친구에게 쓰는 안부 및 사과의 편지로 공적인 상황이 아닌 사적인 글에서 화자가 추측하는 이유의 '-길래'가 어떻게 쓰이는지 제시한 것이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쓰기'에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이 '-길래'의 표현을 사용해 사적인 글을 쓰도록 연습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문법 설명'에서는 [그림 19]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길래' 평서문[2]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그리고 이때 어떤 통사적 제약이 적용되고 어떤 통사적 특성이 보이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상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길래'의 바람직한 제시 방안으로 교재를 제안하는 데 있어 교재 구성의 개요 및 구체적으로 기술될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305)陈述句中说话的人对感知情况的理由推测时也能使用'-길래'. 这时后面的句子一般会用第2人称或第3人称作为主语， 推测表达的'-겠지'会写在句子的最后面.

본고에서 제안한 것은 '의사소통식 교수법'을 토대로 '사과와 변명'을 주제로 하여 여러 연습과 활동이 짜여진 문법 활용을 위한 교재 모형이었다. 이와 같은 교재 구성의 틀 안에서 '-길래' 평서문[1]에서의 '-길래'의 결합 정보·의미·통사적 제약, 그리고 '-길래'의 담화적 기능과 화용 정보 및 '-길래' 의문문과 '-길래' 평서문[2]에 대해 상세한 제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길래'의 제시에 있어 '-길래'가 지닌 의미적·통사적 특성이 난이도가 있고 다양하므로 4급 이상에서 '-길래' 평서문[1]과 '-길래' 의문문을 포함해 '-길래'가 수행하는 담화 의미 기능으로 나누어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구현해 낸 실제 교재 모형은 본고의 부록에서 따로 제시될 것이다.

# Ⅶ. 결론

본고는 한국어 교육의 측면에서 ‘-길래’가 가지는 특성을 의미와 통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길래’의 효과적인 제시 방안으로 문법 활용을 위한 교재를 구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교재 구성에 필요한 과정으로 선행연구와의 비교 및 대조를 통해 가장 타당한 ‘-길래’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을 분석해 내었다. 또한 학습자 자료에 나타난 오류와 한국어 교재에서의 ‘-길래’의 제시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목적은 전자는 학습자의 ‘-길래’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함이었고, 후자는 학습자가 일으킨 오류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길래’의 제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2장에서 ‘-길래’의 의미가 크게 둘로 구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길래’가 문장에서 ‘지각’ 및 ‘자각’의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였다. 전자는 ‘-길래’ 평서문[1]으로, 이때 ‘-길래’는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화자의 의지적 행동을 초래한 화자의 직접적인 지각 및 자각’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후자는 문형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의문문에서는 ‘-길래’가 ‘화자가 지각한 사실에 대해 의문이 생겨 질문하는 이유’라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후행절에 ‘-겠지’가 쓰인 평서문에서는 ‘화자가 지각한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추측하는 이유’라는 의미를 드러낸다.

이와 같은 ‘-길래’가 나타내는 문맥상 의미 외에도 담화 상 ‘-길래’가 드러내는 담화 의미 기능을 세종 코퍼스의 말뭉치 자료를 검색해 나온 총 319개의 ‘-길래’ 구문을 대상으로 이지선(2021)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 바 있다. 그 분석 기준은 담화 상황이 화자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길래’를 통해 화자가 어떤 발화 의도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등의 담화 맥락이었다. 크게 ‘-길래’가 사용된 평서문과 의문문으로 구분해 ‘-길래’를 통해 어떤 담화적 의미 기능이 수행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평서문에서 총 5가지의 그리고 의문문에서는 총 9가지의 담화적 의미가 확인되었다.

즉 평서문에서는 ‘상황소개’, ‘변명’, ‘이유설명’, ‘추가설명’, ‘핀잔’의 순으로 그리고 의문문에서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 ‘이유질문’, ‘비난’, ‘핀잔’, ‘부정적 감정표현’, ‘비꼼’, ‘따짐’, ‘놀림’, ‘감탄’의 순으로 ‘-길래’가 담화적 의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중 인과 연결어미가 공통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담화 의미 기능을 제외하고, ‘변명’, ‘비난’, ‘핀잔’ 등을 ‘-길래’의 대표적 담화 기능으로 꼽았다. 즉 화자에게 불리한 담화 상황에서 하게 되는 ‘변명’, 혹은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한 대상을 향해서 하는 ‘핀잔’이나 ‘비난’의 담화 의미 기능을 담화에서 ‘-길래’가 담당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은 비격식체의 구어에 주로 사용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길래’의 화용적 기능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길래’의 통사적 특징을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봤다. 구체적인 분석 순서는 먼저 각 유형의 통사적 특징을 선행절과 후행절에 적용되는 통사적 제약의 존재 여부 및 제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세 가지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파악된 공통 제약과 각 유형의 개별 제약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길래’가 쓰인 모든 문장에 적용되는 공통 제약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후행절에 미래 시제가 올 수 없는 제약이 있다.
둘째, ‘-길래’에는 ‘-더-’, 추측을 나타내는 ‘-을 것이-’, 의지의 문법 표현과 결합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특히 후행절에 미래 시제를 허용하지 않는 시제 제약은 ‘-길래’가 이후의 행동을 제안하거나 요구하는 ‘청유문’이나 ‘명령문’에서 나타날 수 없다는 서법 제약을 불러오기도 했다. 또한 ‘-길래’가 ‘-더-’, ‘-을 것이-’, 그리고 의지의 문법 표현과 결합할 수 없는 이유는 ‘-길래’가 가지는 ‘지각’의 의미와 겹치거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었다.

이외에 각 유형에서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개별 제약도 있었는데, 우선 ‘-길래’ 평서문[1]에서는 ‘선·후행절의 1인칭 주어 필수 제약’, ‘후행절의 의지적 행동 서술어 필수 제약’, ‘선행절의 지각 혹은 즉각적 자각 가능 서술어 필수 제약’이 확인되었다. ‘-길래’ 평서문[1]에 적용되는 이와 같은 4가지의 제약은 ‘-길래’가 나타내는 의미로 인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후행절이 나타내는 의미가 ‘화자의 의지적 행동’이기 때문에 후행절에 1인칭 주어가 반드시 와야만 하고, 서술어로는 의지가 드러나는 서술어만이 허용된다. 또한 선행절의 ‘-길래’가 ‘지각’이나 ‘자각’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선행절에 ‘지각 및 즉각적인 자각 가능 서술어 필수 제약’이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길래’가 ‘자각’의 의미를 드러낼 때에는 선행절에 반드시 1인칭 주어가 와야 한다. 감정이나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주체는 화자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길래'가 쓰인 의문문이나 화자가 이유를 추측하는 '-길래' 평서문[2]에서는 선행절에 적용되는 특정한 주어 제약이나 서술어 제약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유는 선행절에서 '-길래'의 '지각' 및 '자각'의 의미가 소실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길래' 의문문 및 이유 추측의 평서문의 후행절에는 '화자가 지각한 사실'이 오기 때문에, 선행절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적용되는 주어 제약이나 서술어 제약이 없었다. 다만 주로 후행절에 2·3인칭 주어가 출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는 했다. 한편 아주 유사한 통사적 특성을 보이는 '-길래' 의문문과 '-길래' 평서문[2]에서 두 유형 간에 차이가 나는 통사적 특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것은 바로 '-길래'가 쓰인 의문문에는 선행절에 의문사가 반드시 와야 하지만, '-길래' 평서문[2]에는 후행절에 '-겠지'라는 추측의 표현이 반드시 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이들의 이 두 제약으로 인해 의문문과 이유 추측의 평서문에 쓰인 '-길래'가 '지각' 및 '자각'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길래'가 쓰인 의문문의 '의문사 수반 필수 제약'은 '-길래'가 판정의문문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서법 제약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기도 했다.

이어서 4장에서는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에서 '-길래'를 검색해 나온 95개의 문어 및 구어 자료와 총 75개의 S대학 기관의 4급 학습자 시험 자료를 대상으로 외국인 학습자가 일으킨 '-길래'의 오류를 분석했다. 이때 한국어 학습자가 쓴 95개의 '-길래' 구문을 중심으로 학습자가 일으킨 오류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피되, 2장과 3장에서 확인된 '-길래'의 의미 및 화용적 기능과 통사적 제약을 오류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4급 학습자 시험 자료에 대한 분석에서 밝혀진 진행된 논의와 관련해 언급할 만한 내용이나 혹은 따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추가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정확히 사용하는 경우보다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었다. 즉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서 확인된 오류율은 86.32%였고, 4급 학습자 시험 자료에서는 64.82% 정도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동시에 학습자들의 '-길래'에 대한 이해 부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길래'의 학습자 말뭉치 자료를 대상으로 오류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화용적 기능' 오류> '주어 인칭 제약' 오류>'후행절의 서술어 제약' 오류> '후행절의 시제 제약' 오류, '-길래' 대치 오류>선행절의 결합 오류>'선행절의 서술어 제약' 오류>'후행절의 서법 제약' 오류, '-길래' 의문문 오류의 순으로 총 9가지 유형의 오류

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학습자들의 '-길래'의 오류 양상을 통해 학습자들의 '-길래'에 대한 이해 양상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었다.

첫째, 학습자는 '-길래'의 화용적 기능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
둘째, 학습자는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에 적용되는 1인칭 주어 필수 제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향이 있다.
셋째, 학습자는 '-길래' 평서문[1]의 후행절에 적용되는 의지적 행동 서술어 필수 제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향이 있다.

이와 더불어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특정 대학 기관에서 한국어를 이수 중인 4급 학습자의 시험 자료를 통해서 학습자가 일으킨 오류가 교사의 미제시 혹은 설명 부족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이는 문법 항목의 제시 방법에 있어 교사의 역량에 맡기는 부분을 줄이고, 문법 항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학습자들에게 전달할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4장에 이어 5장에서는 한국 및 중국에서 출간한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길래'에 대한 제시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길래'를 사용할 때 학습자가 오류를 일으키는 이유를 '학습하지 못해서' 혹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인 교재를 대상으로 '-길래'에 대한 제시가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길래'의 제시를 살펴본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길래'를 제시한 한국에서 출간된 13종의 교재와 중국에서 출간된 3종의 교재였다. 진행된 분석의 기준은 '-길래' 평서문[1] 이외에 '-길래' 의문문과 '-길래' 평서문[2]를 모두 제시했는지의 여부였다. 또한 그에 관련된 '-길래'의 의미, 통사적 특징, 결합 정보, 담화적 의미 기능, 화용 정보의 5가지 항목을 모두 제시했는지의 여부도 또 다른 분석 기준에 해당된다. 단 교재의 분석 순서는 급수 및 학년 별로 진행되었는데, 전자는 한국 측 교재에 해당되고, 후자는 중국 측 교재에 해당된다. 그 결과 양측 교재에서의 '-길래'의 제시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은 양측에서 모두 '-길래'가 가지는 '지각'이라는 양태적 의미와 '주어 인칭 제약'이라는 통사적 제약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비록 선행절의 주어 제약

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의미 설명 방식은 학습자로 하여금 논리적으로 그와 연관된 통사적 특성을 이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측 교재에서 확인된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모두 6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길래'의 담화적 기능 및 이유를 추측하는 평서문을 양측의 모든 교재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둘째, '-길래'가 가지는 통사적 제약을 모두 다룬 교재는 없었다.
셋째, '-길래'가 쓰인 의문문에서 나타나는 후행절의 시제 제약이나 후행절에 보통 2·3인칭 주어가 온다는 후행절의 주어 경향을 기술한 교재는 없었다.
넷째, '-길래'가 '자각'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와야 한다는 제약을 제시한 교재는 없었다.
다섯째, '-길래'의 '-더-', 추측의 '-을 것이-', '의지 문법 표현'과의 결합 불가 제약을 제시한 교재는 없었다.
여섯째, '-길래'의 화용 정보나 통사적 제약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시한 교재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교재에서 확인된 '-길래'의 특성에 대한 미제시 및 제시 오류는 학습자의 사용 오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길래'의 바람직한 제시 방안의 하나로 문법 활용을 위한 교재와 워크북을 제안했다. 먼저 '-길래'의 사용 빈도와 난이도를 고려해 '-길래'의 적절한 제시 급수를 4급 이상으로 제안했는데, 단 '-길래'에 관련된 특성이 난이도가 있고 방대하므로 두 번 이상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안이었다. 그에 따라 이 교재 모형을 활용한 교수 순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교재 설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교재의 구성 이론은 '의사소통식 교수법'이었다. 이 교수법을 채택한 이유는 이 교재 모형이 비록 '-길래'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중점을 둔 문법 교재이기는 하나 문법 항목에 대한 이해는 그에 대한 적합한 사용까지를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길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교재의 집필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교재 구성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교재에 제시되는 '-길래'에 대한 특성

은 앞서 5장의 교재 분석 기준 항목과 동일하다. 즉 '-길래' 평서문[1]과 '-길래' 의문문 및 '-길래' 평서문[2]에 나타나는 '-길래'의 의미, 통사적 특징, 결합 정보, 담화적 의미 기능, 화용 정보를 교재 및 워크북을 통해 모두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7개의 각 항목을 기준으로 기술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3장에서 제시한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교수해야 할 '-길래'에 대한 특성이었다. 여기에서 주지해야 할 점은 본고에서 제안하는 교재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4장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오류 분석을 통해 밝혀진 특히 그들에게 이해가 부족한 '-길래'의 특성을 교재에 반영해 기술해야 했다. 즉 교재에서의 설명 제시, 그리고 연습 및 활동 등에서 그 특성들에 대한 제시가 강조되거나 관련된 연습이 더 이루어졌다.

덧붙여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길래'를 제시한 단원의 제목을 '사과와 변명'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이다. 이는 이 교재 모형이 '-길래'에 대한 의미적·통사적 특성을 상세하게 제시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면서도 '-길래'를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래'의 활용까지를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교재와 달리 '-길래'의 제시 단원의 주제를 '변명'의 담화적 기능으로 설정하고 그 틀 안에서 '-길래'의 사용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학습한 후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담화 맥락 안에서 활용하는 연습을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문법 항목의 실질적인 사용에 중점을 둔 문법 교재의 구성은 문법 항목의 기술에 있어 앞으로의 또 다른 방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이 교재를 실제 활용하여 수업의 효과를 확인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기에 이를 다음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 참고문헌

## 1. 논저


고영근(1975), 「現代國語의 語末語尾에 대한 構造的 硏究:非終結語尾의 것을 중심으로」,『應用言語學』제7권 1호, 73-99.

고영근·남기심(1983),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고우미(2018), 「연결어미 '-길래'의 화용적 연구-후행절의 화행과 맥락분석을 중심으로」,『언어와 문화』제14권 1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26.

곽지영 외(2007),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구현정(1999), 「범언어적으로 본 조건 범주의 문법화」, 『한국어 의미학』4, 한국어 의미학회, 161-188.

권미숙(2017), 「한국어 유사 문법 표현 '-길래'와 '-기에'의 비교 분석 연구-담화 기능 분석을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강희(2019),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인과 관계 연결표현의 위계화 연구」, 『우리어문연구』64권 0호, 우리어문학회, 329-358.

김경일(201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출판 현황 분석 연구」, 『한국출판연구』제64호, 한국출판학회, 5-26.

김남길(1990), 「한국어의 인용증거문」, 『이중언어학』7권 0호, 이중언어학회, 418-434.

김남길(2012), 「담화 중심 한국어 문법 교육이란?」,『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2012권 1호, 한국문법교육학회, 161-180.

김미선(1996), 「접속부사 연구(I)-'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를 중심으로」, 『어문연구』24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92-106.

김미선(1998ㄱ), 「접속부사 연구(Ⅱ)-'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를 중심으로」, 『어문연구』26권 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18-131.

김미선(1998ㄴ), 「접속부사 연구(Ⅲ)-'그리고'를 중심으로」,『어문연구』26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5-49.

김미숙(2015), 「문법 의식 고양 과제를 활용한 한국어 연결어미 '-길래'의 교수 방안 연구」, 『한국어문화교육』제9권 1호, 한국어문화교육학회, 29-53.

김승곤(1981), 「한국어의 연결형어미「건대」와 「거늘」, 「기에」와 「는지라」의 화용론」,『學術誌』제25집, 21-35.
김승곤(1984), 「한국어 이음씨끝의 의미 및 통어 기능 연구(1)」,『한글』186, 한글학회, 3-34.
김유정(2005),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오류분석의 기준 연구」,『한국어교육』16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45-75.
김재욱 외(2010), 『한국어 교수법』, 형설출판사.
김정우(2005),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중국 교수·학습자들의 요구 분석 연구」, 『한국어교육』16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99-129.
김주식 옮김(2006),『문법화의 본질』, 한국문화사.
김지혜(2009ㄱ), 「한국어 연결어미 '-기에'와 '-길래'에 대한 연구」, 『우리어문연구 33집 · 국어교육』, 우리어문학회, 469-492.
김지혜(2009ㄴ), 「한국어 이유 표현 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차균 외(1995), 「국어의 시제, 상 및 서법」주제토론,『언어』제20권 제3호, 한국언어학회, 251-271.
김향란(2019), 「중국 내 대학 한국어학 전공자를 위한 기본 교재 개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혜영(2019), 「현대 한국어 부사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호정(2015), 「한국어교육을 위한 담화 문법 연구의 동향 분석」,『한말연구』37권 0호, 한말연구학회, 133-176.
남기심(1993), 『국어 연결어미의 쓰임』, 서광학술자료사.
남수경·채숙희(2004), 「한국어 학습자의 연결어미 사용 연구」, 『한국어교육』15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3-50.
민진영(2011), 「한국어 연결어미 '-길래'의 특성과 교수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제22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13-137.
민현식(1996), 「국어 오용 어법의 예방적 지도법 연구(2)」,『국어교육』91권 0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60.
민현식(1999), 『국어문법연구』, 역락.
민현식(2003), 「국어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상관성」,『한국어교육』14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07-141.
박기덕(2003),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문법론』, 한국문화사.

박상숙(2019), 「한국어 연결어미 '-길래'의 교수방안 연구」,『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52집,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108-133.
박재연(1999), 「국어 양태 범주의 확립과 어미의 의미 기술-인식 양태를 중심으로-」, 『國語學』34 , 199-225.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박재연(2009), 「연결어미와 양태: 이유, 조건, 양보의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30, 119-141.
박진호(2011),「韓國語에서 證據性이나 意外性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 『언어와 정보 사회』제15호, 1-25.
서상규·안령군(2011), 「한국어 이유표현에 대한 한중 대조연구-연결어미 '-길래'를 중심으로-」,『국제한국어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2011권 0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74-185.
徐庚淑(2013), 「證據 樣態와 連結語尾 '-길래'」, 『大東文化硏究』 제83집, 487-508.
서정수(1996), 『수정증보판 국어문법』, 한양대학교출판원.
성기철(2007), 『한국어문법연구』, 글누림출판사.
성기철(2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국어교육』107권 0호, 한국어 교육학회, 135-161.
성진영(2017), 「연결어미 '-기에'와 '길래'의 특성에 따른 교육 방안에 대하여-외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제23호,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81-206.
송재목(2007), 「증거성과 주어 제약의 유형론」,『형태론』9권 1호, 1-23.
송재목(2009), 「인식 양태와 증거성」,『한국어학』44, 한국어학회, 27-53.
안주호(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안주호(1998), 「연결어미 '-길래'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語學硏究(ISSN 0254-4474)』 제34권 제1호, 205-227.
안주호(1999ㄱ), 「연결어미 '-기에/-길래'의 특성과 형성 과정」, 『담화와 인지』 제6권 1호, 담화인지언어학회, 101-120.
안주호(1999ㄴ), 「'-기'형 연결어미 '-기에, '길니, -기로'의 특성과 문법화 과정-20세기 초기 국어를 중심으로」, 『언어학』 24, 한국언어학회, 187-211.

안주호(2000), 「‘그러-’계열 접속사의 형성과정과 문법화」,『국어학』35권 0호, 국어학회, 113-141.
안주호(2002ㄱ),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에 대한 통시적 고찰-<노걸대언해류>를 중심으로」, 『언어학』 34, 한국언어학회, 133-158.
안주호(2002ㄴ),「한국어 교육에서의 〔원인〕 연결어미에 대하여」, 『한국어교육』13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59-180.
안주호(2008), 「한국어 교육에서 연결어미의 교수방안에 대한 연구-{-길래}를 중심으로」,『한말연구』제22호, 한말연구학회, 193-220.
양지현(2013), 「의도표현에 대하여- ‘-려 하(다)’, ‘-려고(요)’, ‘-려고 하(다)’를 중심으로」, 『배달말』52호, 배달말학회, 51-74.
염재일(2012), 「‘-길래’의 의미와 서법」,『언어과학』제19권 1호, 한국언어과학회, 131-154.
오경진(2003), 「인과관계 의미표현류」, 『한국어 문법론』, 377-398.
유해준(2015), 「유사 기능의 한국어 문법 교육 내용 연구-‘-아/어서, -(으)니까, -기 때문에’를 중심으로」,『어문론집』61, 중앙어문학회, 515-538.
유현경 외(2019), 『말뭉치 기반 한국어 접속어 연구』, 보고사.
이금영(2016), 「“그러-그리-” 계열 접속 부사의 통시적 고찰」,『인문학연구』제55권 2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15-247.
이기갑(1994), 「‘그러하-’의 지시와 대용, 그리고 그 역사」,『언어』제19권 제2호, 한국언어학회, 455-488.
이성하(2016), 『문법화의 이해』, 한국 문화사.
이은경(2000),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태학사.
이의종(2012), 「증거성과 정보 관할건의 상호작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희(2003),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 박이정.
이준호(2018), 「한국어 중급 문법 항목별 화용 정보 구축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40호,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119-144.
이지선(2017), 「한국어 교재에서의 ‘-길래’에 대한 설명 제시 분석」,『돈암어문학』제31집, 돈암어문학회, 317-359.
이지선(2021), 「말뭉치 자료에서 나타난 ‘-길래’의 담화 의미 기능에 대하여」,『돈암어문학』제39집, 돈암어문학회, 239-281.

이지용(2017),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의 선정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효정(2001), 「한국어 학습자 담화에 나타난 연결어미 연구」,『한국어교육』12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33-252.
이희정(2003), 「한국어의 [그러-]형 담화표지기능연구-일상대화 분석을 바탕으로」, 연세대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규홍(2006), 「'담화문법 교육'에 대하여」,『문법교육』4권 0호, 한국문법교육학회, 161-184.
임동훈(2001), 「'-겠-'의 용법과 그 역사적 해석」,『국어학』37권 0호, 국어학회, 115-147.
임동훈(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한국어 의미학』26, 한국어의미학회, 211-249.
임은하(2002), 「현대국어의 인과관계 접속어미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채훈(2008), 「'감각적 증거' 양태성과 한국어 어미 교육」, 『이중언어학』제37호, 二重言語學會, 199-234.
정미진(2012), 「외국인 학습자용 한국어 문법 교재의 문법 제시 방안 연구-담화·맥락 정보를 중심으로」,『한국어 교육』23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3.
정인아(2010), 「한국어의 증거성(Evidentiality) 범주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종수·김기범(2012),「제약에 따른 양보 어미 교육 순서 선정에 관한 연구」,『한민족문화연구』제41집, 한민족문화학회, 109-138.
정종수(2014), 「까닭 연결어미의 교육 순서 연구」,『인문학연구』95호, 충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59-290.
진대연(1999), 「한국어 교재 분석의 기준: 연구와 적용」, 『國語敎育學硏究』9권 0호, 국어교육학회, 407-434.
진정란(2003), 「학습자 중심으로 본 이유의 연결표현」,『한국어 문법론』, 345-376.
진정란(2004), 「한국어 이유 표현의 담화 문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진정란(2005), 「한국어 이유 표현 '-길래'의 담화문법 연구」, 『담화와 인

지』 제12권 제3호, 담화인지언어학회, 137-154.
진정란(2011), 「중국 대학기관용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에 대한 고찰」, 『中國學硏究』58권 0호, 중국학연구회, 268-292.
채연강(1985), 『현대한국어 연결어미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최현배(1937, 1971 깁고 고침(4판)), 『우리말본』, 정음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허용 외(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박이정.
허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Wynne Wong 저, 서종학 외 역(2011), 『제2 언어 교수-학습의 방향 입력강화』,한국문화사.

## 2. 사전류

『고급 한국어 학습 사전』(2013), 최종희, 커뮤니케이션북스(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국어대사전』(1961), 이희승, 민중서림.
『국어학습사전』(2012), 양재찬, 법인문화사.
『연세 한국어사전』(199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두산동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용법 편』(2005), 국립국어원, 커뮤니케이션북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2006), 서상규 외 7, 신원프라임.
『우리말 큰사전 1 ㄱ～ㅁ』(1991), 한글 학회, 어문각.
『표준국어대사전』(1999), 국립국어연구원, 두산동아.
『한국어교육 문법 자료편』(2016), 강현화 외 5, 한글파크.
『한국어 학습 학습자용 어미·조사 사전』(2006), 이희자·이종희한국문화사.
『朝鮮語基礎語法』(1994, 1997), 宜德五, 商務印書館.
『韓國語實用語法』(2006), 崔義秀·兪春喜, 延邊大壑出版社.
『朝鮮語實用語法』(1976, 1986), 韋旭升·許東振, 外語教學與硏究出版社.

## 3. 한국어 교재

『경희 한국어 초·중·고급 1,2 문법』(2020), 신영옥 외 10,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 초·중급 1, 2』(2019), 이선웅 외 8, ㈜도서출판 하우.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정확한 한국어 초·중급 1, 2』(2019), 이선웅 외 8, ㈜도서출판 하우.
『대학 한국어 1-6』(2005) , 우림걸 외 4, 북경대학출판사.
『배우기 쉬운 한국어 1-6(개정증보판)』(2006), 성균어학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1-6』(2020),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선문 한국어 초·중급 Ⅰ,Ⅱ,Ⅲ, 고급 Ⅰ,Ⅱ 』(2018), 라혜민 외 4, 소통.
『성균한국어 1-6』(2019), 성균어학원 한국어학당, ㈜도서출판 하우.
『신편 초·중·고급한국어 〔상,하〕』(2002), 최희수 외 2, 요녕민족민족출판사.
『연세 한국어 1-6』(2009), 황인교 외 7, 연세대학교 출판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6』(2016), 김은정 외 3, (주)도서출판 하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초·중급 1, 2』(2012),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연구회, 랭기지플러스<한글파크>.
『이화 한국어 1-6』(2011), 윤영 외 4,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화 한국어 4, 참고서 중국어판』(2011), 신희랑,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재미있는 한국어 1-6』(2010), 김정숙 외 3, ㈜교보문고.
『표준 한국어 1-3』(1996), 안병호 외 2, 북경대학출판사.
『한국어 1-4』(2000), 이선한 외 3, 민족출판사.
『함께 배우는 건국 한국어 1-6』(2016),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건국대학교 출판부.
『홍익 한국어 1A·B, 2A·B, 3A·B, 4A·B』(2017), 홍익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재개발연구회, 내용과 형식.
『Korean Grammar in Use 中級 』(2012), 민진영·안진명, 다락원.

# ABSTRACT

## A study on the causal connective ending '-길래' -Focused on the suggestion and practice of grammar usage textbooks for Chinese learners-

LEE JISE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In Korean language, there are numerous causal connective endings that indicate reason. Korean native speaker can easily select and use a causal connective ending suitable for the situation, but foreign learners must learn first to use the causal linking ending suitable for the situation.

However, among causal connective endings, '-길래' is one of the grammar items that I found difficult to teach while teaching Korean to foreign learners for over 16 years. One of the reasons is that syntactic constraints change depending on the meaning in the sentence, and there are cases where the constraints seem to be applied anomalously. However, despite the need to logically explain to the learner the reason for such a case, it is not possible to provide a satisfactory explanation to the learner. The reason was the fact that there were a lot of systematically organized educational materials on '-길래'. This is the second reason that '-길래' is difficult to teach. Also, a serious problem is that such problems of teachers

negatively affect the learners receiving instruction. In other words, as pointed out earlier, in order for foreign learners to use '-길래', acquisition through learning is a prerequisite, but learning cannot be done properly. As a result, there are cases in which learners make errors in using '-길래' due to lack of understanding of '-길래' or avoid using this ending due to the burden of error. This can be said to suggest the need to build educational materials of '-길래' to be presented to learners in term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refore, in Chapter 1, the research purpose of this study was first presented, related prior studies were reviewed, and the research methods of this paper were explained in order and related research subjects were presented. In the following Chapters 2 and 3, the meaning and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길래' were analyzed precisely, and the most reasonable meaning and precise syntactic restrictions were presented. Chapter 4 also looked at the patterns of learners' use of '-길래' as an analysis criterion. in the following, Chapter 5, analysis was conducted on Korean textbooks published in Korea and China to confirm the presentation pattern of '-길래', which is presumed to be the root cause of errors by learners. Finally, in Chapter 6, the meaning and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길래' discussed in Chapters 2 and 3 reflect the problems identified in Chapters 4 and 5 and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길래' that should be taught in term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 textbook using grammar focused on communication was proposed. The purpose is to enable Chinese learners, the majority of korean language learners, to use '-길래' accurately and fluently in discourse situations where '-길래' is required.

부록

# 사과와 변명

## 도입 Introduction

*위 사진은 저작권 관련하여 사용 가능한 이미지임을 밝힙니다.

**1.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2. 여러분이 주변 친구에게 사과하거나 변명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 이야기 Story

### 1

track 1

가: 빙빙 씨, 지금 어디예요?
나: 차가 밀리길래 방금 버스에서 내렸어요.
가: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길래 전화한 거예요.
나: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민수 씨를 또 기다리게 하네요.
가: 늦으면 늦는다고 먼저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매번 너무하네요.
나: 정말 미안해요. 민수 씨. 최대한 빨리 갈게요.

### 2

track 2

가: 어서 와. 그래 무슨 일인데?
나: 수진아. 나 정말 힘들다.
내가 어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다들 나를 피하는 거야?
가: 정말 기억이 안 나니?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나: 미안해.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자주 마시다 보니 생활이 엉망이 된 거 같아.
가: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정신 좀 차려.
나: 알겠어. 아무튼 어제는 미안하다.

| | |
|---|---|
| **V·A-길래, N+(이)길래** | track 3 |
| **V·A-았/었/였길래, N+이었/였길래** | 과거, 완료 |
| **V·A-다/냐/라/자고 하길래, V·A-다/냐/라/자길래** | 간접, 간접(줄임) |

<예문>

1) 가: 왜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나: 아침 출근 시간이라 길이 막히길래 지하철을 탔어요.
2) 가: 왜 그 사람을 차에 태워준 거예요?
   나: 마침 우리 학교 학생이길래 태우고 온 거예요.
3) 다들 잘 먹길래 한 마리 더 주문했어.
4) 지나가는데 커피 향이 좋길래 들어왔어.
5) 오후에 비가 온다길래 우산을 샀어요.
6) 오늘 또 늦었길래 한마디 했어.
7) 나가면 쌀쌀하겠길래 카디건을 걸쳤어.

<의미>

'-길래'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적인 행동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나 근거는 말하는 사람이 지각한 상황입니다.

**+ '-길래'는 주로 비격식체의 말하기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격식체의 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뒤 문장의 주어는 꼭 1인칭.**
예)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떠들길래 내가 주의를 줬어.

**2. 뒤 문장에 의지적 행동이 와야 함.**
예) 1) 네가 감기에 걸렸다길래 이 약을 샀어. (o)
2) 네가 감기에 걸렸다길래 내 마음이 아파. (x)

**3. 뒤 문장에는 미래가 올 수 없음.**
※ 주로 과거 시제가 많이 옴.
예) 가: 백화점에 가서 왜 그냥 왔어요?
나: 사람이 너무 많길래 그냥 왔어요.

**4. 명령형, 청유형은 올 수 없음.**
예) 1) 양말이 싸길래 많이 샀어요. (o)
2) 양말이 싸길래 많이 사세요. (x)
3) 양말이 싸길래 많이 살까요? (x)

## 의문사+ V·A-길래, N+(이)길래

track 4

<예문>

1) 가: 얼마나 아프길래 수업에 안 온 거야?
   나: 몸살이 심해서 전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야.
2) 가: 그동안 내가 어떻게 했길래 다들 날 싫어하는 거지?
   나: 이번 기회에 스스로 생각해 봐.

3) 어디에 가시길래 이렇게 서두르신대?
4) 제출이 언제길래 저렇게 여유로워?
5) 반장이 뭘 하자고 했길래 그렇게 짜증을 냈어?
6)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연락도 못 한거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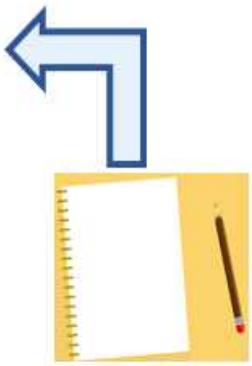
말하는 사람이 뒤 문장의 상황을 지각한 후에 의아해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된 이유나 근거를 묻는 것입니다.

(*Tip 형태*)

**1. 뒤 문장의 주어는 보통 2인칭이나 3인칭.**
예) 어떤 면접이길래 네가 양복까지 산다는 거야?

**2. '길래' 앞에 꼭 의문사가 와야 함.**
예) 1) 무슨 사건이길래 다들 뉴스만 보고 있는 거죠?
2) 대체 품질이 어떻길래 바로 환불한 거니?

**3. 뒤 문장에는 미래가 올 수 없음.**
예) 1) 휴가가 언제길래 비행기표를 샀어? (o)
2) 휴가가 언제길래 비행기표를 살 거야? (x)



**연습 1** 다음 질문에 어울리는 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보기

질문 예)
왜 이렇게
사과를
많이 샀어요?

대답 예)
너무 싸게 팔길래
샀어요.

1) 더운데 왜 뛰어 왔어요?

2) 무슨 시장을 이렇게 많이 봤어요?

3) 왜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4) 왜 우산을 챙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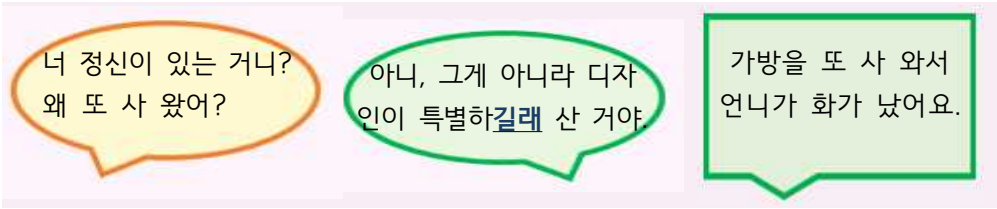
5) 왜 귀를 막고 있어요?

**연습 2** 과거에 다음의 상황을 보고 듣고 어떻게 했어요?

| | | |
|---|---|---|
| 보기 | 두 사람이 화를 내며 싸우는 상황 | 예) 두 사람이 싸우길래 저는 그들을 말렸어요. |
| 1) | 친구 2명과 같이 떡볶이를 먹으려고 사 왔는데 한 친구가 잠을 자고 있는 상황 | |
| 2) | 백화점에 갔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이 한 곳으로 몰려드는 상황 | |
| 3) | 아랫집 아저씨가 우리 목소리가 시끄럽다고 하면서 문 앞에서 화내는 상황 | |
| 4) | 창문 밖을 봤는데 날씨가 흐리고 구름이 많아서 곧 비가 올 것 같은 상황 | |
| 5) | 생일 파티에서 준비한 음식이 많이 남아서 모두 버려야 하는 상황 | |
| 6) |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친구가 안 기다리고 먼저 먹은 상황 | |

**연습 3** 다음 상황에 대해 변명을 하는 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보기




1) 뭐야? 나도 아직 안 입었는데 왜 말도 안 하고 남의 걸 입어?

동생이 자기가 산 새 옷을 내가 몰래 입고 나간 것을 알았어요.

2) 어디야? 왜 교실에 없어?

수업 끝나고 친구와 같이 가기로 했는데 말도 안 하고 혼자 집에 왔어요.

3) 어떻게 된 거야? 김 대리! 예약 안 했어?

내일 회식이 있는데 아직 식당 예약을 안 한 것을 과장님이 아셨어요.

4) 우산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와? 비 오잖아.

형이 비가 온다고 집 근처 지하철 역으로 우산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연습 4**

A와 B의 카드는 맞는 문장과 틀린 문장이 서로 다릅니다.
문장에 O, X를 쓴 후에 친구와 틀린 문장이 왜 틀렸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 A | | |
|---|---|---|
| 1 | 빙빙이 부르길래 저도 따라 부른 거예요. | |
| 2 | 소나기가 내리길래 그칠 때까지 기다릴까요? | |
| 3 | 친구가 감기에 걸렸길래 약을 사다 줬어요. | |
| 4 | 동생이 20분이나 늦게 도착하길래 그 이유를 물었어요. | |
| 5 | 그 수업이 재미있다길래 신청하기로 했어요. | |
| 6 | 내가 농구하고 있길래 민수가 같이 하자고 했어. | |
| 7 | 눈이 많이 오길래 데리러 가려고 해요. | O |
| 8 | 다들 너무 잘 먹길래 더 주문하겠어요. | |
| 9 | 후배가 피곤하길래 일찍 자라고 했어요. | X |
| 10 | 고향 친구가 서울에 온다길래 서울 여행 일정을 짰어요. | |

♥ 아래에 문장이 틀린 이유를 써 보세요.

| B | | |
|---|---|---|
| 1 | 동생이 20분이나 늦게 도착했길래 그 이유를 물었어요. | |
| 2 | 친구가 감기에 걸렸길래 마음이 아팠어요. | |
| 3 | 민수가 농구하고 있길래 내가 같이 하자고 했어. | |
| 4 | 눈이 많이 오길래 데리러 가야 해요. | X |
| 5 | 피곤하길래 일찍 잤어요. | O |
| 6 | 소나기가 내리길래 그칠 때까지 기다렸어요. | |
| 7 | 빙빙이 부르길래 마이클도 따라 부른 거예요. | |
| 8 | 그 수업이 재미있다길래 신청할 거예요. | |
| 9 | 고향 친구가 서울에 온다길래 서울 여행 일정을 짜세요. | |
| 10 | 다들 너무 잘 먹길래 더 주문했어요. | |

♥ 아래에 문장이 틀린 이유를 써 보세요.

듣기

다음은 오해했다가 오해가 풀린 사건에 대한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대답해 보십시오.

**<듣기 전>**

**여러분은 다음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 어떤 일로 친구에게 실망한 적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날을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 가까운 사람의 중요한 날을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변명할지 이야기해 보세요.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track 5

1. 여자가 실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남자는 처음에 어떻게 변명했습니까?

3. 남자의 행동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새 어휘

| | |
|---|---|
| 깜빡하다 | 忘记 |
| 기억력 | 记忆力 |
| 깜짝 선물 | 意外礼物 |
| 시간을 끌다 | 挨延 |

❶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 두었다.

❷ 처음부터 솔직하게 사실을 이야기했다.

❸ 오늘이 여자친구의 생일인 것을 모르는 척했다.

❹ 상대방이 선물 준비를 안 해서 화를 냈다.

말하기

역할극을 통해 서로 반대의 입장이 되어 '비난'하고 '변명'을 해 보십시오.

[보기]
가: 지금 몇 시야?
나: 죄송해요. 아버지.
가: 도대체 뭐하고 다니길래 지금 들어오는 거야? 또 술 마셨어?
나: 친구가 고민이 있다고 하길래 이야기 좀 들어주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진짜예요.

**읽기**

다음 편지를 읽고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편지 속의 링링과 미나의 '감정'과 '입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읽기 전>**

✔ 여러분은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 오랜만에 편지를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링링에게

잘 지냈어? 당황했지?
이 편지를 받고 아마 많이 놀랐을 거야. 거의 1년 만에 보내는 편지니까.
사실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고 생각했어.
3년 전부터 네가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받았잖아.
처음에는 돌아가서 바쁘길래 연락을 못 하겠지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해가 안 되더라.
네가 날 친구로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연락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나도 학교 과제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다 보니까 점점 연락을 못 하게 됐어.
링링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거야?
너무 걱정되고 보고 싶다. 요즘 네 생각이 많이 나.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고.
네 소식이 너무 궁금하니까 이 편지를 받으면 꼭~ 연락해 줘. 기다릴게.

네가 보고 싶은 친구 미나 씀.

1.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2. 두 사람은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어떤 감정일까요?

4.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쓰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해서 멀어진 친구에게 '변명'의 내용을 포함해서 답장 편지를 써 보십시오.

**쓰기 전**

✔ 요즘 무슨 일 때문에 바쁘게 지내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 왜 오랫동안 친구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답장 편지 순서]

_____에게

1. 안부 인사
2. 변명 내용 및 사과
3. 전하고 싶은 말
4. 앞으로 약속할 내용
5. 끝인사

_____ 씀

건강에 문제가 생기다

정신이 없다

생활이 엉망이 되다

-길래

의문사 + -길래

-길래 + -겠지

**[자기 평가]**

**1. 여러분은 이제 '-길래'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어요?**
**2. 친구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잘 변명할 수 있어요?**
**3. 친구가 여러분에게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여러분의 기분을 전달할 수 있어요?**

# 사과와 변명 Workbook

## 1. 다음 질문에 대해 '-길래'를 사용해서 대답해 보십시오.

1) 가: 주말에 집에서 쉴 거라더니 여기에 어떻게 왔어요?
나: _____ 같이 왔어요.
(고향 친구가 동행을 부탁하다)

2) 가: 학교 축제에 오기 싫다고 했잖아. 왜 왔어?
나: _____ 왔어.
(문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3) 가: 무슨 노래를 듣고 있어요?
나: _____ CD를 사서 듣고 있어요.
(이번 신곡이 좋다고 하다)

4) 가: 왜 이 시간까지 밥도 안 먹고 있어요?
나: _____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어요.
(일이 곧 끝날 것 같다)

5) 가: 냉장고에 과일도 많은데 왜 또 사왔어요?
나: _____ 근처 가게에서 사 왔어요.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다)

6) 가: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더니 왜 빈손이야?
나: _____
(그 가게에 갔는데 여름휴가 기간이다)

## 2. 보기에서 알맞은 내용을 골라 대답을 완성해 보십시오.

(보기)

| 비가 올 것 같다 | 폭탄 세일을 하다 | 마침 수업이 끝났다 |
|---|---|---|
| 친구가 같이 가자고 했다 | 출퇴근 시간에 길이 막히다 | ? |

1) 가: 바나나를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나: _____.

2) 가: 왜 집에 안 가고 교실에 남아 있는 거예요?
나: _____.

3) 가: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와요?
나: 미나 씨도 _____.

4) 가: 지금 비가 안 오는데, 왜 우산을 샀어요?
나: _____.

5) 가: 평소에는 운전하더니, 왜 오늘은 지하철로 가요?
나: _____.

6) 가: 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 책을 읽는 모습은 처음 보네요.
나: _____.

[ 참고 ]

**3. 다음의 상황을 안 후에 궁금해진 이유를 여러분은 어떻게 질문할 거예요?**

1)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음

가: _____길래 병원에 입원한 거야?
나: 맹장 수술했어. 지금은 괜찮아.

2) 반 친구가 갑자기 고향에 돌아가게 됨

가: _____길래 이렇게 갑자기 가는 거야?
나: 집에 일이 좀 있어서. 해결되면 다시 올 거야.

3) 축제 기간에 운동장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음

가:_____길래 이렇게 많이 모인 거야?
나: 너 몰라? BTX가 온대.

4) 룸메이트가 에어컨을 켜 놓은 채 외출함

가: _____?
나: 정말 미안해. 급하게 나가느라 끄는 걸 깜빡 잊었어.

5) 주말 동안 팀 발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음

가: _____?
나: 사과할게. 할 말이 없다. 고향 친구가 갑자기 와서...

6) 식사하다가 설명도 없이 뛰어 나가버렸음

가: _____?
나: 미안해. 동생이 다쳤다는 전화를 받아서 정신이 없었어.

[ 참고 ]

# [ 부 록 ]

## ◆듣기 지문◆

여: 뭐야?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진짜 내 생일인 거 몰랐어?
남: 어! 미안해. 요즘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깜빡했어.
여: 정말 실망이야. 네가 그럴 줄 몰랐어. 내 남자친구 맞아?
남: 정말 할 말이 없어. 다 내 기억력 탓이야.
근데 사실은 예전에 네가 겨울에 파티를 하자길래 그때가 생일인 줄 알았어.
여: 무슨 소리야. 네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길래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남: ('서프라이즈 말투로') 짜잔~~
하하. 네가 이렇게 실망할 것 같길래 미리 깜짝 선물을 준비했지.
여: ('기쁨의 감격' 목소리 반응) 어머!
도대체 깜짝 선물이 뭐길래 이렇게 시간을 끌었어?
남: ㅋㅋㅋ... 무슨 선물 같아? 지금 열어 볼래?

## ◆모범 답안◆

**<듣기>**

1. 남자친구가 생일을 잊어버리고 안 챙겨줘서 실망했어요.
2. 여자친구의 생일이 겨울인지 알았다고 했어요.
3. ③

**<연습 1>**

1) 9시 5분이길래 뛰어왔어요.
지각이길래 뛰어왔어요.
2) 냉장고가 비었길래 많이 샀어요.
3) 날씨가 덥길래 잘랐어요.
날씨가 덥다길래 잘랐어요.
4) 비가 오겠길래 미리 챙겼어요.
비가 올 것 같길래 챙겼어요.
5)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길래 귀를 막았어요.

**<연습 2>**

1) 친구가 잠을 자고 있길래 그냥 둘이서 먹었어요.
2) 사람들이 몰려들길래 옆의 사람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3) 아저씨가 화를 내길래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4) 비가 올 것 같길래 우산을 챙겼어요.
5) 음식이 많이 남겠길래 내가 집에 가지고 왔어요.
6) 안 기다리고 친구가 먼저 먹었길래 친구에게 화를 냈어요.

**<연습 3>**

1) 네가 안 입길래 내가 입었지.
2)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 그냥 집에 왔어.
3) 아직 시간이 충분하길래 내일 하려고 했지.
4) 금방 그칠 것 같길래.....금방 갈게.

**<연습 4>**

A
1. O
2. X
3. O
4. X
5. O
6. X
7. O
8. X
9. X
10. O

B
1. O
2. X
3. O
4. X
5. O
6. O
7. X
8. X
9. X
10. O

**<워크북>**

1.

1) 고향 친구가 동행을 부탁하길래
2) 문화 프로그램이 다양하길래
3) 이번 신곡이 좋다고 하길래
4) 일이 곧 끝날 것 같길래
5)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길래
6) 그 가게에 갔는데 여름휴가 기간이길래 못 사고 왔어.

2.

1) 폭탄 세일을 하길래 많이 샀어요.
2)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하길래 기다리고 있어요.
3) 마침 수업이 끝났길래 만나서 같이 왔어요.
4) 비가 올 것 같길래 우산을 샀어요. (준비했어요.)
5) 출퇴근 시간에 길이 막히길래 지하철로 가요.
   출퇴근 시간에 길이 막힌다길래 지하철로 가요.
6) 날씨가 좋길래 밖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3.

1) 어디가 아프
2) 무슨 일이
3) 도대체 누가 오
4) 얼마나 정신이 없길래 에어컨을 그대로 켜 놓고 외출했어?
5) 주말에 뭐 했길래 이렇게 준비를 안 한 거야?
6)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말도 없이 가 버린 거니?

◆문법 설명◆

## 1. '-길래' 평서문

**V·A-길래, N(이)길래**
**V·A-았/었/였길래, N이었/였길래**
**V·A-다/냐/라/자고 하길래, V·A-다/냐/라/자길래**
**V·A-겠/(으)시길래, V·A-(으)ㄹ 것 같길래, V·A-(으)ㄹ 듯하길래**

'-길래'는 말하는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먹고, 손으로 만진 후에 순간적으로 알게 된 상황이 말하는 사람이 한 행동이나 하고 있는 행동의 이유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앞 문장의 주어는 2인칭이나 3인칭이 되고 뒤 문장의 주어는 반드시 1인칭 주어여야 합니다.
'-길래'是指说话的人亲自用眼睛看，用耳朵听，用鼻子闻味道，用嘴吃，用手摸后瞬间才知道的情况，是说话的人做过的行动或者正在做的行动的理由或根据. 因此，一般前句的主语是第2人称或者第3人称，后句的主语必须使用第1人称.

예문)
-지나가는데 꽃이 예쁘길래 한 송이 샀어요.
-찌개가 짜길래 물을 더 넣었어.

**※ 만일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 느끼거나 자신의 행동을 깨달아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앞 문장에 오면 앞 문장의 주어는 꼭 1인칭이어야 합니다.**
如果前句的谓语是说话的人自己感受到或新领悟到自己的行动的事实，那么前句的主语必须使用第1人称.

예문)
-(나는) 어제 좀 피곤하길래 일찍 잤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길래 그냥 아무거나 썼어요.
-가: 손에 든 쇼핑백은 뭐예요?
나: (내가)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길래 근처에서 쇼핑 좀 했어요.

☑ 친구가 피곤하길래 먼저 가라고 했어요. (X)
친구가 피곤해하길래 먼저 가라고 했어요. (O)

☞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태나 기분을 지각한 것이 화자의 행동의 이유가 될 때 '-길래' 앞의 서술어는 'A-아/어/여하길래'나 'A-아/어/여 보이길래'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说话人感知到别人的状态或心情成为说话的人行动的理由时，前句的谓语应该用'A-아/어/여하길래'或者'A-아/어/여 보이길래'.**

+ 평서문에서 '-길래'는 말하는 사람이 지각한 상황의 이유를 추측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뒤 문장에 보통 2인칭이나 3인칭 주어가 오고, '-겠지'의 추측 표현이 뒤 문장에 같이 쓰입니다.
陈述句中说话的人对感知情况的理由推测时也能使用'-길래'. 这时后面的句子一般会用第2人称或第3人称作为主语， 推测表达的'-겠지'会写在句子的最后面.

예문)
-잘못한 걸 알길래 얼굴도 못 내밀겠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길래 그렇게 짜증을 냈겠지.

+ **'-길래'의 앞 문장의 상황이 뒤 문장의 상황보다 먼저 끝났을 때에는 앞 문장에서 '-길래' 앞에 꼭 '-았/었/였-'을 써야 합니다.**
**在一句话中'-길래'前已经产生的结果与'-길래'后的情况连接时,前面句子中'-길래'的前面一定要写'-았/었/였-'.**

☑ 동생이 감기에 걸리길래 병원에 데리고 갔어. (X)
동생이 감기에 걸렸길래 병원에 데리고 갔어. (O)

+ '-길래' 앞에는 추측의 '-겠-', '-(으)ㄹ 것 같다', '-(으)ㄹ 듯하다'나 주체 높임의 '-(으)시-'가 올 수 있습니다.
'-길래'的前面能使用推测的'-겠-', '-(으)ㄹ 것 같다', '-(으)ㄹ 듯하다' 或者主体敬语的'-(으)시-'.

예문)

-그렇게 나가면 감기에 걸리겠길래 옷을 더 입으라고 했지.

-지하철에서 어르신이 계시길래 보자마자 일어나서 양보해 드렸어.

-이따가 비가 올 것 같길래 친구한테 우산을 빌렸어.

-음식 맛이 괜찮을 듯하길래 예약하기로 했어.

☞ 하지만 추측의 '-(으)ㄹ 것이다'와 회상의 '-더-', 그리고 의지의 '-(으)ㄹ 것이다' 및 '-겠-'은 '-길래' 앞에 올 수 없습니다.

但是 '-길래'的前面不能使用推测的'-(으)ㄹ 것이다'和回忆的'-더-'以及意志的'-(으)ㄹ 것이다'和'-겠-'.

| | | | |
|---|---|---|---|
| ☑ | -겠- | 이따가 비가 오겠길래 우산을 샀어요. | (O) |
| | -(으)ㄹ 듯하다 | 이따가 비가 올 듯하길래 우산을 샀어요. | (O) |
| | -(으)ㄹ 것 같다 | 이따가 비가 올 것 같길래 우산을 샀어요 | (O) |
| | -(으)ㄹ 것이다 | 이따가 비가 올 거길래 우산을 샀어요. | (X) |
| | -더- | 차가 밀리더길래 그냥 걸어서 왔어요. | (X) |

+ '-길래'의 뒤 문장에는 미래 시제가 올 수 없지만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말하는 'V-(으)려고 하다'는 올 수 있습니다.

'-길래'后面的句子中不能使用未来时态，但是可以使用说话人的意图 'V-(으)려고 하다'.

| | | | |
|---|---|---|---|
| ☑ | -(으)려고 하다 | 마셔 봤더니 너무 뜨겁길래 이따가 마시려고 해요. | (O) |
| | -겠다 | 마셔 봤더니 너무 뜨겁길래 이따가 마시겠어요. | (X) |
| | -아/어/여야 하다 | 마셔 봤더니 너무 뜨겁길래 이따가 마셔야 해요. | (X) |
| | -고 싶다 | 맛있길래 내일 또 먹고 싶어요. | (X) |

☞ 하지만 당위의 '-아/어/여야 하다'나 희망을 말하는 '-고 싶다'는 뒤 문장에 올 수 없습니다.

但是后面句子中不能使用必须做的'-아/어/여야 하다'或希望说的'-고 싶다'.

## 2. '-길래' 의문문

**의문사 + V·A-길래, N(이)길래**
**의문사 + V·A-았/었/였길래, N이었/였길래**
**의문사 + V·A-다/냐/라/자고 했길래**
**의문사 + V·A-(으)시길래, V·A-(으)ㄹ 것 같길래, V·A-(으)ㄹ 듯하길래**

'-길래' 의문문은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을 지각한 후에 의문을 느껴서 그 상황을 초래한 이유를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 문장에는 반드시 의문사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길래'가 의문문에서 쓰일 때에는 평서문과 반대로 보통 말하는 사람이 지각한 상황이 뒤 문장에 옵니다. 그래서 보통 뒤 문장에는 2인칭 주어나 3인칭 주어가 오게 됩니다. 하지만 앞 문장에는 1인칭, 2인칭, 3인칭의 모든 주어가 올 수 있습니다.
'-길래'疑问句是指说话的人感知某种情况后感到疑问，并向对方提问导致这种情况的原因. 因此，**前面句子一定要写疑问词**。但是'-길래'在疑问句中使用的时候，与陈述句相反，一般在后面的句子中出现说话人感知的情况. 所以后面的句子主语一般使用第2人称或第3人称. 但是前面的句子中可以用所有的第1人称，第2人称，第3人称当作主语.

예문)
누구 -초대 손님이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인산인해야?
무엇 -성적이 대체 무엇이길래 3년 내내 공부에만 매달려야 하는 걸까?
언제 -소개팅이 언제길래 옷을 산다고 야단이니?
어디 -도대체 어디에 가길래 이렇게 새벽에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다 -내가 대체 어떻길래 다들 나를 무서워하는 거야?
어느+N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길래 이렇게 다들 쉬쉬해?
얼마나 -얼마나 싸길래 그렇게 잔뜩 사 온 건지 궁금하다.

**※ 그런데 만일 뒤 문장에 말하는 사람이 느끼거나 자신의 행동을 깨닫게 된 상황이 오면 뒤 문장의 주어는 1인칭이 오게 됩니다.**
**但是如果后面句子中出现说话人感受到或领悟到自己的行动的情况下，后面的句子主语须使用第1人称.**

뭐 예) 이별이 뭐<u>길래</u>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걸까?
무슨+N 예) 어제 대체 무슨 일이 있었<u>길래</u> 내가 너희 집에 있는 거야?

※ 추측 및 의지를 나타내는 '-겠-'과 '-(으)ㄹ 것이다', 그리고 회상을 나타내는 '-더-'는 '-길래' 앞에 올 수 없습니다.
'-길래'的前面不能使用表示推测及意志的'-겠-'和'-(으)ㄹ 것이다'以及表示回忆的'-더-'.

| | | |
|---|---|---|
| ☑ -(으)ㄹ 것 같다 | 성적이 얼마나 나쁠 것 같길래 이렇게 울상이야? | (O) |
| -겠- | 성적이 얼마나 나쁘겠길래 이렇게 울상이야? | (X) |
| -(으)ㄹ 것이다 | 성적이 얼마나 나쁠 거길래 이렇게 울상이야? | (X) |
| -더- | 성적이 얼마나 나쁘더길래 이렇게 울상이야? | (X) |

+'-길래'는 평서문에서 '변명'할 때 그리고 의문문에서는 상대방을 '핀잔'하거나 '비난'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변명할 때는 뒤에 '-은/는/인 줄 알았다' 나 '-지'등이 자주 옵니다. 그리고 핀잔하거나 비난할 때는 앞 문장에는 '도대체'나 '대체' 그리고 뒤 문장에는 '이렇게'나 '그렇게' 등이 자주 옵니다.
'-길래'在陈述句中'辩解'时和在疑问句中'当面斥责'或者'深度指责'对方时经常使用.
辩解时，后面经常出现'-은/는/인 줄 알았다'或'-지'等. 还有，在当面斥责或深度指责的时候，前句经常出现'도대체'或'대체'等,还有后面的句子中经常出现'이렇게'或者'그렇게'等.

예문)
-가: 뭐야? 청소 또 안 했어?
나: 아니, 별로 더럽지 않길래 내일 하려고 했지(변명).
-가: 얼마나 바쁘길래 얼굴 보기가 이렇게 힘들어?(핀잔)
나: 미안, 앞으로는 자주 연락할게.
-가: 도대체 집에서 뭐 하길래 아이 성적이 이래?(비난)
나: 그게 내 잘못이에요?